

재외한인문화연구

제2집

공주대학교
재외한인문화연구소

• 차례 •

편집자 서문 :

역사에 대한 발언으로서의 재외한인문화와 그 연구	1
조명희와 아동문예의 문제	김 영 미 5
중국에서의 남영전 문화현상에 관한 연구	
- 시집 『꽃이 없는 이 봄날에』를 중심으로	김 룡 운 35
중국조선족 수필문단의 변화 양상과 전망	
- 개혁개방 이후를 중심으로	김 순 희 71
웹 사이트 <고려 사람>에 나타난 CIS 고려인문학	한 블라디슬라브 89
키르기스스탄 고려인의 문화-역사적 정체성	마리아 사비나 141
아나톨리 김 소설의 서술구조의 특징	마테노바 U.U. 159
고려인 시문학의 주제 연속성	조 현 서 179
고려인 화가 박 미하일의 모성(母性) 연구	전 선 하 207
재아 한인 시문학 연구	
- 『로스 안데스 문학』 18호를 중심으로	송 주 영 231

■ 논문 투고 규정__247

■ 편집위원회, 편집 및 심사, 연구윤리위원회 규정__250

■ 공주대학교 재외한인문화연구소 규정__258

편집자 서문

역사에 대한 발언으로서의 재외한인문화와 그 연구

아직 겨울이 깊다. 그 깊이에서 막 벗어나려 하고 있다. ‘평화’를 기다리는 간절한 소식들이 오가는 요즈음이다. 근대사의 아픈 역사가 재외한인문화의 시발점이 되었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도 여전히 그 연장 선상에 놓여있음을 절감한다. 재외한인문화에 대한 성찰과 연구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담론이라면 이는 역사적 맥락에서 매우 정치적인 담론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나아가야 하는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 즈음 재외한인문화와 그 연구가 더욱 그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다.

『재외한인문학연구』 제2호를 낸다. 이번 호는 문학을 비롯하여 사회문화적 연구, 미술 현상에 대한 담론 등으로 논의의 범주가 넓어지고, 그 깊이 또한 더해졌음을 실감한다. 특히 중국과 CIS 지역 현지 연구자들의 논문이 돋보인다. 이는 재외한인문학이 그곳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증이다. 남영전, 아나톨리 김, 박 미하일 등은 재외한인의 문화와 문학 현상이 결코 과거에 갇힌 폐쇄적 현상이 아니라, 열린 미래를 향해 범인류적 가치를 드높이는 예술적 성과들이다. 그 예술적 성과들에 대한 이번 호의 논의 또한 뜻깊지 않을 수 없다.

김룡운은 중국에서 ‘남영전 문화현상’이라는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동인을 남영전이 민족을 넘어서 인류애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는 남영전이 지속적으로 견지해온 토템사상의 재현이고 승화로 간주한다. 민족정신으로부터 현재 인류가 다시 복원해야

하는 정신적 가치를 찾아내고 있음을 ‘남영전 문화현상’의 추동력으로 규명한다. 개척개방 이후 「중국 조선족 수필문단의 변화양상과 전망」(김순희)은 남영전 문화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선족문학의 내적 동력에 대한 설명이다.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수필의 장르적 특성상 조선족 문학의 내적 변화양상에 대한 규명이 면밀하다.

마테노바 U.U.는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아나톨리 김의 소설이 지닌 서술구조의 특성을 「연(蓮)」 「다람쥐」 등을 대상으로 분석해 내고 있다. 그는 아나톨리 김의 소설이 작가와 서술자, 특별한 영적 물질들이 상호연계를 보여주는 독특한 서사구조의 미학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마리아 사비나는 「키르기스스탄 고려인의 문화·역사적 정체성」에서 키르기스스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특색’을 찾는 것을 창작의 동기로 설명한다. 그는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작가들의 문학작품과 다큐멘타리적인 저널리즘 텍스트를 20세기 고려인들이 역사적인 운명과 전통을 다음 세대의 문화 영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널리 알려진 재러 소설가이자 러시아 공훈화가인 박 미하일의 그림을 꼼꼼히 읽어 그 안에 들어있는 ‘모성’을 규명해낸 전선하의 글도 이채롭다. 이는 박 미하일 소설이 지니고 있는 본원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논의는 「웹 사이트 <고려사람>에 나타난 CIS 고려인문학」(한 블라디미르), 「고려인 시문학의 주제 연속성」(조현서), 「조명희와 아동문예의 문제」(김영미) 등의 글과 함께 현재 CIS 고려인 문화와 문학을 읽는 통시적이며 동시에 공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한 블라디미르는 웹 사이트 <고려사람>에 실린 아나톨리 김, 블라디미르 김, 미하일 박, 최영근, 디아나 강, 스타니슬라브 리 등의 작품을 분석하여 고려인문학이 두 개 문화의 합금을 통해 더욱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조현서의 글은 고려인 시문학 1세대인 조명희부터 4세대에 이르는 마르따 김, 스타니슬라브 리에 이르기까지 시공간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향과 모국어에 대한 그리움 등 같은 주제의 연속 선상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갈파한다. 김영미는 연해주 시절 조명희가 주력한 ‘아동문예’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조명희 문학의 시발점이자 도착점이 ‘아동문예’임을 밝히고, 이를 고려인문학을 해명하는 중요한 단서로 제시한다.

『로스 안데스 문학』에 실린 작품을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한인 시문학의 특징을 규명한 송주영의 논문 또한 재외한인문학 연구의 자장을 넓힌 글이다. 아르헨티나에서 발간된 한글 문예지에서 전문적 작가가 아닌 평범한 생활인이 쓴 글들은 재외한인사회에 위로를 주었고 민족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아무쪼록 이번 호에 담은 논의와 궁구가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염원과 가능성에 대한 힘찬 발언이기를 바란다. 『재외한인 문화연구』는 더욱 크고 넓은 시선에서 모든 지혜를 모아 평화를 만들어내는 담론의 열편 학술의 장이고자 한다. 깊은 겨울의 기다림 끝에 봄은 온다.

2018. 11. 30.

공주대학교 재외한인문화연구소 편집위원회

조명희와 아동문예의 문제

김 영 미

■ 차례

국문 초록

1. 봉건과 식민지의 현실
2. 망명의 혼과 마르크스
3. 민족의 뿌리 - 모국어
4. 모국어의 궁극, 아동문예
5. 단편 민족주의의 좌절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 초록

‘민족’의 문제는 조명희 문학을 관철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그에게 망명지 연해주는 민족주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공간의 선택을 의미한다. 당시 조선에서 좌절된 그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유토피아의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다. 망명지에서 그의 문학은 민족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었다. 모국어는 그에게 민족주의의 뿌리이다. 또한 그 모국어는 봉건을 벗어난 토착어이다. 토착어는 계급성과 민족성을 지닌 언어이다. 이에서 조명희는 동요로 귀환한다.

이 토착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동어이다. 이 아동어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서 그는 ‘아동문예를 낳자’라 발언하고, 동시를 창작한다. 이로 본다면 조명희에게서 동시는 민족주의를 구현하는 언어적 방법이다. 그가 주장한 쉬운 어린이의 언어, 단조로운 리듬, 무산계급적 이데아와 감정이 드러난 아동문예는 망명지 소비에트에서 조명희 문학의 시작점이다. 그는 이를 통하여 민족을 발견하고 해방을 이루고자 꿈꾸었다.

하지만 조명희가 꿈꾼 민족주의는 망명지 소비에트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소비에트로의 귀화나 통합이 아닌 지속적인 분열을 야기하고 결국 국가적 통합

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순한 사상이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은 망명지에서 모국어로 달린 민족주의를 지향한 결과이며 그의 좌절이다. 하지만 조명희가 망명지에서 뿌린 문학의 씨앗, 쉬운 토착어, 단순한 리듬, 무산계급적 이데아와 감성이 드러나는 문예 현상은 이후 고려인문학으로 단단히 착근되어 오늘에 이른다.

주제어 : 조명희, 고려인문학, 망명, 연해주, 아동문예, 민족주의, 모국어, 토착어, 동요

1. 봉건과 식민지의 현실

카프의 맹원이었던 조명희의 망명은 한국문학사에서 여러 함의를 지닌다. 그 해석 또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의 시가 갖는 낭만성은 『봄잔디밭우에』로 대표되는 초기시부터 카프 시기 그리고 이후 망명지 연해주에서 보여준 문학 활동까지 조명희 문학의 저층이다.¹⁾ 조명희의 망명 역시 그의 낭만주의자적 면모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양상의 하나다.

그러나 그의 망명은 먼 곳에 대한 동경의 낭만성이 봉건과 식민의 당대 상황에서 불구적 양태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게 망명의 공간은 탈주의 공간이며 동시에 도피적 유토피아의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조명희는 망명지에서 『선봉』 등으로 볼셰비키 문학 활동의 중심에 선다. 하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공산주의가 될 수 없는 이유²⁾는 그의 문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IA5A2A03068653).

- 1) 우찬제, 「낭만적 상실과 현실적 반항의 시학-1920년대 조명희 시의 변모 양상」, 『민족과 문학』, 1989년 가을호 참조.
- 2) 조명희는 공산주의자란 낙인으로 근대문학사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어왔다. 하지만 조명희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회주의자로 명명되어야 옳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론들이 포함될 수 있는 광의의 이데올로기 개념

학이 천래적으로 지닌 낭만성에 연유한다. 그의 망명은 진정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민족주의자였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 강점하에서 민족주의 문학을 견지할 수 있었던 카프가 강제해산되자, 그가 택한 선택이 연해주로의 망명이다. 연해주는 당시 중국과 달리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곳이었기에 그의 선택에는 이미 민족의 문제가 자유로운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명희의 망명지 연해주는 일제의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는 공간일 수 있었다. 그곳은 조명희가 꿈꾸었던 사회주의 문학이 허용될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그가 문학적으로 지향해 온 봉건 탈피가 가능한 곳이었다. 조명희에게 연해주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겹치는 문학 공간이다.³⁾

하지만 조명희가 내세운 민족의 문제는 다민족 국가인 러시아가 취하는 입장과 상충될 수밖에 없었다. 민족의 문제가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조명희가 민족의 문제를 문학에 내세울수록 그는 러시아의 금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죽음은 바로 이 지점에 놓여있다.⁴⁾

이 글에서는 연해주에서의 조명희의 문학이 지닌 민족주의의 문제를 그가 역설한 아동문예의 문제⁵⁾와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

이다. 조명희가 지닌 문학적 낭만성과 함께 공산주의를 옹호한 이론적인 글을 쓴 적이 없는 삶의 궤적 등은 이러한 것에 대한 방증이다. 글의 문면에 노출되는 마르크스, 레닌, 소비에트,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 부르조아 등에 대한 언급으로 그를 공산주의자로 명명하는 것은 매우 표피적인 해석이다. 오랫동안 조명희와 그 문학에 대한 평가는 오류의 범주에 갇혀 있다.

- 3)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에서 다룬 바 있다. 김영미, 「연해주·조명희·이데올로기·모국어」,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53-76쪽.
- 4) 조명희는 1937년 러시아 비밀경찰에 연행되어 처형된다. 그의 죽음은 급성결핵 조직염 등의 여러 원인으로 언급되어왔다. 1991년 조명희의 아들 조 미하일 뎬헤 예위츠가 찾아낸 조명희의 처형 기록에는 처형 이유가 ‘민족주의자’로 되어있었다. 우정권, 「조명희의 사망 이유」, 『조명희와 선봉』, 역락, 2005, 13-18쪽.
- 5) 연해주 시기 조명희의 문학에 대한 논의는 다수 있으며 그의 문학적 성취와 의미를 해명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하지만 연해주에서 조명희가 주목한 ‘아동문예’에 대하여 살펴본 논의는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조명희의 망명

여 조명희 이후 고려인문학이 끈질기게 지속될 수 있었던 내부 동력이 무엇이었는가를 검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 망명의 혼과 마르크스

조명희는 1924년 『금잔디밭위에』를 발표한다. 첫 근대 시집인 이 책의 「머리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민족문학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공간의 무한의 길을 걷는 우주를 한 불사조에 비할진대, 우주 자체나 한 마리의 새나 한 사람의 영혼이 무엇이 다르리오.

한 생명이 굴러나감에 거기에는 반다시 선과 빛과 소리가 잇을 것이다.

… 중략 …

우리는 보들레르가 될 수 읊으며 타고어도 될 수 읊다. 우리는 우리여 하 할 것이다. 우리는 남의 것만 쓸대 읊시 흉내 내지 마를 것이다. 붉은 장미가 웃더니 당신의 레이쓰가 웃더니 하는 서인의 노래만 읊기려 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산 빗탈길 돌아들며 지개 목발 두드리어 노래하는 초동에게 향하여 드르나. 한울 빗은 멀니 그윽하고 얇은 햇해 가만히 쏘이는 봄에 그 햇빛의 상한 마음을 저 혼자 아는 듯이 가는 바람이 스칠 때마다 이리저리 나뉘끼는 실버들 가지를 보다 조선혼의 울음소리를 거 귀서 들을 수 있다. — 「머리말」, 『금잔디밭위에』 부분⁶⁾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은 ‘조선혼’이다. 조명희는 그것을 “산 빗탈길 돌아들며 지개 목발 두드리어 노래하는 초동”, “한울빗은 멀니 그윽하고 얇은 햇해 가만히 쏘이는 봄에 그 햇빛의 상한 마음을 저 혼자 아는 듯이 가는 바람이 스칠 때마다 이리저리 나뉘끼는 실버들 가지”에서

문학과 이후 고려인 시문학을 이해하는데 이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6) 오윤호, 「조명희 시집 『봄잔디밭위에』 연구」, 『우리말글』 59집, 우리말글학회, 2013, 313-316쪽에서 재인용. 띄어쓰기는 필자. 이하 같음.

찾는다.⁷⁾ 시는 그 조선혼을 담아내는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카프로 옮겨간다. 하지만 일제의 억압 상황에서 조명희의 이러한 시적 신념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조명희에게 망명지 러시아는 민족혼을 억압하는 일제로부터 벗어나는 공간이다. 조선혼을 시에 담아내는 것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와 함께 봉건의 타도를 외치던 마르크스의 공간⁸⁾으로의 이입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러시아로의 완전한 동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그는 모국어로 「짓밟힌 고려」를 발표함으로써 망명 이전에는 불허되었던 민족의 혼을 소리 높여 불러낸다.

일본 제국주의의 무지한 발이 고려의 땅을 짓밟은 지도 벌써 오래다.

그놈들은 군대와 경찰과 법률과 감옥으로 온 고려의 땅을 엮어놓았다.

칭칭 엮어놓았다.—온 고려 대중의 입을, 눈을, 귀를, 손과 발을.

그리고 그놈들을 공장과 상점과 광산과 토지를 모조리 삼키며 노예와 노예의 뼈를 몰아 채찍질 아래에 피와 살을 사정없이 굶어먹는다.

보라! 농촌에는 땅을 잃고 밥을 잃은 무리가 북으로 북으로, 남으로 남으로, 나날이 쫓기어 가지 않는가?

뼈품을 팔아도 먹지 못하는 그 사회이다. 도시에는 집도, 밥도 없는 무리가 죽으러 가는 양의 떼같이 이리저기 몰리지 않는가?

— 「짓밟힌 고려」 부분⁹⁾

이와 같이 일제에 항거하는 높은 목소리의 시는 일제 강점하 모국에 서는 결코 발표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정신의 살아있음을 조명희는

7) 『불잔디밭위에』의 「머리말」에 대하여 오윤호는 조명희의 민족문학론에 대한 입장이 드러나는 글이며, 근대문학의 첨단에서 새로운 ‘조선적’ 시 형식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던 조명희의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앞의 글, 317쪽.

8) 김재용, 「연해주 시절 조명희 문학의 재인식」, 『한민족문화연구』 60, 한민족문화학회, 2017, 62쪽.

9) 『포석 조명희 전집』, 동양일보 출판국, 1995, 384쪽. 이 글에서 인용 텍스트는 주로 이 저서에서 사용하였다. 다만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괄호 안에 표시된 한 자어는 원래의 형태로 살렸다. 이후 『전집』으로 줄여 쓰기로 한다.

이역 망명지에서 보여준다. 「짓밟힌 고려」가 주는 울림은 그 안에 든 열렬한 망명혼으로부터 온다.¹⁰⁾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그는 끊임없이 민족의 문제에 집착한다. 조명희에게 조선어로의 문학 행위는 민족의 혼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그의 시가 표면적으로 마르크스를 언표하고 있으면서도 그 심연에는 민족의 혼이 들어있는 이유이다.

(가) 짓밟힌 무리의 흘린 핏방울 방울이
지심으로 흘러, 흘러 폭발이 되어
새 화산, 새 세기의 화산이 솟았다.
북방에 높이 솟은 새 ‘히말라야 산’—소비에트 공화국!
그 앞에 낡은 제도는 골짜기같이 무너졌다.
온 세계는 바다같이 끓는다.
오, 우리의 모국 소비에트 공화국의 거룩한 탄생이여!
자라 나가는 우리의 힘이여!
억척스러운 걸음—걸음이여!
열네 해를 맞은 이 날 아침, 맑은 햇빛 아래에
더 높이 날려라, 붉은 깃발을! 더 높이 울려라! 승리의 쇄북을!
만국의 승냥이는 이 갈며 떴다, 떴다.
사자야, 새 화산의 아들 건장한 무리야!
원수를 향하여 소리쳐라, 동무를 불러 소리쳐라,
더 한층 높이 쳐라, “만세!!!” “만세!!!” — 「10월의 노래」 부분¹¹⁾

(나) 봄! 새 나라에 펼쳐오는 봄,
5년 계획 새해 해의 봄,
하늘에도, 땅에도 새봄이 나래를 친다.
새 계획을 물고 나래를 친다.
일어서라 천만의 노력 대중아!
봄과 한가지로 펼쳐 일어서라! — 「볼셰비키의 봄」 부분¹²⁾

10) 이에 대하여는 김영미의 앞의 글에서 언급된 바 있다.

11) 『전집』, 387쪽.

위의 두 시는 모두 마르크스 혁명과 관련되어 있다. (가)는 러시아의 10월 혁명이 열네 해가 된 것을 찬양하여 노래한다. 러시아의 10월 혁명은 “짓밟힌 무리”가 흘린 피로 일어난 ‘폭발’로 명명된다. 이 폭발에서 “새 세기의 화산”이 솟아 “새 히말라야 산—소비에트 공화국!”의 탄생을 낳는다.

새로운 ‘공화국’의 탄생은 봉건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 앞에서 낡은 제도는 골짜기같이 무너지”는 것은 봉건의 몰락이며, 이는 해방이다. 따라서 조명희에게 10월 혁명과 소비에트 공화국은 봉건을 벗어나 “우리의 모국”으로 자리한다.

하지만 이 ‘모국’은 이념으로서의 모국이다. 소비에트 공화국의 ‘사자’는 날뛰는 만국의 ‘승냥이’와 ‘원수’로 대립하면서 대유의 의미향을 갖는다. 이는 ‘봉건/반봉건, 억압/자유, 지배/피지배의 함의와 계열체’를 이루면서 ‘봉건국가/탈봉건국가’로의 의미 전이를 가져온다. 결국 조명희는 탈봉건에 대한 강한 열망을 10월 혁명의 성공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가 시를 쓰는 모국어는 소비에트와의 거리를 만드는 장치이며 동시에 그가 떠나온 땅 조선의 ‘탈봉건’을 말하는 무기이다. 러시아의 10월 혁명에 대한 찬양 아래 조명희는 조국이 처한 봉건에 대한 벗어남의 열망을 드러낸다.

(나)는 러시아 10월 혁명의 주체가 된 볼셰비키와 관련된 시이다. ‘봄’은 혁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거기서 중요한 주체는 ‘노력 대중’이다. 이는 혁명으로 탄생한 주체이다. 볼셰비키 이전에는 호명되지 않던 이들을 조명희는 “일어서라 천만의 노력 대중아”로 호명하고 있다. 그는 이를 모국어로 호명함으로써 그의 시에서 조선 사람이 그 범주 안으로 포섭된다. 결국 “일어서라 천만의 노력 대중아”의 외침은 조선과 조선 사람을 향한 외침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시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내가 여기로 나올 때의 일만 생각하고 네가 그저 고무신 공장에서 무사히 일하는 줄만 알았구나

... 중략 ...

그래 네가 동맹 파업에 참가하였다고, 비밀 선전문을 여직공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그 독수리 같은 놈들이 너를 병아리같이 채어다가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었겠지. 취조실의 의자 위에 엮매어 놓고 연한 뼈를 두드리며 살을 터치며 독사의 눈찌로, 서캐 훑는 숨씨로 너를 조사라고 다루었겠지?

... 중략 ...

자본 사회에서 무산 계급의 여자들이 돈에 끌리어 허영에 팔리며, 부잣집 자식들의 꼬임에 빠지어 그놈들의 입에 씹히다가 배알아지는 산 고깃덩이가 흔히 되거든 너만은 그것이 되지 않으려는 값으로, 제 부모의 일, 제 형의 일을 생각하고 또는 제 계급의 일을 생각하고 옳은 일을 걸어오던 값으로 그런 일을 당하였다.

... 중략 ...

채옥아, 지금은 새 봄이 막 돌아오는구나? 건설이 무성한 삼림같이 높고 크게 자라며, 수천만 노력 대중의 힘이 엮히고 설켜어 뛰는 이 나라에, 활개치는 봄과 함께 공격의 소리가 더 높아지는구나. 나는 다시금 힘을 가다듬어 뜨락또르의 채를 잡겠다. 피어지는 봄과 함께 이 나라의 힘을 키워주겠다. 이것이 건설을 위함이고 혁명을 위함이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조국인 이 나라를 사랑함이고 앞날에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될 조선을 사랑함을 내나 내가 잘 알고 잊지 않느냐?

채옥아! 이 사이는 밤이 많이 짧아졌다. 벌써 멀리서 우는 닭의 울음 소리가 고요한 밤을 스쳐 들리어 오는구나. 할 말은 가없으나 이 다음으로 미루고 그만 붓을 놓겠다. 부디 몸 조심하여 지내다가 출옥되기를 바란다.

멀리서 그리는 네 형 영옥으로부터 — 「아우 채옥에게」 부분¹³⁾

이 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우 채옥’에게 ‘형 영옥’이 쓴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채옥’, ‘영옥’의 여성 퍼소나와 청자를 설정하여 당시

13) 『전집』, 399-403쪽.

조선의 봉건과 식민 상황에서 여성이 당해야 했던 억압과 착취의 양상을 잘 드러내 준다.

시인은 편지를 쓴 주체 ‘영옥’을 통하여 조선의 봉건과 식민의 상황이 갖는 문제를 비판하고, 이에 대해 저항하는 이들을 격려한다. 또한 조선과 이 나라 환하고 힘찬 러시아를 대비하여 드러내면서, 러시아를 프롤레타리아의 조국으로 명명한다. 자신이 이곳에서 다시 힘을 가다듬어 “뜨락도르의 채”를 잡는 것은 건설, 혁명, 이 나라를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앞으로 프롤레타리아의 국가가 될 조선을 사랑함이라고 밝힌다.

이로 본다면 조명희의 러시아에서 문학 활동은 시에서 ‘영옥’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결국 ‘건설→혁명→러시아(프롤레타리아 국가)→프롤레타리아 국가 조선’을 향해가는 과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명희는 모국어 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되는 조선을 향해가는 절대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명희에게서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당대의 봉건과 식민의 이중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국가였다. 그것은 혁명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조명희에게 모국어 문학은 이 혁명의 방법이다. 거기서 마르크스는 혁명의 모습을 보여준 한 준거 또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조명희는 러시아에서 민족을 구현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다민족 사회인 러시아에서 민족의 강화는 마르크스 이론을 구심력으로 하는 체제로부터 멀어지고 벗어나는 것이다. 민족의 문제를 내세울수록 반(反)마르크스의 입장은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로 고려인을 강제 이주시키기 전 조명희를 처형한 것은 러시아의 매우 잔인한 정치적 행위이다.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마르크스의 내부로 고려인이 동화되어 들어오기를 원했기 때문¹⁴⁾에 그에 방해되는 조명희를 강제이주 전 처형함

14) 고려인의 강제이주가 소비에트의 정치적인 책략이며 그 맥락에서 조명희가 처형당했다는 정황은 김병화 콜호스와 고려인 사회를 살핀 다음 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집단농장화 공작은 1930년대 초로서, 1920년대 말에 집단농장화한 극동(연해주 지역)보다도 소비에트화가 약간 늦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즈베크 지역은 극동지역보다 소련화가 약간 늦게 진행되었는데,

으로써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미리 소거한 것이다.

3. 민족의 뿌리 - 모국어

조명희의 망명은 조선을 벗어남으로써 그곳에서 불가능했던 민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론적 모색이었다. 하지만 망명지 러시아에서 민족의 문제는 공산주의로의 함몰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를 강조¹⁵⁾할수록 결국 민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조명희의 문학적 고뇌가 생긴다. 그는 모국어를 사회주의 상황에서 민족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방책으로 인식한다.

조명희는 망명 이후에도 모국에 대한 끊임없는 응시와 기대를 갖는다.¹⁶⁾ 이산의 길을 걸어야 했던 그에게 모국은 오로지 언어, 즉 모국어

각 지역의 민족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극동지역은 주로 고려인들이 월경민족 즉 이주민족으로서 살고 있었고, 우즈베크 지역은 토착 민족의 세력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집단농장화 정책은 예상 가능한 토착세력의 반발이 강한 지역을 피해서 이주민족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먼저 실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경수, 『한국문화론-해외편』, 일지사, 1995, 272쪽. 이 글은 연해주 고려인의 강제이주는 소비에트의 집단농장화 정책 실현을 위해 민족 배치의 문제를 실험한 것으로 본다. 집단농장화 정책은 민족주의가 지니는 배타성과 상충한다. 따라서 조명희의 처형은 그 충돌을 방지하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 15) 고려인문학사에서 연해주 시기 고려인문학은 ‘항일의지와 사회주의 건설’로 명명된다. (정덕준 외, 『CIS 고려인문학사와 론』, 한국문화사, 2016, 26-32쪽) 이는 연해주 시기 고려인문학에 나타난 사회주의의 문제와 그 건설에 대한 독려가 마르크스의 정치적 상황에 노출된 결과이다. 문학에서 사회주의를 강조할수록 민족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데에 조명희의 고민이 놓인다.
- 16) 망명 후 조명희의 문학은 여전히 조선과 연결되어 있다. 망명 후 최초로 발표한 시 ‘짓밟힌 고려’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후로도 그의 문학 활동은 조선과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가 러시아를 칭송하는 시를 쓴 것 또한 조선과의 관계에서 빠르게 읽고 해석될 수 있다. 러시아의 정치나 사회제도에 대한 그의 찬양은 반봉건의 혁명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조선의 봉건성이 아직 혁명 이전의 상태로 여전히 공고히 남아 있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에 대한 그의 찬양은 봉건을 벗어나야 하는 조선의 현재를 시의 배면에 깔고

에 존재할 수 있었다. 그에게 모국어는 모국의 뿌리였으며 민족주의를 견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상이자 방법이었다. 모국어로 창작 발표하는 그의 문학 활동은 이국에서 모국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다.

예술 작품에서는 결코 내가 아니라 ‘우리Wir’가 말을 한다.¹⁷⁾ 문학에서 ‘우리’는 일차적이고도 강력하게 그가 말하는 언어와 그 언어가 만드는 의식에 의해 구성되고 형성된다. 다음 글에서 조명희가 보여주는 기쁨과 환호는 망명지에서 그에게 ‘우리 문예’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단적으로 알게 한다.

우리 문예의 꽃다발이 두 번째 나아간다. 빛깔이 찬란하지 못하고 향기가 높지 못하다고 탓하지 말아라.

압박의 조선에선 입도 못 벌릴- 혁명과 건설에 끓는 말, 원수를 겨누는 칼 같은 말들이, 이 말의 꽃들이, 원동 조선인 노력자들의 예술의 처녀지에서 피기 시작한다.

팔십 년 전부터 붓짐 메고 도망온 사람들의 자손들이 오늘에 이 꽃을 피울 줄이야 누가 뜻하였으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재용은 조명희가 1937년 처형당하기 직전 쓴 시 「아무르를 보고서」를 소련 중심 국제주의에의 환멸이 들어있는 시로 읽는다. 조명희는 아무르강에서 정착 아무르강보다는 이의 한 지류인 우수리강 지역에 큰 관심을 둔다. 이는 자신이 조선을 떠난 때의 변경지역에 대한 상상이며, 동시에 이 지역은 당시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 등장하는 ‘원수들의 창끝이 번쩍이는 국경을 끼고서’에서 원수는 일본 제국주의로 보았다. 조선의 해방에 관심이 없었던 소련에 대한 반발이 그의 처형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한다. 김재용, 「연해주 시절 조명희 문학의 재인식」, 『한민족문화연구』 60, 한민족문화학회, 2017, 51-70쪽.

- 17) T. W. 아도르노,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2000, 265쪽. 아도르노는 ‘예술의 언어적 성격과 집합적 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예술의 언어적 성격을 예술에서 무엇이 말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반성을 유발한다. 제작자가 수용자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예술의 주체이다. ... 시의 문법적 자아는 작품을 통해 잠재적으로 말을 하는 자아에 의해 비로소 정립된다. 즉 경험적 자아가 정신적 자아의 기능일 뿐이지 그 역은 아니다. ... 그러한 자아는 작품의 언어 행위를 통해 작품 속에서 구성된다.”(같은 책, 262쪽) 이러한 아도르노의 설명은 조명희가 망명지에서 선택한 언어-모국어의 의미를 극대화한다.

소비에트의 햇빛을 받아, 소비에트의 이슬, 비를 맞아, 위대한 레닌의
손공으로 자라온 이 꽃이 조국의 동산 한 구석에 피었다.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기쁘냐?

우리의 꽃이! 우리의 꽃이! 쫓기던 무리의 자손인 우리들의 이 꽃이!

원수의 몸엔 박히는 총알이 되고 우리의 손엔 용기의 깃발이 피는 이
꽃이! — 「소품 일 편」 부분¹⁸⁾

1937년 8월에 출판된 소련 조선인 작가들의 작품집 『노력자의 조국』
제2호의 머리말이다. 망명지에서 문예지 발간을 맞는 조명희의 기쁨과
흥분이 격앙된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 있다.

주목할 부분은 ‘우리 문예’라는 조명희의 호명이다. ‘우리 문예’는 우
리말로 된 문학작품이다. 이것이 망명지에서 나오는 기쁨을 그는 그대
로 노정하고 있다. 그것은 “압박의 조선”에서는 불가능한 문예이다. 망
명지 원동에서 가능한 것이기에 더 감격스럽다. 연해주의 조선인 노력
자들의 예술의 처녀지에서 피는 “말의 꽃”에 그는 감격한다. 이 꽃은
소비에트의 햇빛, 이슬, 비, 레닌의 상황에서 자라고 개화가 가능한 것이
였다. 이 꽃이 자라고 개화한 공간을 조명희는 ‘조국’으로 명명한다. 그
꽃은 소비에트에서 자라고 개화했지만, 그 씨앗은 조선에서 온 것이다.
“팔십 년 전부터 붓짐 메고 도망온 사람들”이 그 씨앗에 해당한다.

이 시에서 말하는 조국 소비에트는 그 발아와 성장, 개화가 가능한
공간이다. 이는 조선에서 봉건과 일제에 의해 철저히 봉쇄된 것이었다.
조명희가 이 글에서 말하는 조국은 이 봉쇄된 것이 가능해지는 것, 꽃이
씨앗을 내리는 땅의 의미를 지닌다.¹⁹⁾ 그 땅은 점유자의 땅이며 조국은

18) 『전집』, 442쪽.

19) 이러한 맥락에서 1988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펴낸 고려인 종합시집 『꽃피는
땅』의 제목은 의미심장하다. ‘땅’은 씨앗을 전제한 공간이다. 이 명명에는 이주
와 안착, 뿌리내림, 그 씨앗의 근원에 대한 의미의 원형이 들어있다. 이 시집에
는 조명희의 시가 맨 앞에 실려 있다. 조명희를 고려인문학의 시작점으로 보고
자 하는 내부적 함의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명희의 대표작으로 「시월
의 햇빛」과 동요 3편(「전보대」 「달아나기」 「연필침」)을 실고 있는데, 이는 고려

그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고 언명이다.

후반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발언은 그에 대한 강력한 ‘지킴’의 의미를 지닌다.

만일에
원수가
우리 조국 위에
폭풍을 몰아오는 날이면,
우리의 동산을 짓밟으려는 날이면,

만일에
원수의
이발이
우리 조국으로 향하는 날이면,
나의 살, 나의 살인 우리 조국의 살을 물려는 날이면,

동무야, 한 줄기 늘어선 칼날같이 일어서 나아가자!
우리는 총과 꽃을 잡은 소비에트의 애국주의자!
젊은 심장을 바친 소비에트의 애국주의자! —『소품 일 편』 부분²⁰⁾

이 시에서 표면적으로 “우리 조국”은 소비에트로 보인다. 그러나 씨앗의 문제를 전제한다면 우리 조국은 ‘우리의 씨앗이 싹 트고 자라는 땅’이다. 소비에트는 그 공간의 외부적 명명이라면 우리 조국은 내면적 명명이다. 그 구분은 언어에 의해 가능해진다. “우리 조국”이라고 모국어로 명명하는 것이 가능할 때 그것은 ‘타자’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점유하는 우리의 공간이다. 공간을 빌어 주체를 세우는 방법이다. 따라서 젊은 심장을 바친 소비에트의 애국주의자는 소비에트란 공간에서

인문학에서 조명희의 동시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 글은 그러한 점에 대한 궁구이다.

20) 『전집』, 443쪽.

“우리 조국”이라 명명되는 곳을 철저히 지키려는 애국주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비에트의 애국주의자”에서 소비에트는 대상/거주 공간이며 애국주의자는 씨앗을 지키려는 자, 곧 민족성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로 읽을 수 있다.²¹⁾

그의 강한 발언은 소비에트에서 민족성을 지키려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조국 소비에트를 강한 애착으로 호명할수록 그것은 소비에트에서 그가 뿌리내려 만들고자 한 민족 국가에 대한 절대적이며 안타까운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소비에트와 정치적으로 위배되는 태도이며 발언이기도 하다. 다민족 국가인 소비에트에서 민족을 말할수록 그것은 분열과 벗어남, 위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명희에게 모국어는 전대 봉건에 오염되지 않은 토착어를 의미한다. 그 토착어는 민족성과 계급성을 담보한 언어이다. 이것은 봉건을 벗어나는 언어적 통로였다. 식민과 봉건을 벗어난 반봉건적이며 반계급적 언어에 해당한다. 이는 조명희가 당대 작가로서의 계급적 우월성을 버리고²²⁾ 프롤레타리아 안으로 그의 문학적 위치를 옮기도록 만든다.

맹세하고 나서자!

건설의 울에 둘러선 나의 동무야,

너의 피로 이룬, 나의 피로 이룬 우리의 혁명,

21) 이 시는 조명희가 오랫동안 한국문학사에 공산주의자로 불리고 그의 문학이 불온시 되어온 근거를 보여준다. 특히 “동무야, 한 줄기 늘어선 칼날같이 일어서 나아가자! 우리는 총과 꽃을 잡은 소비에트의 애국주의자! 젊은 심장을 바친 소비에트의 애국주의자!”와 같은 발언은 그가 공산주의자임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그의 시를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읽은 결과로 판단된다. 이 시의 저층을 면밀히 살펴보면 민족주의자 조명희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그는 다른 글들에서도 공산주의를 직접적으로 찬양한 경우가 없는 점은 그 방증이다.

22) 이러한 점은 근대문학 공간에서 이광수, 김억, 정지용, 김영랑 등이 보여준 태도와 다르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를 보여준 문학인들이었다. 이들의 문학 행위가 고급어(雅語)의 언어로 구축된다는 점은 그 징표다.

너의 뼈로 이룬, 나의 뼈로 이룬 우리의 건설,
 이 혁명을 지키려, 이 건설을 옹호하려,
 팔 걷고 맹세하여 나서자 나서자! — 「맹세하고 나서자」 부분²³⁾

이 시는 ‘맹세’라는 잘 알려진 한자어 말고는 쉬운 한글로 되어있다. 평이한 언어를 통하여 그는 ‘우리’와 ‘동무’의 내부로 이입한다. 나와 나는 모두 건설의 노동자들이다. ‘맹세하고 나서라’라는 수직적 명령이 아닌, ‘나서자’의 청유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평등성을 담보한 언어 양태이다.

모국어의 궁극에 봉건의 이데올로기로 때 묻지 않은, 어려운 한자어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아동문예가 놓인다. 이러한 양상은 어른의 언어가 아닌 어린이의 언어에 대한 관심, 아동문예로 이어진다.

4. 모국어의 궁극, 아동문예

조명희의 망명 이후 문학 활동이 그 이전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아동문예’에 대한 관심이다. 조명희는 망명지에서 9편의 시와 함께 8편의 동요,²⁴⁾ 6편의 평론을 발표한다.²⁵⁾ 창작지에서 동요의 비율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6편의 평론에서 「아동문예를 낳자」는 1935년 3월 18일자 『선봉』에 발표된 것으로, 평론 중 가장 먼저 발표된 글이다. 아동문예에 대한 그의 관심이 매우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23) 『전집』, 392쪽.

24) 여기서 동요는 동시와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25) 이는 『전집』에 의한 수치이다. 그러나 『전집』에 조명희 동요로 실려 있는 「소금쟁이」와 「샘물」은 각각 한정동, 주요한의 작품이다. 이들 작품이 조명희의 동요로 실려 있는 것은 연해주에서 그가 동요를 매우 중시한 점을 예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여 수치는 전집에 따라 표기하였다. 따라서 연해주 시기 발표한 조명희의 동요는 6편으로 보이지만, 소실된 작품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확한 수치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 「소금쟁이」 「샘물」은 오류의 여지가 있어 이 글의 분석 대상에서 논외로 한다.

망명지에서 어린이는 그곳 사회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민족의 상실을 의미한다. 조명희에게 아동문예에는 이를 막아, 민족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자 한 굳은 의지가 들어있다. 또한 이러한 점은 조명희가 추구가 민족어의 심층과 연결되어 있다. 조명희에게 민족어는 곧 봉건에 오염되지 않은 토착어를 말한다. 그 토착어는 계급성과 민족성을 동시에 지닌 새로운 문학의 언어로 존재한다. 그것은 새롭고 신선한 언어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 원형을 조명희는 어린아이의 언어에서 찾는다.

망명 이전 조명희는 ‘어린 아기’에 대한 한없는 감탄과 신뢰를 보여준 바 있다.

(가) 오오 어린 아기여! 人間 以上の 아들이여!

너는 人間이 아니다

누가 너에게 人間이란 이름을 붙였느뇨

그런 侮辱의 말을…….

너는 善惡을 超越한 宇宙 生命의 顯像이다

너는 모든 아름다운 것보다 아름다운 이다.

네가 이런 말을 하더라

“할머니 바보! 할머니 바보!”

이 얼마나 귀여운 辱說이며 즐거운 音樂이뇨?

— 「어린 아기」 부분²⁶⁾

(나) 보라 영원히 그 아기는

터지려는 지구의 심장을

부드러운 손으로 껴매어 주며

넘어지려는 생명의 바퀴를

작을 팔로 바치고 서서

머나먼 나라의 길을

어여쁜 손으로 가리켜 주나니.

26) 『전집』, 57쪽.

… 중략 …

이리하여 이 우주에
 父性은 自性을 좇고 자성은 부성을 따라
 울음 속에 웃음이 있고
 미움 속에 사랑이 있어
 영원히 圓舞와 ‘심포니’ 되어
 아프게도 생명의 바뀌는 굴러 가나니
 새 별을 따면서 따면서……. — 『어린 아기』 부분²⁷⁾

(가) (나)의 제명은 『어린 아기』로 동일하다. 모두 망명 이전에 발표된 시²⁸⁾들이다. 당시 문학적 관습 혹은 사회적 관습에서 ‘어린 아기’는 소외된 대상이다. 조명희가 이를 시로 쓰고 예찬하고 있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어린 아기’가 가진 힘과 가능성은 어른과 대비하여 볼 때 두드러진다.

(가)의 ‘어린 아기’는 어른과 달리 인간이 아닌 ‘신의 아들’이며 “宇宙生命의 顯像”이다. 또한 시인이 주목하는 것은 “할머니 바보! 할머니 바보!”라는 어린아이의 말이다. 이 말은 어른의 언어 층위에서 본다면 불손하고 부족한 언어 표현이다. 하지만 기성 언어의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지 않은 신의 아들의 언어이며, “모든 아름다운 것보다 아름다운 이”의 아름다운 언어이다. 따라서 “귀여운 辱說이며 즐거운 音樂”이 가능해진다. 인간의 선입견과 봉건적 질서도 들어있지 않은 신선하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말이다. 여기서는 지적인 가장도,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어떤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린 아기가 하는 말 “할머니 바보! 할머니 바보!”는 완벽한 구어이다. 한자어로 물들기 이전의 구어인 어린 아기의 언어를 ‘귀여운 욕설, 즐거운 음악’으로 본다. ‘할머니 바보’라는 말은 ‘할머니-손자’의 수직적 관

27) 『전집』 80-81쪽.

28) (가)는 시집 『봄잔디밭우에』(1924)에, (나)는 『개벽』 61호(1925.7)에 발표되었다.

계를 파괴한다. 거기에는 이들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드는 어떤 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기존의 봉건적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는 언어물이다.

어린 아기의 “할머니 바보!”는 “즐거운 음악”으로 명명된다. “할머니 바보!”를 나열함으로써 생기는 원형으로서의 리듬을 조명희는 발견하고 있다. 이는 시의 원형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에서는 ‘어린 아기’가 지닌 가능성과 힘을 예찬한다. 그것은 “터지려는 지구의 심장을/ 부드러운 손으로 껴매어 주”는 것이며, “넘어지려는 생명의 바퀴를 작은 팔로 바치고 서” 있는 것이다. 어린 아기는 이 세계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자이다. ‘터지려는 지구의 심장, 넘어지려는 생명의 바퀴’는 어린 아기가 아닌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결과물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막아내고 있는 것은 아기이다. 그는 망해가는 지구에서, 생명이 가야 하는 “나면 나라의 길”이 어디인가를 “어여쁜 손으로 가리켜” 준다. 이로써 “父性은 自性을 좇고 자성은 부성을 따라” “생명의 바퀴”는 굴러갈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조명희의 「아동문예를 낳자」라는 주장은 가능해진다. 이 글은 아동문예의 현재에 대한 진단과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다.

사회는, 군중은 우리의 어린 문단을 향하여 희곡과 소설을 다고, 시와 노래를 다오, 동요와 동화를 다오! 하며 손을 내어민다. 그러나 이 이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약간의 시를 주었을 뿐이요 그 외에 준 것이 별로 없다. 더구나 아동문예 작품은 그림자도 볼 수 없다. 자란이가 예술에 주리었다면 어린이들도 주린 그대로 내버려 두겠는가?

우리의 콜호스니크들이 부분적으로 지금도 ‘춘향전’ ‘유충렬전’과 같은 낡고 때 묻은 봉건적 작품을 비판 없이 씹고 있는 현상이라면 ‘시들은 방초’ ‘창덕궁가’ 같은 욕지기 나는 센티멘탈리즘의 노래를 외우고 있다면, 우리의 뽀오네르들이 한 편으로는 ‘반달’을 부르고, ‘강동 보토리가’를 읊조리고 있는 형편이다.

어린이 교과서에 시조를 집어넣은 것이나 최남선의 ‘시문 독본’에서

주어온 독재 부스러기를 주던 지난날의 희비극도 있지 않았는가? 예술에 주린 그들의 창질에 겨떡은 고사하고 돌을 주었으며 독약을 준 셈이 아니었던가? — 「아동문예를 낳자」 부분²⁹⁾

이 글에서 조명희는 사회가 우리 문단에 요구하는 바에 대한 호응이 부족했음을 전제로 “더구나 아동문예 작품은 그림자도 볼 수 없다.”고 단호히 밝힌다. 이어서 “자란이(어른)가 예술에 주리었다면 어린이들도 주린 그대로 내버려 두겠는가?”하고 반문한다.

사회와 군중이 요구하는 문학작품이 부족하므로 현재에도 우리의 콜호니스트들은 부분적으로 『춘향전』 『유충렬전』과 같은 봉건적 작품을 읽고, <시들은 방초> <창덕궁가> 같은 욕지기 나는 센티멘탈리즘의 노래를 외우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의 ‘뻐오네르’들은 부를 만한 노래가 없어 <반달>을 부르고 <강동 보토리가>를 읊조리고 있는 형편으로 본다. 어린이가 부르는 <반달> <강동 보토리가>는 콜호스니크들이 읽는 『춘향전』 <시들은 방초> 등과 같이 봉건적이고 욕지기 나는 센티멘탈의 노래들이다. 지난날 어린이 교과서에 실은 시조, 최남선의 『시문독본』에서 주워온 독재 부스러기 역시 이와 동일한 현상들이다.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노래와 작품들을 배우면서 봉건과 센티멘탈에 노출되고 그 가치를 학습할 수밖에 없다. 결국 어린이에게 ‘돌과 독약’을 준 것이다.

최남선은 「海에게서 少年에게」 등으로 새로운 세대 ‘소년’에 대한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이는 서구화를 통한 개화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명희가 추구하는 민족주의와는 다른 면모이다. 따라서 이를 배척하고 있다. 조명희는 최남선 식의 개화와 계몽, 서구화 등과는 다른 입장을 ‘아동문예’에서 보여준다. 최남선의 ‘소년’은 외부지향적인 것으로 민족의 밖으로 나가려는 입장을 취한다. 반면 조명희의 ‘어린이’ ‘아동’은 내부지향적인 것으로 그들 내부에서 민족을 찾고 이어가고자 한다.

29) 『전집』, 420쪽.

기준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동문예에의 굶주림, 어른들의 작품을 흉내 내던 작품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거부하면서, 조명희는 다음과 같이 있어야 할 아동문예의 모습이 무엇인가 제시한다.

우리의 장래 후계자인 소비에트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무산계급의 이데아와 감성을 기를 만한 예술을 주어야 하겠다. 건설의 봄뜰에서 자라나는 곡식과 같은 그들에게 햇빛과 같은 영양물과 같은 좋은 작품을 주어야 하겠다. 그들이 즐길 만한 동요, 동화, 동화극을 주어야 하겠다.

미의 세계를 향하여 귀를 열어놓은 그네의 신경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리듬적 말에 춤추게 하며, 희망의 햇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네의 마음으로 하여금 동경과 상상의 나래를 넓히 치게 하여 주자. 여기에 동요의 의의가 있으며 동화의 의의가 있다. — 『아동문예를 낳자』 부분³⁰⁾

어린이는 “우리의 장래 후계자”이다. ‘민족’의 미래이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봉건과 식민의 국가 ‘조선’이 아닌 ‘소비에트 국가’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다. 이 어린이들에게 문예 작품은 모국어를 전해주는 방법이자 동시에 봉건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는 방법이다. 소비에트 내부에서 민족성을 확보하고 이를 영속화하는 강력한 기제이다.

아동문예는 기성세대의 문학이 지닌 봉건과 센티멘탈리즘을 극복하고 당시 상황에서 산출해야 하는 문학의 시작점에 해당한다. 이는 조명희가 아동문예에 관심을 두고 주력한 이유이다.

“건전한 이데아와 감정을 기를 만”한 예술을 낳는 것은 있어야 할 문학의 현재적 당위이며 동시에 미래에 대한 꿈이 들어있다. “자라나는 봄뜰에서 자라는 곡식과 같은 그들에게 햇빛과 같은 영양물과 같은 좋은 작품”으로서의 아동문예가 절실한 것이다.

조명희는 이 글에서 스스로 동요를 지어 설명하면서 아동문예의 좋은

30) 『전집』, 420쪽.

포본들을 제시한다.

키정 다리 전봇대
못난 전보대
키만 해도 어른인데
울기는 왜 해?

키정다리 전보대
못난 전봇대
바람이 그다지 무서운가
밤낮으로 영영 울기만 하네. — 「전보대」 전문³¹⁾

조명희는 이 동요가 “어린이들의 세계를 드러내는, 어린이의 위치에서 생각과 상상을 담아낸 작품”³²⁾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어린이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는 사물을 시의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키정다리 전봇대’ ‘못난 전봇대’ ‘우는 전봇대’ ‘바람을 무서워하는 전봇대’와 같이 자신과 사물을 그들의 눈으로 동일시한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이 경우 동요의 언어는 어린이가 구현하는 토착어로 귀결된다. 그것은 쉬운 고유어이며, 구어이다.

키정 다리 전봇대
못난 전보대
키만 해도 어른인데
울기는 왜 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명희가 동요에서 보여주는 시적 언술은 매우 쉽고 평이하다. 또한 추상적이지 않고 사물을 드러내는 구체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문학적 관습에서 본다면 획기적인 변화인 것이

31) 종합시집 『꽃 피는 땅』, 사수서관출판사, 1988, 4쪽.

32) 조명희, 「아동문예를 낳자」, 『전집』, 421쪽.

다. 이는 망명 이전 조명희 시의 언술 방식과 비교해 보면 큰 편차를 보인다.

나는 宇宙의 어머니로부터 나온 자식
 울토다 그 어머니 가슴에 兀起한 한낱의 水泡
 輪生의 因緣의 마디
 萬劫의 時流에 보금자리 친 나의 靈魂
 分裂의 苦—生, 還元의 願望—死. —『分裂의 苦』전문³³⁾

이 시는 ‘兀起, 輪生, 萬劫, 分裂, 還元’ 등의 어려운 한자어들로 나열된다. 또한 연속되는 긴 문장과 함께 ‘울토다’ 등의 문어투 진술을 보여준다. ‘宇宙, 輪生, 萬劫, 因緣, 靈魂, 分裂, 願望, 生, 死’ 등 시의 중심을 이루는 추상어들은 서술자 ‘나’의 고뇌를 보여주는 언어들이다. 하지만 그 고뇌는 허구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현실성을 상실, 설득력을 얻지 못한 공허한 언술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동요 「전보대」는 쉬운 토착어로 자연스럽게 대상에게 말하는 구어를 사용한다. 구어는 읽는 이로 하여금 전보대가 있는 장면을 가까이서 직접 바라보거나 그 옆에 있는 것처럼 뽕진한 현실감을 만들어 낸다. 그 시적 진술에 사용된 언어는 기성세대의 ‘쓰던 언어’가 아니다. 이전의 문학 현상이 보여준 언어 양상이 아니다. 이는 상황과 메시지를 어른의 관점에서 설명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보대가 내는 ‘우는’ 소리의 상징성을 통하여 현재 상황의 비극성을 어린이의 눈으로 드러내고, 이에 대한 극복 의지를 밝히는 점과 동떨어져 있다.

조명희는 토착어로 구현하는 단조한 리듬을 강조한다.

너는 기차
 나는 자동차
 우리 서로

33) 오윤호 엮음, 『조명희 시선』,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58쪽.

달려 보자.
 칙칙폭폭
 뽕뽕 뚜르르
 네가 빠르냐
 내가 빠르냐 — 「달아나기」 전문³⁴⁾

조명희는 이에 대하여 “기교도 상당하다”³⁵⁾고 평한다. 시행을 마치 시의 중요 대상인 기차와 자동차가 달려나가는 듯하게 시각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대상의 움직임이 시의 표면에서 즉물적으로 살아나도록 만든다. 이러한 즉물성은 “칙칙폭폭/ 뽕뽕 뚜르르”와 같은 음성어에 의해 강화된다. 즉물성은 어린이와 놀이 대상인 ‘기차’ ‘자동차’와의 밀착된 거리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조명희는 다음과 같이 2음보로 빠르게 연결되는 단순하고 쉬운 리듬으로 시에서 동적인 율동감을 살려낸다.

너는/ 기차//
 나는/ 자동차//
 우리/ 서로//
 달려/ 보자//
 칙칙/ 폭폭//
 뽕뽕/ 뚜르르//
 네가/ 빠르냐//
 내가/ 빠르냐//

쉬운 리듬감은 시의 의미를 리듬의 구속으로부터 풀어놓는다. 여기서 “무산계급의 이데아와 감정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³⁶⁾으로서의 주제 강화가 가능해진다.

34) 『전집』, 422쪽.

35) 조명희, 「아동문예를 낳자」, 『전집』, 422쪽.

36) 앞의 글, 앞의 책, 422쪽.

우리 아기 우습지요
정말 우습죠
파시스트 모양이
신문에 있다고
이 놈, 이 놈 가만 있어
콕콕 침을 놔
엑기 이놈! 한 대만
맞아 보아라. — 『연필침』 전문³⁷⁾

이 동시는 “우리 아기”가 신문에 있는 “파시스트 모양”을 보고 “이 놈 이 놈” 하며 연필로 침을 놓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명한 이유도 없이 파시스트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우리 아기”의 행동을 어린이 화자는 “우습지요”라고 말하면서 정서적 동의와 기특함을 드러낸다. 이를 통하여 “우리 아기”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화자 어린이는 이미 프롤레타리아 이데아와 정서를 지닌 인물임이 드러난다. 또한 지금 “파시스트 모양”을 연필침으로 징계하는 “우리 아기”는 더욱 선명한 무산 계급의 이데올로기와 감정을 지닌 인물로 성장할 것임이 확신된다.

아동문예에 대한 이러한 조명희의 입장은 「아동문예를 낳자」(『선봉』, 1935.3.18.)에 이어, 다음에 보이는 「조선의 노래를 개혁하자」(『선봉』, 1935.7.30.)로 나아간다.

군중의 요구는 크고 거기에 대한 수용력은 아직도 빈약하다. 모든 문예 작품이 다 군색하다. 내용으로나 기료로나 다 충실한 여러 가지 작품이 그림다. 그 가운데에, 군중으로서 더 몹시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 아니, 그림다는 것보다도 당면에 시급한 요구로 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노래이다. 내용으로나 형식으로나 옳지 못한 노래들을 집어 버리고 새로운 노래들을 주어야 한다.

문제는 커진다. 사회주의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을 갖춘 새로운 노래들을 군중에게 주기 위해서는, 조선의 낡은 노래들의 형식을 비판적으로

37) 『전집』, 422쪽.

가지어 오며 또는 우리 조선의 무산계급의 감정에 맞는 새 곡조의 형식을 창작하여 거기다가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새로운 내용들을 내어 놓아야 하겠다. — 『조선의 노래를 개혁하자』³⁸⁾

이 글 서두는 「아동문예를 낳자」와 유사하게 현재의 “결핍한 문예 상황”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결핍에서 군중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노래’라고 지적한다. ‘동요→노래’의 연결은 이들이 동질 선상에서 논의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조명희는 ‘조선 노래의 개혁’은 봉건시대 지배계급이 부르던 운문시인 시조를 거부하고 봉건시대 피지배계급, 즉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 중 어둡고 슬픈 것, 계급성을 강화하는 것을 배제하고, ‘쾌활하고 율동적이며 씩씩한 느낌’을 주는 것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본다.³⁹⁾ 따라서 “우리의 노래들의 말”은 “노래의 내용에서 이데아가 건전하고 사건들이 충실하여야 하며 노래의 말들이 간이하면서도 사람의 폐부를 찌를 만한 시다운 말”⁴⁰⁾로 설명한다.

이는 아동문예의 연장 선상에 있는 시어의 언어적 변화를 의미한다. ‘건전한 이데아, 충실한 사건, 간이한 말, 사람의 폐부를 찌를만한 시다운 말’은 이후 고려인문학의 전범으로 작용한다. 조명희, 연성용, 김화선 등으로 이어지는 고려인 시문학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다.⁴¹⁾

조명희는 러시아화 될 수밖에 없는 망명지 연해주에서 모국어를 지키는 것이 그 동화를 막고 민족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어린이는 민족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대상들이다. 이들에게 모국어, 토착어와 구어로 된 모국어를 찾아내고 심어줌으로써 미래의 전망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인의 열망에는 투지가 숨어있다. ‘아동문예를 낳자’ ‘조선

38) 『전집』, 425-426쪽.

39) 조명희, 「조선의 노래를 개혁하자」, 앞의 책, 428쪽.

40) 위의 글, 『전집』, 429쪽.

41) 고려인 시문학에서 조명희 문학이 갖는 유전성은 다음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된 바 있다. 허 알레시아, 『조명희 시 연구』, 공주대 박사학위논문, 2015, 67-102쪽.

의 노래를 개혁하자'라는 직선적이고 강한 발언들에서 그 투지가 잘 읽힌다.

5. 닫힌 민족주의의 좌절

‘민족’의 문제는 조명희 문학을 관철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카프 문학 / 망명 이후의 문학은 공간적 단절을 말할 뿐이다. 그에게 망명은 봉건과 식민으로 민족주의가 실현될 수 없는 상황에서 택한 최후의 방법이다. 망명지 소비에트는 민족주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공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당시 조선에서 좌절된 그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유토피아의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다.

망명지에서의 그의 문학 활동은 민족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었다. 모국어는 그에게 민족주의의 뿌리이다. 또한 그 모국어는 봉건을 벗어난 토착어이다. 토착어는 계급성과 민족성을 지닌 언어이다. 이에서 조명희는 동요로 귀환한다.

토착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동어이다. 아동어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서 그는 ‘아동문예를 낳자’라고 발언하고 동시를 창작한다. 이로 본다면 조명희에게서 동시는 민족주의를 구현하는 언어적 방법이다. 이로써 민족의 발견과 해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가 주장한 쉬운 어린이의 언어, 단조로운 리듬, 무산계급적 이데아와 감정이 드러난 아동문예는 망명지 소비에트에서의 조명희 문학의 시작점이다. 그는 이를 통하여 민족을 발견하고 해방을 이루고자 꿈꾸었다.

하지만 조명희가 꿈꾼 민족주의는 망명지 소비에트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소비에트로의 귀화나 통합이 아닌 지속적인 분열을 야기하고, 결국 국가적 통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순한 사상이기 때문이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 지점에 놓인다. 그의 죽음은 망명지에서 모국어로 닫힌 민족주의를 지향한 결과이며, 그 좌절이다.

조명희가 망명지에서 뿌린 문학의 씨앗, 쉬운 토착어, 단순한 리듬, 무산계급적 이데아와 감성이 드러나는 문예 현상은 이후 고려인문학으로 단단히 착근되어 오늘에 이른다. 조기천, 한 아나톨리, 연성용, 양원식, 리진 등을 넘어 러시아어로 시를 쓰는 마르따 김, 디아나 강 등에 이르기까지 고려인문학의 흐름은 조명희의 문학적 모색으로 만들어진 큰 강이다. 그가 문학에서 고민한 민족의 문제가 그 심연에 굳건히 자리 잡았기에 가능한 것이다.

|| 필자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 참고문헌

<기본자료>

- 『포석 조명희 전집』, 동양일보 출판국, 1995.
 종합시집 『꽃 피는 땅』, 사수식출판사, 1988.
 오윤호 엮음, 『조명희 시선』,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논저>

- 김낙현, 「조명희 시 연구-구소련에서 발표한 시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36집, 우리문학회, 2012.
 김영미, 「연해주·조명희·이데올로기·모국어」,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4집, 2018.
 김재용, 「연해주 시절 조명희 문학의 재인식」, 『한민족문화연구』 60집, 한민족문화학회, 2017.
 류진아,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혁명정신의 전이와 변용」,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80집, 2018.
 오윤호, 「조명희 시집 『봄잔디밭위에』 연구」, 『우리말글』 제59집, 우리말글학회, 2013.
 우정권, 『조명희와 선봉』, 역락, 2005.

이상갑, 「고려인문학 형성의 사회문화적 배경」, 『한어문교육』 31, 한어문교육학회, 2014.

장사선, 우정권, 「조명희의 연해주에서의 문학활동에 대한 연구」,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2005.

전경수, 『한국문화론-해외편』, 일지사, 1995.

정덕준 편, 『조명희』, 새미, 1999.

_____, 『CIS 고려인문학사와 론』, 한국문화사, 2016.

조현아, 「고려인 러시아어 시문학에 나타난 고향의식」, 『이화어문논집』 41호, 이화어문학회, 2017.

허알레시아, 『조명희 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줄리아 크리스테바, 김인환·이수미, 『언어, 그 미지의 것』, 민음사, 1997.

T. W. 아도르노,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2000.

〈Abstract〉

The problem of Cho Myung-Hee and Children's literature

Kim, Young-Mee

The issue of “ethnic” is the most important subject in the literature of Cho Myung-hee. For him, exile Soviet is a choice of new places to realize nationalism. Therefore, it is a space that means Utopia where his dreams of being frustrated in Joseon Dynasty can be realized. His literature in exile was a way to realize nationalism. His native language is the root of nationalism. Also, the mother tongue is a native language that is out of the bag. A native language is a language of class and ethnicity. In this case, Cho Myung-hee returns to children's literature.

It is the children's language that best shows this native language. In hopes and hopes for the children's language, he says, ‘Let's give birth to child literature’ and creates a poem. In this regard, children's poem is a linguistic method that implements nationalism from Cho Myung-hee. The children's literature, in which the easy children's language, monotonous rhythms, anaerobic ideas and emotions he claimed, are the starting points of Cho's literature in exile in the Soviet Union. He dreamed of discovering and liberating the people through this.

However, Cho's dream of nationalism has been unacceptable in the refugee camps, as it is an impure idea that causes division, not naturalization or integration into the Soviet Union, and ultimately impossible national integration. His death is the result of his pursuit of closed nationalism in his native language from exile and his frustration. However, Cho's literary seeds, easy native language, simple rhythm, asexuality and sensibility from exile, have been firmly established as CIS-Korean literature

Key Words: Cho Myung Hee, CIS-Korean literature, exile, Russian Primorsky, children's literature, nationalism, one's native language, native language, children's song

중국에서의 남영전 문화현상에 관한 연구

— 시집 『꽃이 없는 이 봄날에』를 중심으로

김 룡 운

■ 차례

국문초록

1. 서언
2. 사실주의 시의 세 가지 유형
3. 인성의 증명, 시집 『꽃이 없는 이 봄날에』
4. 남영전 토템시의 미학, 화해·융합·사랑
5. 토템시의 생명시학
6.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초록

시인 남영전(1948-)은 중국조선족 시단에서 한어와 조선어로 작품을 창작하는 몇 안 되는 작가 중 한 사람이다. 1971년에 시를 발표한 이후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 오면서 시집 『꽃이 없는 이 봄날에』(2003)를 포함하여 총 15권의 시집을 출간하였다. 1985년 서정장시 「할머니」로 전국소수민족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의 사실주의 시는 중국 시단에서 시적 성취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의 시는 비운의 가족사로서 사실주의 시, 민족의 얼로서의 사실주의 시, 그리고 토템의 미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실주의 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초기 사실주의 시의 기반이 되는 시적 경험은 그의 슬픈 가족사이다. 아버지는 중국 해방 전쟁에서 전사하였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유복자인 남영전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그의 작품에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개인의 가족사에서 출발한 시적 체험과 관심은 민족의 역사로 확장된다. 민족

의 열과 정신을 상징하는 고구려 대왕의 비석을 시화한 「호태왕비」, 한국 방문 후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쓴 「판문점」 등의 작품은 민족의식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남영전 문학현상이라는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중국 시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시집 『꽃이 없는 이 봄날에』의 출간 직후였다. 2003년 중국의 사스 사태를 간파하지 않고 시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참회를 기록하였으며 생명에 대한 고귀함과 희생의 숭고함을 강조하였다.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여 그가 표현하려고 한 것은 인류애이다. 사스 치료에 헌신하다가 희생된 간호사에 대한 찬미가 두드러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 시집은 남영전의 토렘사상의 재현이고 승화라고 볼 수 있다. 시원에서 토렘을 호명하여 인류의 영원한 정신적 고향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중국 시단의 평론가들은 남영전의 가장 큰 시적 성취가 토렘시 연구와 창작에 있다고 본다. 토렘의 뿌리는 하나이며 여러 민족이 같은 토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42편의 토렘시는 조선적인 것이면서 중화민족적인 것이며 전인류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토렘으로 민족정신을 부활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화해와 융합, 사랑을 도모하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주제어: 토렘, 토렘시, 조선족문학, 남영전, 남영전 문화현상, 인류애, 『꽃이 없는 이 봄날에』

1. 서언

이 글은 최근 중국문단에서 주목받고 있는 시인 남영전(1948-) 문화현상을 고찰하고, 이러한 문화현상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그의 토렘미학사상과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남영전의 사실주의 시들을 살펴보고, 시집 『꽃이 없는 이 봄날에』(2003)를 중심으로 그의 토렘시에 투사된 토렘미학과 토렘사상을 해명하고자 한다.

남영전¹⁾은 중국조선족 시단에서 한어와 조선어로 작품을 창작하는

1) 1948년 중국 길림성 통화 출생. 1971년 중국문단 데뷔. 이후 「상사집」(1987) 『원용』(2003) 등 시집 17권 출간. 중국작가협회 ‘민족문학상’ 등 각종 문학상 50여

몇 안 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의 시 창작성과는 중국시단의 보편적인 긍정과 승인을 받았다. 1985년 서정장시 「할머니」로, 1990년에 시집 『그리움』으로, 2006년에 시집 『원융(圓融)』으로 각각 ‘전국소수민족문학상’을 수상하고, 서정장시 「아버지」 「휘우듬한 그림자」 등으로 길림성 최고문학상인 ‘장백산문예상’과 중국작가협회 ‘민족문학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들 문학상 수상 작품들은 모두 한어로 창작되었는데, 이것은 시인 남영전이 가진 큰 장점이다. 그가 조선어로만 시를 창작하고 한어로는 창작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중국에서 남영전 문화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남영전은 1971년 문단 데뷔 후, 1980년 5월 문예잡지 『장백산』을 창간하여 주필을 겸하며 시 창작에 힘쓴다. 이후 시집 『상사집』(1987)을 비롯하여, 『푸른 꿈』(1988) 『산흔』(1990) 『백학』(1990) 『남영전시선집』(1994) 『하늘과 땅과 사람』(1997) 『원융』(2003) 『꽃이 없는 이 봄날에』(2003) 등 총 17권의 시집을 펴낸다. 그는 초기에는 사실주의 시로 시적 성취를 거두었고, 이후 토템시로 중국문단의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2003년까지 42수의 토템시를 창작하였는데, 시의 편수는 얼마 안 되지만 토템시의 특수한 존재의미로 인하여 중국문단에 신선하고도 큰 충격을 주었다.

오늘날 중국문단에서는 남영전의 토템시를 화두로 하여 평론계가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3년 6월 무한대학에서 <남영전 토템문화 재구축>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비롯하여, <남영전 시가창작 세미나>(수도사범대학, 2006.3.28.), <남영전 토템시 연구 세미나>(장춘사범학원, 2008.6.20) 등 5년 사이에 규모가 큰 남영전 시가연구 세미나가 세 차례 열렸고, 남영전과 그의 시에 관한 연구논문집이 11권이나 출판

회 수상. 2010년 중국당대 걸출민족시인 10인에 선정. 2017년 중국 신시 100년 100인에 선정. 1987년 이후 발표한 토템시가 중국문단의 주목을 받게 되고, 토템시 창시자로 평가됨. 『남영전토템시학』 등 그의 토템시를 연구한 학술저서와 논문집 13권이 출판되었음.

되었다. 중국당대문학에서 한 소수민족 시인에 대해 학술회의가 여러 차례 열리고 연구논문집이 발간된 사례는 없었다. 이는 일괄하여 중국에서의 ‘남영전 문화현상’이라 일컬을 만한데, 이러한 문화현상은 중국 당대문학에 나타난 중요한 문화 흐름으로서, 중국시단에 신선하고 충격적인 바람을 몰고 왔다.

2. 사실주의 시의 세 가지 유형

중국에서의 남영전 문화현상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970년대 초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창작된 그의 사실주의 시는 중국문단의 충분한 긍정과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시 「할머니」 「아버지」 「휘우뚱한 그림자」 「천지의 전설」 등으로 주요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2003년 발간된 시집 『꽃이 없는 이 봄날에』는 특수한 연대와 인류애를 노래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았는데, 그의 사실주의 시는 중국에서의 남영전 문화현상 형성에 튼튼한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그의 사실주의 시가 한창 인정받고 있을 때, 그는 토템시를 문단에 선보여 강렬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의 사실주의 시가 중국문단에서 발을 붙이지 못한 상태에서, 혹은 사실주의 시의 기반이 공허한 상태에서 토템시가 선을 보였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중국에서 남영전 문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남영전 문화현상의 형성에 있어서 남영전의 사실주의 시는 초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남영전의 사실주의 시는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비운의 가족사를 소재로 한 사실주의 시, 2)역사에 묻힌 민족혼을 파내고 고양하는 사실주의 시, 3)특수한 연대의 특수한 노래를 토템의 미학사상으로 체현한 시집 『꽃이 없는 이 봄날에』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인

성의 발굴에 초점을 두고 쓴 3)의 내용은 남영전의 이전의 사실주의 시와는 다른 사실주의 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장에서 별도로 취급하고자 한다.

1) 비운의 가족사로서의 사실주의 시

남영전의 아버지와 삼촌은 모두 중국의 해방전쟁에서 희생된다. 남영전은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 품에서 성장한다. 할머니에게서 비참한 가족사를 듣고 자란 그의 가슴속에는 아버지와 삼촌의 형상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할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특별하였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그가 가족사를 가지고 시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 가족사를 다룬 남영전의 시들은 진실하고 뜨겁고 걱정적인데, 이는 필자뿐 아니라 한족 비평문단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

가족을 소재로 한 시들은 특정한 가족의 가족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생명시이면서 또한 우리 민족의 비운의 민족사이고 민족 생명시이다. 여기서 남영전의 사실주의 시들은 민족적인 공감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한족을 포함한 다른 소수민족들의 공감대를 얻게 된다. 왜냐하면 항일투쟁사와 해방투쟁사는 어느 한 민족에게만 관련된 일이 아니고 전 중화민족의 공통된 역사이기 때문이다.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중략…)

길고 긴 이야기를 등에 지고

해도 해도 못다 할 전설을 이고

천천히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다

말없이 말없이 걸어 나오고 있다. — 「휘우듬한 그림자」 부분

“휘우듬한 그림자”는 시적으로 표현된 곡선으로서 그것은 역사에 늘

려 굵어든 곡선이며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전전하는 불굴의 형상으로서의 곡선이다. 할머니는 귀중한 아들을 잃고 문화혁명시기에는 억울한 재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손자인 화자에게 모든 희망을 기탁하고 앞날을 바라보며 억척스레 살았다. 할머니의 굵은 등과 느린 발걸음에서 인고의 세월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시에는 우리 민족의 슬프고 견강(堅剛)한 모습도 함께 담겨 있다. 삶의 질곡으로 얹힌 많은 사연들은 “길고 긴 이야기”와 “해도 해도 못다 할 전설”로 압축되어 있다. 화자는 “휘우뚱한 그림자”가 “길고 긴 이야기를 등에 지고/해도 해도 못다 할 전설을 이고” “천천히” “말없이” 걸어가고 있다면서 긴 여운을 울려준다. 이 시는 ‘휘우뚱한 그림자’가 정지 상태에 있지 않고 시종 움직이도록 동적인 처리, 강한 생명력을 시각화한다. 또 “움직이고 있다” “걸어 나오고 있다”가 반복됨으로써 불요불굴의 의지와 강한 생명력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서술어의 반복을 통해 민족의 밝은 미래가 제시된다.

어려운 배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푸른 언덕 향해 용감히 노 젓다가도
암초에 부딪치고
폭풍에 휘말려
고달픈 배머리 돌리려 했건만
그 때마다
그이는 배 고물에 오르시어
조용히 엄한 눈길로
키 잡아 주셨더라 — 「아버지」 부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시인은 유복자다. 아버지의 모습은 단지 열사증(烈士證)에 박힌 흑백사진 한 장으로만 보아왔을 화자에게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은 그 누구보다 강렬하다. 화자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의 거룩한 형상이 언제나 또렷이 자리하고 있었다. 시에 묘사된 아버지의 형

상 역시 화자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조선족 모든 혁명열사들의 초상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 시도 가족사이면서도 가족 생명시고, 민족사이면서도 민족 생명시가 되며, 민족적 공감대를 갖게 된다.

이 시에서 시인은 아버지를 단순히 부자지간이라는 혈연적 아버지가 아니라 참된 인간이 되게 하는 이정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으로 승화시킨다. “암초에 부딪치고/ 폭풍에 휘말려/ 고달픈 배머리 돌리려 했”던 방황과 고난의 순간마다 “배 고물에 오르시어/ 조용히 엄한 눈길로/ 키 잡아 주셨더라”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그것이다.

2) 민족 열을 고양한 사실주의 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가족 생명시를 쓰던 당시 남영전은 눈길을 민족사와 민족의 열, 민족의 운명을 관조하는 데로 돌린다. 그는 가족사로 부터 면면히 이어진 민족사를 내다보았던 것이다.

조선족 문단에서 민족의 운명에 대해 쓴 시인들은 많다. 남영전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역사에 파묻힌 우리 민족의 심령의 비석을 파내는 작업을 목표로 「장군묘」 「호태왕비」 「고구려고분벽화」 등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을 구가한 「천지의 전설」을 창작한다. 북한 방문 후 분단을 통탄하는 시 「판문점」 「끊어진 다리」 등을, 그리고 한국 방문 후 「경복궁」 「왕릉」 등의 시를 창작하였다.

일월의 성스런 빛발
하백의 영험한 서기
은장도 날카론 서리
활궁의 강인한 탄력
피타는 부르짖음과
지성의 항불들이 모여모여
웅위로운 비석으로 우뚝 솟았다 — 「호태왕비」 부분

‘민족’이란 민족의 자아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기타 유사한 공동체와 구별되는 문화공동체이다. 민족문화전통, 가치관념, 심미의식이 시인의 정신세계에 침투되면 시인은 어쩔 수 없이 민족의식의 기동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선지 선각한 일부 소수민족 시인들은 공생 공존하는 문학의 시대에 한바탕 번뇌와 고통의 시련을 맞본 후 단연히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었거나 혹은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민족정신의 뿌리로 회귀”²⁾하는 것이다.

「호태왕비」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시이다. ‘호태왕비’라는 비석³⁾은 흘러간 역사에 있었던 민족정신의 상징이다. 이 시에서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 갇은 풍상고초를 겪었으나 쇠망하지 않고 곳곳이 솟아 있는 “웅위로운 비석”은 위대하고도 고귀한 민족정신의 기동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새로운 우람한 비석을 세워 민족을 부강창성을 이룩하려는 염원도 담겨 있다.

우뚝 솟아 세상을 굽어보고

우뚝 솟아 세상을 깨우치며

우뚝 솟아 불멸의 념을 기른다 — 「호태왕비」 부분

가슴을 장쾌하게 하는 묘사이다. 한 민족의 정신적 풍격과 이미지가 “우뚝 솟아”를 세 번 반복함으로써 생생하게 다가온다. ‘호태왕비’는 곳곳이 머리 들고 창망한 우주를 당당히 굽어본다. 화자는 평범한 목소리로 옛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재생의 노래, 불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남영전은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87년 북한을 방문한 후 「판문점」 「끊어진 다리」 등 통일을 염원하는 시편들을 발표한다.

2) 양려(楊麗), 「당대소수민족4인창작평론」, 『원시토템과 민족문화』, 시대문예출판사, 2003. 1호.

3) 광개토대왕비.

그때에 그만 이 금이 그어졌다
 썩어빠진 모든 걸 토해내고
 상하였던 원기를 되살려야 하는 때
 짓밟혔던 그 몸이 상모 돌리고
 집집마다 혼기로 넘쳐나야 하는 때
 바로 그 꿈과 같은 시절에
 그만 이 금이 그어졌다 — 「판문점」(1) 부분

모두 5연으로 구성된 「판문점」은 매 연 첫 구절마다 “그때에 그만 이 금이 그어졌다”를 반복하여 한국전쟁의 한을 강조하고 슬픔과 아픔의 무게를 증강시키면서 동강난 한반도의 현실을 통탄하고 있다. 1945년 3월 알타회의에서 이미 그어진 3.8선과 이에 따른 한반도 분단, 그 이유와 책임이 어디에 있든 불행을 당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고, 아직도 그 금이 언제 없어질지 누구도 모른다. 이것이 더욱 큰 불행이다.

남영전은 1979-1980년 4.4조 민요체로 창작한 장편서정시 「천지의 전설」을 발표, 조선민족의 아름다운 정서를 훌륭히 시화했다는 평가와 함께 우리 민족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중국 전역에 알린다. 옥황상제의 일곱 딸들이 백두산 호숫가에 내려와 목욕을 했는데, 그중 막내인 천녀가 백두산의 나무꾼 지용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에 대노한 옥황상제가 천장들을 파견하여 지용이를 죽이니, 천녀도 낭군의 시체를 끌어안고 호수에 뛰어들어 죽어서도 부부가 된다. 후세 사람들이 천녀와 지용의 변함없는 순결한 사랑을 기리고자 ‘천녀’에서 ‘천’자를 따오고 ‘지용’에서 ‘지’자를 따서 백두산 호수를 ‘천지’라고 불렀다는 전설의 내용을 시의 소재로 삼았다.

슬피 울던 하늘 선녀
 호수 속에 뛰어 들어
 낭군 시체 끌어 안고
 곱게 곱게 눈 감았다

...

이때부터 세인들이
천너지용 이름 따내
이 호수를 천지라고
세세 대대 불렀더라 — 「천지의 전설」 부분

시 「천지의 전설」은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백두산이 “세세 대대” 조선민족의 성산(聖山)이라는 의미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남영전의 사실주의 시편들에는 토템시의 정신과 기법들이 두루 엮여있다. 이것은 그의 토템시가 우리 민족의 전통의식과 심미의식에서 발생하였음을 시사해준다.

3. 인성의 증명, 시집 『꽃이 없는 이 봄날에』

중국에서의 남영전 문화현상에서 그의 사실주의 시가 근간이 되고 토템시가 열매가 된다면, 시집 『꽃이 없는 이 봄날에』는 토템시의 정신과 사상을 더 구체화시키고 세밀화하여 인성을 고도로 체현한 현시대의 특수한 사시(史詩)라고 볼 수 있다. 중문으로 창작 발표한 이 시집은 한 시대를 반영한 특수한 의미를 띠고 있고, 이 때문에 출간되자마자 중국 시단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오늘날 중국의 많은 시인들이 자아의 왕국에 갇혀 스스로 ‘냉혹한 철리(哲理) 파기’에 열중하고 있으며 자아팽창증에 걸려 자기만 알 수 있는 시, 혹은 자신조차 아리송한 시 쓰기에 집착하면서 세상과는 담을 쌓고 있다. 2003년 ‘사스’로 인해 중국대륙에 대재난이 일어났을 때 많은 문인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그 한 예이다. 일부 문인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신문에 ‘사스’에 관한 한두 편의 글을 쓴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남영전은 2003년 5월 16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한 권의 시집 『꽃이

없는 이 봄날에』를 펴냈다.

“이 시집은 특수한 년대에 백의전사들이 헌신적으로 병마와 싸우고 전국 인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단결하여 병마와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취득한 사실을 구가한 기록성적인 문학작품이라는 데서 더욱 고귀하다.”⁴⁾

“이 작품은 시인의 진정한 사랑과 인도주의 정신, 강렬한 사회책임감을 보여준다.”⁵⁾

“가령 『꽃이 없는 이 봄날에』라는 시집이 없었다면 가령 우리의 친애하는 조선족 형제 남영전이 필을 들어 ‘사스’와 진행한 생사판결의 영웅적 사적을 쓰지 않았더라면 중국의 시인들이야말로 얼마나 부끄럽고 유감스러웠겠는가! 남영전이 있었기에 중국의 시인들이 더는 부끄럽지 않게 되었고 체면이 서게 되었다.”⁶⁾

위의 인용에서 『꽃이 없는 이 봄날에』라는 시집 한 권이 중국에서의 남영전의 문화현상의 구축에 얼마나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남영전의 민족토템시와 『꽃이 없는 이 봄날에』는 서로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양자침(楊子枕)의 말을 빌면, 남영전의 토템시와 『꽃이 없는 이 봄날에』는 유기적으로 안과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보상승(相補相承)의 관계를 갖고 있다. 남영전의 토템시는 인류의 원초, 인류의 진실로의 회귀이며, 그 목적은 삭막한 오늘의 세상에 진선미를 살리고 자연과 인간이 화합하고 나아가 전 인류가 융합하는 것이다. 그 실질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꽃이 없는 이 봄날에』는 토템시의 재현과 승화”이

4) 오개진(吳開晉), 「특수한 년대의 특수한 노래- 남영전의 『꽃이 없는 이 봄날에』를 읽고」, 시대문예출판사, 2003.8.

5) 양자침(楊子枕), 「시와 시인-남영전의 신작 『꽃이 없는 이 봄날에』를 읽고」, 시대문예출판사, 2003.8.

6) 사면(謝冕), 「남영전의 시가추구」, 『토템시탐론』, 시대문예출판사, 2007.4.

며, “바로 시대가 남영전을 수요(需要)할 때 그가 나타났고 시가 그를 수요할 때 그의 시가 나타났다. 사실 남영전 자체가 곧 한 수의 시”⁷⁾라는 지적은 이를 잘 말해준다.

1) ‘나’, 인성의 대표자

이 시집에는 ‘나’가 자주 등장한다. ‘나’가 정면으로 노출되지 않더라도 시 내면에는 곳곳에 ‘나’가 숨어 있다. ‘나’는 개인이면서 추상적인 군집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특수한 상징적 의미를 띠고 시대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최종적으로는 인성의 상징이 된다. 시집의 표제작인 「꽃이 없는 이 봄날에」와 「나의 고백」은 인성에 대한 시인의 진지한 추구하고 인류에 대한 사랑이 거룩한 참회와 함께 흐르면서 수많은 사색을 하게 한다. 시인은 사상을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 반복법을 사용, 특수한 부호로서의 ‘나’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한다. 『꽃이 없는 이 봄날에』는 ‘나’가 열 번, 「나의 고백」에서는 무려 열두 번의 ‘나’가 등장한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시인이라 부르지만
나는 좋은 시를 쓰지 못해 부끄럽노라
...중략...
피에 젖었던 그 날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 끝없이 끝없이 생각하지만
내 밤을 지새우며 구상하지만
나의 언어가 너무나 창백하구나
나의 필이 너무나 무디구나

사람들은 나를 시인이라 부르지만
종래로 있어 본 적 없던

7) 양자침(楊子忱), 「시와 시인 - 『꽃이 없는 이 봄날에』를 평함」, 시대문예출판사, 2003. 8.

생과 사의 갈등을
제대로 쓰지 못해
내 부끄러워 하노라 — 「나의 고백」 부분

너무나 검허한 ‘고백’ 속에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넘쳐흐르고 있다. 시인은 ‘사스’와의 투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타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인성의 빛을 보았고, 그 빛 속에서 받은 깊은 감동을 사랑의 힘으로 전환시켜 세상을 향해 외치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자기 시가 창백하고 자기의 필이 무디다고 자탄한다. “피에 젖은 그날”에 대하여 “생과 사의 갈등”을 제대로 써내기에는 부족한 시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눈물겨운 인간의 자각이고 무거운 이 시대 지성인의 사명감이다.

꽃이 없는 이 봄날에
가령 나의 심장이
한 떨기 꽃으로 될 수 있다면
가령 나의 눈이
한 떨기 꽃으로 될 수 있다면
가령 나의 손가락이
한 떨기 꽃으로 될 수 있다면
내 기꺼이 그들을 껴
순결하고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어
그 꽃다발과 쓰러진 친인들이
해빛 아래서 미소 짓게 하리라 — 「꽃이 없는 이 봄날에」 부분

「나의 고백」이 인성의 빛을 다 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비장한 자각의 발로라면, 「꽃이 없는 이 봄날에」는 인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숭고한 선언이고 다짐이다. 가장 깨끗한 영혼과 높은 자각을 지니고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만이 흘러나올 수 있는 심혼을 뒤흔드는 희생의 메아리이다. “꽃”은 위로이고 희생이다.

두 편의 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나’는 ‘소아’(小我)로부터 ‘대아’(大我)로 승화하면서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울리고 인성의 의미를 최대화한다.

2) 백의천사, 사랑과 희생의 상징

이 시집에서 찬미 대상으로 호명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간호사이다. 「엽혼의 출정」 「이효화의 기탁」 「정수란의 순백의 두 얼굴」 등은 모두 간호사를 찬미한 시들이다. 시인이 선택한 주인공 ‘엽혼’, ‘이효화’, ‘정수란’은 모두 실존 인물이다. ‘사스’와의 투쟁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싸운 사람들 중에 간호사가 제일 많았다. 그들의 자기희생적인 정신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그녀는 감염되었다
 동료들이 그의 폐를 검사하자 했지만
 가래를 토하게 하려 했지만
 그녀는 동료들이 자기 곁으로
 오지 못하게 했다
 원장과 동료들이 그녀를 보러 왔건만
 그녀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같은 날
 그녀에 의해 구원된 환자는 출원했건만
 그녀는 고요히 인간 세상을 떠났다 — 「엽혼의 출정」 부분

이것이 ‘사스’와의 투쟁에서 발휘한 중국 간호사들의 비장한 헌신정신이다. 자기가 구한 환자가 퇴원하던 날 간호사 ‘엽혼’은 죽는다. 환자가 입으로 환자의 고름을 뽑아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랑,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만한 잣대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녀는 쓰러졌다

손에는 아직도
한 쌍의 작은 신이 쥐여져 있었다
어린 딸을 위해 산 한 쌍의 예쁜 신
하나의 벽이
어린 딸의 달콤한
미소를 막았다
하나의 벽이
모녀의 면면한 정을 막았다
손에는 아직도
한 쌍의 작은 신이 쥐여져 있었다
어린 딸에게 하고픈
수많은 말이 쥐여져 있었다 — 「이효홍의 기탁」 부분

또 한 사람, 젊은 간호사이고 젊은 어머니인 이효홍(李曉紅). 그녀도 역시 환자를 구한 후 희생된다. 어린 딸을 위해 마련한 꽃신을 주지도 못한 채, 딸에게 하고 싶던 그 많은 말도 미처 하지 못한 채 그녀는 꽃신을 손에 꼭 쥐고 조용히 세상을 떠난다. 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 시집에서 ‘간호사’는 한 개인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고 수호하고 감싸주는 모든 사람들의 표상으로 군집적 의미를 띤다. 여기에 바로 『꽃이 없는 이 봄날에』의 거대한 숨결이 담겨있다. 남영전은 백의천사들에게 숭고한 감정을 지니고 그들의 영생불멸의 혼을 만고에 전하기 위해 오늘날의 새로운 비석, ‘백의영웅비’를 세운다.

가장 결백하고 우람한 비석
초연 없는 전쟁에서 우뚝 솟은 비석
...중략...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비석
유구한 문명을 가진 중국에서 일떠선 비석
결백하고 우람한 비석

위협이 살판 치는 비상시기에
 천백만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일떠선 비석
 새로운 비석-백의 영웅비 — 『백의영웅비』 부분

남영전의 토템시의 핵심은 “인간의 원초적인 진선미를 발굴하여 오늘날의 삭막한 인성을 치유하는 것이며, 중국적으로는 전 인류의 화목과 융합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사상을 전제로 한 남영전의 토템시가 인간의 사랑에 대한 선언이라면, 『꽃이 없는 이 봄날에』는 민족토템시의 재현이고 승화”⁸⁾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문화초월이란 서정적 주체가 표현하는 인류애이며, 서정적 주체가 표현하는 민족과 개체를 초월한 문화관심과 문화운명감”⁹⁾에 다름 아니라는 포풍(鮑風)의 지적처럼,⁹⁾ 남영전은 이들 작품을 통해 이른바 ‘문화초월’을 하고 있다.

위에서 본 대로, 『꽃이 없는 이 봄날에』는 남영전 토템사상의 구체화이고 재현이며, 중국에서의 남영전 문화현상의 형성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4. 남영전 토템시의 미학, 화해·융합·사랑

남영전의 사실주의 시들은 80년대 중반부터 이미 중국시단의 인정과 긍정을 받기 시작한다. 이때 이미 미약하나마 남영전 문화현상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데, 남영전의 토템시가 중국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되자 남영전 문화 열기가 일시에 피어오른다. 더욱이 토템의 미학사상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승화시킨 특수한 시대의 사시(史詩) 『꽃이 없는 이 봄날에』 출간으로 남영전과 그의 시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확대 심화되고, 토템시의 가치와 위상이 더 높아진다. 말하자면 중국

8) 같은 글.

9) 포풍(鮑風), 「생명의 시작과 문화근성의 여정」, 『서남민족학원학보』, 2003.1호.

에서의 남영전 문화현상은 2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의 고험(考驗)과 검증(檢證)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토텐시 창작 초기, 남영전은 민족의 뿌리 찾기로부터 착수하는데, 인류의 시원(始原)은 원래 한 뿌리라는 점에 주목하고 점차 의식적으로 창작 시각을 민족과 시공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시켰다. 이를 두고 북경대학 사면(謝冕) 교수는 남영전은 토텐의 이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연구 범위를 민족사·인류문화사·심미예술사의 광대한 영역으로 밀고 나갔다고 말한다.¹⁰⁾ 우리가 남영전 ‘문학현상’이라 하지 않고 굳이 남영전 ‘문화현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남영전의 토텐시가 순수문학의 범주를 벗어나 인문·인류사·민족사·심미예술사 등과도 관계가 있는 까닭이다.

남영전은 18년간의 끈질긴 추구하고 각고 끝에 토텐을 통해 민족혼을 발굴하고 재구조하여 역사와 현실을 접목시키고 참된 인성을 되찾으며 인류의 영원한 정신고향을 찾는다.¹¹⁾ 인류의 영원한 정신적 고향을 찾는다라는 점에 남영전 토텐시의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의 토텐시는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돌아오지만, 그것은 단순한 원시복제거나 원형복구가 아니라 오늘의 인류를 위한 고층차로서의 회귀이며 나선식 승화”¹²⁾인 것이다. 또한 “원시문화와 현대예술의 교묘한 결합이고 일반적인 신화와 전설을 뛰어넘어 참신한 창작”¹³⁾이며, 그 핵심은 “조선족의 것이면서도 중화민족의 것이며, 음양의 통일이고 천지인(天地人)의 합일로서 인류적인 것이며 원시적·현대적인 것”¹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남영전의 미학적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 남영전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18년간의 시간을 들여 42수의 민족토텐시를 창작한

10) 사면(謝冕), 「남영전의 시가추구」, 『남영전토텐시탐론』, 시대문예출판사, 2003.

11) 남영전, 「세계융합에 대한 외침」, 『원용』, 시대문예출판사, 2004.

12) 강악(江岳), 『민족문학연구』, 2003. 1호.

13) 추진군(鄒建軍), 『원시토텐과 민족문화』, 시대문예출판사, 2003.2.

14) 사지민(謝志民), 「남영전 토텐시의 가치취향」, 『원시토텐과 민족문화』, 시대문예출판사, 2003.2.

후 조선족의 토템물과 중화민족의 토템물이 불가분리의 혈연관계를 맺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세계 기타 민족의 토템물과도 혈연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놀랍고도 기쁘게 발견하였다. 이런 연고로 나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쓰고 있는 토템시는 비단 조선민족에게 속할 뿐 아니라 중화민족에게도 속하며, 나아가 기타 세계민족에게도 속한다. 일축하면 토템은 하나의 기치이고 일종의 정신이고 거대한 응집력이고 형제와 같은 뜨거운 정이며 전 인류가 함께 안고 있는 아름다운 이상이다.”¹⁵⁾

남영전은 민족과 개체를 초월한 문화관심과 문화운명감이 강하며, 그는 항상 이런 초월성을 가지고 토템시를 써온 시인이다. 그의 창작 주장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토템시 창작에서 사상적·예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족문단의 적지 않은 평자들이 남영전을 일컬어 조선족 시인이자 중화민족의 시인이며, 나아가 전 인류에게도 속하는 시인이라고 높은 자리매김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영전처럼 의식적으로 계통적으로 민족토템을 묘사하고 구가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¹⁶⁾이라는 평가는 그 한 예이다.

토템에 대한 남영전의 시각은 예리하고 투철하며, 멀리 보고 정확하게 본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선족에게는 ‘곰 토템’만 있고 한족에게는 ‘용(龍)토템’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민족에게는 토템물이 한두 개 정도라고 간주한다. “한 민족에게 여러 개의 토템송배물이 있을 수 없다”¹⁷⁾는 것이다. 그러나 남영전은 『삼국유사』 등의 관련문헌을 예거하며 우리 민족 조상들의 토템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며, 하나의 토템물이 한 민족에게 특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인류의 시원은 아프리카라는 문화인류학자

15) 양자침(楊子忱), 「역사의 조각 시인의 쫓기」, 『원시토템과 민족문화』, 시대문예출판사, 2003.

16) 허련화(許連花), 「토템과 민족문화」, 『민족문화연구』 2003.1호.

17) 유보창(劉保昌), 「토템과 민족문화」, 『민족문화연구』 2003.1호.

들의 인류기원설에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토템공유설’이 그것인데, 이는 남영전의 토템미학관의 바탕을 이룬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남영전의 토템미학관이나 토템시 창작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없지는 않다. “자연숭배와 토템숭배를 혼동하고, 씨족 혹은 부락토템과 민족토템을 혼동하고, 조선민족과 타민족 토템을 혼동하고, 원시이미지(혹은 원형, 문화이미지)와 원시토템을 혼동한 인식적 오류를 범했다.”¹⁸⁾는 비판이나, “토템 해석은 역사학자나 문화학자들이 문화심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시인이 해야 할 몫이거나 마땅히 해야 할 몫이 아니”¹⁹⁾라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多)토템 또는 토템공유설, 민족문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남영전의 토템시 창작은 중국문단과 학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남영전 토템시의 핵심은 전 인류의 화해와 융합, 사랑에 있다고 바꿔 말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오늘 중국문단에서 남영전 문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남영전의 토템시는 조선족의 것이며 중화민족의 것이며 나아가 전 인류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5. 토템시의 생명시학

1) 삶을 위한 생명의 노래

한 사회가 미증유의 변혁기에 접어들자 전통적 가치질서가 파괴되고 인문정신이 혼란에 빠져 인성 본연의 진선미가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숭고함과 성스러움을 자랑하던 시 또한 전도된 가치의 광환(狂歡)에 압살되어 나날이 초췌해지고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런 사회상황에 직면하여 적지 않은 민족 지성인들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18) 김관웅(金冠雄), 「남영전씨의 토템시를 평함」, 『문학과 예술』, 2007.6.

19) 유보창(劉保昌), 앞의 글.

가야 하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우리 민족의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무거운 물음을 던지면서 민족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다. 남영전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남영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에 관심을 기울이며 민족의식이 짙은 시를 다수 발표한다.

남영전은 민족과 인류가 겪고 있는 정신의 위기를 수수방관하지 않고, 오늘을 참담게 살고 내일을 위해 매진하게 하는 노래가 필요할 때 ‘토템’을 선보인다. 그는 인간의 모든 비극이 ‘정신고향’을 잃은 데서 비롯한다고 보고, 먼 역사의 수림 속에서 토템을 불러 재주조하여 인성을 되찾고 인류의 영원한 정신고향을 찾으려 하였다. 18년의 각고 끝에 산출된 42편의 토템시는 역사를 통해 오늘을 살리려는 시인의 거창한 작업의 결과이다. 그의 토템시 42편은 42개의 목소리로 민족의 어제와 오늘의 희로애락을 읊조리면서 미래를 제시해주고 있다. 남영전의 토템시는 역사생명에 대한 단순한 추억으로서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위한 생명의 노래로 불리는 것이다.

우람한 그림자

영기적

영기적

태고의 전설을 읊조리며

백의의 뉘 빛내이며

머언 길을 헤쳐 왔노라 — 「곰」 부분

이 시는 ‘곰’의 움직임처럼 무겁고 진폭이 크며, 시풍이 호방하다. 우리 선조들의 끈질긴 생명의식과 개척정신이 배어 있으며, 오늘의 삶과 미래의 삶을 위한 완강한 의지도 함께 번뜩인다. 오늘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태산이 앞을 막더라도 그것을 “영기적 영기적” 용감히 끌고, “머언 길을 헤쳐”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결심만 있다면 우리도 “태고의 전설”인 우리의 시조모 ‘곰’처럼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이라고 노래한다.

앞새마다 넓은 마당
가치마다 넓은 공간
무연한 녹음이 우거지고
장수의 힘 뻗치었더라.

.....

드팀 없이 무궁토록
창천을 받쳐 들고
대지를 거머쥐고
거연히,
거연히 솟으리라 — 「신단수」 부분

‘신단수’는 무궁한 힘의 상징이고, 영원한 생명의 표징이다. 창창한 하늘을 받쳐 들고 저토록 망망한 대지를 거머쥔 그 무궁무진한 신력(神力). 그 작은 앞새마다 가치마다 생명이 뛰노는 넓은 마당, 드넓은 공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신단수’와 같은 무궁한 힘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면 겁날 것이 없을 것이며, “드팀 없이 무궁토록/ 창천을 받쳐 들고/ 대지를 거머쥐고/ 거연히/ 거연히” 이 세상 우뚝 솟아 있을 것이다. 시인은 오늘의 우리에게서 바로 ‘신단수’와 같은 그런 용기와 담력과 기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두루미」에서는 심령의 순결, 불요불굴의 정신, 찬란한 미래가 예시되고 있다.

억겁의 지하에 묻혀
곰팡내 피 비린내에 절고
검붉은 질식 속에 몸부림치다
충암 뚫고 나온 두루미
까만 샷샷, 까만 두루미, 까만 적삼
모조리 태워버리고
천지간에 흰색으로 영기어
맺힌 백의 혼이여 — 「두루미」 부분

얼마나 간고한 탄생인가. 얼마나 위대한 탄생인가. 역겹의 지하에서 충암을 뚫고 세상에 나온 두루미, 더욱 잘한 것은 모든 검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얀 혼으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까만 삿갓, 까만 두루미, 까만 적삼”으로 대변되는 일체의 더러움이 깨끗이 배제되고 여과된 심령, ‘두루미’는 진선미의 화신이다. 세상에 영원히 살아남는 것은 오직 진선미밖에 없다. 따라서 진선미는 시간과 공간과 우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시인은 우리 조선민족의 정신을 이렇듯 고도로 찬양하고 있다. 시에서 열 번이나 반복되는 민족의 혼, ‘백의 혼’은 때 묻지 않은 순결한 혼이며, 강인하고 고고한 불굴의 혼, 대를 이어 생명이 자라나는 영생의 혼, 그리고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혼이다. 그래서 시인은 “설령 결백 속에 선지피 떨어져/ 백두의 얼음 속에 스며든대도/ 가슴 치며 통곡하지는 않으리”라고 노래, 우리는 절망에 물러나 앉는 약자가 아니라 갈망을 향해 메운 화살이 되어 우주를 가르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창천이 부르고 있는 한, “백의 혼”의 앞날은 기필코 밝을 것이며 민족의 생명은 영생을 획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생명의 제 양상

남영전이 쓴 42편의 토템시는 42개의 상징물이며 42곡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잘 조화된 장엄한 교향곡이며, 한 민족의 노래이면서 전 인류의 노래이고, 우주의 노래이다. 그 곡의 주제는 인류 구원이고 생명예찬이다. 이리하여 남영전의 시들은 휴머니즘의 대열에 들어서며, 그는 휴머니스트가 된다. 남영전의 시는 토템시에 이르러 비약, 기교가 보다 성숙되고 시의가 깊이 함축되고 풍부해졌다. 그의 토템시는 소박하면서도 우아하고, 명랑하면서도 장중하다. 또한 낭만적이면서도 비극적이어서 생명현상의 모든 양상을 포섭한다.

(1) 영생불멸로서의 생명 이미지

우리 선조들은 토템물을 생명의 영원성, 영생불멸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자연 친화를 도모하려 했다. 자연과의 친화는 인간과 자연이 동격이라는 불교의 화엄(華嚴)사상에 부합되고, 동양철학의 천인합일 사상과도 통한다.

시인은 토템이라는 특수한 문을 통해 인류라는 보편적 세계에 들어선다. 토템시는 상상을 떠날 수 없다. 시적 상상력을 종교적 상상력이라고도 하지만, 남영전의 경우는 종교적 상상보다는 신화적 상상이다. 신화적 상상 속에서 태어나는 영생불멸의 생명을 노래한 시편들이 그러한데, 「달」 「신단수」 「곰」 「해」 「돌」 「불」 등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풍요로움의 원리는 그래서 밀물이고

모성의 원리는 그래서 윤회(輪回)이고

생명의 원리는 그래서 연장되노라 — 「달」 부분

시인은 이지러졌다 둥글어지고 둥글어졌다 이지러지는 달의 윤회를 섭리로 받아들이고, 거기로부터 영생으로 나아가는 한 갈래의 길을 발견한다. ‘달’은 아름답고 풍만한 모성으로서 끊임없이 생명을 낳기에 생명의 원리는 연장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이 얻어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본 「곰」에서, ‘곰’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태고에도 “우람한 산 그림자 끄을고/ 엉기적/ 엉기적” 끈질기게 걸어왔을 뿐 아니라, 오늘도 의연히 완강한 힘으로 삶을 끌고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단수」에서 ‘신단수’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은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드팀 없이 무궁토록” 무수한 가지는 “창천을 받쳐 들고” 뿌리는 “대지를 거머쥐고” 특히 아래 시와 같은 형상으로 이 세상에 우뚝 서있기 때문이다.

‘돌’이 영원한 생명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신력으로 광대무변한 우주에서, 세월의 장하에서 불멸의 영혼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 “분골쇄신”의 과정을 거쳐 모래가 되어
도 마찬가지다.

그의 힘은 끝없이 뻗쳐
방대한 영체(靈體)를 움직이네
돌은 분신쇄골이 되어도
알알의 모래로 대천세계 끌어 안네
.....
돌과 함께 살자
돌 같은 뼈대를 가지자
정녕 돌과 운명을 같이 하면
죽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으리 — 「돌」 부분

위대한 영혼을 지녔기에 온몸이 가루가 되어도 알알이 모두 거대한
힘이 되어 대천세계를 끌어안는다. 한 알의 모래를 한 인간의 정신이라
고 할 때, 그런 정신이야말로 얼마나 거창하고 숭고하고 위대한 것인가.
“죽지 않는 인생”, 그리하여 시인은 모든 인류에게 호소한다. 휘청거리
고 있는 오늘의 우리 민족정신이 ‘돌’과 같은 영혼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보잘것없는 ‘돌’에게마저 영생을 부여
하는 시인의 가룩한 심성, 실로 시인이야말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며
생명을 만드는 사람이다.

아득히 먼 해궁전에
조상의 흰 대문이 열려 있다
영원히 닫기지 않는 그 문은
자손만대 복 받는 근원이여라 — 「해」 부분

‘해’는 민족영혼의 화신으로, 생명체의 화신으로, 어머니의 상징으로
묘사된다. 시인은 특히 백의민족의 혼을 묘사하기 위해 “조상의 흰 대
문”에서처럼 “흰”을 강조한다. “흰 대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민족

정신과 숭고한 인류정신으로 가는 입구이다. “자손만대 복 받는 근원”으로 가는 열린 문이다. 민족정신의 항구성 내지 인류정신의 항구성을 지칭하는 “조상의 흰 대문이 열려 있다”라는 시구는 감탄할 만한 기발한 착상으로서 무게감 있는 표현이다.

(2) 자기희생으로서의 생명 이미지

자기희생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심성이다. 사랑도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자기희생 속에는 진선미가 체현되어 있다. 자기희생을 다룬 남영전의 토렘시로는 「흙」 「양」 「황소」 「두꺼비」 「고래」 「산」 등이 있다.

만물을 안아 키우는
 흙은 신령이런가

 생명을 배태하며
 만물을 낳아 키운다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푸른 향토를 가꿔 준다 — 「흙」 부분

자기의 피와 살로 만물을 키워주는 ‘흙’의 고통인들 얼마나 클 것이며, 또 그 공로는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러나 ‘흙’은 종래로 자기의 괴로움이나 공로를 말하지 않고 혼자 묵묵히 속으로 삼킬 뿐이다. “악한 자를 내쫓지 않고/ 독균이라도 버리지 않으며” 가슴에 품어주는 홍금과 관용, 너무나 큰 너그러움에 머리가 숙여진다. 세상의 모든 인간이 이러하다면 갈등과 싸움이 있을 것인가. ‘흙’의 겸손과 인내, 침묵과 너그러움, 그리고 관용은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두꺼비」는 남을 도와주었던만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멸시와 학대를 받는다. 인과응보가 뒤바뀌고 있다. 가치판단이 혼란에 빠진 이

시대에 와서 많은 경우 인과응보는 통하지 않는다. ‘두꺼비’의 삶이 그러하다.

어질고 불쌍한 약자 만나면
 자신을 도와준 은인 만나면
 제 한 몸 내붙이더라도
 있는 힘껏 도와 나섰다
 대대손손 억눌렸어도
 악착스레 뺨쳐왔다
 생명의 먼발치에서
 보름달을 안아왔다 — 「두꺼비」 부분

‘두꺼비’는 인고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였다. 인류에게 빛을 주는 ‘보름달’까지 안아왔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것은 찬사가 아니라 멸시와 학대뿐이다. 이유는 단 하나, 외모가 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꺼비’는 “억겁의 삶에/ 오해받고도 원망치 않았고/ 욕먹고도 성내지 않았”다. 그저 “고인 물처럼 담담하게/ 창상지변 지켜”볼 따름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치판단의 혼란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게 된다. ‘두꺼비’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해서도 원망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이 세상을 담담히 쳐다볼 뿐인 것이다.

(3) 용사, 투사로서의 생명 이미지

남영전의 토렘시에는 용사, 투사의 기질을 부여한 작품도 적지 않다. 이런 시들은 시풍이 호방하고 진폭이 크며, 도약공간이 넓고 흐름이 장쾌하다. 남영전의 시는 생명에 대한 환희와 약동으로 넘치고, 동원된 시어들이 동작성이 아주 강하다. 이는 남영전의 시가 여타의 시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동작성이 강한 시어들은 용사와 투사의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뱀」 「백마」 「사자」 「매」 「우뢰」 등의 시에서 돌출하게 드러나고 있다.

밝은 대낮에
 어두운 밤중에
 속세의 음양 살살히 살핀다
 불의가 알미워
 사악이 역겨워
 따웅- 표효한다
 어지럽고 어리석음이 꼴사나와
 뒤쫓고 덮치고 물어뜯는다
 잔뼈 하나 남기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린다 — 「범」 부분

사악과 불의가 널려있는 현실에서 우리에게는 ‘범’과 같은 진리의 대변인이 참으로 필요하다. 시에서 언급되고 있는 속세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삶의 현장에 다름 아니다. 탐오(貪汚), 회뢰(賄賂), 강간, 강탈, 살인, 폭행. 이런 것에 대해 “뒤쫓고 덮치고 물어 뜯”으며 “잔뼈 하나 남기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리는” ‘범’과 같은 정의를 지키는 용사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애증이 분명한 시인의 사상을 읽게 된다. 시인은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말을 ‘범’의 형상을 통해 말하고 있다.

「사자」와 「백마」는 내용상에서는 「범」과 비슷하나 기교에서는 「범」보다 더 다듬어졌다. 「범」에서는 시의가 좀 드러나는 감이 있지만 「사자」와 「범」에 와서는 시의가 많이 함축되어 있다.

태양이 허허벌판을 질주한다
 사자의 표효 소리
 천둥치듯 팔방에 울려 퍼지고
 우레 치듯 눈사태를 무너뜨린다
 해가 빙빙 돌고
 별똥들이 쏟아져
 어둠이 멀리로 쫓겨났다
 악마는 바다 끝에 박히고

요귀는 18층 지옥에 갇혔다 — 「사자」 부분

번개불 번쩍이고
하얀 서기를 휘몰아
쏟살같이 달려온다
쫓녕쿨 뺨은 숲을 지나
흑풍 백풍 몰아내고
야밤의 검은 장막 열어젖히며
해빛 안고
달빛안고
말길 달는 곳
흰빛이 깨어난다 — 「백마」 부분

시에 언급되는 ‘해빛’ ‘달빛’ ‘별뚝’은 정의와 진리일 것이며, ‘악마’ ‘요귀’ ‘어둠’은 정의와 진리에 배리(背理)되는 일체의 사악일 것이다. 시인의 삶의 자세는 사뭇 낭만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시인은 이 세계가 밝아지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의 시에는 비관정서가 없다. 심지어 비극적인 운명을 다룬 시에도 비관이나 절망이 없다. 이것 또한 남영전 토템시의 특점의 하나이다.

(4) 비극으로서의 생명 이미지

고금을 물론하고 인간의 삶은 기쁨과 슬픔, 웃음과 울음, 희로애락의 역사라고 하여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인류의 화해와 융합, 인류의 구원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남영전의 시들은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는 비극적인 삶을 주제로 한 시들도 적지 않다. 비극은 그 자체로서 특수한 미를 지닌다. 비극성의 폭로는 오히려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아를 강인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니체의 경우, 비극은 비관이 아니라 비관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다. 남영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가 토템으로 생명의 비극을 쓰는 것은 비

극을 보이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극을 치유하려는 데 있다. 비극적인 생명을 다룬 대표적인 시들로는 「백조」 「빼꼭새」 「개구리」 「까치」 등이 있다.

애오라지 북극에
 눈보라 사납게 휘몰아쳐
 보금자리를 빼앗아갔기에
 욱질하고 매질하고 내 쫓기어
 하는 수 없이
 단꿈 꾸던 요람을 떠났다
 살던 고향에 눈물 떨구며

 두 날개 퍼덕일 수 있는 한
 보금자리 찾아
 떠날 수밖에
 영원한 따사로움 찾아
 따스한 영혼 지키려고
 떠난다 — 「백조」 부분

「백조」는 어떻게 보면 과거 우리 민족의 운명이 아닐까. 시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백조」에서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욕질’과 ‘매질’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상실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처량한 몸 이끌고 떠나는/ 신세 억울”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 “끊임없이 자리를 옮기며/ 쉬임없이” 헤매는 백조. 그러나 백조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두 날개 퍼덕일 수 있는 한/ 보금자리 찾아/ 떠날 수밖에” 없다. 보금자리를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어찌 한둘이라. 서러운 생명, 상처 입은 생명, 시인은 그런 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시인이란 정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인생을 바라보는 남영전의 시각은 궁극적으로는 낭만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다. 그리하여 비극적인 생명을 쓰면서도 희망의

빛을 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개구리」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학대로부터 오는 비극을 시화하면서
서러운 생명을 노래하고 있다.

북풍에 묻히고.

빙설에 묵히고

동토에 묻히고

세상의 가장 잔인한 무계에

인간의 가장 잔인한 질식에

묻히고 놀리어 울고 있다 — 「개구리」 부분

시인은 잔인한 인간과 세상을 질타한다. 캄캄한 영어(囹圄) 속에서
외로운 삶을 사는 ‘개구리’는 인간세상의 최하층에서 버림받고 사는 민
초들에 다름 아니다. “가장 잔인한 무계”에 눌린 그들은 고통 속에서
울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남영전의 42편의 시는 우리 조선족시단은 물론이려
니와 한족시단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토템시이다. 그의 시의 고귀한 점
은 토템으로 민족정신을 부활시키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화해와 융합과
사랑을 도모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려는데 있다. 남영전은 토템시로 한
시대를 찬란히 수놓은 시인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

6. 결어, 남영전 문화현상에 대한 평가

하나의 문화현상은 문화위기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초기에는 언제나
찬반론이 병행하고 시비가 동반한다. 하지만 결국 문화위기가 초극되고
새 지평이 열린다. 중국의 문화사와 세계문화사 대부분이 그러하였다.
남영전은 인간의 원초적인 진선미를 살려 잃었던 정신고향을 되찾고,
인류의 정신위기를 극복 하고자 한다. 이리하여 남영전은 인간의 화해

와 융화, 사랑의 선언문인 토템시를 추켜들고 나온다. 그리고 토템 연구와 토템시 창작에서 거둔 성취가 마침내 중국문단에서 남영전 문화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남영전 문화현상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성의 산물이며, 지극히 객관적이고 그것이 순리에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남영전 문화현상은 어떤 관계망이나 인맥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그에 따른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남영전 문화현상은 수많은 학자와 평론가, 시인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남영전의 글을 평한 국내외의 학자, 평론가들의 글이 140여 편에 이르는데, 중국의 당대문학사에서 소수민족시인은 물론 한족시인까지 포함하여 이렇게 한 시인이 많은 평가를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에 대해 북경대학 샤먼 교수는 남영전은 “현실 생존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기적으로 토템 계열시에 융합시켜 민족문화에 대한 지식분자의 경이와 양지(良知)를 체현”시켰으며, “공업어경(工業語境)에 대한 남영전의 질의와 인류의 생존위기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의심할 바 없이 상당한 계시성 의의”²⁰⁾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남영전 토템시처럼 “민족의 토템을 시화하고 계열화한 것은 세계 시가사상 전대미문이며 아주 기이한 현상”²¹⁾이고, “24수의 시가 수록된 한 권의 시집이 중국어·한국어·영어, 또는 중한, 한중 대역본으로 연속 3차례나 출간되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기이한 현상”²²⁾이라는 논평 또한 남영전의 토템시 창작과 토템연구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평론가 곽지우,²³⁾ 이족 시인 디마자카,²⁴⁾ 룰원소적(栗

20) 샤먼(謝堯), 「남영전의 시가탐구」 『남영전토템시탐론』, 시대문예출판사, 2004.4.

21) 이흥연, 평론가, 하남대학 교수.

22) 양자침(楊子忱), 「24수의 시로 세상을 들썩하다」, 『장춘일보』 1998.4.15.

23) 곽지우, 평론가, 길림성 작가협회 이론연구실 주임. “시가역사에서 보면, 신화를 시에 인입하여 명시를 창작한 시인은 룡샤(龍莎)·가드(歌得)·엽지(叶芝) 등이 있다. 그러나 민족토템숭배를 시로 쓰고 그것을 계열화한 것으로는 남영전이 시역사에서 첫 자리를 차지한다.”

24) 디마자카, 이족, 청해성 부성장, 시인. “남영전은 소수민족 시인의 대표이다.

原小狄)²⁵⁾ 등의 언급도 같은 문맥의 논평이라 할 수 있다. “민족은 혈통의 개념이 아니고 문화의 개념”이라고 인식한 남영전은 “토템문화의 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연구의 범위를 민족사인류문화사심미예술사의 더욱 광대한 층면에까지 확대”²⁶⁾시킴으로써 중국에서의 남영전 문화현상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남영전 토템시에 대한 학술세미나와 연구 논저 출간도 남영전 문화현상의 형성에 일조한다. 중국당대문학사에서 한 소수민족 시인에 대해 규모가 큰 세 차례의 학술세미나가 개최되고, 『남영전토템시학』 등 그의 토템시를 연구한 학술저서와 논문집 13권이 출판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서 중국문단과 학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²⁷⁾

이밖에, 중국당대문학사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²⁸⁾과 함께, 전국 각지의 저명한 서법가와 화가들이 남영전의 토템시를 대상으로 서예작품

그는 다원문화의 어경(語境) 중에서 시 창작으로 충만한 활력을 하면서 시에 대한 책임감을 안고 새로운 미학공간과 문화공헌을 하고 있다.”

- 25) 료원소적(栗原小狄), 「남영전은 신화가 아니다」, 『장강일보』, 1998.4.15. “남영전은 제일 처음 의식적으로 준비 있고 목표 있게 그리고 끈질기게 토템시를 창작한 사람이고 토템시를 탐색한 사람이다. 남영전의 토템시는 중국의 시단을 심미정도(審美正道)에 오라고 부르는 초혼(招魂)이다.”

- 26) 사면(謝冕), 앞의 글.

- 27) 2003년 6월 무한대학에서 <남영전 토템문화 재구축>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비롯하여, <남영전 시가창작 세미나>(수도사범대학, 2006.3.28.), <남영전 토템시 연구 세미나>(장춘사범학원, 2008.6.20) 등의 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논저로는 주건군(鄒健軍) 편 『원시토템과 민족문화』, 마명규(馬明圭) 편 『남영전토템시론정수』, 『남영전토템시학』, 오사경(吳思敬) 편 『남영전토템시탐구』 등이 있다.

- 28) 오개진(吳開晉), 「당대신시문」, 산둥문예출판사, 1999. “남영전은 교묘한 수법으로 소박한 민족 신화를 승화시켜 감동적인 시경(詩境)과仙境(仙境)을 만들고 있다. 남영전 시는 원고(遠古)의 신화를 발굴하고 시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풍부한 창조성적인 현대의식을 만들고 있다.”/ 테세인바알(特賽音巴雅爾) 主編, 『中國當代文學史』, 내몽골교육출판사, 2009. 여기서 남영전 시의 가장 큰 성취는 토템시 연구와 창작에 있다고 밝힌다. “남영전은 민족시인으로서 자기 민족의 토템 숭배물을 시화하고 계열화하였는데, 이는 세계시가 역사에서는 전대미문의 일이다. 남영전의 시가 창작의 성공은 중국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도 알려지고 있으며 세계시가 예술의 보귀한 정신재부로 되고 있다.”

과 미술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를 열고 화책(畫冊)을 출간한 것도 남영전 문화현상을 확대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²⁹⁾ 이러한 특이하고 신선한 문화현상은 시문학의 한 현상으로뿐만 아니라 서법과 회화에서도 독특한 현상으로 주목을 받았다. 남영전의 토템시를 중국의 고대 상형문자로 전각하여 책으로 펴낸 것 또한 중국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남영전 문화현상을 확인시켜준다.³⁰⁾

위에서 살펴본 논증을 통해 남영전은 확실히 문화현상을 일으킬만한 시인이며, 중국에서의 남영전 문화현상은 긍정적이고 객관적이고 필연성을 동반하며 현실의 순리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남영전의 토템미학과 토템시에 대하여 이의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문화현상을 포함한 모든 사회현상은 찬반론을 동반하며 그 와중에 문화의 위기가 극복되고 문화의 새 지평이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남영전의 토템미학과 토템시의 진가(眞假) 또한 날이 갈수록 보다 더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남영전의 토템시는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다. 토템의 미학사상은 투철하고 심오한 반면, 주제의 반복과 기교의 반복이라는 약점이 드러난다. 이는 남영전이 극복할 문제일 것이다.

|| 필자 || 문학평론가, 중국 연변작가협회

□ 참고문헌

강악(江岳), 『민족문학연구』, 2003. 1호.

29) 2005년 중국서부문예통감위원회, 사천대학 문학과인류학연구소, 사천사범대학 현대미술학원, 成都市書法家協會 등이 공동주최로 <南永前土騰名家書畫聯合作品招請展覽會>를 열었고, 작품을 선별하여 『詩書畫의 時代共振』(주강문에 출판사)을 펴냈다.

30) 조선족 진가가 辛承祐는 남영전의 토템시를 印章으로 조각하여 『南永前圖騰字句印』을 출간하는데, 진가가 周靑은 「서문」에서 이 책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전각과 토템시의 모체정신 이미지가 십분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 김관웅(金冠雄), 「남영전씨의 토템시를 평함」, 『문학과 예술』, 2007.6.
- 남영전, 「세계융합에 대한 외침」, 『원융』, 시대문예출판사, 2004.
- 율원소적(栗原小狄), 「남영전은 신화가 아니다」, 『장강일보』, 1998.4.15.
- 사면(謝冕), 「남영전의 시가탐구」 『남영전토템시탐론』, 시대문예출판사, 2004.4.
- _____, 「남영전의 시가추구」, 『토템시탐론』, 시대문예출판사, 2007.4.
- 사지민(謝志民), 「남영전 토템시의 가치취향」, 『원시토템과 민족문화』, 시대문예출판사, 2003. 2.
- 양려(楊麗), 「당대소수민족4인 창작평론」, 『원시토템과 민족문화』, 시대문예출판사, 2003.1호.
- 양자침(楊子忱), 「24수의 시로 세상을 들썩하다」, 『장춘일보』, 1998.4.15.
- _____, 「시와 시인- 남영전의 신작 『꽃이 없는 이 봄날에』를 읽고」, 시대문예출판사, 2003.8.
- _____, 「역사의 조각시인의 쫓기」, 『원시토템과 민족문화』, 시대문예출판사, 2003.
- 오개진(吳開晉), 「당대신시론」, 산동문예출판사, 1999.
- _____, 「특수한 년대의 특수한 노래- 남영전의 『꽃이 없는 이 봄날에』를 읽고」, 시대문예출판사, 2003.8.
- 추건군(鄒建軍), 『원시토템과 민족문화』, 시대문예출판사, 2003.2.
- 테세인바알(特賽音巴雅爾) 主編, 『中國當代文學史』, 내몽골교육출판사, 2009.
- 포풍(鮑風), 「생명의 시작과 문화 근성의 여정」, 『서남민족학원학보』, 2003. 1호.
- 허련화(許連花), 「토템과 민족문화」, 『민족문학연구』 2003. 1호.

〈Abstract〉

A Study of the Cultural Phenomenon of Nan Yong Qian in China

Jin, Long Yun

Nan Yong Qian(南永前, 1948-) is one of the few poet to write poems in Chinese and Korean in Chinese-Korean poetry circle.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poem in 1971, he has continued to write his poems and published 15 books, including on “In this springtime without flowers”(2003). In 1985, when he was awarded the National Minority Literature Prize as a “Grandmother”, his realistic poetry began to be recognized as a poetic achievement in Chinese poetry.

His poetry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 realistic poetry as a tragic family history, realistic poetry as national spirit, and realistic poetry based on totem's aesthetic thought. The poetic experience underlying the early realism poem is his sad family history. His father died in the Chinese War of Liberation, and his mother died in the Mental shock, leaving Nan Yong Qian. His work contains a longing for his dead parents and a love for his grandmother who raised him. The poetic experience and interest that started from individual family history is extended to the history of the nation. The works of “King Hotae's Monument”, a poem of King Koguryo, symbolizing the ideals and spirit of the nation, and “Panmunjum” written with the desire for unification after the visit to Korea, came from the awareness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However, it was immediately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poems “In this springtime without flowers”, which caused the syndrome of Nanyongqian cultural phenomenon and started to attract the attention of Chinese poetry circle. In 2003, he did not overlook the SARS incident in China, but as a poet, he recorded his love and penance for humanity, emphasizing the nobleness of life and the sublime nature of sacrifice. It is humanity that transcends nationality and culture and he is trying to express.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sacrifice of nurses stands out in favor of treating SARS. This book of poems is a reappearance of the Totem idea of Nam Young Jeon and can be regarded as sublimation. It is to restore the eternal mental homeland of mankind by calling totem in the origin of mankind.

Critics of Chinese poetry circle believed that the greatest poetic accomplishment of Nan Yong Qian is in totem research and poems. In the view of totem's roots are one, and being able to share the same totem among the various peoples, the 42 totem poems are that the thing like Chosun, Chinese ethnic, and all human. He wants to revive the spirit of nationality with totem, and ultimately, mankind wants reconciliation, fusion, love, and mankind to be saved.

Key words : totem, totem poems, Chinese-Korean literature, Nan Yong Qian(南永前), the Cultural phenomenon of Nan Yong Qian, humanism, "In this springtime without flowers"

중국조선족 수필문단의 변화 양상과 전망

—개혁개방 이후를 중심으로

김 순 희

■ 차례

국문초록

1. 서언

2. 본론

1) 개혁개방기, 수필문학의 정착

2) 90년대, 수필문학의 확산

3) 새시기, ‘수필 전성시대’

3.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초록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30년 동안 중국조선족 수필문학은 불모지와 다름없었다. 단행본으로 출간된 수필집이 한 권도 없었다. 신문에 게재된 여행기나 노농병 영웅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고백문학으로서의 수필은 창작되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의 분위기 속에서 조선족 수필문학은 문단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 시인 소설가들이 조선문 신문과 잡지에 수필을 1년에 수백 편씩 발표하였고, 대표적으로 김학천과 문창남의 수필집이 간행되었다. 김학천의 수필은 냉철한 비판과 풍자, 위트를 중시하였으나 독자와의 친근감은 부족했고, 문창남의 수필은 절제미가 부족하고 감정의 과잉노출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들이 80년대 수필문학의 두 유형을 형성하였다. 또 수필문학상이 제정되기도 했다.

80년대까지도 격정적인 어조의 정치적인 색채의 수필 많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

산문의 시대라고 할 만큼 산문 붐이 일었다. 1992년 중한수교를 계기로 솔직담백하고 개성적인 한국수필의 영향을 받아 여러 세대의 작가들이 내면의 성찰을 통해 개성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하면서 수필문학의 변영을 이끌었다. 수필전문지의 발간, 대학을 졸업한 젊고 지적인 수필가들의 출현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0년대에 이르러 수필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허구가 아닌 진솔한 글을 선호하는 수필 독자층의 변화를 비롯하여 여성 작가의 성장으로 수준 높은 수필집들이 출간되었고,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문체와 착상을 보여주는 젊은 수필가들의 출현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조광명은 시·소설·수필·사진 등 장르를 넘나들며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필의 양적 증가와 수필 인구의 증가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수필 창작을 여가 활용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작가의식이 결여된 질 낮은 작품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독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성과 자질을 갖춘 수필 창작에 힘써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중국조선족, 중국조선족문학, 조선족수필문학, 고백문학, 개혁개방, 자아 성찰

1. 서언

중국 건국 이후인 1949년부터 1979년까지 30년 동안 중국조선족 문단에서 수필문학은 불모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행본으로 출간된 수필집 한 권 없었고 수필이라고 할만한 글은 몇 편 되지 않았다. 그것도 신문 등의 매체에 게재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내용도 참관기나 방문가기행문, 그리고 이 시기 정치운동의 영향 아래 전개된 ‘만세문학’ 범주의 것들이었다. 「새해 아침에 호두산을 바라보며」(1973), 「길이 빛내여 갈 혁명반란정신」(1976) 등은 그 한 예이다. 이 때문에 이 시기의 조선족 수필은 “거의 불모지였고 황당한 공백기였다”¹⁾고 지적되는데, 진

1) 장정일, 「수필문학의 대두에 관한 사고」, 『변방- 또 하나의 시작』, 연변인민출판사, 2006, 181쪽.

정한 의미에서의 수필문학이 없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작가들에게는 ‘자아’란 없이 다만 ‘3돌출’²⁾ 창작원칙에 좇아 노농병의 대변인이 되어 노농병(勞農兵) 영웅들의 업적을 구가하고 찬미할 자격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문학은 자연히 ‘계급투쟁의 도구’로 전락되었다. 이때의 ‘나’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기만해야만 하는 환경 속의 ‘나’였고, ‘나가 아닌 나’였다. 그러므로 고백문학으로서의 수필문학의 특성을 잃은 채 개인의 진실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조선족문학사적으로 보아 이 시기 수필은 시나 소설과 비교도 안 되는 불황을 겪었다. 조선족 수필문학은 기타 장르의 문학과 마찬가지로 엄연히 조선족문학을 대변하는 문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개혁개방 전까지만 해도 조선족문단에서 수필문학은 서자 취급을 당했다. “수필가가 없는 작가 대오, 수필분과가 없는 작가협회, 수필상이 없는 문학상... 글을 써도 문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수필이었다.”³⁾ 새시기에 들어선 후 조선족수필문학은 점차 문단에서 제자리를 찾았고, 1990년 이후에는 크게 성장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눈부신 개화기를 맞이하였다. 수필집들이 잇달아 출간되었고, 각종 수필문학상을 제정되었으며, 작가협회에 산문창작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수필문학은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2. 본론

새시기, 즉 다원화시기에 들어선 후 조선족수필문학은 다른 장르에 비해 빠르게 발전하였고, 21세기에는 그 위상이 크게 격상되어 소설과 시를 추월하면서 말 그대로 수필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새시기 수필문

2) “문화대혁명”시기 문예창작에서 모든 인물 중에서 정면인물을 돌출히 하고 정면 인물 중에서 영웅인물을 돌출히 하고 또 영웅인물 중에서 가장 주요한 인물을 돌출히 한다는 원칙.

3) 서영빈, 「수필문학의 허상과 실상」, 『서사문학의 재조명』, 민족출판사, 2004, 70쪽.

학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개혁개방기, 수필문학의 정착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역사는 중국인들에게 경제변영과 문화진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사상해방의 물결 속에서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문화대혁명’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의 조선족문학은 점차 극좌시기 문학의 정치화와 공리주의 가치관의 획일화에서 벗어나 다원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허환적인 송가에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조선족 수필문학은 힘겨운 정착을 시작하였다. 80년대부터는 수필 단행본도 나왔고, 문학상에 수필문학상도 포함되었으며, 나아가 수필전문 문학상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80년대에는 수필집들이 많이 출간되지 못했지만, 조선문 잡지들과 신문들에 1년에 수백 편의 수필이 발표되었고, 문창남의 수필집 『동집계』, 『김학철작품집(일부분)』, 오태호의 수필집 『마닐라의 풍운(일부분)』 등 세 권이 정식으로 출판되었다. 이 시기는 수필가라는 타이틀을 단 작가가 아니라, 소설가나 시인들이 주로 수필을 썼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시인 김성휘, 문창남, 석화, 소설가 김학철, 리혜선 등이 있고, 대표작품으로는 김성휘의 「줄」, 리혜선의 「동화의 슬픔」을 들 수 있다.⁴⁾

1980년대 중반 조선족 수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학철형 수필과 문창남형 수필이 그것이다.

김학철은 15년 남짓한 사이에 4백여 편의 산문을 창작했는데, 이런 작품들은 8부의 산문집으로 국내외에서 출간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루쉰(1881-1936)의 잡문을 배워 창작해낸 수많은 잡문들이다. 김학철은 자신의 잡문을 “사회의 병집을 베내거나 도려내는 수술 칼”이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는데, 이는 잡문을 사회의 암흑과 비리를

4) 장정일, 앞의 글, 185쪽.

향해 던지는 ‘비수와 투창’으로 간주했던 루쉰의 잡문관과 일맥상통한다. 김학철은 “편안하게 살려면 불의를 외면하라. 그러나 사람답게 살려면 불의에 도전하라.”는 자기의 모토대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비리·병폐를 향해 “시효도 국경도 없이” 날카로운 수술 칼을 들이댔다. 김학철의 수필은 현실과 역사적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해부와 비판, 김학철 특유의 풍자와 위트, 그리고 작품 전반에 묻어나는 작가의 파란만장한 인생사 등으로 하여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문학성도 인정할만하다. 그러나 역시 작가의 경력에 연유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독자에게 느껴지는 지나친 위엄 때문에 현대수필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친근감을 손상시키고 있다.⁵⁾

문창남은 대학생이던 24세의 젊은 나이에 9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였다. 문창남의 문학 창작은 9년의 감옥살이와 2년 넘는 농촌개조 생활을 하고 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문창남의 경우 청천벽력파도 같이 자신에게 모든 불행을 가져온 좌적(左的) 정치사조는 더할 수 없는 증(憎)의 대상이고, 그 좌적 정치사조의 부정으로 전개된 새시기는 한없는 애(愛)의 대상이 되었다. 워낙 다혈질이고 호방한 성격의 문창남이 그의 수필에 절제의 미가 부족하고 감정의 과잉노출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런 기질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의 수필 「봄물결」, 「송화강에 물오리떼 날아든다」 「은혜로운 품」 「첫수업」 등에는 새시기를 안겨준 수령 및 당에 대한 다함 없는 감격과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다. 수필 「코골이 왕」의 결말인 “소수민족의 진흥을 위해 웨치던 그 우렁차고 정겹던 목소리여. 사업을 앞세우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높은 산 깊은 골 해마다 고달프게 쪽잠 들 때 그 봄 우뢰처럼 울리던 코음향—사랑의 메아리여!”⁶⁾에서 보는 것처럼, 문창남의 수필에는 사실의 극적인 효과나 감정 과잉의 문제가 심각하게 존재한다.

5) 장춘식, 「조선족 수필장르의 변화 양상」, 『21세기 수필문학의 과제』, 제1회 ‘수필의 시학’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대외경제무역대학, 2005, 37-38쪽.

6) 문창남, 「코골이 왕」, 『천지』, 1989.

결론적으로 김학철형 수필이나 문창남형 수필은 장르적 특징에서는 서로 판이하지만, 독자와의 친근감이라는 현대수필의 기본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한국수필의 장르적 특성들이 일부 수용되고 또 양적으로는 수필작품이 크게 확장되었지만, 그러나 조선족수필의 이러한 문제점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까지도 여전히 존재했다.⁷⁾

1980년대 수필은 아직 정치적인 색채가 농후했다. 수필 「아, 아리랑」 「변천의 35년」 「천지물 쏟아진다」 「노력이 천재다」 「창업의 발자취를 더듬어」 「<반달>에 얹힌 사연」 「잊지 못할 나날」 「내가 걸어온 길」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이 시기 수필에는 작가의 목소리와 어조가 지나치게 높아 듣는 이를 피곤하게 하는 작품들이 아주 많다. 과도한 정열에서 오는 것이든, 아니면 인생과 사회에 대한 감탄에서 오는 것이든 간에 격양된 목소리가 많다.

수필 「아, 나의 평생 추억에 하냥 감미로움만을 안겨줄 성스러운 마음의 성지— 시골이여!」 「안녕히! 파란곡절 많았던 생활이여!」 「아, 감정의 교차점에서 반짝이는 아내의 사랑, 내 가슴에 밝은 별로 고이 안고 가리라!」 「민민 교원— 얼마나 사랑찬 이름인가?」 「아, 하나의 샘에서 솟구쳐 하나의 내물 따라 흘러가는 부처간의 눈물, 그것은 정녕 정감의 합류가 아닌가?」 등은 그 좋은 예이다. “목소리가 높아야 감화력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위험한 착각이다. 어찌면 시 분야에서 겨우 내쫓기 시작한 구호문구가 수필에 와서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위구심어들 정도다. 수필이 자아고백적인 글이라면 어차피 독자는 작자와 단둘의 대화를 갖게 되는 것인데 두 사람의 대화에서 한쪽만 소리가 높으면 상대방이 부자연스러워하기 마련이 아니겠는가. 차분히 가라앉은 심정으로 여유 있게 또한 재미있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⁸⁾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7) 장춘식, 앞의 글.

8) 서영빈, 앞의 글, 78쪽.

1980년대에 들어서 수필이 조선족 문단에 정착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수필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자아고백적인 글이라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90년대, 수필문학의 확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필 창작은 번영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문단에서 산문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 ‘1990년대는 산문의 시대’라고 할 만큼 산문 붐이 크게 일기도 했다. 시장경제의 도입과 함께 경제가 발전되고 사상이 해방됨에 따라 각종 유파들이 자유롭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특히 ‘자아’에 대한 성찰이 주목된다. 이 시기에 이르러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작가들에서 있어서 이때의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족문단에서는 1992년 중한 수교를 계기로 한국문학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수필문학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엄청난 팽창시대를 맞았고, 수필문학의 붐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수필전문지들이 속속 발간되었고 엄청난 양의 수필작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으며 수필 인구가 크게 확대되어 말 그대로 수필문학의 전성시대를 맞았다. 중국과 한국의 이러한 고무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평면적이고 도식적인 조선족문단의 수필과 달리 솔직담백하고 개성적이고 아름다운 한국수필들이 조선족 작가들을 흔들며 깨웠다. 그리하여 1990년대에는 조선족문단에서 수필문학이 여타 장르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다. 여러 세대의 개성 있는 작가들이 진정으로 인간 내면의 자아성찰을 통해 개성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수필문학의 번영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대에 발표된 수필들은 일상생활의 구체적이고 개성적인 편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위대한 이의 사적이나 업적, 세인을 놀라게 하는

기적이거나 천재일우의 요란한 사건은 없다. 수필 「겨울은 무슨 계절일까」 「인정과 인생과 기다림과 그리고」 「나목(裸木)의 눈물」 「실수의 미학」 「피아노의 하얀 건반이 까만 건반을 만날 때」 등의 작품은 그 한 예이다.

1990년대에 이화숙의 『유머, 남자의 멋』, 서영빈의 『아픔으로 크는 나무』, 리홍규의 『하느님은 무슨 차를 타고 오셨나?』 등 수준 있는 수필 집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이화숙의 『유머 남자의 멋』(1996)은 그때까지만 해도 평면적이고 답답하기까지 한 조선족 수필문단에 막혔던 뿔가지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느낌을 준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유머 남자의 멋』은 역사의 중압 속에서 초라해진 인간의 내면에 대한 도발적인 고문이며, 새로운 인간의 탄생에 대한 절절한 갈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진저리나는 묵은 뗏자국에 대한 용기 있는 저주이며 답답한 일상과 때 지난 규범과 치졸한 인간 정신에서의 결정적인 탈출의 몸부림에 다름 아니다. 이화숙의 수필에서 풍기는 야성의 도전성은 현실 존재, 인간 존재의 심연을 탐사하는 수필의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문단에 크게 주목을 받았던 이 작품을 계기로 조선족 수필문단은 어떤 보이지 않는 룰이 타개되면서 진정으로 인간 본연의 참모습을 탐구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정일은 『유머 남자의 멋』에 대해 “야성의 발현으로 이색적이며 평면적인 서술에서 벗어나 인생과 인간에 대한 자유로운 사색과 상상을 펼친 수필이어서 대표성을 띠게 된 경우이다. 굴레 벗은 야성의 끼를 바탕으로 이 수필가는 사회적 금기와 제한의 틀을 깨고 장시기 동안 움츠려들었던 인간 정신의 병폐에 메스를 들이대면서 인간의 열린 마음과 인간 개성의 존엄을 환기시켰다.”⁹⁾고 평가했다.

서영빈의 『아픔으로 크는 나무』(1999)는 일상성에 천착하는 생활의

9) 장정일, 「수필문학의 대두에 관한 사고」, 『21세기 수필문학의 과제』, 제1회 ‘수필의 시학’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대외경제무역대학, 2005, 5쪽.

문학, 사색의 문학으로 두각을 드러내어 각광을 받은 경우이다. 낙엽·이별·커피·폭탄·주남시 등 사소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작가의 겸허의 미덕은 독자에게 수필 특유의 친화력을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그 친화력을 바탕으로 덧없는 일상을 초월의 세계로 안내하는 그의 사변(思辨)의 비상에 이르러서는 여유의 아름다움과 지성의 미가 배어나와 정제된 수필의 경지를 가능하게 한다. 그가 표방하는 생활의 문학, 사색의 문학은 대중적인 충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낮은 톤이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남을 가망성은 배제할 수 없다. 사소한 일상의 외형 속에 감춰진 의미를 추구하면서 행해지는 생명과 역사와 인성에 대한 다층위적인 질문과 사고는 수필 본연의 미학으로 승화되어 독자의 심혼에 더 큰 여운으로 남을 수 있다.¹⁰⁾

1990년대에 이르러 젊은 수필가들이 문단에 등장하는데, 이들은 대개 8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문학이론, 철학, 미학 등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수필문학의 기본 이론과 기능 면에서 터득기가 비교적 잘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런 신형의 지성인들의 수필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있었다. 그들의 수필에는 눈부신 문화적 색채와 짙은 인간적 향기, 그리고 놀라운 시대적 발견으로 우리를 배우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지점이 있었다. 옹호 아니면 반대, 만세 아니면 타도, 노래 아니면 욕설, 전진 아니면 후퇴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들의 수필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들의 수필에도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중국조선족 수필문학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 조선족 수필문학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지만, 수필에서의 진실성의 부족, 자기에 대한 반성·성찰·참회의식의 결여를 비롯하여 사회문제를 겨냥한 수필이 많지 않은 것 등은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10) 앞의 글.

3) 새시기, 수필 전성시대

2000년대는 수필의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조선족 수필문학은 눈부신 개화기를 맞이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수필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소설과 시를 뛰어넘어 그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는데, 지난날의 변두리문학에서 일약 시대의 문학으로 자리를 굳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필이 이런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데에는 수필가들의 끊임없는 정진과 문학지 편집인들의 미래지향적인 안목이 크게 한몫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수필 독자층의 변화와도 크게 관련이 있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허구보다는 진실을, 장편적인 글보다는 단편적인 글을, 몽롱한 글보다는 명쾌하고 인간적이고 진솔함이 묻어나는 글을 선호한다. 또한 수필은 다른 문학 장르보다 쉽게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논픽션으로서의 수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허구가 끼여들 수 없는 수필의 진실성에 있다고 하겠다.

이 시기 여성작가들의 성장 또한 주목된다. 그들은 자신만의 개성적인 문체로 수필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으며, 많은 여성수필가들이 수필문단에 두각을 드러내며 수필문학의 진흥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했다. 여성작가들은 아내·어머니·며느리로, 또한 직장여성의 삶을 살면서 남성과는 다른 체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갈등과 정신적 고뇌를 진솔한 목소리로 고백하였다. 남성과 똑같은 목소리로 ‘혁명’을 부르짖던 이전의 여성작가들과는 달리 원초적인 시각으로 인간 본연의 깊이에 감춰진 인간 개체의 고뇌와 욕구를 적나라하게 펼쳐 보이고, 이를 통해 현대 여성의 주체적 의식과 정신적 추구를 보여준다. 여성작가들은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면서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 수필문학의 특성에 힘입어 예민한 감수성과 소중한 창조성으로 인간 개체와 사회 그리고 민족문화에 대해 마음껏 담론하면서 여성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수필문단에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리선희·최순희·남복실·양은화·김홍

란·강정숙·리영애·엄정자·서정순·최영옥·김점순 등은 그 대표적인 예로, 이들 여성수필가들은 잇달아 수준 높은 수필집들을 출간했다.

반면에 점차 생활이 편리해지고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 수필 창작을 하나의 여가 활용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추세가 강해졌다. 이는 수필문단의 여성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수필분과 회원들을 보면 대부분이 여성이고 남성은 가뭄에 콩나듯하다. 수필을 쓰는 여성들의 지식 수준이 비교적 낮고 수필작품의 질도 비교적 낮았다. 일부 주부들이 쓴 수필은 무병·신음·자기 미화·자기 과시·진실성 결여 등 약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수필문단의 여성화 경향을 보면서 수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즉흥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개성적인 풍격을 갖춘 젊은 수필가들의 출현 또한 주목되는 변화이다. 젊은 세대 수필가들은 가난 문제를 비롯하여, 인정·인간 소외·인간 욕망·이성사랑·가족사랑·도덕추락·생명 충동 등의 문제,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 전쟁과 평화, 죽음과 삶, 환경과 인류 등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문체와 새로운 착상과 새로운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조광명은 그 대표적인 작가이다. 조광명은 장르를 넘나들면서 글을 쓴다. 그에게 “문학의 장르는 일종의 자기표현의 도구일 뿐”이다. 그는 “시, 소설, 수필 등 장르를 거침없이 넘나들며 자신의 삶을 표현해내고 있”으며, “심지어 사진작품과 시, 수필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장르들을 넘나들기도”¹¹⁾ 한다.

조광명의 수필 「바람이여, 사랑이여」(『장백산』 2013년 3기)는 수필이 분명한데 시로 읽힌다. ‘바람의 둥지’라는 사진작품을 창작하는 전 과정을 거침없이 쏟아낸 시처럼 보인다. 조경수로 가두(街頭)에 심은 아열대 수종이 북방의 겨울을 무사히 지나게 하기 위해 나무에 ‘옷’을 입힌 사실에 대해 조금의 불만을 나타내고, 한류가 닥친 한밤에 카메라를 들고

11) 장춘식, 「장르적인 경계 깨기-」, 『장백산』 2013년 3월, 97쪽.

그 조경수와 관련된 사진작품을 기대하며 거리에 나섰다면 조경수와 야경과 바람의 이미지를 담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한다. 사진작품 창작의 전 과정을 수필에 담은 셈이다. 가슴 떨리는 격정과 창조의 희열, 예술에 대한 화자의 심취 혹은 무아의 몰입상태는 그것 자체로도 감동적이며,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사진작가인 화자의 희열과 감동-격정은 시로 승화되어 수필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냥 현상이요 화자의 느낌일 뿐이다. 가장 독자의 공감과 감동을 자극하는 부분은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어떤 깨달음, 즉 바람에 대한 남다른 인식이다. “바람은, 글쓰기는, 사진 찍기는 결국 사랑으로 통하는, 사랑의 자궁 안의 잉태와 날개짓인 것이다.”라는 결구가 그것이다. 바람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바람의 생리에서 인간의 삶을, 삶의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한 것이다. 이는 예술로써만이 가능한, 작품에서 말하는 ‘믹스’적인 예술, ‘한데 막 버무린 믹스’로써만 가능한 발견이 아닐까 한다.

수필 「벽을 읽다」(『장백산』 2013년 3기)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렌즈와 더불어 관찰한 세상—벽의 이미지를 그린 작품이다. 이 수필도 세밀한 관찰, 렌즈를 통한 섬세한 세상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화자의 노력이 깃든 작품이라 하겠다. 그런데 앞의 작품이 격정에 넘치는 한 편의 서사시라면, 「벽을 읽다」는 사소한 것에서, 사람들이 흔히 지나치기 쉬운 낡은 벽에서 차분하고 섬세한 관찰과 생각을 통해 얻어낸 삶의 지혜이자 우주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수필 「바람이여, 사랑이여」에서 바람을 통해 사랑을 발견했다면, 이 작품에서는 벽을 통해 삶의 경력, 역사의 흔적을 발견한다. 물론 여기서도 화자는 사진작가의 눈으로 본 벽의 모습, 벽의 이미지를 시로 담아낸다. 화자는 먼저 벽, 그것도 주로 낡은 벽을 보면 숙연해진다. 벽에 남겨진 세월의 흔적과 세월의 상처를 보면서 인간의 삶, 삶의 흔적을 연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벽의 상처」라는 시로 적었고, 그날부터 벽에서 삶의 흔적들이나 경력들을 관찰하고 느끼고 인식하기 시작한다. 어느 날인가 그 벽에서 어린

아이의 낙서 비슷한 하트 모양 그림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렌즈에 담아 사진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벽에서 발견한 자연의 흔적들에서 인간의 창조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역사의 중후함과 자연의 창조력에 감탄하며 또 다른 시 한 편을 쓰기도 한다. 결국 벽에 대한 화자의 집념, 「벽의 기억」이라는 시리즈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진작가로서의 집념은 삶에 대한 집념에 다름 아닌 것이다. 바꿔 말하면, 조광명은 우리의 삶에 최대한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2000년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수필문학의 개화기라고 할만하다. 안정적인 작가군, 개성적인 풍격을 갖춘 수필작가들의 출현 및 수필작품의 양적 증가 등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3. 결어

중국조선족 수필문학은 아직 모색기(模索期)라고 봐야 할 것이다. 혼란을 정리하고 모색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필 인구의 증가가 수필문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 문학 장르 중 유독 수필을 선호해서 몰린 것인가?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시나 소설이 아닌 글이면 수필이라고 대충 생각해버리는 경향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수필은 시나 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쓰기 쉽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조선족 수필문학은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필에 대한 작가들의 안이한 인식도 하나의 요인이다. 수필을 중학생 작문쯤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 수필 창작의 기교에 대한 공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필을 읽고 수필을 쓰는 작가가 적지 않다. 자기가 쓴 글에 대해 문학적 사명이나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작가의식의 결여에서 온다. 수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무나 아무렇게나 쓴 글이 다 수필은 아니다.

수필의 문학성을 지켜줄 책임과 사명은 바로 수필가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진정 한 편의 수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수필 정신, 작가정신이 필요하다. 좋은 수필을 써야겠다는 치열한 작가정신 속에서만 좋은 수필은 태어날 것이다.

수필문학의 부흥이 그 내적 필연성의 산물이고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수필 창작의 열정과 수필문학 인구의 증대가 반드시 수필의 수준 향상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수필 인구가 증가하는데 반해 좋은 수필작품이 적다는 고민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국조선족 수필문단이나 한국 수필문단이나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실험정신이 없이 비슷비슷하고 시시콜콜한 신변잡기 같은 글들이 넘쳐나고, 삶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가정이나 신변의 에피소드거나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미의 추구로 흐르는 글들이 범람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한국 수필문단의 현황 분석은 조선족 수필문학 상황과도 유사한 현상인 것이다.

수필 인구의 증가는 수필 발전의 토양으로서 경하해야 할 일이다. 그 토양을 바탕으로 21세기 시대정신과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성과 자질 갖추기에 노력한다면 짧은 미학인 수필문학이 새 세기 우리 조선족문학의 앞장에서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본다.

|| 필자 || 중국 연변작가협회 수필분과 주임

□ 참고문헌

<기본자료>

『도라지』 『송화강』 『연변문학』 『장백산』 『천지』

연변문학사(편), 『윤동주문학상수상작품집』(1998-2008), 연변인민출판사.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편집위원회(편), 『2005-2008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6-2009.

중국조선족수필문학상심사위원회(편), 『제2회 중국 조선족수필문학상 수상작품집』, 민족출판사, 2006.

<논저>

김관웅, 『수필창작론』, 연변대학출판사, 2006.

서영빈, 『서사문학의 재조명』, 민족출판사, 2004.

장정일, 『변방- 또 하나의 시작』, 연변인민출판사, 2006.

제1회 ‘수필의 시학’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1세기 수필문학의 과제>, 대외경제무역대학, 2005.

〈Abstract〉

A Study of the Period Classification and Change of
Chinese-Korean Literary Essay

- Focus on China's reform and openness

Jin, Shun Ji

For 30 years since the founding of China in 1949, the essay literature of Chinese Korean was nothing but barren. There was no edition of the book published as a monograph. Most of the praise for the accomplishments of the traveling and the heroes from workers, peasant, soldiers in the newspapers and essays as a confession literature were difficult to create. However, in the wave of reform and openness in 1978, Chinese-Korean Literary Essay began to take its place in the literary circles.

Since the 1980s, poetry and novelists have published hundreds of essays in Korean newspapers and magazines a year. Representative works of Kim Hakchun and Moon Chang Nam have been published. Kim Hakcheon's essay focused on cold criticism, sarcasm, and wit, but lacked intimacy with the readers. Mun-nam's essay was pointed out as a lack of temperance and overexposure of emotions, but they formed two types of essay literature in the 1980s. In addition, the Essay Literary Prize was established.

Although the essence of the political color of the emotional tone until the 1980s, there was a lot of essay that was said to be the age of prose in the 90s. In 1992, as a resul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under the influence of the honest and unique Korean essay, the writers of various generations led the prosperity of the essay literature by concentrating on the individual voice through the reflection on the inside. The publication of essay journals and the emergence of young and intellectual essayists who graduated from college also played a role.

By the 2000s, the essay was in its heyday. As a result of the growth of female writers, including the changes in the essay readers who prefer nonfictional, rather than fictional,

essay books have been published with high quality and the appearance of young essayists who show new style and conception different from previous generations played a major role. In particular, Cho Kwang Myung works on creative works across genres such as poetry essay photographs.

Howeve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ssays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ssay population can not be seen as positive because of the concern that the creation of essay can be used as a means of recreational use and low quality works lacking artist consciousness can be mass produced. Therefore, based on the spirit of the times, we must strive to create essays with intellect and qualities that can respond to the needs of readers.

Key words : Chinese-Korean, Chinese-Korean literature, Chinese-Korean literary essay, confession literature, reform and openness, introspection

웹 사이트 <고려 사람>에 나타난 CIS 고려인문학

한 블라디슬라브

■ 차례

국문초록

본문(번역문)

Abstract

러시아어 원문

■ 국문초록

이 글은 웹 사이트 <고려사람>에 실린 CIS 고려인 작가들의 문학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오늘의 고려인문학은 러시아 문학의 일부로서 존재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는 아나톨리 김, 미하일 박, 디아나 강, 스타니슬라브 리 등의 작품 활동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들은 그들에게는 모국어인 러시아어로 쓰고 자신의 사상을 펼쳐 보인다. 이는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이 겪어야 했던 질곡의 질곡의 역사에서 연유하는 불가피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아나톨리 김의 작품은 한국적인 테마들을 특징으로 하며, 중편소설 「내 아버지의 이야기들」 「나의 과거」에서 새로운 고향이 된 타국 땅, 연해주와 카자흐스탄에 살게 된 제2세대, 제3세대 고려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블라디미르 김은 서정적 일탈이나 다른 예술적 기법을 통해서 고려인들의 삶을 작품에 녹여낸다. 미하일 박은 작가이자 서정 시인으로, 그는 젊은이의 사랑, 그 영혼의 떨림과 열정을 작품에 그려냈다. 또한 한국 작가 윤후명의 소설 『둔황의 사랑』을 러시아어로 번역,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고려인들에게 한국문학을 전하는 교육자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강은 <고려사람>에 가장 많이 소개된 작가로, 우리와 동시대인인 그의 서정적 자아는 변화의 시대, 환란 상태에 있는 고려인으로서 이주 초기의 선조들처럼 거친 삶 속에서 자기 자리를 탐색한다.

작가이자 극작가인 최영근은 웹 사이트 <고려사람>에 일제에 의해 사할린 섬에 끌려갔던 한인들의 비극적 운명에 관한 단편 「마지막 총탄」을 게재했다. 겐리에타 강, 안드레이 한, 블라디미르 림 등의 작품은 선집 『음력의 페이지들』과 『다정함의 고리』에 실렸던 작품이다. 『음력의 페이지들』은 러시아어를 쓰는 고려인 작가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선집으로 소련 붕괴 시점에 출판되었고, 『다정함의 고리』는 소련 붕괴 이후 출판되었다.

시인으로는 디아나 강, 스타니스라브 리 등의 작품이 많이 게재되었다. 디아나 강은 그의 시에서 그녀가 태어난 우즈베키스탄 테르메즈는 고향이라기보다는 그저 유년기를 보낸 장소로만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혈통은 고려인이지만 영혼은 러시아인인 그녀의 민족정체성과 유사하다. 스타니스라브 리의 서사시 「강제이주」는 소련에 스탈린 전체주의가 지배하던 지난 세기 선조들이 겪었던 것에 관해 알리려는 시도이다.

고려인 작가들은 언어예술에서 새로운 표현 수단을 획득했고, 자신들의 정신적 가치를 보존하고 확장시킬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고려인 문학은 독창적이다. 두 개의 문화의 합금을 통해 각각 존재할 때보다 더 커다란 가치를 창조해 낸 것이다.

주제어 : <고려사람>, 고려인, 고려인문학, 아나톨리 김, 미하일 박, 스타니스라브 리, 디아나 강

1.

고려인문학은 러시아 문학의 일부로서 존재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는 작가 아나톨리 김, 미하일 박, 알렉산드르 강, 블라디미르 김, 그리고 시인 디아나 강, 스타니스라브 리, 바체슬라브 리, 마르타 김, 극작가 유리 황, 라브렌티 송 등의 작품 활동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고려인문학은 현실 반영의 형식으로서 우선 러시아어로 쓰여 있으며, 고려인에게는 모국어인 러시아어로 자신의 사상을 펼쳐 보인다. 이 때문에 러시아어로 발표된 고려인문학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강제이주 전 연해주에서 고려인문학 형성의 초석을 다진 조명희를 비롯하여, 김진선·리진·한진·양원식 등 한국어로 작품을 창작 발표한 작가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한편, 조명희 등의 작품이 러시

아어로 번역되지 않았더라면 CIS 고려인들에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늘의 고려인 작가들이 러시아어로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인문학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조명희의 작품들이 러시아어로 번역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쉽기 그지없다.¹⁾

2.

2.1. 웹 사이트 <고려사람>에 나타난 문학작품에 관한 고찰은 작가 아나톨리 김으로부터 시작하려 한다. 아나톨리 김²⁾은 소련 전체는 물론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최초의 고려인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80여 나라, 23개 언어로 출판되었다. 웹 사이트 <고려사람>에 발표된 그의 작품들의 테마는 매우 한국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의 중편소설 「내 아버지의 이야기들」 「나의 과거」는 새로운 고향이 된 타국 땅(처음에는 연해주, 이후 카자흐스탄)에 살게 된 고려인 2세대, 3세대 삶의 역사이다.

아나톨리 김의 언어는 탁월하다. 그래서 이야기 속의 모든 것들이 실제 일어났었던 것만 같이 느껴진다. 가족사가 전개되는 「내 아버지의

1) 현재 조명희의 시는 네 편이 알렉산드르 파인베르그 번역으로 남아 있을 뿐인데, 참고로 그중 「누구를 찾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저녁 서풍 끝없이 부는 밤/ 들새도 보금자리에 꿈꿀 때에/ 나는 누구를 찾아/ 어두운 별판에 터벅거리노// 그 육되고도 쓰린 사랑의 微光을 찾으려고/ 너를 만나려고/ 그 험하고도 험한 길을/ 홀홀히 달려 지쳐 왔다/ 석양 비탈길 위에/ 피 뭉친 가슴 안고 쓰러져/ 인생 고독의 悲歌를 부르짖었으며/ 약한 풀대에도 기대려는 피곤한 양의 모양으로/ 깨어진 빗돌 의지하여/ 상한 발 만지며 울기도 하였었다/ 구차히 사랑을 얻으려고 너를 만나려고// 저녁 서풍 끝없이 불어오고/ 베짖이 우는 밤/ 나는 누구를 찾아/ 어두운 별판에 헤매이노.”

2) 아나톨리 김(1939-)은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 작가이다. 1965년 모스크바 미술대학에 입학, 그림을 공부하던 그는 중퇴 후 문학대학 통신교육과정을 이수한다(1971). 1973년 단편 「수채화」로 러시아 문단에 데뷔, 이후 백여 편의 중·단편소설과 4편의 장편소설을 발표함. ‘톨스토이 문학상’(2005), ‘올해의 작가상’(1978) ‘황금펜 상’(1982) ‘러시아문학상’(2000) 등 수상. 1997년 『아나톨리 김 전집』(6권)이 출간되었음.

이야기들」 처음 부분에서, 작가는 러시아 원동 지방으로 한인들이 이주했던 역사를 깊이 있고 정확히 그려내고 있다.

어느 날 대낮에 그는 갑자기 나타났다. 맹렬히 젖어 대며 그의 발치까지 따라오는 개에는 눈길도 주지 않으며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집으로 왔다. 그는 양복 차림에 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회중시계 줄이 복부까지 늘어뜨려져 있었으나, 긴 머리는 말아 올려 상투를 틀고 있었다.

숙부(내 아버지의 숙부)는 1918년 자기 형을 뒤따라 조선을 떠났다. 형은 당시 땅이 없던 소작농들이 그러하듯 ‘돈을 벌기 위해’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만주를 지나 러시아까지 흘러 들어왔고, 고향에는 아내와 두 아이들이 남겨져 있었다. 숙부는 당시 35세였고, 체격은 단단하고 건장했으며 화살모양으로 말아 끈 검은 콧수염이 있었다. 숙부도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었으며, 그가 고향을 떠난 이유는 스스로의 말에 따르면 혼자서 아이들과 고생하는 아내의 불평과 눈물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다. 숙부는 러시아에 와서 어렵사리 자기 형을 찾아냈는데, 형은 이미 새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 사이 아이를 세 명이나 낳고 살고 있었다. 그 중 둘째가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

숙부가 집으로 다가가자, 무릎을 댄, 폭이 넓은 마바지를 입은 땡땡 막한 농부가 무겁게 발을 옮기며 문 앞으로 달려 나왔다. 형과 아우는 두 손을 맞잡고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울었다. 그들은 12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 「내 아버지의 이야기들」

아나톨리 김은 중편 「나의 과거」에서 자기 아이들에게 부자연스러운 이름을 붙이는 고려인의 특징에 관해 잊지 않고 이야기한다. 아이러니가(냉소가) 섞인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부모들의 행동은 정당화된다. 사실, 그렇다고 독자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이런 이름들을 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 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름들은 러시아 성자력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영향으로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에게 지어주었던 러시아 이름이었다. 그리하여 혁명과 내전 시기 많은 웅팽스러운 빨치산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에 있던 강의 이름을 따서 두 딸의 이름을 부레야와 제야로 불렀다. 큰 아들의 이름은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노동자와 농민을 해방하신 분’이라는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서 빌로릭이라고 지었다. 작은 아들의 이름 베미소르는 ‘위대한 세계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서 지었다. — 「나의 과거」

아나톨리 김의 『한국의 민담』은 아마도 전무후무한 작품일 듯한데, 왜냐하면 고려인 작가들 가운데 더 이상 고려인의 민담을 토대로 한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민담들은 구전 형태로 민족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전해 내려온 것이다. 아나톨리 김은 이 민담을 한국어로 듣고 기록한 뒤 그 한국어 뉘앙스를 모두 살려 러시아어로 개작했다. 기적과도 같은 한국의 혼이 러시아어를 통해 표현되었고, 그래서 독자는 그 간접성(관련성)을 눈치채지 못한 채 ‘한국’이라는 세계에 온전히 빠져들게 된다.

아나톨리 김의 『한국의 민담』은 니콜라이 게오르기예비치 가린-미하일롭스키의 『한국의 민담』과 유사하다. 가린-미하일롭스키의 『한국의 민담』은 한국의 구비민속문학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며, 아나톨리 김의 『한국의 민담』 역시 CIS 고려인의 구비문학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나톨리 김의 작품은 고려인들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그의 「기억의 기차」에 잘 드러나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아직 한인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피, 우리의 짧은 성씨, 우리의 외모, 그리고 세계적으로 독특한 매운 음식에 대한 애착이다. 또한 한인들을 제외하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한’이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몇 가지 어결합을 예로 들어 보겠다. 잊지 못할 염원. 아름답고 실현 불가능한 무언가에 대한 말없는 희망. 다른 이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평생 마음 속에 간직하는 무언가.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 무언가 슬프지만 동시에 밝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 이 세상에서 도달 불가능하지만 하

늘에서 내린 소중한 선물처럼 평생 간직하고 있는 것.

— 「기억의 기차」

2.2. 웹 사이트 <고려사람>에 작품을 올린 블라디미르 김³⁾은 고려인의 운명으로 인해 고통받은 작가이다. 그의 장편소설 『김가네』는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연해주로의 이주에서부터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스탈린 정권의 집단 테러를 당했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고려인의 삶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전개되는 서사적 시간 동안 주인공의 운명은 그들이 정착한 나라인 소련의 변화와 연결된다. 이 작품은 역사적 틀에서 굳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맥박이 뛰며 지속된다는 점이다.

중편소설 「멀리 떠난 사람들」은 『김가네』와는 달리 역사소설이라기 보다는 현대소설에 가까운 작품이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최근 20년의 시간은 매우 압축적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역사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이주 초기의 삶을 다룬 이 소설은, 문학 작품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 주제이지만, 서정적 일탈이나 다른 예술적 기법을 통해서 전환기 고려인들의 삶을 작품에 잘 녹여냈다.

모임이 있던 저녁이다. 중앙위원회 편집국 강당 최초로 많은 고려인들이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서로에 대한 실된 관심이 드러나 있었다.

이 인구 2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에서 고려인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개인적으로든 다른 누구를 통해서든. 추적해보면 어쩌면 모두들 친척일지도 모른다. 겉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핏줄이 당기고 있었다. 혼혈인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외모로 보자면 그들을 러시아인이나, 우즈

3) 필명은 용택. 1946년 타시켄트 근교에서 태어남. 12세까지 부모를 따라 북한에서 살다가 1958년 타시켄트로 돌아옴. 1964년 타시켄트 공예(종합기술)전문대학에 입학, 1년 후 학업을 중단하고 입대함. 제대 후 타시켄트대학 신문학부에 입학, 야간학부로 옮겨 신문사에서 일함. 통신원, 『레닌기치』 타시켄트 지부장 역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명예기자. 『멀리 떠난 사람들』 『김가네』 등의 작품이 있음.

베크인, 타타르인들로 부를 수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고려인으로 규정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처럼 낯선 환경에서 살아내야 했던 천년의 경험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그저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예? 나는 다음과 같이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말했던 사례들을 안다. 한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밥이 나오나? 러시아어를 배워라, 그래야 대학도 가고,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그러나 실제로 자기 자식에게 신분증에 기재되는 민족성을 바꾸라고 조언하는 고려인 부모들은 찾기 어려웠다. 고려인들만 모이게 되면 어색해지는, 흥미로운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우즈베크인이나 러시아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멀쩡하다가도 유난히 동족인 고려인들 사이에 있으면 불편하다. 실제로 한국인들이 보기에 우리 고려인들은 이상한 그림을 연출한다. 러시아어로 말하고, 러시아식으로 포옹하고, 입 맞추고 서로의 어깨를 다독인다. 우리가 정말 한민족이란 말인가?

나는 이미 아는, 혹은 모르는 고려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 모두는 정말 우리 미래 운명에 대한 고통과 불안으로 인해 여기에 모인 것이 맞는지 반문해 보았다. 자기나라 말을 잊었다. 여기에 이상할 게 뭐란 말인가? 다행히 우리는 러시아어로 서로 이야기한다. 우즈베크인들 가운데도 자기 민족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도 모국어를 배우는 것을 금지한 적은 없었다. 원하기만 하면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언어를, 그것도 모국어를 배우는 것이 쉽다는 것은 허상이다.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소련에 사는 독일인들의 예를 들어보자. 그들은 독일어를 배우기가 훨씬 더 쉽다.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도 독일어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독일인은 독일어를 모른다. 그리고 필요성이 생기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모국어를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진대거나, 같은 민족끼리 있을 때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다거나, 조상이 살던 곳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고통스럽게 된다 등과 같은 부득이 한 사정이 생기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강당에 모인 사람들은 지식인들이 대다수였다. (중략) 강당에 모인 사람들 중 노동자나 농민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은 아쉬웠지만, 그들이 소련 고려인의 얼굴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멀리 떠난 사람들』

2.3. 미하일 박⁴⁾은 작가이자 서정시인이다. 위대한 산문 작가들은 대부분 시인이기도 하다. 그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젊은이의 사랑, 그 영혼의 떨림과 열정을 그려냄으로써 독자들이 같은 크기의 감정을 느끼도록 하며, 그들 내부에 숨겨진 현을 자극하여 독자들과 함께 사랑의 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다.

나는 처녀의 구릿빛 몸을 바라보았다. 이제 막 즙을 쏟아내기 시작한 유방은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다. 눈썹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안정되기를 기다렸지만, 나는 안정될 수 없었고, 마치 백미터 달리를 한 것처럼 계속 숨을 거칠게 쉬었다. 달리는 계속되었다. 내가 몸을 숙여 릴리니호의 닫힌 입술에 내 입술을 갖다 대자, 릴리니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나는 옷을 벗고, 소녀에게 매달렸고 갑자기 우리는 하나의 완전체, 가벼운 나뭇잎이 되었음을 느꼈다. 우리는 강물을 따라 알지 못하는 곳으로 향해갔다.

— 『밤, 그 또 다른 태양』

<고려사람> 사이트에는 『사과가 있는 풍경』 『개미 도시』 『천사들의 기슭』 『흰 닭의 춤』 『밤, 그 또다른 태양』 『사자』 『12월 어느 날』 『섬에서』 『해바라기』 등 미하일 박의 단편과 중편, 장편소설들이 많이 올려져 있다. 장편 『웃는 홍도』(한국어 번역본 제목은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는 이주 150주년을 맞는 러시아 고려인 1세대에게 바쳐진 작품으로, 고려인의 내적 지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다. 『돈황의 사랑』은 미하일 박이 번역한 운후명의 소설인데, 미하일 박은 번역가의

4) 고려인 5세 작가. 1949년 타시켄트 출생. 1961년 부친과 함께 타지키스탄 두산베로 이사, 1두산베미술대학 졸업(970). 1976년 문단에 데뷔한 그는 1980년대부터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함. 1997년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주,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를 비롯하여, 『발가벗은 사진작가』 등 20여 편의 장·단편소설을 발표함. 해외동포문학상(1999), 재외동포재단 및 펜클럽문학상(2001), 러시아 까파예프 문학상(2001, 2007), 러시아 쿠프린 문학상(2010) 등 수상. 『토지』(박경리), 『돈황의 사랑』(운후명) 등을 러시아어로 번역함. 모스크바 파라알마티·서울 등에서 20여 차례 개인전 가짐. 『밤, 그 또다른 태양』 『개미도시』 『헬렌의 시간』 『에올라』 등이 있음

역할을 넘어 교육자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자이지만, 역시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국문학에 목말라 하고 있었는데, 한국 현대문학 작품의 러시아어 번역은 거의 없었다. 미하일 박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번역과 교육자의 쉽지 않은 일에 매달렸다. 「서울에서 보낸 휴가」는 교육적이라는 측면에서 번역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작품이다. 고려인은 항상 오늘의 한국 사회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데, 이 점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학적 묘사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천여 개의 불빛을 가진 섬

여기에선 밤마다 하늘에 굴처럼 커다란 밝은 별들이 타오른다. 그 불빛 아래서는 뜰에 있는 오솔길도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여기에선 낮에도, 밤에도, 하루종일 바람이 분다.

돌로 만든 할아버지를 의미하는 돌하르방은 제주도의 수호신으로 산 위에 서 있으며 매우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다. 누군가에 의해 화강암 돌덩이로 만들어져 있으며, 바람은 물론, 자주 이곳을 찾는 태풍에도 끄덕이 없다.

바람은 하늘에 있는 구름을 흩어버리고, 바다의 거품이 이는 파도를 해안가로 몰고 오며, 삼나무와 야자수 꼭대기들과 길가에 자라 나 있는 갈대의 ‘여우 꼬리들’을 휘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바람을 피하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할 것없이 거칠거칠하다. 바람은 그들 삶의 일부이다.

낮에 부는 바람은 투명하다. 섬 위를 흘러가는 구름들도 투명하다. 먹구름조차 무겁지 않아 보이며, 바람에 실려 멀리로 가버린다. 섬에서는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단 일분도 멈춰 있는 것 없이 모든 것이 맹렬하고도 불가역적으로 변화한다.

천여 개의 불빛을 가진 섬!

밤에 이곳에 부는 바람은 다르며, 신음소리가 난다. 이 시간 끝없이 광대한 대양에서 태어난 바람은 제주도에 도착하면서 변화하고,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알 수 없는 방사선과 전류로 가득 찬다. 밤 바람의 신음소리에서 나는 천년이 넘은 섬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나는 그 속에

서 화산의 불길에 잠이 깨어 바다를 향해 내달리는 말들의 발굽소리를
듣는다. 목선들이 항구의 검은 돌에 부딪히는 소리, 위험한 고기잡이를
떠나는 어부들의 느릿한 이야기 소리를 듣는다.

— 『서울에서 보낸 휴가』

2.4. 알렉산드르 강⁵⁾은 웹 사이트 <고려사람>에 가장 많이 소개된 작가이다. 알렉산드르 강의 폭넓고 깊이 있는 작품세계는 별도의 본격적인 비평을 요한다. 우리와 동시대인인 그의 서정적 자아는 변화의 시대, 환란 상태에 있는 고려인으로 이주 초창기 선조들처럼 거친 삶 속에서 자기 자리를 탐색한다. 『삼각형의 땅』 「이지러지는 달의 골렘」 등은 그 한 예이다.

아나톨리 김은 “장편 『삼각형의 땅』은 소련제국의 붕괴와 그 이후 시대의 카오스라는 변화의 시기를 삼각관계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 예술적으로 모델화하려는 포괄적 착상과 그 깊이에 있어 독창적이다. 오디세이의 『변신』의 전통과 라블레의 해학의 문화를 계승하면서 알렉산드르 강은 섬세한 비유와 인용, 연상의 형식을 통해 거대한 제국의 붕괴 이후의 20세기 말 세계상을 묘사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작가는 인간의 영혼을 그려내면서 그 고통과 환멸, 실의와 어둠, 지옥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자신의 숙명에 대한 불굴의 견고한 믿음도 표현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한다.

알렉산드르 강은 문체가 뛰어나다. 그의 글은 독서의 즐거움을 주며, 그의 러시아어는 완벽하고 현대적이다. 「보이지 않는 섬」 「귀가(歸家)」 등 그가 쓴 에세이는 이를 잘 보여준다. 문학과 인간에 대한 고통이 정

5) 본명은 강경일. 1960년 평양에서 출생. 한 살 때 고려인 어머니와 함께 북한에서 추방당해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외할머니 집에서 자람. 모스크바 전자공학대학과 고리키문학대학 졸업. 1987년 「게임의 법칙」으로 문단에 데뷔함. 이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박사(Kandidat)」를 비롯하여 「가족의 시대」 「의상 담당자」 「태어나지 않은 자들의 꿈」 등의 중단편, 여러 편의 시나리오를 발표함. 러시아문학 콩쿠르(모스크바, 1994), 유럽영화콩쿠르(베를린, 1999),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문학상(시나리오, 2003) 수상.

확하며, 투명하고 깊이 있고 폭넓게 표현되었다.

그래서 CIS의 우리 고려인 작가들은 러시아판 홍길동이라 할 수 있다. 비합법적인, 다른 세계로부터 온 사람들. 어느 날 두 눈을 뜨기로 결심한 뒤, 우리와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을 괴롭히고 죽어가다 다시 되살아난 것에 관해 이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시대가 왔고, 역사적인 고국에 대한 그리움, 스탈린의 탄압과 강제이주를 비롯한 이방인의 삶에 있어 여러 가지 끔찍함에 관한 고려인 작가들의 책이 끊임없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날, 2009년, 21세기 초 우리는 실존적 공포만이 우리 시대의 덮개 아래 쌓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자면, 그 어떤 다른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 우리가 정신적으로 붕괴되지 않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 「보이지 않는 섬」

2.5. 리진과 호진, 한진, 양원식 등은 고려인 문화에 있어 눈에 띄게 활동한 고려인 작가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의 정당성을 그 삶과 운명으로 증명하는 한편, 이를 작품으로 담아낸다. 그들의 작품에는 인간과 휴머니즘적 이상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내재해 있다. 호진의 「물망초」는 그 좋은 예인데, 1937년 강제이주의 질곡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상철의 아버지 김성택은 양반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고조할아버지는 매우 높은 관리직에 있었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가 급속히 어려워졌고, 성택은 이미 결혼하여 두 살배기 아들이 있는 몸으로서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농사일을 하게 된다. 어느 날 성택은 혼자 눈에 일하러 나갔다. 일꾼은 아프다는 구실로 집에 남아 있었다. 눈에서 돌아온 성택은 재앙을 목도한다. 일꾼은 그의 아내를 욕보이고 귀중품들을 모두 챙겨 도망친 것이다. 아내는 수치를 이겨내지 못해 목매달았다. 성택은 참담함 속에서 자기 집을 불태우고, 아들을 등에 업고 눈길 닿는 곳으로 떠났다. 그러다 러시아까지 오게 되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 수찬이라는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점차 과거에 대해서도 잊게 되었다. 마을에 한인 학교도 만들었다. 삶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37년 가을이 되자 그들의 작은 마을에 먹구름이 덮였다. 천 선생과 그의 아내가 잡혀갔다.

며칠이 흘렀다. 힘들고 불안한 날들이었다. 내무인민위원회 소속 사람들이 다른 교사들을 모두 연행하였고, 김성택 혼자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제 곧 성택도 잡혀갈 것이었다. 혜옥은 병이 나서 고열에 시달리며 앓아누웠다. 약이 부족했고, 아버지는 약을 구해 오라고 상철을 이웃 마을 한 노인의 집으로 보냈다. 집에 돌아온 상철은 아픈 혜옥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아이의 아주머니가 와서 데려갔다” 상철은 말했다. “그 아이가 나를 때까지만이라도 두라고 설득했지만 데려갔어. 그 아주머니가 이야기로는, 내일 고려인들은 모두 짐을 싸서 기차역으로 가야 한다는 지시가 위로부터 내려왔다고 한다. 별수 없이 준비해야지.”

상철의 아버지는 아침이 되자 문과 창에 모두 못질을 하고 어깨에 짐을 매고 아들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섰다. 성철 역시 책 보파리와 천선생님의 망가진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있었다.

기차역에서 그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인파가 기차를 에워싸고 있었다. “아마 여기 어디 혜옥이도 있겠지” 상철은 이렇게 생각했다. 사실 혜옥과 상철은 언젠가는 이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바다로 가려는 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기차는 정반대 방향인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 어디론가 흘러갔다.

— 「물망초」

2.6. 최은근은 작가이자 극작가로, 웹 사이트 <고려사람>에 단편 「마지막 총탄」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징용당한 사할린섬에 끌려갔던 한인들의 비극적 운명을 다루고 있는데, 다름은 그 결말 부분이다.

춘첩은 누워서 신음했고, 이후 신음은 처음에는 조용한, 그러나 조금 지나자 커다란 통곡소리로 바뀌었다.

일본인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다시 순이에게로 갔다. 춘섭은 순이가 그자와 몸싸움을 하는 것을, 그리고 그자가 그녀의 옷을 찢어 벗기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일본인의 위협은 춘섭을 마비시켰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머릿속에는 곧 닥칠 죽음에 대한 생각만이 맴돌았다. 진짜 그를 구할 방법은 없단 말인가, 진짜 무언가 벌어지고야 말 것인가, 진짜 일본인이 그를 쏘고 모든 게 끝날 것인가? 그리고 춘섭은 울기 시작했다. 옆드려서 문가로 기어가서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굴러 나왔다. 길거리에서 그는 가슴이 찢기듯 울면서 멀리로 내달렸다. 세 발의 총소리가 달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춘섭은 쓰러졌다. 그렇게 그는 얼마간 쓰러져 있었다. 컧가에 들리는 소음과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면서도, 총탄이 자기를 맞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한 채. 그는 살아 있었다. 살아 있었다?!

아침 일찍 사람들은 아이의 희미한 울음소리에 깨어나서 춘섭의 집에 모여들었다. 소년은 어미에 바짝 달라붙어서 울고 있었다. 그 옆, 피범벅의 침대에는 일본인이 죽은 채 누워있었다. 사람들 이야기로는 회감는 그의 몸뚱이에 순이가 총 두 발을 쏘아 그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순이는 날이 쉼 무렵까지 문턱 귀퉁이에 앉아서 자기 남편을 기다렸다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한발로 그녀는 자살했다. — 「마지막 총탄」

라브렌티 송은 작가이자 연출자이며 극작가로서, 그는 웹 사이트 <고려사람>에 주로 산문과 희곡을 소개하고 있다. 그의 단편 「삼각형의 면적」은 현실과 교차하는 단순한 환상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함을 살펴보고 있다.

길을 가는 동안 어머니는 절망적으로 몸이 얼었고, ‘스투데베커’ 트럭 위에 올라 작은 덩어리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 트럭에는 튼튼하고 커다란 사이즈의 무스탕을 걸친 카자크인 노인들도 몇 명 타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어머니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노인의 무스탕 소매가 뜯겨져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입을 활짝 벌린 구멍으로 들어가면 외투 주인은 감기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어머니는 생각했다. 바늘과 실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는 군데군데 움푹 패인 길 때문에 몹시

덜컹거리는 트럭 안에서 소매구멍을 빈틈없이 꿰맸다. 언제나 그러하듯 완벽한 바느질이었다. 노인은 어머니가 꿰맨 곳을 살펴보고 거친 손으로 그 이음새를 만져가며 어머니의 숨씨에 감탄했다. 노인은 그저 고마워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일은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된다. 여기엔 작은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알아 맞춰 보시기를 바란다. 그제 다음과 같은 힌트만을 드리겠다. 이웃집 감기 걸린 여자애에게 어머니가 손수건을 만들어 주면 그 아이는 곧 감기가 나았다. 2학년짜리 바시키라는 아이에게 바지를 만들어 주면, 그 아이는 3학년 공부도 잘하여 4학년으로 진학하게 되었다. 중장비기계 공장의 기술자에게 작업복을 만들어 주면(그 기술자는 지도부의 평판이 나빴는데), 일이 잘 풀려서 그가 훌륭한 일꾼이자 좋은 사람임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만일 우리 소련 실업가의 양복을 만들어 주면, 그 실업가는 반드시 설비 공급에 대한 계약을 동독 회사와 성공적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에 맞는 양복과 드레스를 지어주면, 그들은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듯 언제나 멋진 모습을 유지했다. — 「삼각형의 면적」

젠리에타 강은 웹 사이트 <고려사람>에 중편 「끝없는 변화」를, 안드레이 한은 「시골」 「골물로」 「물고기가 잘 낚이는 자리(브레인레베르스)」를, 블라디미르 림은 단편 「대양의 한 움큼」 「거울」을, 블라디미르 부는 단편 「레클리의 왈츠」를 게재했다. 이 작품들은 선집 『음력의 페이지들』과 『다정함의 고리』에 처음 실렸던 것인데, 『음력의 페이지들』은 러시아어를 쓰는 고려인 작가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선집으로서 소련 붕괴 시점에 출판되었고, 『다정함의 고리』는 소련 붕괴 이후 출판되었다.

유리 황의 「전방으로 가는 길」은 전방에서 스러진 고려인들에 관한 시나리오이다. 대조국전쟁 시기 고려인들의 정신 고양과 애국심을 예술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알렉세이는 이미 다른 건물에 있었다. 전등이 그를 향하고 있었고, 헌병이 이 전등 맞은편에 앉아 그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말해봐.”

“뭘 말하라는 겁니까 대위 동무?”

“동무가 아니라 대위님이라 불러야지.” 특수부원이 정정했다.

“자세히 말해봐, 당신이 누구며 군용열차 지붕 위에서 뭘 하고 있었고 어디로 가려 했는지, 목적이 뭐였는지 말아야. 자, 말해봐, 당신 이름이… 김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네, 대위님”

알료샤는 너무 강한 불빛 때문에 실눈을 뜨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저는 1926년 6월 12일 원동 크라스노아르메이스키 구역 루키야노프 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민족분류는 고려인이고, 1937년 우리 조선인은 원동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당했습니다. 우리 집 단농장도 마찬가지였죠. 아울리에아타 주로 이주되어 기차역 부르노예에서 2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았고, 일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우리들은 어찌선지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파시스트를 괴멸시키고 싶었습니다.” —『전방으로 가는 길』

블라디미르 리는 자전적 중편소설인 「희망의 기슭」에서 광산촌에 사는 고려인의 삶에 관해 날카로우면서 때로는 격분한 어조로 말한다.

마을사람들이 모두 화물칸에 실렸던 날, 기차가 출발하기까지 단 몇 시간이 남았는데, 할아버지는 아내 무덤에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갔다. 그의 영혼과 심장은 아마도 그가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을 이곳, 이 땅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이제 그 행복한 시절은 슬픈 회상 속에서만 살아있으리라.

이주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사복을 입은 자 두 명이 그를 찾아왔다. 봉극을 오래된 1.5톤 트럭에 태워 주 수도 쪽으로 향하는, 마을의 하나뿐인 도로를 따라 가버렸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순식간에 어른이 되어 버린 아이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을 잠자코 보고만 있었다. 유일하게 막내 딸 뉴라만이 마지막 순간에 오빠의 손을 뿌리치고 자동차를 뒤따라 달려갔다.

“아버지! 아버지…”

가을의 짙은 먼지가 오랫동안 1.5톤 트럭 뒤를 소용돌이쳤다. 뉴라가 쓰러지자, 바람은 사납게 흔들리는 끝없는 갈대숲을 일렁이게 했다. 하늘은 납빛 비구름에 덮였고, 가늘고 차가운 빗방울을 떨구기 시작했다. 여자아이들은 달랠 길 없이 오랫동안 울었고, 아들들은 불청객인 사내의 눈물을 감추기 위해 치르칙 강가로 가버렸다.

다행히도 할아범은 두 달 후 풀려났다. 그는 여위었고, 온갖 병들이 걸린 채 돌아왔다. 밤마다 고통스럽게 기침을 했고, 움막에서 나와 차가운 공기를 쐬며 오랫동안 걸러운 피웠다. 그의 체포에 관해 묻는 마을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특히 호기심 많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캐묻고 싶지 않을 정도로 쌍욕을 했다. — 「희망의 기슭」

브루트 김은 소련시대 고려인 입차인들에 관한, 슬프면서 동시에 유쾌한 이야기들인 단편 「드럼통」과 「나리안 마르(북러시아 지역 도시)에서 온 네페르티티」를 발표했다.

학교에서 바샤는 금메달 후보가 아니었다. 그는 심지어 중등의무교육에 관한 법을 찬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성실히 학교에 다녔다. 자기 동갑들이 모두들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혼자 떠돌아다니는 것은 그곳이 쿠일류크일지라도 지루했다. 추스트와 쿠바에서 온 상인들이 충분히 납품하던 달콤한 석류까지도 혼자 있으면 시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후 아버지는 농사일이 한가할 때 소음을 틈타 슬그머니 도망치려는 바샤에게 아침 동화 「너는 왜 학교에 안 가려고 하니?」를 반드시 읽어주었다. 바샤는 왜 야채농사는 일 년 내내 할 수 없는 건지 항상 속상해했다.

바샤는 이런 이야기들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들이 그저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군인의 혁대라 불리는 체벌로 종종 이어졌다. 이 혁대는 아버지가 군대에 있을 때 생긴 것으로, 레체트니코프의 그림 <또 낙제점> 대신 거실 벽에 걸려 있었다. 아침 이야기 이후 일주일 동안은 바샤보다 더 착하고 부지런한 학생은 쿠일류크에서 찾을 수 없었다.

올 여름, 오래 전부터 그러하듯, 부모님들은 한철 야채 농사를 짓기 위해 북 카프카즈로 떠났다. 바샤와 두 누이를 맡기기 위해 구를렌에서

일부러 할머니를 모셔왔다.

바샤에게 자유로운 날들이 온 것이다. 그는 모두들 이미 잠든 시간에 집에 돌아오곤 했다. 바샤는 할머니의 잔소리는 무시하며 피했다. 할머니는 시골사람이라 도시 생활은 알지도 못하면서 늙은 할머니가 아무거나 참견한다면서.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그의 모든 장난을 일러바치겠다고 위협할 때만 바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뿐이었다. “놀러 다니면 안되나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난 그저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거잖아요.” — 「드럼통」

세르게이 양은 사할린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시인이며 작가이다. 그의 「비의 노래를 들으며」는, “그리고 우리는 구름의 길을 따라 떠나리라. 공상 속에 사는 그녀는 알 수 없는 슬픔의 감정을 담아 속삭였다. 저녁 도시의 노란 불빛을 차가운 창문을 통해 바라보면서. 삶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구나.”라는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서정적이고, 독자의 영혼을 고양시킨다.

여인은 자기를 찾는 과정에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열려 있었다. 진정한 삶은 열린 가슴으로만 들어온다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 있었다. 열려 있는 만큼 보상받는 것이다. 그녀는 ‘중국’ 시장에서 장사했고, 이후 여자 친구와 함께 밥을 팔았다. 2년 동안 마리나는 저녁이면 심리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다. 새로운 세상에서 이 전공이 쓸모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그러나 실체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펼쳐지곤 한다. 그녀의 학위 증은 쓸모 없게 되었다. 인구의 반은 스스로 인간 영혼에 대해 통달한 사람이라 여기는 나라에서 심리학이 웬 말이란 말인가. 그녀는 모든 고통의 외침에 반응하면서 개인적인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 했지만, 그것은 별이가 되지 못해 마리나는 아무 곳에서나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리고 하루는 집에서 먼 낯선 곳에서 자신을 찾았고, 방랑자가 되었다. 과거는 이제 그녀에게 모두 불가피했으며 명료한 일들로 여겨졌고, 삶은 갑자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의미를 획득했다.

“내 과거는 그저 고통과 괴로움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은 밝은 빛이 되었고, 기쁘거나 슬픈 일 모두 이제 결코 어두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이 내게는 소중한데, 과거로부터 온 이 깨끗한 빛은 나를 지탱한다.” 마리나는 생각했다. “자기 안에서 빛을 찾는 것, 자기 심장을 두드리는 것이 나의 길이다. 나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과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 「비의 노래를 들으며」

3.

3.1. 디아나 강의 시에는 도시 오렌부르크와 결합한 시어 ‘고향’이 있다. 그곳에서 러시아 여류시인인 그녀가 탄생했다. 그녀가 실제로 태어난 우즈베키스탄 테르메즈는 ‘고향’이라는 개념과는 한 번도 결합되지 않은 채 그저 유년기를 보낸 장소로서만 언급된다. 이는 혈통은 고려인이지만, 영혼은 러시아인인 그녀의 민족적 정체성과 유사하다.

나는 러시아 벽촌의 국민이다. 이로써 신과 사람들 앞에서 정당하다. 시골에서의 슬픔의 발작은 조국에 대한 내 사랑과 유사하다. 나, 고려인이 러시아인처럼 눈을 가늘게 뜨는 습관이 누군가에게 겨울날의 장맛비처럼 낯설겠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 차가운 맞바람이 부는 곳에서 나는 시간에 의해 거칠어진 입술 위 러시아적 문제의 피맛을 느낀다. 내 삶은 고통스럽고도 괴롭게 불타고 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 때때로 정신을 잃어가며 나는 피눈물로 얼굴을 씻는다. 그러나 나의 축복받은 국적을 절대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으리!

스타니슬라브 리의 시는 이와 반대로 고려인의 재료로 짜여 있으며, 그것에 흠뻑 젖어 있다. 이에 대해 아나톨리 김은 “스타니슬라브 리의 시에는 러시아어로 말하고 생각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가슴 속에 숨겨진 옛날 한인의 영혼이 고동치고 있다. 단순하고 투명한 그의 시는 유심히 살펴볼수록 그 속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새로운 빛과 공간에 감탄하게 된다. 그의 시를 처음 접하면 바로 당신은 산에 있는 호숫물처럼 그 밑바닥까지 보이는 투명함과 선명함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여보게 젊은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

멀리서 소리친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반세기가 흐른 뒤.

조국 땅을 떠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평원까지 역사의 바람에 의해 실려 온 우리, 러시아어로 말하는 고려인의 운명에 대해서는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인종적 특성, 외적으로는 여전히 변함 없고 여전히 매운 한국 음식을 좋아하며 한국식으로 여기서 살고 웃고 있지만, 러시아어로 말하고 생각한다. 이러한 운명은 좋은 것인가, 아니면 별로일까? 이에 관한 하나의 대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스타니슬라브 리는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한국식 이름은 없어졌다.

단지 짧은

우리 성씨만 남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음식은 씹쓸하고,

할아버지는

과거에 관한 질문에

침묵한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고, 우리가 스스로의 높은 문화적 유산을 성씨가 짧은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에만 그들도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충분히 가치 있으며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것이다. 스타니슬라브 리의 시, 고려인의 영혼의 내밀하고 심오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밝고, 깨끗하고, 즐거우면서도 슬프고, 선하면서도 교활하며, 신선한 색채와 명료한 감정을 닮은 시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의미 있는 자산 중 하나이다.

우리의 춤은
슬프면서 느리고,
우리 노래들에는
기도와 희망이 있다.
나는 묻는다 - 그건 왜일까?
그리고 듣는다 - 운명이라고...

3.2. 시인 바체슬라브 리는 웹 사이트 <고려사람>에 시집 『시간의 꽃잎』과 서사시 「강제이주」를 발표했는데, 그의 시에 대해 -D. 야코블레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체슬라브 리의 시는 독특하며 부서지기 쉬운 맑은 세계이다. 그 안에 들어서면 우아한 깊이를 느끼고 발견한다. 『시간의 꽃잎』에 수록된 3행시들은 시조나 하이쿠가 아니다(원동 국가의 시 형식). 시인은 스스로가 고안해낸 법칙에 따라 스스로를 표현한다. 그의 시는 화가의 붓이 캔버스에 닿을 때 내는 소리들과 비슷하다. 그는 매우 시력이 좋고 반응이 좋으며 매우 상처 입기 쉬운 화가이다.”

갈대밭 위 호박꽃을 그대는 기억하는가?
소망 중의 소망은 달에 앉아서 지구가 떠오르는 것을 보는 것.
이른 저녁 건초를 베어낸 들판 위에서 개구리가 운다.
여기 노인이 절뚝거린다. 나는 슬프다. 그도 한때 젊었을 것이다.
세월의 짐을 이고 가는 나는 누구인가? 영원한 방랑자다.

바체슬라브 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서사시 「강제이주」는 소련에 스탈린 전체주의가 지배하던 지난 세기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것에 관해 알려려는 시도이다. 소련 고려인들의 역사는 고통과 용기, 영웅의 역사이다. 후대의 작가들이 이 이야기를 근본적이며 심오하면서도 완전히 표현하리라 믿는다. 우리는 이에 관해 잘 알아야만 한다. 오늘과 내일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하여. 1930-40년대 억압당한 동족들, 굶주림과 병을 견뎌내거나 혹은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강제이주의 희생자

들에게 나의 작품을 바친다.”

20세기는 뼈 위에 세워졌다.
잔인한 세기.
동쪽에서 출발한
화물열차는 증기를 뿜고 있다.

가을은 더할 나위 없이 쓸쓸하며
괴롭힌다.
촛불이 타고 있다
5월의 양귀비 꽃처럼.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열차는 질주하는가?
하늘에선 별들이 소리를 내고
새들은 운다….

김진선은 한글로 시를 쓴 시인으로, 그의 작품은 겐나디 프라슈케비치 등에 의해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널리 알려졌다. 겐나디 프라슈케비치에 의하면, 김진선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식당의 경리부장으로 취직했다고 한다. 당시 이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비밀비재한 일이었다. 모두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짐짓 꾸미며 살아갔다. 겐나디 프라슈케비치와 V. 고르벤코는 김진선의 시를 계속 번역했고, 그것을 사할린에서 멀리 떨어진 곳, 『원동』(하바롭스크) 『이칼』(울란우데) 『시베리아 불꽃』(노보시비르스크) 같은 잡지들에 이따금 실었다. 심지어 『오고록』(불꽃) 편집부가 김진선의 시를 게재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김진선은 계속 식당의 경리로 일했다. 그들은 가끔 김진선의 넉넉하진 않지만 아늑한 집에서 만나기도 했다. 신비로운 한국 음식. 신비로운 과일주. 그리고 언제나 시 낭송. 자신의 슬픈 시를 읊으며 김진선은 자신에게 미래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한다. 시인은 결국 식당의 경리 일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나 그는 시골 식당의 경리로 죽더라도 시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다음은 겐나디 프라슈케비치의 회상 일부이다.

무엇보다도 생각나는 것은 이마이다. 돌출된, 노란, 플라스틱처럼 반질반질한 이마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두워진 뺨과 턱 위로 눈더미처럼 솟아 있었다. 음울한 투쟁들로 인해 지친 정맥들이 도드라져 얹혀 있었다. 그는 한국어로 소리치고 울부짖었고, 한국어로 기도하고 울었다. “번역해 주게.” 그는 간청했다. “말과 사건이 긴밀히 결합된 세계로 내 시어들을 인도해 주게. 옮겨 주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자네가 주인이니까.” 테이블 가장자리에 이마를 부딪치며 쓰러지면서, 차가운 이별을 예감한듯 그는 잠시 침묵했고, 눈을 감은 채 절망적으로 말했다. “번역해 주게!” 그는 애원했다. “시넷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숲으로, 비가 어찌할 바 모르게 내리는 밤으로, 눈이 당혹감처럼 녹는 빗속으로 인도해 주게! 옮겨 주게! 단어들의 반짝임 위로 영혼을 숨긴 채 촛불에다 대고 숨을 쉬듯!” 그리고 그는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추위는 그의 등근 어깨를 일그러뜨렸다. 환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품을 수 없게 하는 궁핍한 날들을 지나: 그는 속삭였다. “장미의 향기를 심술궂은 가시가 방해한 적은 결코 없네.”

마르타 김, 릴리 박, 올리야 리, 바딤 오카, 겐나디 김의 시들도 사이트에 발표되었다. 이들 작품 역시 많은 사랑을 받을 만하다.

3.3. 웹 사이트 <고려 사람>에는 회상문학으로 지칭할 수 있는 작품도 다수 발표되었다. 이네사(인사나) 블라디미로브나 김의 「강제수용소에 대한 회상」은 그 한 예이다. 생생하고도 정확하게 쓰인 회상문학은 대중의 인식에 진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출발 준비를 했다. 할머니가 모스크바에 가져가고 싶어 했던 가재도구들 전체를 료바 삼촌은 폐물이라 부르며 버리라고 명령했다. 할머니는 1892년 자기가 바느질을 시작한 여덟 살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함께한 ‘Zinger’회사의 수동 재봉틀을 쟁겼다. 이제 110살이 된 이 재봉틀은 내 다락방에 있고 아직도 작동한다. 할머니는 한국의 전통의상과 장례용품들을 넣은 보따리도 항상 간직했다. 할아버지와 함께 망명하며 살았던 시절의 유일한 기념물이었던, 파란색 한자들이 큰 글씨로 쓰여 있던, 한때는 이국적으로 보였을 상하이의 선명한 오렌지색 상자를 료바 삼촌은 무자비하게도 버렸다. 어쩌면 그는 이 상자 때문에 스파이 혐의를 받아 체포될까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이 말이 우습게 들리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두 채의 숨을 누빈 이불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집은 벽돌처럼 무거웠다.

이제 화물칸이 아닌 객실 칸을 타고 갔다. 모스크바에 거의 당도했을 때, 나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올라왔다. 사랑하는 고향 모스크바를 나는 다시 보게 된 것이다! 열차 창문 밖으로 음울한 잿빛 철도 건물들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을 때 느꼈던 실망감을 기억한다. 그리고 수도에 4년간 살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슬픔이 갑자기 밀려들었다. 기쁘지 않았고 모종의 예감이 엄습했다.

4.

이 글에서 웹 사이트 <고려사람>에 탑재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로 쓰인 고려인문학의 과거와 현재에 관해 살펴보았다. 오늘의 CIS 고려인 작가 대부분은 러시아어로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이 겪어야 했던 질곡의 역사에서 연유하는 불가피한 현실이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때문에 고려인 작가들은 언어예술에서 새로운 표현 수단을 획득했고, 자신들의 정신적 가치를 보존하고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고려인문학은 독창적이다. 두 개의 문화의 합금을 통해 각각 존재할 때보다 더 커다란 가치를 창조해 낸 것이다.

〈Abstract〉

CIS Korean Literature Appeared on the Web site
<Goryo Saram>

Han Vladislav

This paper examines the literature of CIS Korean writers on the Web site <Goryo Saram>. Today's CIS Korean Literature is developing as a part of the Russian literature. This can be easily noticed through the works of author Anatoly Kim, Mikhail Park, poet Diana Kang, and Stanislav Lee, who write in Russian which is their first language and spread their ideas. This can be an inevitable reality of the history of the CIS Korean's frustration after the forced migration.

Anatoyl Kim's work features very Korean themes. A medium length novel "Stories of my father" and "My past" show the lives of second and third-generation Koreans living in other lands, Primorsky of Russia and Kazakhstan. Vladimir Kim melted the lives of the CIS Koreans in his work through lyrical deviance or other artistic techniques. Mikhail Park is an author and lyricist who expresses the love of a young man, the tremor and passion of his soul in his work. It even plays the role of an educator who translates Korean writer Yoon Hoo-Myung's novel "Dunhuang's love" into Russian and delivers Korean literature to CIS Koreans who speak Russian as their first language. The Alexander Kan is the most frequently introduced writer in <Goryo Saram>, and his lyrical self, our contemporaries, explores his place in a harsh life like his CIS Korean ancestors in the era of change.

The writer and playwright Choi Young-Geun published "The Last Bulletin" about the tragic fate of CIS Korean who were relocated to Sakhalin Island by Japanese. The works of the Kenneth Kan, Andrei Han and Vladimir Lim published "Lunar Pages" and "The Ring of Kindness", the first and last book of Russian-speaking Korean writers. At the time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Lunar pages" was published, and "The Ring

of Kindness” was published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Many poets such as Diana Kan, Stanislav Lee were published. In Diana Kan’s poem, Termez in Uzbekistan is not home but merely a place where she spent her childhood. It is similar to her ethnic identity, which is of a CIS Korean but whose soul is Russian. Stanislav Lee’s epic, “Forced Immigration” is an attempt to publicize the experiences of his ancestors in the last century when Stalin’s totalitarianism was ruled by the Soviet Union.

The CIS Korean writers gained new means of expression in the language arts and were able to preserve and extend their spiritual autonomy. In this regard, CIS Korean Literature is original.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two cultures, they created more value than they did when they respectively existed.

Key words : <Goryo Saram>, CIS Korean, CIS Korean Literature, Anatoyl Kim, Mikhail Park, Stanislav Lee, Diana Kan

Литература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на сайте <Корё сарам>

Хан В. В.
редактор сайта <Корё сарам>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ветствую вас на долгождан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русскоязычн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Литература корё сарам, как составная часть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существует и развивается. Об этом красноречиво говорят имена писателей Анатолия Кима, Михаила Пака, Александра Кана, Владимира Кима, поэтов Дианы Кан, Станислава Ли, Вячеслава Ли, Марты Ким, драматургов Юрия Хвана, Лаврентия Сона.

Литература корё сарам, как форма отражен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редполагает, что она русскоязычная и свои идеи раскрывает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а языке, ставшем родным для корё сарам. Здесь, конечно, могут опротестовать столь резкое суждение, потому как были литераторы, писавши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это поэты Чо Мен Хи, Ким Цын Сон, писатели Ли Дин, Хан Дин, Ян Вон Сик. Но этот протест легко парируем, - не было бы переводов 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х имена и произведения были бы забыты корё сарам. В этой связи не могу успокоиться, что нет переводов стихотворений пламенного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зачинателя корейской сов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Чо Мен Хи. Существует всего четыре его стихотворения в

переводе Александра Файнберга. Послушайте, как чудесно звучит одно из них:

Кого я ищу
В ночь западных ветров, когда не жгут костров,
И птицы в гнездах спят, своих небес не помня,
Куда ж мой путь лежит, путь без дорог и троп?
Кого же я ищу, блуждая в темном поле?
С волнением ищу я свет единственной любви.
Сбивая ноги, я спешу тебе навстречу.
Обрывист был мой путь, но грезились в дали
Твои, моя любовь, божественные свечи.
Но вот я и пришел. И стынет кровь в груди.
Пришел проститься я с любовью.
Ягнёнком, что искал травиночку в пути,
Рыдаю я, припав к разбитому надгробью.
В ночь западных ветров, когда не жгут костров,
И только плач цикад моей созвучен боли,
Куда ж ты вновь, мой путь, зачем теперь мне кров?
Кого ж я вновь ищу, блуждая в темном поле?

Свой обзор о литературе на сайте <Корё сарам> начну с писателя Анатолия Кима. Анатолий Ким явился первым писателем корё сарам, получивший всесоюзную известность и, в какой-то мере, и мировую.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изданы более чем в восьмидесяти странах мира, на двадцати трех языках.

Произведения Анатолия Кима,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на сайте <Корё сарам>, отличаются ярко выраж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темой. Его повести «Рассказы моего отца», «Мое прошлое» переносят читателя в историю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второго и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й на чужбине,

ставшей новой родиной, причем дважды - сначала в Приморье, затем в Казахстане.

Язык повествования настолько хорош, что окунаешься в историю явно, безусловно, - впоследствии, оставляющие в сознании следы не поколебимой веры, что именно так происходило на самом деле. В нескольких первых абзацах в «Рассказах моего отца», где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сама история семьи, писатель очень глубоко и точно отразил общую историю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рус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Он появился однажды среди бела дня, шел к дому через двор, не обращая внимания на собачонку, которая хрипела от ярости и совалась ему под ноги. Одет он был в европейскую пару с жилетом, по животу цепочка от часов, но длинные волосы его были собраны на макушке в тугой узелок и проткнуты оловянной шпилькой.

Дядя (дядя моего отца) в 1918 году прибыл из Кореи со своим старшим братом. Тот, как было принято тогда у безземельных крестьян, пошел бродить по белу свету, чтобы «денег наворотить», пробрался через Маньчжурию в Россию, а дома остались жена и двое детей. Дяде было в то время тридцать пять летон был стройный, крепкий, с черными, закрученными в стрелки усами. Дядя тоже был женат, и ребенок имелся, а отправился в путь он потому, что не вынес, как говорил сам, жалоб и слез невестки, которая одна мучилась с детьми. Но, приехав в Россию и с трудом отыскав брата, он нашел его возле другой женщины, от которой тот заимел уже троих сыновей. Среди них вторым был мой отец.

Когда дядя подошел к дому, с крыльца навстречу бежал, тяжело затаив ногами, приземистый крестьянин в широких холщовых штанах с заплатками на коленях. Братя схв

агилисъ за руки и, склонив над ними головы, молча заплакали. Они не виделись лет двенадцать.

Анатолий Ким в повести «Мое прошлое» блистательно и точно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жизни, не преминул рассказать об одной корейской особенностях – нарекать свои чада вычурными именами. И сделал это с иронией, но, по-человечески, оправдывая поступок родителей. Правда, желания после прочитанного, называть свои чада такими именами и вряд ли у кого возникнет. Цитирую:

Таких имен в русских святцах никогда не бывало, но это были все же русские имена, данные детям их отцом под влиянием вдохновения времени. Советский патриотизм партийная романтика были в основе этого вдохновения. Так, имена Буря и Зея, данные двум очаровательным девочкам, означали названия крупных рек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бассейнах которых во времена революции и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происходило много славных партизанских дел. Имя старшего из сыновей – Вилорик – сложилось из начальных букв слов, составивших следующую крылатую сентенцию: Владимир Ильич Ленин Освободил Рабочих И Крестьян. А имя младшего сына Вемисор означало аббревиатуру: Великая Мирова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волюция.

Следующее произведение Анатолия Кима «Корейские байки», пожалуй, отнесу к наиболее выдающимся его работам, – по одной простой причине, – ни до него, ни после, а теперь уже и вряд ли в будущем, кто из писателей напишет сказки корейцам. Сказки эти хранились в устной форме в недрах памяти народной. Писателю удалось их услыша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записать, затем и переработать на рус-

кий язык, со всеми оттенками корейского повествования. Чудесная корейская душа раскрывается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и не замечаешь его вторичности, - читатель всецело погружается в корейский мир.

『Корейские байки』 Анатолия Кима сродни 『Корейским сказкам』 Николая Георгиевича Гарина-Михайловского. Известно, что 『Корейские сказки』 Гарина-Михайловского являются самым первым письменным изложе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устного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так и 『Корейские байки』 Анатолия Кима стали первым письменным памятником уст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корё сарам.

Творчество Анатолия Андреевича Кима неотделимо от судьбы корейцев, в подтверждении привожу его цитату из книги 『Поезд памяти』:

А то, что позволяет нам еще считать себя таковыми (Хан: корей ца-ми), то это наша кровь, наши короткие фамилии, это внешность и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к острой кухне, совершенно особенной во всем мире. И еще - то неуловимое, мало кому, кроме самих корейцев, понятное - называемое на их древнем языке словом кхан.

Объяснить смысл этого понятия очень сложно. Приведу некоторые сочетания слов. Неизбывное мечтание. Молчаливое упование на что-то прекрасное и несбыточное. То, что носит человек в душе всю жизнь, никому не раскрывая. Неимоверно дорогое и любимое, но недостижимое. Что-то печальное - и самое светлое, самое красивое, чистое. То, чего достигнуть на этом свете невозможно, но можно пронести через всю жизнь как бесценный дар небес.

Перейдем к следующему писателю, представленному своими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на сайте <Корё сарам>. Это - Владимир Наумович Ким (Ёнг Тхек), писатель, не менее страждущий за судьбу корё сарам. Е

го роман 『Кимы』 страстное тому подтверждение. Роман рисует широкое полотно корейск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От времени захвата японцами Кореи д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ё сарам в Среднюю Азию. От королевских апартаментов до массового сталинского террора. И весь этот эпический отрезок времени наполнен жизнью героев, испытывающих перемены в своей судьбе вместе со временем и страной приюта. Главное, что хотел бы отметить, романчивой, не застывший в исторических рамках, пульсирующий, требующий продолжения.

Повесть 「Ушедшие вдаль」, в отличие от романа 『Кимы』 не являясь историческим, а совершенно приближенно к нашим дням, хотя в некотором смысле, в смысле того, как сжато время последних двадцати лет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 некоторыми условностями тоже можно отнести к виду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озы.

Повесть посвящена теме начала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Казалось бы, в теме, не подходящей для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прозы, писатель сумел мастерски, лирическими отступлениями и другим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ми приемами, создать очень ярк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о жизни корё сарам в эпоху перемен.

И вот вечер собрания. Впервые актовъй зал издательства ЦК Вобрал столько корей цев. На лицах приглашенных неподдельный интерес к происходящему и друг к другу.

Как оказывается мы, корей цы, хорошо знаем друг друга в двухмиллионном городе. Лично или через кого-то. Покопаться, так вообще чуть ли не все родственники. Можно уй ти от внешности, но не от зова крови. Я встречал немало таких, кто был рожден от смешанных браков. По внешности их можно было бы назвать русскими, узбеками, татарами, но они выбирали корейскую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мы не евреи,

и у нас нет тысячелетнего опыта выживания в чужой среде? Или это заложено генетически? Да, знаю примеры, когда родители говорили детям: что толку 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если им не заработаешь даже миску каши. Учи русский, ибо это институт, будущая специальность, хлеб с маслом. Но при всей практичности вряд ли есть такие родители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советовали бы детям поменять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Все-таки интересное чувство испытываешь среди одних только корейцев. Не знаешь, как себя вести. С узбеком, русским, евреем знаешь, а когда сплось своиет. Для соплеменника из Кореи мы, наверное, представляем странную картину: говорят порусски, обнимаются, целуются, хлопают друг друга по плечу. Да корейцы ли эти люди?

Я смотрел на знакомые и незнакомые лица и думал: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каждого сюда привела боль и тревога за нашу будущую судьбу? Ну, забыли свой язык, что в этом страшного? Слава Богу, общаемся на русском. Даже среди узбеков есть такие, кто толком не знает своего языка. Никто ведь не запрещает учить родную речь, было бы желание.

Но это только кажется, что выучить язык, пусть даже родной, легко. Нуж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зять советских немцев. Им все карты в руки - в школе, вузе преподают немецкий. Но все равно многие не знают. И не будут знать, пока не возник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от когда человеку будет стыдно за незнание родной речи, когда в своем кругу будет

неприлично разговаривать на другом языке, когда будет нестерпимо больно за невозможность общаться с братьями с родины предков, словом, когда здорово приспичит - вот тогда другое дело.

В зале собралась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интеллигенция. Вот член-корреспондент академии наук республики Алексей Владимирович Тен, заслуженный деятель культуры и единственны

й , пожалуй , в Союзе кореец- балерун Владислав Егай , художник Самуил Ким, заслуженный изобретатель Вячеслав Шин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перед фамилиями которых можно поставить - инженер, учитель, экономист, конструктор. Жаль, мало в зале рабочих и колхозников, но что поделаешь, не они определяли и лицо советского корейца. - 『Ушедшие вдаль』

Михаил Пак - писатель-лирик, большие прозаики - всегда поэты, именно так, а не иначе определяют творчество писателя. Его волнующая способность раскрыть юношескую любовь, с темпераментом и вибрацией души, откликающейся у читателя с силой равной его героям, - даже больше, - задевая потаенные струны самого читателя, писатель воспроизводит музыку любви вместе с ним.

Я смотрел на бронзовое тело девушки. Только-только начавшие наливаясь соком груди размеренно поднимались и опускались. Ресницы чуть-чуть шевелились. Она ждала. Ждала, когда я успокоюсь, а я успокоиться не мог, продолжая дышать так, словно бежал стометровку. Бег длился бесконечно. Тогда я наклонился, коснулся губами Рилиных сомкнутых губ, и они и медленно раскрылись. Я освободился от одежды, прильнул к девушке, и вдруг почувствовал, как мы становимся единым целым, превращаемся в легкий лист, устремляемся вниз по реке в неизвестность.... - роман 『Ночь тоже солнце』

На сайте <Корё сарам> рассказы, повести и романы Михаила Пак представлены достаточно полно, это- 『Натюрморт с яблоками』 『Муравьиный город』 『Пристань ангелов』 『За порогом ночей』 『Танец белой курицы』 『Ночь тоже солнце』 『Лев』 『Однажды в декабре』 『На острове』 『Подсолнух』 『Красные тюльпаны』 『Сон бабочки и』.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л бы еще три публикации, это - роман 『Смеющийся человечек Хондо』, посвященный первому поколению корейцев переселившихся в Россию, важный для понимания внутренних посылов в корейской эмиграции, 150 лет которого мы отмечаем в этом году.

Втор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это роман Юн Ху Мёна 『Любовь в Дунхуане』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переводе Михаила Пака. Здесь отмечу, что Михаил Пак выполняет не просто роль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ереводчика, а рол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Дело в том, что корё сарам, как русскоязычный читатель, но кореец по образу, изголодался по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 ничтожно мало переводов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Михаил Пак, понимая проблему, взялся за нелегкий труд переводчика и просветителя.

И третья работа, это 『Сеульские каникулы』, сродни с литературным переводом, в смысле просвещения. Корё сарам всегда и глубоко будет интересоваться жизнью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и, а, тем более, е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писание, будет ставить на должный, высокий пьедестал.

Остров тысячи освещений

Здесь по ночам в небе горят яркие звезды, крупные, как мандарины. При их свете можно отыскать тропинку в саду.

Здесь дуют ветра - днем и ночью, круглые сутки.

А Тольхарбану - каменному деду - хранителю Чечжудо, стоящему на горе, очень суровому на вид, изваянному из глыбы вулканической породы неизвестным мастером, ни почем ветер, ни даже тай фун, нередко заглядывающий сюда.

Ветер гонит облака в небе, несет пенистые волны моря к берегам, клонит верхушки кипарисов, пальм, 'лиси хвосты' камыша, растущего по краям дороги. И люди, здесь живущие, не уклоняются от ветра, не прячут лица: того они огрубели

у мужчин и у женщин, и у детей . Ветерчасть их жизни.

Дневной ветер прозрачен. Прозрачны над островом улетающие обла- ка. И тучи, как бы они ни казались тяжелыми, уносятся прочь, увлекаемые ветром. Ничто на острове не постоянно, ничто не статично даже на минуту, все меняется, стремительно и бесповоротно.

На острове тысячи освещений !

Ночью здесь ветер другой , - в нем слышится гул. Ветер в эти часы, рождаемый на необъятных просторах океана, достигая Чечжудо, меняется, наполняется невидимыми флюидами и токами, идущими из недр земли. В гуле ночного ветра мне слышится музыка тысячелетий остро- ва... Я слышу в нем топот копыт лошадей , разбуженных огнями вулка- нов и убегающих к морю... Слышу стук деревянных баркасов о черные камни причала и неспешный говор рыбаков, отправляющихся на опас- ный промысел...

Испокон веку островитян кормило море, а море забирало рыбаков. Оттого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на Чечжудо женщин было больше чем мужчин. Нынче положение изменилось, -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ические новшества позволяют судам избежать опасности, но тем не менее, труд рыбака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ется опасным.

О Чечжудо говорят так: здесь много женщин, много ветра, много камней . А еще можно добавить - много легенд сложено об острове. Одна из них гласит: жили неразлучно мальчик и девочка, повзрослев, они поженились. Но парень был рыбаком, его участь - ходить на лодке в море. Он рыбачил, а девушка ждала. Но однажды муж не вернулся, и молодая жена бросилась в море с высокой скалы. Сей час на том месте стоит памятник.

На Чечжудо много камней .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говорят, что если соб- рать все камни острова в одном месте и сложить в

виде башенки, то верхушка ее коснется луны.

Тысячелетия назад жерла разбушевавшихся вулканов выбросили на- ружу кучи пепла и камней , миллионы бульжников, размером с кулак и до головы быка, - усыпали ими весь остро- в. Если пристать к Чечжудо на лодке со стороны моря, 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 глаза бросятся чер- ные камни, усеявшие берег. А в некоторых местах можно увидеть и целые каньоны застывшей черной лавы, - при виде которых, тотчас возникает перед глазами зрелище - с грохотом и шипением сползают с гор огненные реки лавы, устремляются к воде, пускают гигантские облака пара и, медленно остывают, превращаясь в черные чудища... - 『Сеульские каникулы』

Александр Кан— писатель, наиболее полно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на сайте. Обширное, глубокое творчество Александра Кана требует отдель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крит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Его лирический герой, наш современник, - мятущийся кореец в эпоху перемен, снова и снова, как первые переселенцы, ищет свое достойное место в бурлящей жизни (романы 『Треугольная земля』, 『Голем убывающей луны』).

Анатолий Ким: “Роман 『Треугольная Земля』 является уникальной по глубине и всеохватности замысла попыт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 смоделировать эпоху перемен - распад советской империи и хаос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 через такую неожиданную и, казалось бы, интимную вещь, как любовный треугольник. Продолжая традиции овидиевских и апулеевских 『Метаморфоз』, а также смеховой культуры раблезианства, Александр Кан в форме тончайших иносказаний, цитат и ассоциаций изображает картину мира конца XX века, после распада великой империи. А еще точнее, картину человеческих душ с их страданиями, разочарованиями, отчаянием и потемками, - наконец, кругами ада - и в то же

время с неуничтожимой и стойкой верой в божественное предназначение человека.”

Александр Кан выделяется словом, его письмо доставляет радость чтения, его русский язык совершенен и современен, наглядное тому свидетельственное эссеистика последнего времени. Боль за литературу и за человека выражена в высшей степени точно, прозрачно, глубоко и объемно:

Итак, мы, корейские писатели СНГ, есть русские Хон Киль Донь, незаконнорожденные, люди из иного мира, однажды решившие открыть глаза и рассказать этому миру о том, что у нас, наших дедов и отцов, на самом нашем доньшке, томилось, умирало и возрождалось. И наступило время горбачевской перестройки, когда нескончаемыми потоками стали выходить книги корейских авторов, вспоминавших о депортации, о сталинских репрессиях, о тоске по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о прочих ужасах инородческо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Но сегодня, в 2009 году, в начале 21-го века, мы можем твердо сказать, что не только экзистенциальные ужасы копились под покровом наших веков, но и,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сохранения энергии, какие-то иные прекрасные миры, которые как раз не позволяли нам духовно разложиться.

Писатели Ли Дин, Хо Дин, Хан Дин, Ян Вон Сик составляют плеяду ярчайших дея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атриоты жизнью и судьбой, утвердившие правоту своих мыслей и действий. Произведения их проникнуты непоколебимой верой в человека, в его гуманистические идеалы.

Хо Дин 「Незабудка」:

Отец Санчера Ким Сентек родился в семье дворянина (янба

на). Его прадед принадлежал к очень знатным чиновникам аням. В связи с резки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упадком страны Сентек, будучи женатым и имевшим двухгодовалого сына, не смог продолжить учебу и занялся земледелием. Однажды Сентек вышел на рисовое поле один, без работ-ника, тот, сославшись на нездоровье, остался дома. Вернувшись с поля, Сентек обнаружил беду: работник изнасиловал жену и удрал, забрав все ценное. Жена же, не выдержав позора, повесилась. Сентек от горя поджег дом, взвалил на спину сына и пошел куда глаза глядят. И оказался в России. Странствовал из одного селения в другое, наконец, остановился в поселке под Сучаном. На незнакомой земле начал новую жизнь и постепенно стал забывать прошлое. Организовал в поселке корейскую школу. Казалось, что жизнь залечивала раны. Но с наступлением осени 37-го года сгустились тучи над маленьким их поселком. Забрали учителя Тена и его жену.

Шли дни. Тяжелые и тревожные дни. В школе вел занятия один Ким Сентек, других учителей забрали люди НКВД, вот-вот должны были прийти и за самим Сентеком, Хэог заболела и с температурой лежала в постели. Лекарств не хватало, и отец отправил Санчера в соседнее селение за снабжением к одному знакомому старику. Вернувшись, мальчик не обнаружил дома больной Хэог.

“За ней приходила ее тетя.” - сказал Сентек, - “я сколько ни уговаривал ее оставить, пока девочка не поправится, женщина забрала Хэог. И она еще сказала, что поступило распоряжение изавтра всем корейцам собрать вещи и идти на Сучанский вокзал. Что ж, будем готовиться...”

Отец Санчера наутро заколотил дверь и окна дома, взвалил на плечо узел, взял за руку сына. Санчер тоже нес в руке котомку с книгами и разбитую скрипку учителя Тена,

На вокзале они увидели невероятную сутолоку, - толпы лю

дей осаждали вагоны. “Наверное, где-то здесь и Хэог”, - думал Санчер. А ведь они с девочкой мечтали когда-нибудь с этого вокзала сесть на поезд, идущий к морю. А теперь отсюда поезд да шли в обратную сторону, на запад. Шли целую вечность, дни и ночи, в никуда.

Цой Ен Гын - писатель, драматург на сайте представлен рассказом «Последняя пуля», о трагической судьбе корейцев, завезенных японцам и н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Грубо отбросил ребенка в сторону и обнял молодую женщину. Завязалась неравная борьба. Японец был ловчее. Он скрутил руки женщине и повалил ее. Сын закричал, что есть мочи. Чун Себ кинулся было к насильнику, но что-то вдруг остановило его, промелькнули враз темные силуэты перед глазами и он почувствовал что теряет сознание. Но все же нашел силы, вскочил на ноги и подбежал к японцу. Боролись они недолго. Чун Себ был намного сильнее. Японец тихо застонал, повалился на бок и начал кататься по полу. Вдруг он резко встал и сильно ударил Чун Себа в поддых. Чун Себ, не ожидая удара, согнулся и повалился на пол. Японец стал его жестоко избивать.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Чун Себ превратился в кровавое месиво. Японец, тяжело дыша, вытащил пистолет и пригрозил:

- Убью, как собаку!

Чун Себ лежал и стонал, а потом стон превратился в плач, сперва тихий, потом громкий.

Японец удивленно посмотрел на него. И снова бросился к Сунни. Чун Себ видел, как она боролась с насильником, как тот старался сорвать одежду с молодой женщины. Ребенок уже не плакал. Угроза японца словно парализовала Чун Себа, ни на что он не мог решиться, в голове вертелась лишь одна мысль

о неминуемом скором конце: как же так, неужели ничто не может спасти его, ведь должно же что-нибудь случиться, неужели японец пристрелит его, неужели конец? И он заплакал. Встав на четвереньки, подполз к двери и, не оглядываясь, вывалился наружу. На улице он истошно завыл и побежал прочь. Три выстрела раскололи тишину лунной ночи. Чун Себ упал. И так пролежал он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прислушиваясь к шуму в ушах и гулкому сердцу, все еще не веря, что пули пролетели мимо, и он жив... Жив?!

...Рано утром люди потянулись на слабеющий протяжный плач ребенка и оказались у дома Чун Себа. Мальчик плакал, крепко прижавшись к матери. Рядом, на окровавленной постели и лежал мертвый японец. Говорят, Сунг всадила в извивающееся потное тело насильника две пули из его же пистолета и сбросила с себя. Затем, она до первых лучей солнца ждала своего мужа, примостившись у порога.

Последней пулей она убила себя.

Лаврентий Сон - писатель, режиссер и драматург на сайте представлен в двух литературных жанрах, в прозе и драматургии. Здесь вспомнил б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его рассказ «Площадь треугольника». Наивная фантастика, перемежающаяся с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ю, доходит до самых глубин души:

Преодолевая очередной этап пути, мама отчаянно мерзла, собравшись в маленький комок в кузове «студебекера». В нем тряслись еще несколько стариков казахов, одетых в добротные, огромного размера овчинные тулупы. И надо же так случиться, что у сидящего рядом старика рукав был разорван. Мама подумала, что в эту зияющую дыру проникает беспощадный осенний ветер и владелец может незаметно простыть и умереть.

У мамы была иголка с ниткой . Она зашила намерт-во щель в рукаве, борясь с болтанкой на ухабах. И как всегда, сделала это аккуратно и надежно. Старик поглядел на ее работу, провел по шву сухими пальцами и с удивлением уставился на маму. Только не подумай те объяснить дальнейший его поступок элементарным чувством благодарности. Тут, скажу я вам, дело обстояло совсем иначе. Тут маленькая тайна, разгадать которую я вас и приглашаю. И для начала сообщу следующее. Если мама сошьет носовой платок простуженной соседской девочке - у той проходит насморк; если соорудит штанишки Васке-второгоднику, тот успешно осилит программу третьего класса и перейдет в четвертый ; если же справит рабочий халат мастеру завода тяжелог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а мастер находится на плохом счету у начальства), то дела его пойдут на поправку и все начинают понимать, что он прекрасный работник и человек; если коммерческому агенту, нашему, советскому, сошьет костюм, то коммерсант непременно заключит удачный контракт с фирмой ФРГ на постав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если же выполнит заказ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а шитье модных костюмов и платков, те не меняются в кривых зеркалах, в чем мы уже с вами убедились...

Генриэтта Кан на сайте представлена повестью «Круговерть», Андрей Хан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Провинция», «Гололо», «Рыбное место (Брейнерверс)», Владимир Лим рассказами «Горсть океана» и «Зеркало», Владимир Пу рассказом «Вальс в Ренкли». Эти произведения впервые увидел и свет в знаковых сборниках «Страницы лунного календаря» и «Звено нежности». «Страницы лунного календаря» первый и последний сборник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изданный на излет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а «Звено нежности», первый после его развала.

Юрий Хван. «Дорога на фронт». Сценарий кинофильма о корейцах,

равшихся на фронт, заслуживает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художественно рассказывающий о духовном, патриотическом подъеме корейцев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Алексей уже стоит в другом помещении. На него наведен свет электролампы, и сидящий за лампой особист внимательно ег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и говорит:

- Ну, рассказывай ...

- Что рассказывать, товарищ старший лейтенант?

- Не товарищ, а гражданин старший лейтенант,- поправляет его особист,- рассказывай подробно, кто ты, откуда, что делал на крыше воинского эшелона, куда следовал, какие цели ставил. Давай, рассказывай ... Как тебя там? Ким...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 Да, гражданин старший лейтенант.

Алеша щурится от яркого света и начинает рассказывать:

- Я родился 12 июня 1926 года в селе Лукьяновка, Красноармейского райо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я кореец. В 1937 году нас, корейцев, отправили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Казахстан и Узбекистан. Наш колхоз тоже... Привезли в Аулие-Атинскую область и поселили в 25 километрах от станции Бурное. Там мы жили, работали... А когда началась война, нас, корейцев, почему-то не стали брать в армию... А мы тоже хотели бить фашистов.

Владимир Ли в 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ой повести «Берег надежды» prominently, где-то даже на надрыве,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в селе, в шахтерском поселке:

В день, когда всех односельчан погрузили в товарняк, и до отправки поезда оставалось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дед прип

ел на могилу же- ны проститься. Его душа, его сердце навеки оставались здесь, на этой земле, где, может, провел он свои лучшие годы, и которые теперь оста- нутся жить только в печ альных воспоминаниях.

Через месяц после переселения за ним приехали двое в пгта тском. Увозили Вон Гька на старенькой ‘полуторке’ по единст венной проселочной дороге, ведущей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ео бъяснимый страх ско-вал сердца вдруг разом повзрослевших детей , которые молча провожали самого близкого человека в неизвестность. И только младшая дочь, Нью-ра, в последний момент вырвалась из рук старшего брата и бросилась вслед машине:

- Абоди! Абоди...

Долго еще клубилась за ‘полуторкой ’ густая осенняя пыль. А когда она улеглась, ветер погнал тугие волны по необозрим ым зарослям бурого камыша. Небо затянуло свинцовыми туча ми, и стал крапывать мелкий холодный дождь. Девочки до лго и безутешно плакали, а сыновья, чтобы скрыть непрошен ные мужские слезы, ушли на берег реки Чирчик.

К счастью, деда отпустили через два месяца. Он вернулся домой по- худевший , осунувший ся, с букетом обострившихся болезней . По ночам надсадно каплял, выходил из землянки на морозный воздух и подолгу дымил самокруткой . На вопро сы односельчан относительно его ареста ничего не отвечал, а особо любопытствующих посылал так далеко, что у тех сраз у отпадала охота к излишним расспросам.

Брутт Ким представлен рассказами 「Канистра」 и 「Нефертити из Нарь ян-Мара」 - грустные, одновременно и веселые истории о корейцах-арен даторах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В школе Вася не был кандидатом на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Он

даже не был поклонником Закона о всеобщем среднем образовании. Но школу посещал исправно. Отчасти потому, что ее посещали все его погодки. Штататься в одиночку было скучно даже по Куй локу. В одиночку кислыми казались даже сладкие гранаты, которыми в избытке снабжали его торговцы из Чуста и Кувы. И потом отец в свободное от полевых работ время вдруг замечал пытавшегося улизнуть под шумок мальчика и не упустил случая прочитать ему утреннюю сказку «Ты почему не пошел в школу?». Вася всегда с огорчением думал, почему овощеводческий сезон не длится круглый год.

Вася не то чтобы не любил эти байки, но считал их скучными и нудными. И потом сказки эти нередко сопровождалось техническим средством обучения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олдатский Ремень. Средство это осталось у отца от службы в армии и висело на стене гостиной вместо картины Решетникова <Опять двойка>. После такой сказки целую неделю на всем Куй локе нельзя было найти школьника пошулее и прилежнее Васи.

Этим летом, как повелось с давних пор, родители уехали на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где занимались сезонным овощеводством. Пригласить за Васей и его двумя сестренками на сей раз поручили бабушке, которую специально привезли из Гурлена.

Для Васи наступили вольготные деньки. Домой он приходил поздно, когда все уже спали. От бабушкиных ворчаний Вася презрительно отмахивался: мол, что ты, колхозница, понимаешь в столичных делах, что ты, старая, суешь свой дряхлый нос туда, куда не следует совать. Только когда бабушка грозила обо всех его проделках настучать отцу, Вася удосуживался отвечать: «А что, уже гулять нельзя? Я же не курю, не пью, не дерусь. Я просто гуляю с друзьями», - рассказ «Канистра»

Сергей Ян. «Слушая песни дождя», - «И мы уйдем дорогой облаков,

- с чувством неосознанной грусти прошептала Живущая-в-грезе, глядя сквозь холодное окно на желтые огни вечернего города. - Как скоротечна в этом жизнь.” Глубоко лиричная повесть Сергея Яна возвышает дух читателя.

Женщина искала себя, ее сердце оставалось открытым. Ведь всем известно, что настоящая жизнь может вой ти только в открытое сердце. Насколько откроешь, настолько и воздастся. Она устроилась продавцом на ‘китай ский ’ рынок, потом с подругой стала торговать обедами. За два года, вечерами, Марина экстерном выучилась на психолога, наде-ясь, что в новом мире эта специальность будет востребована, но реальность, как час то бывает, не считается с нашими планами. Ее диплом оказался бесполезным, да и зачем психологи стране, где каждый вто рой считает себя знатоком человеческих душ. Она пыталась заняться частной практикой , отзываясь на каждый крик боли, но это не приносило дохода, и 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Марина работала, где придется. И однажды в чужом краю, далеко от дома, она нашла себя и стала Странницей . Прошлое предстало перед ней во всей своей неизбежности и очевидности, а жизнь вдруг обрела неведомый ей ранее смысл.

“В моем прошлом были лишь страдания и боль. Теперь все стало чистым светом - то радостным, то грустным и никогда уже не станет темнотой . И каждый день, и каждый миг мне дорог, и этот чистый свет из прошлого - моя опора.” - думала Марина. “Искать свой свет внутри себя, стучаться в свое сердце - вот мой Путь. Я принимаю все что есть и все что было.”

Диана Кан.

В стихах Дианы Кан слово ‘родина’ соединено с городом Оренбургом, где произошло ее рождение как русской поэтессы. Узбекский Термез,

где она появилась на свет, практически никогда не сочетается с этим корневым понятием, но упоминается в стихах как место, где прошли детство и юность, примерно также, как с Термезом обстоит у нее с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ью, корейка по крови, русская по духу.

Я подданный русских захолустий . И тем права пред Богом и людьми. И приступаю провинциальной грустимой любовью к Отечеству сродни. Пусть кажется кому-то экзотичной , как в зимний день июньская гроза, моя великорусская привычка-априщуривать нерусские глаза.Вдали от многолюдных пере-крёстковпостигла я на стылых сквознякахкровавый привкус русского вопроса опалённых временем губах.Ладонь отвергла дедовскую пашку,но не снискала мира на земле...Сгорает век томительно и тяжко.Мои пути потеряны во мгле. Лицо слезой кровавой умываю,впадая временами в забвенье. Но ни на что вовек не променяюБожественное подданство своё!

Станислав Ли, поэт, напротив, весь соткан из корей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и пропитан им.

Анатолий Ким: “В стихах Станислава Ли бьется древняя корейская душа, спрятанная в сердце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корейца, говорящего и думающего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Чем внимательнее вглядываешься в его простые, прозрачные стихи, тем больше удивляешься, как много открывается в них нового света и пространства. А ведь при первом взгляде, при первой встрече стихи показались тебе исчерпывающе яркими и проглядываемыми до самого дна, как вода горного озера.”

- Эй , парень, ты что потерял?

Кого ищешь? —

Кричат издалека
В моем же поселке
Полвека спустя.

Судьба наша,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более века тому назад улетевших от родимых куш и занесенных ветром истории на просторы России, Средней Азии, Казахстана, теперь общеизвестна. Мы внешне, по этническим признакам, остались прежними, предпочитаем острую корейскую кухню, смеемся и живем на этом свете по-корейски, но говорим и думаем по-русски. Хорошая ли эта судьба или не очень? Однозначного ответа на этонет, и вот как размышляет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Станислав Ли.

Не стало корейских имен.
Остались короткие
Наши фамилии.
Но по-прежнему пища
Родная горчит,
И дед
На вопросы о прошлом
Молчит.

Наше 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зависит от нас самих, наши потомки с короткими фамилиями будут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на белом свете полноценными и достойными уважения лишь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мы сможем передать им свое высокое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И одной из значительных ценностей наше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остояния являются стихи Станислава Ли - светлые, чистые, веселые и печальные, добрые и лукавые, в свежих красках, в ясных чувствах, - выражающие сокровенные, глубинные движения души корейского человека.

Наши танцы
Печально-медлительны,
В наших песнях —
Мольба и мечта.
Я спросил — отчего это?
Услышал — судьба...

Поэт Вячеслав Ли представлен сборником стихов 『Лепестки времени』
ипоэмой 「Канде идю」(「Насильственная депортация」).

“Поэзия Вячеслава Ли - это самобытный, хрупкий и светлый мир. Войдя в него, постигаешь и открываешь изящные глубины. Трехстишия, живущие в 『Лепестках времени』 - это не сичжо и не хокку (формы поэз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эт выражает себя по законам, изобретенным им самим. Его поэзия сродни звукам, что издает кисть художника на полотне. А художник он зоркий, отзывчивый и очень ранимый”, - Д. Яковлев.

Ты помнишьцветок тыквынад камышовой оградой ?.
Желание из желанина Луне сидетьи видеть восход Земли.
На скошенном поле ранние сумеркиплачет лягушонок.
Вот ковыляет старик.Печалюсь я.И он был молодым.
Кто яс ношей годов?Вечный скиталец.

Вячеслав Ли: “Поэма 「Канде идю」(「Насильственная депортация」) - попытка поведать о том, что пережили и вынесли наши предки в минувшем столетии, когда в Союзе правил тоталитарный сталинский режим.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 история страданий, мужества и героизма. Верю, будущие писатели воспроизведут основательно, глубоко и полно эту историю. А её мы должны знать хорошо. Чтобы жить достойно

сегодня и завтра.

Сородичам -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м в 30-40-ые годы двадцатого века, жертвам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депортации, умершим от голода и болезней, выстоявшим и выжившим - посвящаю своё произведение.”

Век двадцатый на костях.

Век жестокий .

Шпарит, шпарит товарняк
от востока.

Осень донельзя горчит,
донимает.

Огонёк горит свечи
маком мая.

И куда, куда, куда
поезд мчится?..
В небесах звенит звезда,
плачет птица...

Ким Цын Сон.

ГЕННАДИЙ ПРАШКЕВИЧ:

Чтобы кормить семью, поэт устроился завхозом в столовую. Тогда это не было исключением. Тогда это было бытом. Все продолжали жить, делая вид, что ничего особенного не произошло. Только мы с В. Горбенко продолжали переводить стихи Ким Цын Сона, изредка печатая их в журналах 『Дальний восток』(Хабаровск), 『Байкал』(Улан-Удэ), 『Сибирские огни』(Новосибирск) - подальше от Сахалина. Однажды стихи Ким Цын Сона напечатал даже софоновский 『Огонек』. А сам Ким Цын Сон продолжал работать завхозом.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мы встречались в

его небогатом, но радушном доме.

‘Хозяин пришел!’ Таинственная корейская кухня. Таинственные настойки. И всегда стихи. Но читая свои печальные строфы, Ким Цын Сон только делал вид, что у него есть будущее. Он так и умер завхозом столовой. Но поэт может умереть завхозом провинциальной столовой, в памяти он останется все равно поэтом.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КОРЕЙСКОМ ПОЭТЕ

КИМ ЦЫН СОНЕ

Прежде всего вспоминаю лоб: выпуклый, желтый, блестящий, пластмассовый, он возвышался как злой сугроб над потемневшей от времени массой щек, подбородка. Сплетенье жил, съеденных нервами в сумрачных драках. Он по-корейски кричал и выло и по-корейски молил и плакал. “Переводи!” - умолял, - “вводи слово за словом в тот мир, что спаян словом и делом. Переводи! Делай, что хочешь. Ведь ты - хозяин.” Падая лбом на край стола, будто предчувствуя холод разлуки, он на мгновение умолкал, веки сжимал, опускал руки. “Переводи!” - умолял. - “Введи лес, где ручей никогда не смолкает, в ночь, где смятением махнут дожди, в дождь, где снега, как смятение, тают. Переводи! Над сиянием слов дух затаив, будто дышишь на свечи!” И он умолял говорить про любовь, и холод сводил его круглые плечи. И через безденежье, через борщадней, что иллюзий давно не питают: “Розе, - шептал он - благоухательные шипы никогда не мешают.”

Так же на сайте опубликованы стихи Марты Ким, Лилии Пак, Юлии Ли, Вадим Ока и Геннадия Кима, стихи достойные многих-многих слов любви в отдельности и каждому.

Завершаю обзор литературы на сайте <Корё сарам> мемуа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ГУЛАГе» Инессы (Ин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ы Ким. Живо и точно написанная мемуа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имеет не менее серьезное влияние на сознание масс.

Мы стали готовиться к отъезду. Весь скарб, который бабушка хотела взять в Москву, дядя Лева назвал старым хламом и велел выбросить. И бабушка взяла в дальнюю дорогу свою всю жизнь верно служившую ей швейную ручную машинку фирмы ‘Зингер’, на которой она начала шить с восьми лет, то есть с 1892 года. Сей час эта машинка у меня (в мансарде) в рабочем состоянии, ей уже больше 110 лет. Кроме того, бабушка не рассталась со своим верным узелком с похоронными принадлежностями и национальным корейским нарядом. Шанхайский ярко-оранжевый сундучок с синими крупными иероглифами, который по тем временам выглядел вызывающе ‘иностраным’ и остался почти единственной вещественной памятью о жизни с бабушкой в эмиграции, в Шанхае, дядя Лева безжалостно выбросил. Он, наверно, боялся, что его привлекут за шпионаж и посадят. Сегодня это выглядит смешно - но не тогда. Вот и весь багаж, если не считать двух ватных стеганых одеял, тяжелых как кирпичи.

Ехали уже не в товарном, а в пассажирском поезде, в плацкартном вагоне. Когда подъезжали к Москве, я бросилась к окну, внутри все клекотало: я опять увижу свою любимую родную Москву! Помню разочарование при виде долго тянувшихся перед окнами вагона унылых, серых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строений. И поселилась тоска в душе, которая не проходила всю мою четырехлетнюю жизнь в столице. Радости не было, было какое-то предчувствие.

Обзор дает мне право сказать, что была, есть и будет русскоязычная ко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иначе - литература корё сарам. В искусстве слова, корё сарам, приобретя для себя новый язык воспроизведения, свою духовную ценность сохранит и приумножит. И в этом роде она уникальна - в сплаве двух культур рождается нечто большее, чем пребывание в одной.

키르기스스탄 고려인의 문화-역사적 정체성

마리아 사비나

■ 차례

국문초록
본문(번역문)
참고문헌
Abstract
러시아어 원문

■ 국문초록

오늘의 키르기스스탄 현대문학은 민주화, 상업화 시도, 새로운 장르 및 주제에 대한 탐색 등 다양한 경향을 드러낸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창작의 민주화 현상은 작·간접적으로 작가들의 ‘경제’ 문제와 ‘시적’(또는 창조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독재적 사상 검열과 관리가 사라지자, 모든 작가들에게 독자의 성향에 따른 작품 출판의 기회가 열리고, 출판의 자유화를 통해 작가들은 개인적·가족적 영역뿐 아니라 집단적·민족적인 관심사를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된다. 문학의 상업화는 민족정체성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데, 고려인 작가들은 ‘고려사람’, 즉 소비에트 한인이라는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 새삼 성찰하게 된다. 그들은 문학 외적인 요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에서 고려인들은 민족적 자각에 의해 형성된 주체적인 가치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과 ‘특색’을 찾는 것은 이들의 특징이고 창작의 동기이다. 리 게론 니콜라예비치(Geron Nikolayevich Li), 김 알렉세이 드미트리예비치(Alexei Dmitrievich Kim), 최 블라디미르 게나디예비치(Vladimir Gennadyevich Tsoi) 등의 작가와 강 유리(Yuri Kan), 전 타티야나(Tatiana Ten) 등의 시인은 그 한 예이다. 이들은 러시아어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작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경향을 내보이지만,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어문학 지부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창작활동의 언어가 된 러시아어 속에 존재하는 러시아어 문학담론의 영역을 통해 새로운 주제와 자원 및 자기 표현의 방법을 얻게 된다.

고려인 작가들에게 전통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찾는 하나의 수단이다. 민족 전통 속에는 민족공동체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민족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아오면서 그들은 민족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작가들의 문학작품과 다큐멘터리적인 저널리즘 텍스트는 20세기 고려인들의 역사적인 운명과 전통을 다음 세대의 문화 영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고려사람,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고려인문학, 민족문화, 민족정체성, 강제이주, 기록문학

명령 따라 화물열차 동쪽에서부터 이어졌고
그 안에서 음식이나 생수 없는 사람들...
바람은 무명의 열차를 추진한 듯
철도 위에 죽음을 서둘게 했어...

그 긴 여정 영구한 것 같아
열차에 있던 사람에게 일년 넘게 느껴졌어
초원 속에 갑작스런 정지 후에
카자흐스탄 둘째 모국이 된 순간 다가왔어...

이런 기억은 칼날 대신할 수 있어
마음 뚫고 상처를 건드려
아버지 뺨에서 떨어진 아픔의 눈물¹⁾
인생 처음 이해한 것 같다.

1) 전 타티아나, 「아버지의 이야기」, 『시간이 너를 데려간다』, 사미즈다트출판사, 24-25쪽.

1.

키르기스스탄 현대문학은 민주화, 상업화 시도, 새로운 장르 및 주제에 대한 탐색 등 다양한 경향을 드러낸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창작의 민주화 현상은 직·간접적으로 작가들의 ‘경제’ 문제와 ‘시적’(또는 창조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독재적 사상 검열과 관리가 사라지자, 모든 작가들에게 독자의 성향에 따른 작품 출판의 기회가 열리고, 출판의 자유화를 통해 작가들은 개인적·가족적 영역뿐 아니라 집단적·민족적인 관심사를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된다. 문학의 상업화는 민족정체성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데, 고려인 작가들은 ‘고려사람’, 즉 ‘소비에트 한인’이라는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 새삼 성찰하게 된다. 그들은 문학 외적인 요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에서 고려인들은 민족적 자각에 의해 형성된 주체적인 가치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과 ‘특색’을 찾는 것은 이들의 특징이고 창작의 동기이다. 작가로는 순수문학과 정치평론 분야에서 활동한 리 게론(1932년생)을 비롯하여 김 알렉세이(1925년생), 최 블라디미르(1936년생), 리 게나디(1940년생), 박 스텔라, 허가이 아르툰 등이 있고, 강 유리(1945년생), 전 타티아나 등의 시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고려인 작가들은 러시아어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작품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경향을 띠고 있지만,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어 문학 지부에 소속된다. 그리하여 고려인 작가들은 창작활동의 언어가 된 러시아어 속에 존재하는 러시아어 문학담론의 영역을 통해 새로운 주제와 자원 및 자기표현의 방법을 얻게 된다.

2.

최 블라디미르는 민족정체성과 러시아어 간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의사소통의 요인을 분석한다.

“CIS 고려인은 특정 조건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이다. 우리 모두, 좋게

모든 나쁘게 보든, 같은 역사와 같은 사고 및 생활방식, 그리고 러시아어를 공동적으로 사용하면서 살고 있다.”²⁾

그는 모국어인 고려말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자신의 가족 역사를 소개한다. 고려인들에게 자신의 근본을 찾는 것과 ‘나는 어디서 왔고 나의 가정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은 의무적인 요소가 되었다.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작가들에게 중앙아시아를 향한 길은 연해주와 지리적인 영역과 연관이 있고, 역사적인 출발점은 위에 명시된 모든 작가가 같은 곳에 있다. 이주 연대기의 좌표만 다를 뿐이다. 1928년에 첫 이주가 시작되었고, 이는 자발적인 이주였다. 두 번째 이주는 1937-1938년에 비극의 강제이주로 이루어졌다.

중앙아시아로 2차례 이주하는 과정에서 능숙한 러시아어는 생존 및 청년으로의 성장, 교육의 문이고 필수 조건이었다. 최 블라디미르는 1943년 국립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한국어를 사용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1938년부터는 교육 전체가 러시아어로 이루어졌다. 시골학교에서 고려인 선생님이 러시아어도 잘 알지 못한 채 주제를 열심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선생님의 능숙하지 않은 러시아어와 학생들의 능숙하지 못한 러시아어는 더불어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작가는 수사적인 증폭을 인용하면서 ‘나쁜’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다. 시골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고려인 가정은 키즐오르다와 같은 지방의 중심지로 이주하게 된다. ‘시골의 남아’는 감사를 표하면서 선생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본다. 선생님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최 발렌틴은 자신의 감정과 성격을 드러내고 자신이 생각하는 ‘선’을 정의해준다. 작가의 선생님들에 대한 감정적인 친밀함은 다음 말에서 볼 수 있다. “그분들은 열렬한 지식인이셨고 정직하고 청렴하신 시민이셨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뚜렷이 볼 줄 아시는 그런... 나는 지금 76세

2) 최 블라디미르, 「우리는 소련 고려인이다」, 『쓰나미를 누가 일으킨 걸까?』, 2012, 96쪽.

이지만 아직도 그분들의 선한 기운이 나에게 힘이 되어 줍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고려인에게 필수적인 사회 예절이다. 한국 속담 중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속담을 검토하면 그 민족의 가장 중요한 관념과 가치관을 볼 수 있는데, 고려인 공동체 내에서 스승의 높은 지위는 민족의식 속 교육과 지식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 보인다.

콜롬나 교대(현재 국립 모스크바주 사회·인문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최 블라디미르는 논문 주제로 <러시아어 형용사 실체>를 택했다. 그는 지금까지 러시아 전설의 쉬페에르 G.A. 교수가 그 연구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다고 기억한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는 “언어의 성공은 인간의 경제적인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다”³⁾고 주장한다. 현대적인 노동이주 환경과 글로벌한 경제 공간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청년들은 다(多)언어 습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고려인들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고려인 운동을 주도한 리 게네디 페트로비치는 『민족정신의 관심』⁴⁾이라는 독특한 백과사전을 편찬하였다. 그는 이 책 전통관습과 의례 등의 항목에 키르기스스탄 및 CIS 고려인 저명인사에 대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려인의 회고록과 가족 연대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사진과 함께 각자의 기억과 다큐멘터리 등 고려인의 일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각종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들은 실생활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고 가치가 있다. 앞으로 한국학 연구자들은 이 백과사전을 편찬한 리 게네디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민족정체성에 대한 탐색은 김 알렉세이의 『인생의 소금』⁵⁾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주요 주제이다. 이 책은 고려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이에

3) 최 블라디미르, 위의 글, 104쪽.

4) 리 게네디, 『민족정신의 관심』, Салам, 2010.

5) 김 알렉세이. 『인생의 소금』, 2011.

대한 작가의 소감은 이 책 회고록 부분의 기초가 되었다. 이 책이 서술하고 있는 사건들의 연대기는 1928부터 시작된다. 작가는 민속 오두막 구조를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사진과 조직도를 제시한다. 러시아어 독자에게 이러한 정보는 민족지학상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작가는 특히 고려인 가정 내 의례(儀禮)를 기술하고, 가정 관계에서 엄격한 가부장제 체계를 자세하게 서술한다. “나는 출생부터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우리 가문의 13번째인가 14째 세대의 장남이었다.”⁶⁾ 한국말로 그대로 증손이라 했고, 이는 증조할머니가 계셨기에 마지막 증손이라는 뜻이었다. 그 후로는 장남 호칭은 계속 전달된다. ‘만아바이’- 큰아버지, ‘오라배’- 여동생이 오빠를 부르는 호칭, ‘형님’- 남동생이 부를 때 호칭 등, 민족정체성 관련 문제는 가정에서도 드러나 있다.

전통 고려인 가족에서 여자들은 아이들, 남편, 친척 등이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성으로만 불렀다. 전씨, 박씨 등. 죽을 때조차 이름 없이 죽었다. 작가는 자신이 평가하지 않고 여성 지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작은며느리 보고 나서 큰며느리 무던한 줄 안다.”⁷⁾라는 한국 속담을 러시아어로 인용한다. 어릴 때의 기억 속 가부장제 가정의 분열이 남아있다. 분열의 주요 요인으로 아들들이 아버지 집을 벗어나 자신의 오두막을 짓고자 할 때부터 이루어졌다. 키르기스스탄의 또 다른 작가 리 게나디도 고려인 세계관에는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묘사한다.

“충만한 삶은 집 외부에 있거나 집 없는 상태에서 불가능하다. 집을 계속 바뀌어야 하는 조건 속에서도 각 집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집, 가족, 사랑이라는 개념은 가정과 자손에게 필수개념이고, 자신이 씨족에 속한다는 인식을 위한 것이다.”⁸⁾

새 시기는 가부장제의 분열뿐만이 아니라 이주와 위협적인 재난을

6) 위의 책, 21쪽.

7) 위의 책, 22쪽.

8) 리 게나디, 『모두와 마주 앉아서』, 2014, 66쪽.

가져왔다. 이 모든 변화는 김 알렉세이는 물론 다른 고려인들이 함께 겪어야 했다. 회고록에서 그는 정직하면서 성실하고, 동정심이 깊으면 서도 감상적인 기억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묘사할 때도 합리적이고 강직한 성격을 나타낸다. 바로 이러한 성격과 성실함으로 인해 1981년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재무부 결정에 대한 최고의 접근 권한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1982년, 김 알렉세이는 고려인 탄압과 관련한 모든 제재가 철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후 45년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세대의 고려인이 등장하는데, 이들 세대는 ‘소련정신’을 가진 고려인들이다.

CIS 고려인 전통 중에는 어른에 대한 예절이 있다. 이에 대해 박 스텔라는 “가정교육의 전통을 이용하여 윗세대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재현하는데, 이는 민족의 정신적, 도덕적 안정성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⁹⁾

가부장제는 가정균형의 바탕이다. 강 유리의 시에서 보는 ‘아버지’는 바로 이러한 전통적이고 기호학적인 모범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태도와 걷는 모습이 기억나
옷을 깔끔하게 입고
우리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셨었다.

시인은 아버지의 필수 성질을 나열한다:
친척을 잊지 않으면서
빵 및 소금을 나눴고
어른들을 존중했다.

아버님 교훈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 몰라.¹⁰⁾

9) 박 스텔라, 『군용기차 타고 어린 시절을 지나며』, 2007, 63쪽.

위 시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의 인상과 조상들의 모범적인 모습은 고려인의 전통적 가정교육의 기본이다.

CIS 고려인의 세계관에서 가족은, 고려인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인생의 기본축이다. 역사-기록 전문가가 리 게나디는 그의 저서에서 고려인 성씨와 본관을 나열한 표를 제시한다.

3.

고려인 작가들에게 전통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찾는 하나의 수단이다. 민족 전통 속에는 민족공동체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민족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아오면서 그들은 민족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작가들의 문학작품과 다큐멘터리적인 저널리즘 텍스트는 20세기 고려인들의 역사적인 운명과 전통을 다음 세대의 문화 영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 필자 || 러시아슬라브인대학 교수, 키르기스스탄

□ 참고문헌

- 강 유리, 『마음의 서정시』, 2008.
 김 알렉세이, 『인생의 소금』, 2011.
 리 게나디, 『모두와 마주 앉아서』, 2014.
 리 게나디, 『민족정신의 관심』, Салам, 2010.
 박 스텔라, 『군용기차 타고 어린 시절을 지나며』, 2007.
 전 타티아나, 『시간이 너를 데려간다』, 사미즈다트출판사.
 최 블라디미르, 『쓰나미를 누가 일으킨 걸까?』, 2012.

10) 강 유리, 「그때부터 많은 해가 지났다」, 『마음의 서정시』, 2008.

〈Abstract〉

Cultural and Historical Identity of Kyrgyzstan-Korean

- experience literary and artistic creativity and journalistic

Maria Savina

Today's Kyrgyzstan modern literature reveals a variety of trends, including democracy, commercialization attempts, and exploration of new genres and topics. The democratization of creation,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s the 'realm of poetry' and 'economic' aspects in writers. With the disappearance of dictatorial ideology censorship and control, there is an opportunity for all authors to publish their works in a manner familiar to the reader, and the liberalization of publishing gives them the chance to express collective and national interests as well as the domain of individuals and families. The Commercialization of literature makes the borderline of national identity ambiguous, as CIS-Korean writers reflect on their unique identity as 'Koryo Saram,' or 'Soviet Korean.' They are free from the influence of elements other than literature.

Kyrgyzstan-Korean takes the lead in realizing the autonomous values formed by ethnic awareness. Finding one's identity and character is a feature of them and a motivation for creation. For examples, there are poets such as Geron N. Li, Alexie D. Kim, Vladimir G. Tsoi, and Yuri Kahn, and Tatiana Tenn. They are writing works in Russian and tend to find their identity in work, but belong to the Russian literature in Kyrgyzstan. Kyrgyzstan-Korean writers gain new themes, resources and ways of self-expression through the realm of Russian literature in the language of creation.

For Kyrgyzstan-Korean writers, interest in tradition is a means of finding one's own ethnic identity. The fundamental values of Kyrgyzstan-Korean community are inherent in the ethnic tradition. Having lived away from Korea for many years geographically and culturally, they realized that maintaining a tradit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preserve national identit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literary works and documentary

journalism of Kyrgyzstan-Korean authors serve to convey the historical fate and traditions of the 20th century to the next generation of culture.

Key words : <Koryo Saram>, Kyrgyzstan-Korean, CIS-Korean literature, national culture, ethnic identity, deportation, documentary literature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я корё сарам в Кыргызстане

опыт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и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Мария Савина
к.ф.н., доц. КРСУ

*С востока шел товарный поезд по приказу,
В нем были люди без продуктов и воды,
Как будто ветер гнал тот поезд безмянный,
И смерть его по рельсам торопил...*

*И долго длился путь, как будто вечность,
Казалось всем, что поезд мчится уже целый год.
И где-то там, в степи, вдруг остановка,
Так Казахстан стал родиной второй...*

*Такая память заменяет ипагу,
Пронзая душу, раны беря,
Впервые по-другому поняла я слезы,
Что с болью прокатились по щекам отца.¹⁾*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роцесса в Кыргызстане

1) Тен Т. Рассказ отца // Тен Т. Тебя уносит время: Сборник стихотворений. – Б., Самиздат. – С. 24-25. (Хорошая полиграфия).

отмечено несколькими разнонаправленными тенденциями: демократизация, попытки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освоение авторами новых форматов жанров и тем.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такое явление, как демократизация творчества, которая оказывает прямое и косвен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новаторство авторов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внетворческой) и ‘поэтической’(исключительно творческой) сферах. Отсутствие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цензуры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диктата открывае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убликации каждому желающему найти своего читателя-собеседника. Либерализация книгоиздания порождает внушительный поток литературы,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й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личностных, семейных, клановых, этнически мотивированных интенций авторов.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я литературы стирает границы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и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поиск своего ‘я’, свойственный авторам идентифицирующим себя как ‘корё сарам’ -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характеризует их творчество как пространство, свободное от ‘внелитературных’ факторов влияния книжного рынка. В Кыргызстане именно корё сарам являются наиболее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ми в реализации заданных национальным самосознанием идейно-тематических и ценностных установок, им свойственен поиск собственной этноидентичности, ‘инаковости’, обозначенный как общий лейтмотив творчества.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прозу и публицистику пишут Герон Николаевич Ли(1932г.р.), Алексей Дмитриевич Ким (1925г.р.), Владимир Геннадьевич Цой (1936г.р.), Геннадий Петрович Ли (1940г.р.), Стелла Николаевна Пак, Артем Хегай, в поэзии проявили себя Юрий Кан (1945г.р.) Татьяна Тен.

Все указанные авторы пишут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их произведения, несмотря на довольно яркую и устойчивую тенденцию поиска этнической самоидентичности, относятся к ветви русскоязы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Кыргызста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остранство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дискурса,

существующего в рамках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тавшего языком творчества авторов-корё сарам, обретает новые темы, новые средства и способы самовыражения писателя.

Владимир Цой довольно ярко рассуждает о механизмах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фактора: “Есть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 общность людей, сформировавшихся в особых условиях. Все мы. хорошо это или плохо, отмечены одинаковостью - историей, менталитетом, образом жизни. И русским языком.”²⁾. В ответ на упрёки о незнании родного языка В. Цой делает экскурс в историю собственной семьи. Путешествие в прошлое, поиск истоков, вопрос “Откуда я, откуда моя семья?” - стали обязатель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корё сарам. У писателей-корейцев Кыргызстана начало пути в Азию связано с географически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Приморья, в этой точке отсчет а событий судьбы все указанные авторы едины. Разнятся хронологические координаты переселения. Первая волна -1928 г., доброволь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Вторая волна 1937-1938 гг. отмечена трагедией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депортации.

И для первой волны, и для второй волны корейцев в Аз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ым условием выживания, взросления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стал освое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ткрывающего путь к образованию. Владимир Цой вспоминает, что в детстве говорил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ском, до 1943, когда пришла пора идти в школу. Все образование с 1938 г. было переведено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В сельской школе учитель-кореец “на корявом русском добросовестно пытался объяснить тему, но класс его просто не понимал. ... Плохой русский учителя, наложенный на очень плохой русский учеников, давал, конечно, плохой результат.” Риторический при

2) Цой В. Мы-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Цой В. Кто нагнал цунами? – Б., 2012. – С. 96.

ем амплификации, использованный автором, усиливает значение эпитета а ‘плохой’. Читатель понимает, что крайняя не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ь сельск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толкала корейские семьи переезжать в областные центры, такие, как Кызыл-Орда. С огромной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бывший ‘сельский мальчишка’ вспоминает своих учителей, называя их по именам. Характеризуя своих учителей, В. Цой самораскрывается, дает самохарактеристику, открывает свое понимание ‘что такое хорошо’. Эмоциональную близость, доверие к автору вызывают его слова: “Это были личности – интеллектуалы и энтузиасты, добропорядочные граждане, бескорыстные люди... все умели понимать детскую душу... Меня, 76-летнего, до сих пор питает их добрая энергетика.” Уважение к учителю – обязательная часть социального этикета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Недаром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ая пословица гласит: “Нельзя даже наступать на тень учителя.” В фольклоре закреплены знаковые понятия, выстроена иерархия ценностей, это некое уравнение с готовым ответом. Высокий статус учителя в корейском социуме подтверждает закрепленную в народном сознании устремленность к знаниям, к образованию.

Учась в Коломенском пединституте (ныне Моск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областной социально-гуманитарный институт), В. Цой в качестве курсовой выбрал тему <Субстантивация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 гордостью он приводит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высокой оценке сво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легенды российской науки - профессора Г.А. Шпеера. Собственный опыт дает автору полное право заявить, что “успех языка базируется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м интересе человека.”³⁾ Современная ситуация трудовой миграции и свободного перемещения в глобаль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дает молодежи возможность и высокую мотивацию освое

3) Цой В. Мы-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Цой В. Кто нагнал цунами? – Б., 2012. – С. 104.

ния нескольких языков, и перед молодыми поколениями, в том числе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открываются новые перспективы.

Патриарх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Г.Н. Ли в своеобразной энциклопедии 『Увлеч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м духом』⁴⁾ приводит свод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и обычаев,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выдающих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х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Кыргызстане и СНГ. В состав энциклопедии вошли мемуары и семейные хроники корё сарам. Книга иллюстрирована множеством фотографий,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воспоминания и документально-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е очерки. Это довольно познавательное и многоплановое издание, в котором содержится богатый факт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В последующем, можно полагать, он будет высоко оценен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корееведами.

Поиск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стал основной идеей документаль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книги Алексея Кима 『Соль жизни』⁵⁾. В документально-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х очерках автор повествует о жизни корейцев. Собственные впечатления послужили основой мемуарных фрагментов книги. Хронология событий, описанных в книге, начинается с 1928 г. Автор с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ми подробностями описывает устройство фанзы, приводит фото и схематический план постройки. Для массового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читателя эти сведения представляют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интерес. Особенное внимание автор уделяет описанию обычаев корейской семьи. Автор подробно рисует строгую иерархию семейны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в доме. “Мне в какойто мере повезло с рождением. Я не то 13-й, не то 14-й первый сын первых сынов предыдущих поколений нашего рода. Меня по-корейски так и звали - Джын-сон, то есть последний правнук, поскольку при моем рождении здравствовала моя прабабка.”⁶⁾ Впоследс

4) Ли Г. Увлеч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м духом. – Б.: Салам, 2010. – 652 с.

5) Ким А. Соль жизни. – Б., 2011. – 283 с.

твии статус старшего сына переда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кто к нему обращается: ‘мадабай’ - ‘старший отец своего отца’, ‘орабай’ - ‘старший брат при обращении младшей сестры’, ‘хен-ними’ - ‘при обращении младшего брата’. Проблема поиска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раскрывается на примере семьи.

Оказывается, женщин в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семье ни дети, ни муж, ни родственники, ни знакомые не называли по имени, только по фамилии - Тен, Пак. Так и уходили на тот свет, без имени. Например, автор, не приводя оценок, совершенно беспристрастно рассказывая о положении женщин, цитирует в русском переводе корейскую пословицу: “Какова старшая сноха, распознается с появлением в семье второй снохи.”⁷⁾ Детские впечатления передают раскол внутри патриархальной семьи. Основным маркером раскола, разрушения устоев стало желание сыновей уйти из дома отца, построить собственные фанзы. Недаром другой писатель из Кыргызстана Геннадий Ли выразит предельную важность дома в мироощущении корейца:

Полноценная жизнь невозможна вне или без дома. Если даже пришлось их менять в своей жизни - память о каждом доме сохраняется навсегда. Дом, семья, любовь - эти понятия главные составляющие для семьи, детей и внуков, для осознания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роду.⁸⁾

Новое время впоследствии принесет не только разрушение патриарх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но и обернется переселением и связанными с ним гроз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Все это пришлось пережить вместе с корейским нар

6) Ким А. Соль жизни. – Б., 2011. – С. 21.

7) Ким А. Соль жизни. – Б., 2011. – С. 22.

8) Ли Г. Наедине со всеми. – Б., 2014. – С. 66.

одом и А. Киму. Многие эпизоды его мемуаров характеризуют его как добросовестного, честного и отзывчивого человека, лишенного склонности к сентиментальным воспоминаниям. Ему, даже если он описывает самые трагические переживания своей судьбы, свойственен рационализм, выдержка и стойкость характера. Именно за эти качества, за добросовестность он и получил в 1981 г. высшую форму допуска к принятию решений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финансов Кирги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 1982 г. А. Ким узнал, что с корейцев сняты все огранич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репрессиями. Прошло 45 лет,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цев, только это были люди нового, советского склада.

Одна из традиций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связана с почитанием старших. “Воздействуя своими воспитатель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повторяет себя в последующих поколениях, что благоприятствует соблюдению стабильности в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ом облике народа”, - пишет Стелла Пак⁹⁾.

Култ отца - основа семейного равновесия. Именно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образцовом семиотическом значении понятия ‘отец’ возможно интерпретировать строки Ю. Кана:

Я помню выправку и шаг,
Одетый , при параде,
Вставал всегда он раньше нас,
Служил он верой , правдой .

Поэт приводит набор обязательных качеств отца:
Родных своих не забывал,
Делился хлебом, солью,
И старших очень почитал...

9) Пак С. Эшеломом по детству. – Б., 2007. – С. 63.

Не знаю, кем бы в жизни стал,
Не будь отца заветов¹⁰⁾,-

Личность отца, и в целом - образец предков - один из традиционных постулатов корейского семейного воспитания.

В мировоззрении корейцев, как демонстрируют произведения писателей корё саре, семья является стержнем человеческой жизни. Г. Ли, писатель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историко-архив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в документально-очерковом сборнике приводит познавательную таблицу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ий с указанием бонов. Это информативный свод корейских фамилий и родов.

Внимание авторов-корейцев к традиции является средством поиска соб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В традиции, живущей в народной среде, закреплены основные ценности, значимые в пределах этносоциальной группы. Долгие годы вынужденной жизни в отрыве о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ландшафта совершенно бескомпромиссно актуализировали значимость сохранения традиций как средства сохранения этнической самобытности. Литературные и документально-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е тексты корейских авторов из Кыргызстана стали средством отраж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судьб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XX в, его традиций и их трансляции в культур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последующих поколений.

10) Кан Ю. Прошло с тех пор немало лет // Кан Ю. Лирика души. – Б., 2008.

아나톨리 김 소설의 서술구조의 특징

마테노바 U.U.

■ 차례

국문초록
본문(번역)
참고문헌
Abstract
러시아어 원문

■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아나톨리 김의 산문에 나타난 서술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아나톨리 김 산문의 서술방법은 확연히 다른 구조를 지니는데, 이는 현대문학 이론의 서사 분야에서 학술적 연구로서 적합성을 지닌다.

아나톨리 김의 「연(蓮)」과 「다람쥐」의 서사구조 안에서 발견되는 소재는 주관적 체제화의 주장, 다양한 관점, 서술의 다중양식에 있어서 다른 것(산문)과 구별됨을 보여준다. 아나톨리 김의 소설 「연」의 서사구조는 복잡하기에 하나의 캐릭터의 관점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직접적인 인식만 전달될 수 있다. ‘목소리’, 즉 대화와 같은 다양한 관점의 속성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연’의 이야기 구조 분석을 통하여 인물의 관점이 이야기의 주제구성에 중요함을 밝힐 수 있는데, 인물(주인공)과 분리된 서술자는 3인칭 서술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소설의 이야기 조직은 다양한 문맥(맥락)으로 드러나고, 이는 서사구조의 ‘자유’를 발현하는 서로 완전히 다른 다양한 형태와 유형의 문맥으로 표현된다. 아나톨리 김의 소설은 단일 대상에 초점을 맞추되 파노라마 효과를 이루는데, 동시에 서로 다르지만 같은 시점으로 내보이는 다성적(多聲的) 특성을 띤다.

내면의 독백으로 표현된 아나톨리 김의 소설 「연」의 서술방법에 대한 분석은

영웅뿐만 아니라 영웅의 지문 안에 포함되어 담화의 층을 이루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경험 세계로 재창조해낸 대화의 요소를 드러낸다. 이 소설은 껍데기의 특성을 지닌 불순물로부터 분명한 정신적(영적) 실체(본질)의 이야기로 구성된 ‘거대담론’의 서술기법에 주목한다. 영웅의 내면적 언어는 의식의 흐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의식과 잠재의식 뒤에 가려진 것으로의 엄숙한 인도이다. 이러한 양식들은 작가의 의식의 흐름이 죽음과 가까운 순간을 전달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 현실과 온리리아(Onliriya)라는 두 가지 세계를 구분한다.

아나톨리 김의 「다람쥐」는 작가의 철학적 사변이 풍부한 동물화가 낭만적으로 완벽한 파토스(정념)를 지배하고 있는 소설인데, 작가가 선호하는 ‘의식의 흐름’이 독자를 거의 절대적으로 사로잡는다. 이 소설에서 ‘다람쥐’는 인간의 성격과 자질을 동물 이미지로 의인화, 주관적으로 표현된다. 이 소설은 시작 부분에서부터 작중 화자가 다른 캐릭터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 주제 영역의 다층 구성과 서사구조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작가와 서술자, 특별한 영적 물질들이 합금과 같은 수준의 상호연계를 보여주는 서사구조를 확인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숨겨진 서술자이자 독립적인 언어 주체의 역할이다.

주제어 : 고려인, 고려인문학, 아나톨리 김, 「연」, 「다람쥐」, 서사구조, 의식의 흐름

1.

현대문학에서 이야기 방식의 변화와 진화에 따른 문학 과정의 주요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작품의 주제 구현의 실현인데, 코르만 B.O.는 이를 “언어의 대상과 텍스트의 연관성”이라 정의한다.¹⁾ 예술작품의 문장 각 부분은 작가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각 주제는 작가의식의 표현에 다르아니다.

아나톨리 김 소설의 서사구조는 다양한 관점과 대상구조의 ‘목소리’로 구성되는데,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서술기법이 이용되면서 서술의 다성적 구조를 보여주고, 캐릭터의 목소리를 통합하여 하나의

1) 코르만 B.O., 『예술작품의 문장 연구』, M. 1972, 43쪽.

유기적 합창을 이룬다.

현대 작가는 이야기의 의미 있는 관점을 확장하기 위해 이에 어울리는 주인공이나 인물들의 이미지를 창조해내고, 여러 가지 새로운 서술 기법을 탐색한다.

2.

아나톨리 김의 소설 「연꽃」은 이야기 구조가 새롭고 복잡하며, 한 인물의 관점에서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직접적인 시각은 물론,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 그리고 대화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연꽃」은 주인공인 화가 로호브가 어머니의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 소설의 서사구조에서 주인공의 관점은 작중인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3자의 주관적인 이야기인데, 관점의 구조는 다원적이고, 서술자는 캐릭터와 분리되어 있다.

이 소설은 다양한 이야기의 맥락을 드러내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 형태와 함께 다양한 서술기법을 드러내면서 이야기 구조의 ‘자유’를 보여준다. 이러한 자유는 아나톨리 김이 개발한 것으로, 그것은 캐릭터의 화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코제브니코바 N.A.가 지적한 것처럼 그의 관점의 잇따른 표현이며, “자립성을 얻게 되면서 중심 캐릭터의 관점 전달의 안정된 수단으로 변형된다.”²⁾

아나톨리 김 소설은 합성의 음향이 하나의 대상을 향한 다양한 평등 권리의 목소리와 관점으로 나타나고, 이는 전경 효과의 층을 형성한다. 주인공의 관점을 다루면서 작가는 각 상황에서 인물과 현상 및 사물을 ‘유동’적으로 묘사한다. 현실은 외부 세상에 속한 요소로도 표현되고 캐릭터의 자각으로도 표현된다.

로호브는 <...> 주머니에서 앨범과 이탈리아 연필을 꺼내더니 병과 잔을 그렸다. <...> 하지만 그가 지금 몰래 그리는 이 사람들은 해변에

2) 코제브니코바 N.A., 『19-20세기 러시아 문학의 이야기 유형』, M. 1994, 245쪽.

위치한 오두막에 있는 어머니보다 나은 삶이 없을 것을 인식하고 갑자기
앨범을 덮고 주머니에 넣었다.³⁾

이 인용문에는 작가의 객관적인 판단이 있고, 이는 유동적으로 주관
적인 서술기법으로 변하면서 현실과 주인공의 의식으로 전달된다. 주인
공의 관점 전달은 표준적인 기법과 거리가 멀고, 이는 주인공의 인생관,
세계관 및 가치관으로 인한 철학적인 맥락의 동기를 부여한다.

그가 공통적인 인간 얼굴의 정확한 특징을 뽑아내며 그리려고 했던
얼굴 하나하나, 정밀하게 검토하고 공통적인 흐름으로부터 벗어난 인간
얼굴은 화가를 흥분시키고 가르치면서 인간 외모의 무한성에 대한 안심
을 줬다. (331)

아나톨리 김의 소설에서 독백형태로 묘사된 서술은 주인공뿐만이 아
니라 어머니의 감정 세계를 형성하는 대화 요소를 포함한다.

그동안 어머니의 삶은 힘들고 혼란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웠었다는 것
이라고 짐작하면서 로호브는 슬프게 고개를 숙인 채 식탁 앞에 앉아 있
었다. 나는 아직 많은 것을 모르고 있구나. (332).

위 인용문은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인공은 독
백을 통해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한다.

「연꽃」의 서사구조는 주인공이나 살아있는 인물뿐만이 아니라 주인
공들의 외관 겉질의 물질적인 혼합물을 씻어낸 영적인 실체의 말로 구
성되어 있다. 소설 내용 중 ‘중요 담론’은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벌써 죽
었거나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영혼의 대사로 이루어져 있다. 주
인공들의 내면적 담론은 초점 있는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의식과 잠재

3) 아나톨리 김, 『아나톨리 김 특집』, M. 1988, 330쪽. 이하 인용문은 괄호 안에 쪽수
를 밝힘.

의식 속에 숨겨진 비밀의 엄숙한 개시(開示)이다.

나는 길을 따라 뛰고 있고 숨이 차고 숨이 끝나고 있다 - 죽고 있다.
드디어 죽고 있구나. 이제는 아프지 않지만 숨을 쉬기가 힘들어. - 아들
이 내 가슴에 누워있거든. <...> 너의 외로운 울음이 들린다. 내 손에 노
란 꽃을 왜 넣은 거지? 후회한 사실을 알고 있어. 심장이 두근거린다.
어디 멀리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 거기 누군가가
나를 마중하러 나왔다. (318).

이러한 형태의 의식의 흐름을 통해 작가들은 죽어가는 어머니의 상태
뿐 아니라 심리적 특성까지 확장하여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아나톨리
김은 이런 상황을 보다 분명히 내보이기 위해 생과 사의 두 세계를 구분
짓는 임종의 순간을 그린다. 서로 다른 두 세계. 현실과 온리리아
(Onliriya), 이는 아나톨리 김이 그의 작품에서 사후 세계를 창조하기 위
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작가는 서로 다른 세계의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
리를 이야기 구조에 투입, 다중의 효과를 형성한다.

로호브는 여태까지 공포와 슬픔을 겪으면서 그동안 두려워했던 순간
이 다가오면 미치듯이 두렵고 인간 심장이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지리
라 생각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숨이 떨어진 순간 쑥 새싹의 그림자가 마
르고 잉그름이 나 있는 땅에 떨어져서 초원에 새벽 시간이 왔고 쑥 뿌리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하얀 야생 양송이가 양우리 쪽으로 아침 영감의
시간에 외롭게 가던 여(女) 목자 눈에 튀었다. (338)

죽음의 순간 마지막 숨을 내쉬 어머니의 영혼을 통해 삶의 끊임없는
순환이 멈추지 않았다. 작가는 영원한 삶의 순환성을 어머니의 의식과
목소리를 통해 표현한다. 이를 기반으로 작가의 세계관과 존재의 무한
성을 주장하는 생명의식이 구축된다.

우리 모두가 탄생과 죽음의 표적을 받았고, 두 개의 순간을 하나로

연결하면 원(圓), 우리 인생의 나날들이 영구적으로 이동하는 화려한 반지를 이룰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각 순간에 갇난아기처럼 밝은 눈으로 바라볼 줄 알고, 동시에 죽음의 어두운 눈으로 명확히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345)

소설의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상의 문맥으로 이루어지는 간단한 대화 삽입으로 확장된다. 기능적으로 이러한 대화는 현재 장면에 참여하지 않지만, 주인공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성이 있다. 노인 박씨와 어머니 영혼의 대화 속에서 박 노인의 운명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체 서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들의 관계, 원한에 대한 용서와 자비, 인간적 선의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용서와 화해로 이어진다.

나는 오랫동안 이 여자를 괴롭혔다. <…> 죽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너는 비참하고 야박한 존재이지만, 너의 속내 한량없는 선의가 가장 중요했다. <…> 이 늙은이… 우리 중 하나는 황금 연꽃을 가져다줄 테니, 이것은 여자의 죽음에는 네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278).

이 부분에서 3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온다. 노인 박씨, 주인공 어머니의 영혼, 그리고 ‘우리’라는 영적인 존재가 그것이다. 이런 형태의 내적 독백은 세 인물과 인문주의,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작가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울려 다차원적인 서술 효과를 나타낸다.

3.

아나톨리 김의 소설 「다람쥐」는 이전에 창작된 작품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이어진 작품이다. 작가의 동물화, 이상적인 비애감, 풍부한 철학적 사유,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의식의 흐름’, 창작 활동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창작자인 주인공 등이 이 작품의 독자 앞에 절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람쥐」에서 인간적인 성격과 성품은 개인화

되었고, 이는 동물의 이미지로 나타나 있다.

소설 초반부터 서사구조는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캐릭터의 관점을 투입하면서 다층의 대상구조를 드러낸다. 이 소설의 이야기 구조는 복잡하다. 하나의 캐릭터 관점만을 지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만 집착하지 않고 대화체와 여러 관점 및 목소리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소설의 비유적인 서술구조는 3개의 서로 연관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4명의 비슷한 캐릭터와 서술자 및 영적인 존재가 그것이다. 캐릭터는 친밀한 관계인 4명의 젊은 화가 모습으로 나타나고, 서술자는 상징적인 다람쥐로, 영적인 존재는 대명사 ‘우리’로 불린다. 모든 대상은 변신할 수 있고, 서로 변환될 수 있고, 위치는 물론 의미적으로도 변형될 수 있다. 작가는 캐릭터의 모습을 기술하는 대신 목소리를 기술한다. 캐릭터의 대사를 알 수는 있지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 작가에게 초상과 물리적인 꺾면보다는 그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변화는 다람쥐 모습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다람쥐는 완전히 독립적인 대상이며 숨겨진 서술자이다. 계속되는 변화를 통해 그의 의식은 종합적이고 생산적이며, 4명의 캐릭터의 의식으로도 변하고 각 목소리는 다람쥐 목소리의 변이로 나타난다.

나는 다시 다람쥐로 변했다. 다시 변신한 것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다람쥐로 둔갑할 수 있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며, 특정한 순간, 흥분하거나 두려운 순간에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 변신은 물리적인 존재의 불변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나의 영혼이 다른 인간 몸이나 나비 또는 벌에도 깃들 수 있는데 변신은 내가 원하는 순간에도 그렇고 예상 밖의 순간에도 가능하다.⁴⁾

아나톨리 김 소설의 서사구조 특이성은 그의 작품은 자립적이고 평등

4) 아나톨리 김, 「다람쥐」, 『아나톨리 김 특집』, 1988, 462쪽. 이하 인용문은 괄호 안에 쪽수를 밝힘.

한 권리의 ‘거대담론’을 구성하면서 특별한 공간을 이룬다는 점이다. 목소리는 동시에 들리고 혼합적이고 유동한다. 목소리 전부가 평등하고 자립하면서도 작품 구성에는 방해를 주지 않는다. 서술자의 목소리는 변화할 수 있고, 대상의 말이 대상에서 대상으로 옮겨갈 수 있으며, 한 문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우리는 메산스카야 2길에서 방을 임대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방을 빌려 관광청에 입사했는데 다른 면의 내가 그녀를 저녁때 방문하면서 억지로 밤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미타가 나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던 것에 행복을 느꼈다. (543).

캐릭터의 운명은 서로 뒤섞일 뿐만 아니라 소통하기도 한다. 캐릭터 운명의 한 사건이 다른 캐릭터의 숨겨 있는 상징이 된다. 독자는 하나의 형상에서 다른 형상으로, 한 사건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뛰어다니며 다양하지만 하나의 빛줄기로 연결된 이야기를 경험하게 된다. 케샤 루페틴이 만나는 노인 화가나 미타가 아는 목공 페브랄료브처럼 우연히 지나가는 2차적 인물들도 비슷하다. 죽어가는 화가는 루페틴에게 하나의 발견이 되고, 루페틴에게 죽음의 역설을 알려준다. 그 순간부터 루페틴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의 삶은 새롭게 시작된다. 이미 죽은 페블라료브 또한 미타가 숲과 계곡 위로 환상적인 꿈속 비행을 할 때 동반한다.

두 가지 사건은 비슷한 동기를 지니고 있다. 임종에 이르는 깨달음, 인생과 죽음의 한계선이 없어지고 공통적인 세계 순환의 연속성을 인식하는 순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불교적 깨달음은 아나톨리 김의 서사에서 중요한 동기 중 하나이며, 그가 계속 인용하는 동기이다.

□ 참고문헌

아나톨리 김, 「다람쥐」, 『아나톨리 김 특집』, M.1988.

_____, 「연꽃」, 『아나톨리 김 특집』, M.1988.

코르만 B.O., 『예술작품의 문장 연구』, M.1972.

코제브니코바 N.A., 『19-20세기 러시아 문학의 이야기 유형』, M.1994.

『시학: 주요용어 및 관념 백과사전』. M. Intrada, 2008.

〈Abstract〉

The Specifics of the Narrative Organization of prose
A. Kim

Matenova YU.U.

In the annotated paper the specifics of the narrative in prose of Kim, one of the most famous Russian writers is investigated. Choosing a theme due to the relevance of scientific research in the field of narrative in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which features most clearly different structure of prose narrative technique of Anatoly Kim.

On the stories material of A. Kim “Lotus” and “Squirrel” the narrative structure, distinguishing with many points of view and voices of subjective organization, multi subject form of narration is considered. In the story by Kim “Lotus” is considered narrative organization that is complex and can not be reduced to a one-sided focus on the point of view of one character and transfer only the direct perception and reflects the properties such as dialogic and multiplicity of viewpoints and ‘voices’ it represen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lot story “Lotus” revealed viewpoint character whose significance for the subject-composite construction of the story is undeniable and is recognized in the structure of the narrative. Opened subjected third-person narrative, where the narrator is separated from the character.

The study of narrative story organization representing diverse contexts reveals a completely different forms and types of narrative demonstrating expression of ‘freedom’ narrative structure. The paper investigates the specifics of the polyphonic sound story by Kim expressed simultaneous appearance of different equal votes and points of view, focused on a single object and creating volume reservoir containing a panoramic effect. Analysis of narrative technique in the novel A. Kim “Lotus”, expressed in the form of internal monologue reveals elements of dialogue, recreating the world of experiences not only the hero, but also a mother, a speech layer which is included in the text of

the hero. The article draws attention to the narrative technique of the so-called “big dialogue” consisting of the speech of certain spiritual substances cleaned from impurities purely material constituting only shell characters. Revealed that inner speech heroes - not focused stream of consciousness, and solemn initiation into what may be hiding behind the conscious and the subconscious. These forms allow you to transfer the stream of consciousness writer to focus on the situation of transmitting near-death moment, delimiting two worlds: the real and Onliriya.

The article analyzes the novel A. Kim “Squirrel” in which animalization predominance romantically perfect pathos, an abundance of philosophical reflection, favorite Kim “stream of consciousness” almost brought the reader in absolute form. In the novel “Squirrel” human characters and quality personified and subjectively expressed by the image of animals. Already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novel reveals the complexity of narrative structure multilayered organization of subject area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narrator in the space of many points of view of other characters.

This article examines the narrative organization of the novel, showing alloy interconnected levels: storytellers, narrator and special spiritual substance.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way proteins serving as an independent subject of speech, hidden narrator.

Key words : CIS-Korean, CIS-Korean literature, Anatoly Kim, “Lotus”, “Squirrel”, narrative, stream of consciousness

СПЕЦИФИКА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 ПРОЗЕ А. КИМА

Ю.У. Матенова

К.ф.н., доцент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черт литературного процесса, обусловленных эволюцией и сменой типов повествования в совреме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является актуализация субъек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торая определяется Б.О. Корманом как “соотнесенность текста с субъектами речи.”¹⁾ Составляющие части текст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как высказывания, имеющие субъектов со свойствами им точками зрения на мир, но вместе с тем каждый субъект является и формой выражения авторского сознания.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произведений А. Кима, обусловленная пересечением множества точек зрения и ‘голосов’ субъек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тличается многосубъектной формой нарратива и демонстрирует полифоническую форму повествования, в которой все голоса персонажей создают единый органичный хор.

Современный писатель актуализирует новые принципы построения образа автора и образа героя, что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яет смысловую перспективу повествования, содействуя свободному и разнообразному отражению быта и характера изображаемого времени.

Обратимся к повести А. Кима «Лотос»,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1) Корман Б.О. Изучение текст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 М., 1972. – С. 43.

которой но сит сложный характер и не может быть сведена к односторонней ориентации на точку зрения одного персонажа и передачу только ег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го восприятия и отражает такие свойства как диалогичность и множественность точек зрения и ‘голосов’, в нем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В основе сюжета повести приезд сына, художника Лохова к смертному одру матери. Точка зрения героя, значимость которого для сюжетно-композиционного построения повести несомненна, учитывается в структуре повествования. Перед нами субъективизированное повествование от третьего лица, в котором система точек зрения несет неоднородный характер и где повествователь отделен от персонажа.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овести представляет разнообразные контексты, являющие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е формы и типы повествования, демонстрирующие проявление ‘свободы’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 развитие в прозе А. Кима несобственноавторского повествования, в основе которого лежит словоупотребление персонажа, связанное с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м выражением его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иобрета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и превращается в устойчивое средство передачи точек зрения центральных персонажей.”²⁾

Полифоническое звучание повести А. Кима выражено одновременным проявлением разных равноправных голосов и точек зрения, сфокусированных на одном объекте и создающих объемный пласт, содержащий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эффект. Обращение к точке зрения героя позволяет автору дать ‘текущие’, ситуативно обусловлен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лиц, явлений, предметов. Реалии изображаются и как часть внешнего мира, и как факты сознания персонажа:

2) Кожевникова Н.А. Типы повествования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XIX—XX вв. – М., 1994. – С. 245.

Лохов, <...> вынул из кармана альбомчик с итальянским карандашом, быстро нарисовал бутылку и стакан <...> Но в незапно он закрыл альбом и спрятал его в карман, пораженный совершенно ясным пониманием, что никого из этих людей, которых он рисовал исподтишка, не ожидало ничего лучше того, что происходило с его матерью в эту минуту там, в домике на берегу моря.³⁾

В данном фрагменте содержится объективное авторское слово, 'текущее' переходящее в субъективную форму повествования, передающее и как факт реальности и как факт сознания героя. Передача точки зрения героя, да легкой от стандарт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й, мотивирует философский её контекст, обусловленный жизненной позицией героя, его ценностными соображениями о мире и жизни:

Каждое лицо, которое он принимался изображать, выхватывая его точные черты из общезначимых форм всех человеческих лиц, каждый пристально рассмотренный и отъединенный от общей стертой лики человека начинал волновать художника, чем-то поучать его, и внушать ему спокой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беспредельности человеческих обликов.⁽³³¹⁾

Повествование в повести А.Кима, выраженное в форме внутреннего монолога, включает элементы диалога, воссоздающего мир переживания не только самого героя, но и матери: "Жизнь матери в те годы была тяжела, сумбурна и невразумительна, догадывался теперь Лохов, печально поникнув за столом. Я еще не выезжаю."⁽³³²⁾ В приведенном фрагменте представлен полифонический контекст, являющийся потоком сознания

3) Ким А. Лотос // А. Ким. Избранное. – М., 1988. – С. 330. В дальнейшем цитаты даны по этому изданию с указанием страницы в круглых скобках.

героя, в котором он как бы вступает в диалог с матерью, который воспроизводится из реплик сына.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Лотоса」 соткана из слов не только героев, живых людей, но в ней представлены и речи неких духовных субстанций, очищенных от примесей сугубо материальных, составляющих лишь оболочку героев. ‘Большой диалог’ в повести состоит из реплик не только героев, но и душ, уже умерших и освобождающихся от земных пут. Внутренняя речь героев – не сфокусированный поток сознания, 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посвящение в то, что может скрываться за сознанием и подсознанием:

И вот я бегу по дороге, дыхания моего не хватает, дыхание кончается - это я умираю, ах, умираю наконец-то, мне уже не больно, только вот дышат все труднее, - сыngle жит у моей груди. Я его вижу сквозь щелку в глазах... <...> Я слышу, как ты одиноко плачешь надо мной. Зачем ты положил в мою руку этот желтый цветок? Знаю, ты раскаиваешься. Сердце стучит, мне слышно, как где-то далеко мое сердце стучит... <...> вон кто-то меня встречает.(318)

Такие формы передачи потока сознания позволяют писателю расширить психологическую характеристику не только умирающей матери, но заострить на ситуации, передающей предсмертный миг, разграничивающий два мира: реальный и Онлирию (так называется у А. Кима в контексте всего его творчества загробный мир).

Объемный полифонический эффект достигается писателем вследствие включения в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ую структуру разных голосов как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миров:

Лохов ожидал, доселе пребывая в ужасе и горе, что когда ЭТО случится, что бу дет чтото немьсл имо страшное, для че ловеческого сердца невыносимое. Но вот отлетел её последни й вздох и пала тень от польиной былки на сухую, в трепчина х, землю, наста ло раннее степное утро, и ослепительно белы й шампи ньон, только что выскочивший меж польиных корне й , издали бросился в глаза пастушке, когда она в час утренне го вдохновения и одиночества шла на работу, к кошаре.(338)

Наступление смерти не остановило неумолимого дв ижения жизни, которое выра жено через субстанцию духа матери, испустившей послед ний вздох. Циклич ность вечного бытия писатель выражает через ‘созн ание’ и ‘голос’ матери в её восприя тии фактов жиз ни. На этом строитс я жизненное кредо самого писате ля, утвержда ющего бесконечность мироздания и быт ия:

Каждый из нас отмечен рождением и смертью, соединим же их мгновения в одно целое и тем самым уловим протяже нную жизнь в замкнутый круг - в сияющее кольцо вечно движу щихся <...> дней нашей жизни. Научимся на каждое мгновени е своего бытия смотреть ясными глаза ми новорожденного и одновре менно темными очами смерти.(345)

Повествование в повести расширяется также за сч ет включения в его прост ранство диалогов, реально не существующих, но воспроизвед енных в художест венном контексте. Функционально такие ‘диалоги’ раскрывают характеры персо нажей, которые в соб ытийном действии н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я, но весьма знач имы для понимания характеров главных героев. Так, в частности, ‘диалог’ старого Па ка и духов ной субстанции матери раскрывает историю судьбы старого Пака, расс каз

о которой ‘не вписывается’ в общее повествование, и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прощение за обиды, нанесенные им, вырастающее в символ всечеловеческого прощения, в основе которого лежат человеческая доброта и любовь:

Много лет яза мучил эту женщину. <...> Ты должен узнать перед смертью, что главным тебе, в твоём убогом и черством существе была все же безмерная доброта. <...> Старик, тебе послан один из нас с золотым Лотосом в руке, что бы сказать тебе: нет на тебе вины за смерть женщины.(278)

В этом фрагменте одновременно звучат три ‘голоса’: старика Пака, духа матери героя и ‘голос’ духовной субстанции, именуемой ‘МЫ’.

Создается впечатление многопланового повествования, когда в форме внутреннего монолога сливаются ‘голоса’ трех героев и всезнающего автора, чья позиция отличается гуманностью и всепониманием.

Роман А. Кима ‘Белка’ является логическим продолжением всех произведений, созданных им ранее. Свойственная Киму анимализация, преобладание романтически идеального пафоса, обилие философских размышлений, наконец, излюбленный Кимом ‘поток сознания’ и герой-творец, убежденный, что главное в жизни – осуществление творчества, в новом романе предстали читателю почти в абсолютном виде. В романе “Белка” человеческие характеры и качества персонажицированы и субъектно выражены через образы животных.

Уже в самом начале романа усложнение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выявляет многослой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субъектной сферы, обусловленной введением в пространство повествователя точек зрения многих других персонажей.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романа носит сложную

й характер. Она не ориентируется на точку зрения одного персонажа и не передает только ег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восприятие окружающих его событий, она отражает такие свойства как диалогичность и множественность точек зрения и ‘голосов’ в нем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Образно-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произведения состоит из трех взаимосвязанных уровней - четырех одно типных рассказчиков, повествователя и особой духовной субстанции. Рассказчики воплощены в образах четырех молодых художников-друзей, повествователем являясь символический образ Белки, а духовная субстанция обозначена местоимением ‘Мы’. Эти субъекты способны к перевоплощениям и взаимным переходам, позиционным и смысловым метаморфозам. О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го описания героев писатель переходит к изображению их голосов. Мы слышим, что герои говорят, но не знаем, как они выглядят. Для писателя важен не портрет, вещественная оболочка персонажа, а поток его мысли.

Метаморфизм в наи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наблюдается в образе Белки. Белка - является совершенно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 субъектом речи - это основной и скрытый повествователь. Его сознание полифоничное и продуктивное, благодаря постоянным перевоплощениям, становится сознанием 4-х рассказчиков, речи которых звучат как вариации голоса Белки.

Я снова был белкой - со мною произошло очередное превращение... Я могу мгновенно превращаться в белку и обратно, принимать чело веческий облик в минуты особенные, отмеченные каким-нибудь сильным возбуждением или испугом... Перевоплощения же происходят у меня при неизменности телесной сущности - просто душа моя вселяется в того или иного человека, и не только человека, но даже в бабочку или пчелу - и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не по моей воле и в момент, совершенно непредвиденный мною.⁴⁾

Своеобразие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романа А.Кима в том, что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системе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создается особ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где выстраивается ‘большой диалог’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и равноправных голосов-сознаний. Голосам свойственна одна временность звучания, их сочетание и текучесть, все они абсолютно равноправны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ы, что неким образом не мешает общему построению произведения. Голоса рассказчиков во многом вариативны, часто обыгрываются своеобразные переходы от одного субъекта речи к другому, иногда в одной фразе совмещаются голоса разных субъектов.

Мы сняли комнату в доме на 2-й Мещанской улице, вернее, это я сняла комнату, поступила работать в экскурсионное бюро, а я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навещал ее по вечерам, иногда оставался ночевать, делая все это не очень охотно. Но я была счастлива, потому что Митя больше не чуждался меня...(543).

Судьбы героев не только переплетаются, но и перекликаются. Одно событие в жизни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становится незримым символом в жизни другого человека. Читатель перепрыгивает от образа к образу, от события к событию, от сцены к сцене, все они разные, но пронизаны одним светом. Очень похожи друг на друга случайно пролетающие влостепенные лица - как, например, старый больной художник, с которым довелось быть знакомым Кеше Лупетину; и столяр Февралев - знакомый Мити. Умиравший художник становится неким открытием для Лупетина, знак омиг его с парадоксом ‘смерти’, подводит его к этому вопро

4) Ким А. Белка // Ким А. Избранное. М., 1988. С. 462. В дальнейшем цитаты из романа «Белка» приводятся по этому изданию с указанием страницы в круглых скобках

су так, что с тех пор жизнь Лупетина нач инается под другим, необычн ым углом и на всё он должен теперь смотреть обновлёнными глазами. Так же и Февралев, уже мертвец, сопрово ждающий Митю в фантастиче ских, ‘сонных’ полётах над лесами и до линами. И в том и другом случа е мы видим очень похожий мотив - мотив нового понимания на пороге жизни-смерти, момент осознания какой-то общей миро вой непрерывно сти, в которой черта жизни-смерти поп росту стирается - этот буддийски й мотив один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в прозе Кима вообще, и Ким будет неод нократно возвращаться к нему.

■ Литература:

1. Ким А. Белка // Ким А. Избранное. М., 1988.
2. Ким А. Лотос // А. Ким. Избранное. М., 1988.
3. Кожевникова Н.А. Типы повествования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XIX—XX вв. – М., 1994
4. Корман Б.О. Изучение текст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М., 1972.
5. Поэтика: Словарь актуальных терминов и понятий. М.: Intrada, 2008.

고려인 시문학의 주제 연속성

조 현 서

■ 차례

국문초록

1. 서언

2. 민족의 결집과 모국어의 계승

1) 1세대 조명희

2) 2세대 강태수, 김준

3. 민족 정체성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로의 확장

1) 3세대 박현, 마르따 김

2) 4세대 스타니슬라브 리, 류드밀라 지니나-최

4.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초록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시문학은 이주 3,4세대의 모국어 상실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192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선봉』을 거쳐 『레닌기치』, 현재의 『고려일보』에 이르는 한글신문을 꾸준히 간행하고 있다는 것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독립 국가로 해체되면서 형성된 국가별 민족성 강화정책은 역설적으로 현 세대 고려인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문학이 우리 민족문학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글 사용 여부에 집착하여 고려인 사회에서 한국문학의 맥이 끊겼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작품 속 주제의식에 담긴 그들의 민족성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100여 년의 시간을 4세대로 나누어 세대별 고려인 시인들의 ‘모국어’ 및 ‘고향’에 대한 의식 차이를 당대 고려인들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근거하여 밝혀보

았다. 1세대 조명희, 2세대 강태수와 김준, 3세대 박현과 맹동욱. 4세대 마르따 김과 스타니스라브 리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공간을 초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향과 모국어에 대한 관심은 연속성 위에 놓여 있다. 물론 세대가 지날수록 그 양상과 방향성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공간을 고향으로 인식하고 그리워하며 특정한 언어를 모국어로 상정하고 이에 위로를 느끼던 지난 세대와는 달리, 후 세대는 실체가 모호한 고향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분명하지 않은 모국어로 인해 불안정한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현 세대에게 당면한 문제의식은 우리 문화권에서 공동으로 해결해나갈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특수한 삶과 그것의 표현인 그들의 문학은 우리 문학의 영역을 넓혀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그 가치가 있다.

■주제어: 고려인 시문학, 고향, 모국어, 이중 정체성, 주제 연속성, 민족성

1. 서언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시 문학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1923년 한글 신문 『선봉』의 ‘문예페이지’에 작품을 연재하던 것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고려신문』에 이르기까지, 고려인 시 문학의 역사를 이어오던 문학권은 3, 4세대의 모국어 상실로 인해 사장되고 있다.¹⁾

강제이주로 인한 공동체 구성의 어려움과 생활고로 인한 다양한 문제로 지금의 세대들은 지난 세대들에게 역사의식이나 모국어에 대해 학습받지 못하였다. 고려인 4세대들은 자신들을 혈통적으로 한인이라고 의식하고 있고, 소속된 국가와는 별개로 자신은 고려인이라고 인식하면서

1) 1937년 연해주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당시 원동 조선사범대학교와 조선극장, 『선봉』 신문사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전되고, 이듬해인 1938년에 조선사범대학과 350개의 조선학교는 폐교된다. 이에 따라 민족문화와 문학의 기본요소를 이루는 언어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없어지게 된다. 1, 2세 고려인 작가들은 한글로 작품을 창작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국어 교육 부족과 소련의 노어화 정책으로 3, 4세 고려인은 러시아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Polina, Ostanova, 「중앙아시아 고려인문학의 고향의식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1 참조.

도 사회·문화적으로는 러시아인의 삶에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²⁾ 하지만 192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100여년의 시간동안 한글 신문은 꾸준히 간행하고 있다는 것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³⁾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각 국가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받아들이고 동화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모국어와 문학적 소양을 지키기 위해 이를 담아낼 장을 마련하고 유지해온 것이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150여년의 역사 속에서, 제정러시아, 소련, 그리고 독립국가연합(CIS)이라는 해당 지역 역사의 격변기를 지나오면서도 우리 민족성을 잊지 않고 있다. 독립 국가로 해체되면서 형성된 국가별 민족성 강화정책은 역설적으로 현 세대 고려인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있다.⁴⁾ 한글 사용 여부에 집착하여 고려인 문학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작품 속 주제의식 속에 담긴 그들의 민족성을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문학의 주제 연속성을

-
- 2) 2007년 고려인 4세대 중 모스크바와 남부 거주자를 중심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자신을 한인으로 인지하는 응답자는 83%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한국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러시아인에 비해 낮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다수(43%)였다.(김혜진, 「고려인 청년층의 민족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슬라브학보』 제23권,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08 참고) 이후 2010년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도 고려인을 대상으로 생활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자신을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항목에서 응답자의 74.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질문에는 80.4%가 ‘러시아어’라고 답했다.(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150년』, 주류성, 2013, 518쪽.)
 - 3) 『선봉』은 1923년 3·1운동 4주년을 맞아 『三月一日』이라는 제호로 연해주에서 창간됐다가 4호부터 『선봉』으로 바뀌었다. 강제이주 후 1938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레닌기치』라는 이름으로 발행되다가 1990년 폐간됐고, 1991년 카자흐스탄에서 창간된 『고려일보』가 고려인 한글신문의 명맥을 잇고 있다.
 - 4) 2010년에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61.6%가 ‘다른 국가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현지 고려인 1,191명 대상) 현지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도록 그 나라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고려인 사회의 장기적 불안정을 읽을 수 있다.(김호준, 앞의 책, 440쪽.)

살피고 그 속에 담긴 민족성과 이중 정체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00여 년의 시간을 4세대로 나누어 세대별 고려인 시인들의 ‘모국어’ 및 ‘고향’에 대한 의식 차이를 당대 고려인들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근거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한글로 창작된 시 작품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어로 창작된 시 작품들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초기 생성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오는 고려인 시 문학의 연속적인 주제의식에 보다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 민족의 결집과 모국어의 계승

1) 1세대 조명희

19세기 조선인들이 제정 러시아로 이민하면서 이룩한 한글 문단⁵⁾은 20세기 초 조명희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명희는 1928년 연해주로 망명한 이후 10여 년에 걸쳐 소련 한인 문학을 개척하고, 조선인 문단이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⁶⁾ 그가 연해주에서 창작했다고 알려진 작품 수는 많지 않으나⁷⁾, 그 지역 한인 신문인 『선봉』에 정기적인 문예면을 마련하고 후학들을 지도하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5) 고려인의 한글문단은 이후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후에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연해주 거주 시기에는 인접한 한반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후에는 고려인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90여 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왔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6) 정상진, 「조명희로부터 김 아나톨리까지-소련 조선인문단을 회고하면서」, 『한길문학』 12, 한길사, 1992, 257-258쪽.

7) 조명희는 소련에서 활동한 10년 동안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였다. 산문시 4편, 서정시 7편, 동시 8편, 장편소설 2편, 희곡 1편과 다수의 평론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그의 시문학 작품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러시아 언어권에서 고려인문학의 역사가 태동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명희로부터 찾는 것은 그가 문인들의 활동거점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선봉』의 문예면은 한인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당시의 유일한 통로였고, 자연히 젊은 고려인 작가들이 이를 중심으로 모여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1935년 고려인 문인들의 작품이 실린 첫 잡지 『로력자의 고향』을 발기하여 문단에 여러 시인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망명 후 처음으로 창작한 시인 「짓밟힌 고려」는 연해주 지역의 조선인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어 널리 읽히면서⁸⁾ 한인사회에 문학을 통한 민족정체성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제국주의 무지한 발이
고려의 땅을 짓밟은 지도 벌써 오래다.
그놈들은 군대와 법률과 감옥으로
온 고려의 땅을 얼궴어 놓았다.
칭칭 얼궴어 놓았다. 온 고려 대중의
입을, 눈을, 귀를, 손과 발을.
...중략...
그리고 우리는 또 믿는다.
주립의 골짜기, 죽음의 산을 넘어
그러나 굳건한 걸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온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상하고 피문힌 몇 억만의 손과 손들이
저- 동쪽 하늘에서 붉은 피로 물들인
태양을 떠받치여 올릴 것을 거룩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새날이 올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간다! — 조명희, 「짓밟힌 고려」 부분⁹⁾

8) 고송무, 『소련의 한인들』, 이론과 실천, 1990, 174-175쪽. 조명희가 룡성촌의 소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의 회고가 실려 있는데, 장인덕은 그 지역 한인들이 조명희 시 수십 편을 베껴 열심히 따로 외우기도 하고 낭송하기도 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두만강 국경을 넘어 망명한 조명희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교외의 신한촌에 입성하기 전, 요양소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다. 그때 쓰인 이시는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을 폭로하고 프롤레타리아 정신을 통해 이를 회복하고자 한다. 조명희의 망명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련의 상황과 인용된 시의 1~3연을 보면 화자를 통한 분노 섞인 한탄이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일본 제국주의 무지한 발이” 조선을 짓밟고 “군대와 법률과 감옥”의 힘을 사용하여 온 “대중의/ 입을, 눈을, 귀를, 손과 발을” 다 얹어놓았다. 일본 제국주의는 화자의 고국 땅을 도륙하고 권력과 법치를 동시에 장악하여 민중들의 소통을 막는 등 갖은 억압을 해온 것이다. 일제에 항거하던 조명희는 박해와 추궁이 심해져 투옥될 위기에 처하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지향하던 사회주의 사회인 소련으로 향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화자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비록 “주림의 골짜기/ 죽음의 산을 넘어”야 하지만 프롤레타리아의 강한 신념이 “새 날이 올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결국 조명희에게 있어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안겨줄 수 있는 희망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동경하는 신념이 사회의 조류로 작용하는 소련으로 탈출하는 것이 새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조명희의 이후 행보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시인은 소련의 한인 마을인 룡성촌에서 룡성소학교와 룡성농민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대중강연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척박한 이국땅에서 정착해 살아가던 고려인들에게 민족의 결집은 중요한 문제였다. 한인 이주 초기부터 제정 러시아는 이민족에 대한 동화를 중요시하여 교육과 문화면에서 철저한 통제를 행한 것이다. 한인들을 소비에트화시키기 위해 관립 학교 외에 한인들이 독자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⁹⁾ 이러한

9) 조명희, 「짓밟힌 고려」, 박일 편, 『조선시집』, 카자흐국영문예출판사, 1958, 211-215쪽.

상황에서 어렵게 민족의식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해오던 한인들에게는 이후 세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조명희는 자신의 어린 학생들에게 동요와 동시에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너는 기차/ 나는 자동차

우리 서로 다라 보자.

칙칙 폭폭/ 뽕뽕 뚜루루

네가 빠르냐/ 내가 빠르냐 —조명희, 『달아나기』¹¹⁾

이 동시는 어린 아이의 구어로 표현된 한글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조명희는 ‘장래 후계자’인 어린이들에게 시조나 최남선류의 신문독본을 주는 당시 교과서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리듬적 말’을 사용하여 아이들의 시선에 맞는 방식으로 예술적 상상력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¹²⁾ 위 동시 전반에 사용된 의성어·의태어는 시인이 피력한 ‘아름다운 리듬적 말’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주린 배에 ‘돌’이나 ‘독약’을 주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 한자어와 문어의 사용을 배제하고, 완전한 구어와 한글을

10) 정옥자 외,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08, 58쪽.

11) 조명희, 『포석 조명희 전집』, 동양일보 출판국, 1995, 412쪽.

12) 조명희는 어린이를 ‘장래 후계자’로 인식하고 『선봉』을 통해 여러 차례 아동문예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어린이 교과서에 시조를 집어넣은 것이나 최남선의 ‘신문독본’에서 주워온 독재부스러이를 주던, 지난날의 회비극도 있지 않았는가? 예술에 주린 그들의 창자에 게떡은 고사하고 돌을 주었으며 독약을 준 셈이 아니었던가? 우리의 장래 후계자인 쏘베트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무산계급의 이데야와 감정을 깃들만한 예술을 주어야 하겠다. (중략) 그들을 리해하고 햇빛과 같은 영양물과 같은 좋은 작품을 주어야 하겠다. 미의 세계를 향하여 귀를 열어놓은 그네의 신경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리듬적 말에 춤추게하며 희망의 햇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네의 맘으로 하여금 동경과 상상의 날애를 넓어치게 하여주자! 여기에 동요의 의의가 있으며 동화의 의의가 있으며 동시의 의의가 있다.”(조명희, 『아동문예를 낳자(1)』, 우정권 편, 『조명희와 『선봉』, 도서출판 역락, 2005, 48-49쪽.)

전면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독자인 어린이들이 이국땅에서도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가볍고 경쾌한 2음보를 통해 모국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한다든지(「눈싸움」¹³⁾), 일상적인 언어를 그대로 시에 사용하여 모국어를 보다 친근하게 받아드리게 하는(「연필침」¹⁴⁾) 조명희의 시도는 민족 정체성을 이어주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 읽을 수 있다. 러시아 언어권에서 나고 자라지만, 모국어를 통해 계승될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린 세대들을 위한 동시의 창작에 열과 성을 다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어린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명희는 우수리스크 사범전문학교와 배재배 전문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며 한국어로 창작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였다. 이때 조명희에게 문학교육을 받은 제자들로써 강태수, 김기철, 연성용, 유일용, 김광현, 조기천, 한 아나톨리, 전동혁, 주성원, 김중송, 이기영 등이 있는데, 이들은 2-3세대 고려인 문학을 이끌었던 문인들이었다. 이들로 인해 계승된 조명희의 정신은 모국어 시 창작으로 밀착되어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로력자의 고향』 2호를 발간한 이후 조명희는 일제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1938년 재판도 없이 처형되었다. 하지만 그의 시는 수많은 한인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었고¹⁵⁾ 현재까지 이어지는 고려인문학에 그 유전성이 남아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¹⁶⁾ 생전에 “내가 조선

13) “누만 오면/ 우리는// 눈싸움/ 한 대요// 두 편에/ 갈라서면// 싸움/ 터져요”(조명희, 「눈싸움」 부분, 『포석 조명희 전집』, 앞의 책, 414쪽)

14) “이놈 이놈 가만히 있어/ 꼭꼭 침을 뱉/ 액기 이놈! 한 대만/ 맞아 보아라.”(조명희, 「연필침」, 위의 책, 413쪽)

15) 평론가 정상진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 청년들은 어떤 모임에서든지 이 시를 낭송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던 꺼지지 않는 애국심을 표현했다고 한다.(강진구, 「원동 이만강변 조선사람 김준」, 『오늘의 문예비평』 66호, 2007.8, 167쪽.)

16) 조명희가 복권(1956년)된 후, 1984년 『레닌기치』는 ‘조명희 탄생 90주년 기념’ 특집호를 발행하는데, 그를 ‘소련 한인문학의 아버지’라고 평가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서는 1989년 알리셰르 나보이 박물관 안에 ‘조명희 상설 전람관’을 개관하고, 1992년 백테미르 지역에 ‘조명희 거리’를 만드는 등 그의 업

사람이며 쏘베트의 애국자라는 것이 내 미래 작품의 지침”¹⁷⁾이라고 여겼던 그는 이러한 사상을 후배 문인들에게 전수하며 고려인문학의 초석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었다.

2) 2세대 강태수, 김준

고려인 2세대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으로는 강태수와 김준이 있다. 이들은 모두 조명희의 제자로, 1937년부터 시행된 강제이주의 폐단을 고스란히 겪은 세대였다. 그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어 현실적으로 닥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민족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1938년 카자흐스탄에서 『레닌기치』를 창간하고, 문예면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고려인 문단을 형성했다. 유일한 조선말 신문인 『레닌기치』는 고려인 문인들을 키우고, 문학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우선 강태수¹⁸⁾는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사범대학의 벽보에 발표한 「발갈던 아씨에게」라는 아래의 시 때문에 반동분자로 몰려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발 갈던 아씨야! 이 가없는 벌판에
땅거미 살그머니 기여들어/ 모두를 거무속 물들일 즈음
나는 차창에 목을 내밀고/ 네가 갈던 밭과

적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17) 강태수, 「기억의 한 토막」, 『포석 조명희 선집』, 소련과학원 동방도서출판사, 1959, 556쪽.

18) 1908년 함북 이원에서 출생한 강태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명희를 만나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1933년 「나의 가르노」를 『선봉』 문예면에 발표한다. 1937년 원동 고려사범대학 재학 중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로 강제로 이주되고, 크질오르다 사범대학(원동 고려사범대학 후신) 어문학부 2학년에 재학하던 1938년 벽신문에 시 「발갈던 아씨에게」를 발표한다. 이때 편집부 임원 중 하나가 부정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정부에 밀고, 강태수는 반동으로 몰려 소련 북극 아르한겔스크 수용소에서 옥살이를 하게 된다.

내가 트락또르에서 내려/ 기꺼이 걸어가던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구지여라.
...중략...
한밤의 별판에 외로운 기적소리,
지금 나는 너를 찾아가느냐/ 너를 두고 떠나가느냐?
우리 마을 뒷산은 보이지 않는다/ 밝은 날은 어제일가 그제일가?
북두는 말없이 지평선에 떨어지며/ 마음은 너를 찾아 달음박질,
아, 아직도 동녘은 껌껌 나라/ 어서 동이 트고 날이 밝아야 우리는...
— 강태수, 『발갈던 아씨에게』 부분19)

시적 화자는 강제로 이주되어가는 기차 안에서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다. “땅거미 기여들어/ 모두를 거무쑹”하게 물들이는 저녁이 되자 화자는 떠나 온 곳에 남겨진 그녀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발을 갈고 경운기(“트락또르”는 경운기의 러시아식 표현)에서 내려 걸어가던 모습 등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이다.

그저 단순히 떠나 온 그녀와의 이별을 서글퍼하는 듯 하던 심상은 후반부로 갈수록 증폭되어 나타난다. 마지막 연에서 그리움의 대상은 “아씨”에서 “우리 마을 뒷산”으로 표상된 고향으로까지 확장된다. 생활의 면면이 남아 있는 정착지에서 떠난다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 막막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화자는 “밝은 날”이 어제인지 그제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의 혼란에 빠져 절망하고 있다. “마음은 너를 찾아 달음박질”치지만 동녘은 “껌껌”하게 느껴지도록 아득하기만 하다. “어서 동이 트고 날이 밝아야” 만나질 우리는 기약도 없이 멀어지고 있을 뿐인 것이다.

19) 강태수, 『발갈던 아씨에게』,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문학사(1937-1991)』,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4, 90-92쪽 재인용. 강태수는 이 작품을 통해 유명해지지만, 대중은 정작 이 작품을 1997년에야 접할 수 있었다. 1997년 시인이 직접 크즐오르다 주 검찰국에 청원서를 내어 1938년 체포될 당시 작성된 자신의 문서철에서 복사한 것을 『고려신문』에 게재한 것이다. 작품 끝에는 ‘1937년 이주 차에서’라는 부제도 덧붙였다.

고향이나 강제이주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던 소비에트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리움과 절망이 당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감정이라 인식하였다. 작품을 발표한 시기는 이주 직후인 1938년이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당국은 강태수를 북극 원시림에 억류하여 22년 동안 사회와 격리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강태수는 당시 그저 이별하는 연인에 대해 쓴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1959년 복권된 후 다시 시작 활동을 이어가면서 발표한 「마음속에 넣어 두었던 글」을 보면 앞선 그의 항변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너는 부디 잘 있거라/ 나는 너를 다시 못보고

가는 곳도 모르는/ 이런 길 떠나간다.

이 시각 이 몸은/ 형곶막대인양/ 바람없이 휘청거리며

앞은 총창으로 가로막혀/ 하늘도 바로 보이지 않는다.

...중략...

드디어 “죄수차”는/ 북을 향하여/ 몸을 내흔들며 움직이니

마치 얼음바다 얼음바람은/ 어느덧 내 얼굴 스치는듯하며

나무도 자라나지 못하는/ 뚝뚝이라 눈앞에 어물거린다.

...중략...

이것은 모두다 시대의/ 불측한 장난인 줄 알아라

하늘이 아무리 흐린들/ 네칠내내 비가 내리겠는가.

...중략...

조국은 언제나 조국이며/ 동포는 언제나 동포이니

덧없는 쪼그락 감정에/ 제발 사료잡히지 말고

너는 진짜 안해가 되고/ 너그러운 어머니 되며

참다운 국민이 되어/ 일 잘 하며 사이좋게 살아가기를

나는 거듭 빌며 바란다./ 아무렇던 희망과 믿음은

나를 종내 버리지않아/ 마음은 날마다 굳어간다...

아, 1938년도 막가는 오늘은/ 나의 한생에서 괴롭고

무거운 나날 중 하루//

...언제나 동이 트겠는가./ “죄수차”의 밤은 참으로

길기도 하려라... — 강태수, 「마음속에 넣어 두었던 글」 부분²⁰⁾

이 작품은 “가는 곳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수차”를 타고 떠나가는 화자가 아내에게 전하는 편지 형식의 시이다. 자전적 고백이 담겨 있는 이 시에는 시대에 대한 아픔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자어를 배제한 구어적 표현과 청자에 대한 부름 및 자조적인 뉘두리는 마음 속 감정의 표출을 더욱 극대화시켜준다.

시적화자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형뿔막대인양” 휘청거리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앞은 총창으로 가로막혀/ 하늘도 바로 보이지 않는다.” 차디찬 바람은 얼음과 같이 느껴지고 “나무도 자라나지 못하는” 삭막한 땅을 향해 끝도 없이 실려 가고 있는 것이다. “모두다 시대의/ 불측한 장난”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이지만, 시인은 오히려 희망을 노래한다. “하늘이 아무리 흐린들/ 내칠 내내 비가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로 언젠가는 도래할 긍정적인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처벌에 좌절할 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희망과 믿음”을 이야기한다. 오히려 남겨질 아내에게 “조국은 언제나 조국이며/ 동포는 언제나 동포이니/ 덧없는 쫓그락 감정에/ 제발 사로 잡히지 말고” 너그러운 어머니, 참다운 국민으로 살 것을 당부한다. 부당하게 남편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해 아내가 느낄 당연한 분노를 “덧없는 쫓그락 감정”이라고 말하며 그저 잘 지내기를 “거듭 빌며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내를 향한 위로이자 자신에게 하는 주문 같은 당부인 이 말들은, 실상 현실과는 동떨어진 메아리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놓아지지 않는 “희망과 믿음은/ 나를 종내 버리지않아”서 화자는 오히려 마음이 “날마다 굳어간다...” 고문과도 같은 희망은 매 순간 자신을 좌절시키지만, 또다시 화자를 버리지도 않고 반복적으로 찾아와 굳은살처럼 좌절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화자의 마음은 커커이 쌓인 좌절과 절망으로 굳어져간다. 더욱이 슬픈 것은 “오늘”은 그저 “나의 한생에서 괴롭고/ 무거운 나날 중”에 어느 “하루”일 뿐이다. 밤이 지나고 아침

20) 강태수, 「마음속에 넣어 두었던 글」, 김중희 편,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175-179쪽.

이 와야 어둠이 끝나겠지만, 이 밤은 기약도 없이 길기도 하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울한 현실은 마치 동트지 않은 밤같이 어둡고, 끝없이 이어지는 죄수차에서의 행로같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 시를 보면 개인의 감정을 정부의 시책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려 한 것 자체는 분명 지탄받을 일이지만, 당국이 그의 시(「발갈던 아씨에게」)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는 보여 지지 않는다. 불가항력적인 시련 앞에서 죄인처럼 죄수차를 타고 가고 있지만, 시인은 여전히 조국과 동포에 대한 사랑을 담아낸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밀고한 동포를 저주하지도 않고, 민족을 불행한 현실로 몰아넣은 조국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저 시대의 장난으로 여길 뿐이다. 고향과 민족에 대한 근원적인 애정과 믿음이 희망으로 번져 좌절하게 만들지만, 그는 시대에 순응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민족의 밝은 미래가 도래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한편 조명회가 처형되고 강태수가 체포되자 고려인 문단은 말살상태에 처했다. 조선사범대학과 사범전문학교를 비롯한 일체의 조선인 학교들이 조선어 사용에 부담을 갖고 소비에트화 되어갔다. 그렇지만 민족의 문화를 전부 없앨 수는 없었다. 남은 자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민족을 결집시키고 문화를 계승하고자 하였다.

강태수와 함께 고려인 2세대 시문학을 이끈 김준²¹⁾은 자신의 혈통적

-
- 21) 1900년 10월 4일 원동 연해주 이만 어인발이란 마을에서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 출생했다. 원동 국립종합대학 로동학원을 졸업하고, 모스크바 종합대학 철학부를 중퇴한 그는 1928년 첫 작품 「한끼의 가을」을 『선봉』에 발표하면서부터 창작 활동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 조명회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한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항일투쟁에 나선 여성 빨치산의 이야기를 그린 중편소설 「지흥련」과 러시아 빨치산과 함께 이만 전투에 참가하여 장렬히 산화한 한운룡 부대의 영웅적인 투쟁을 형상화한 장편서사시 「마흔여덟 사람」 등을 비롯해 1919년 간도에서 발생한 이른바 ‘십오만원 사건’을 형상화한 장편소설 『십오만원 사건』 등이 있다. 생전에 『십오만원 사건』(1964)과 『그대와 말하노라』(1977)를 출간한 그는 당원이자 소련작가동맹 맹원으로서 연금생활을 하던 중 1979년 사망한다. 그가 사망하자 카자흐스탄 작가동맹과 고려인 문인들은 미발표 작품들을 묶어 『숨』(1985)을 발간하여 그의 문학적 업적을 기렸다. 김준의 작가적 위상은 그동안 고려인 문단에서 발간한 작품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련이 개방되기 전까지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은 공동창작집 6권을 비롯해 총

정체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모국어의 친근함으로 이를 표출하고자 한다.

나는 로씨야 원동/ 이만강변 조선사람이다.
백두산 신령이 먹이지 못해/ 멀리 강 건너로 쫓아낸
할아버지의 손자로다.

로씨야의 “마마”보다도/ 카사흐의 “아빠”보다도
그루씨야의 “나나”보다도/ 조선의 “어머니”란 말이
내 정신엔 뿌리 더 깊다. —김준, 『나는 조선사람이다』 부분²²⁾

소수민족의 독립적 교육 및 문화 활동을 탄압하고 자국 내 모든 민족을 소비에트화하려 했던 당시 소련 사회에서 김준의 “나는 조선사람이다”라는 고백은 엄청난 용기일 수밖에 없다. 자신이 러시아 원동에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백두산 신령이 먹이지 못해/ 멀리 강 건너로 쫓아낸/ 할아버지의 손자”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고향 이탈의 주체는 분명히 일제와 소련 사회의 탄압이 이유였지만, 화자는 이 또한 민족 내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행동의 모든 주체가 한민족에 의함인 것이다. 나는 그렇게 쫓겨난 “할아버지의 손자”이다. 시적 화자는 비록 현재는 러시아 원동에 거주하고 있을지언정 할아버지의 고향에 뿌리를 두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시적 자아의 정신적 뿌리는 ‘조선의 어머니’다. 화자는 “어머니”라는 의미의 러시아어, 카자흐어, 그루지아어를 동원한다. 이는 모두 자신이 떠나 온 새로운 공간의 언어들이다. 물리적인 거리는 이 지역들이 훨씬 가깝지만, 화자의 정서적 공감대는 “조선”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언어의 가까움으로써 설명한다. 조선의 언어가 “내 정신엔 뿌리 더

16권의 창작집을 발간한다. 고려인문학의 창시자인 조명희가 한 권이고, 정신적인 지주였던 연성용도 한 권인 데 반해 김준만 3권으로, 공동창작집을 제외하면 작품집의 1/3을 차지한다.(강진구, 「원동 이만강변 조선사람 김준」, 『오늘의 문예비평』 66호, 2007.8, 168-169쪽.)

22) 김준, 「나는 조선사람이다」, 『그대와 말하노라』, 사수식출판사, 1977, 98쪽.

깊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3. 민족 정체성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로의 확장

1) 3세대 박현, 맹동욱

고려인 시인들 가운데 한 축을 형성하는 무리는 다름 아닌 1950년대 소련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탈북 고려인들이었다.²³⁾ 이들은 19세기 말 연해주를 거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기존의 고려인 문인들과는 사회·문화적인 인식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그들은 ‘정신적 고향’을 그리워하는 연해주 출신들과는 달리 ‘물리적 고향’으로서의 ‘고국’이 존재하며, 실제로 그곳에 거주했던 경험과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존재한다. 막연한 것이 아닌 실체적인 그리움이 존재하고, 세대를 이어서 전승된 전통이 아닌 실제로 배우고 익힌 실질적 언어와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강제이주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와 거주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인해 점차 모국어의 사용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고려인 2-3세대는 모국어보다 현지 언어를 더 많이 구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 가운데

23) 탈북 고려인문학은 1957년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김일성 우상화 반대 시위를 통해 형성된다. 1956년 북한에서 김일성 주도로 반종파투쟁이 추진되면서 남로당계와 소련파·연안파 등을 숙청하고 김일성 우상화 정책이 전개되자, 이에 반발하여 이듬해 모스크바에서 북한 유학생들이 공개적으로 김일성 우상화 반대 선언을 하고 시위를 벌인다. 이 유학생 시위의 여파로 당시 소련 유학생 전원이 북한으로 소환되고, 이때 소환을 거부한 이들은 망명 혹은 탈북을 선택하여 이후 소련 고려인문학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된다. 탈북 고려인문학은 이 당시 탈북과 소련으로의 망명을 선택한 이들이 주축을 이루고, 이후 1965년 홀로 두만강을 건너 소련으로 망명한 박현(박준)을 비롯하여 1970년에 벌목공 통역으로 취업하여 소련에 왔다가 북한으로의 귀국을 거부하고 소련으로 망명한 남철(남해연) 등이 합류한다.(김영미/김정훈, 「탈북 고려인 시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39호, 2012, 141쪽.)

엘리트 유학생 출신의 탈북 고려인들은 고려인 사회에 문화적인 새로운 동력이 되어주었다. 이러한 모국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맹동욱²⁴⁾의 다음 시로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모국어/ 그의 품에 안길 때
그의 음향 속에 들 때/ 나는 활기를 펴노라
의젓히 영예를 느끼노라

나의 귀가에 쟁쟁거리고/ 나이 눈에 삼삼거리고
두뇌에 뜻을 두고/ 피방울 들끓게 하느니
진정 공덕의 선구자로다

이 밤도 늦어/ 새 금줄 종이에 박노라니
모국어는 나의 동반자/ 그러니 외롭지 않다
슬프지 않다/ 행복이 나를 쳐 든다 — 맹동욱, 『모국어』²⁵⁾

시적화자는 “모국어”에 인격을 부여하여 “그”라고 칭하고 있다. ‘어머니의 언어’는 “품에 안길” 수 있을 만큼, “음향 속에 들” 수 있을 만큼 친근하며 포근하고 너르다. 그래서 화자는 그로 인해 “활기를 펴”고 “의젓히 영예를 느”킨다. 모국어는 시적화자에게 생동감과 긍지를 심어주는 영예로운 존재이다. 모국어는 “나의 귀가”와 눈에 맴돌며 두뇌에 자극을 주어 피까지 들끓게 만든다. 지성과 감각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열정을 품게 만드는 동력이다. 때문에 화자는 모국어를 “공덕의 선구자”

24) 맹동욱은 러시아 공훈예술가로 추대되었던 연극인으로, 1958년대 북한의 모스크바 유학생 집단 마명인 중 하나이다. 작가는 북한에서 태어나 1950년대 초반에 소련 모스크바 영화대학과 연극대학에 유학 온 엘리트 학생이었는데, 1957년 북한 유학생 대회에서 김일성 개인숭배에 대해 비판한 후 정치적 이유로 소련에 망명하였다. 그 뒤 전문분야를 살려 고려극장에 최초로 전문연출가로서 활동하며 연극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려놓았다고 평가된다. 이후 모스크바 연극대학에서 교수로 제직하였다.(맹동욱, 『모스크바의 민들레』, 예음, 1992 참고.)

25) 맹동욱, 『모국어』, 김종희 편,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516-517쪽.

라고 칭한다. 화자에게 모국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뛰어넘어 영혼을 바른 곳으로 이끄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밤”이 되어 고향 땅이 더 그리울 그에게 “모국어는” 밤의 “동반자”가 되어준다. 그래서 화자는 “그러니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뿌리를 상실한 외로움을 모국어로 상쇄하고 있는 것이다. 모국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슬프지 않”고, 오히려 “행복”이 화자를 일으켜 세운다.

작가인 맹동욱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다. 유학생 생활부터 시작하여 오랜 세월 돌아갈 수 없는 고국을 그리워하던 그에게 어머니의 언어는 그 자체로 위로이자 힘이었고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동력이었다. 그는 고려인 사회에서 전문적인 극단을 이끌며 다수의 작품을 연출하였다. 당시 고려인 3세대들은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있던 실정이었다.²⁶⁾ 그런 가운데 맹동욱과 같은 탈북 고려인들은 고려인 사회의 문화계가 다음 세대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주었다. 모국어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겨나가던 작가는 기존 고려인들에게도 민족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공덕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26) “고려극장은 뿌리가 약해져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모국어의 점진적 소멸이 문제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국어를 모르는 세대가 점차 늘어 어느 순간 모국어와 러시아어의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이미 1950년대 중반에 고려인들의 20%는 모국어를 모르고 있었다. 모국어 사용자 비율은 점점 떨어져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모국어 구사 비율은 1970년에 64%, 1979년에 56%, 1989년에 52%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는 일상대화에서의 비율이고 문학적이고도 수준 높은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1989년에 단 2%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말 연극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관객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다. (중략) 심지어는 1970~80년대에 고려인 인테리와 젊은이들 사이에서 모국어를 전혀 모르고 러시아어만 안다는 사실이 하나의 자랑으로,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을 정도였다. 우리말로 연극을 하는 고려극장 관계자들까지도 예외 없이 이런 믿음을 암암리에 간직하고 있었다. (중략) 또 고립된 환경 속에 처한 모국어는 내용과 형식에서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미 2세대 배우들의 모국어 구사 능력은 1세대와 차이가 났다. 3세대로 내려가면서부터는 발음도 점차 부정확해져 갔다.”(「재소 고려인 정신문화의 쌍두마차 ‘고려일보’와 ‘고려극장’」, 『고려일보』, 2016. 10.28.(<http://koreilbo.com/index.php/novosti-obshchestvo-kor>)

맹동욱과 마찬가지로 탈북 고려인 시인인 박현²⁷⁾은 다음의 시에서 “고국의 흙”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다.

친구는 내 앞에/ 자그마한 갑을 내밀었다
 갑 속의 비닐봉지 열어 보니
 그것은 분명 흙 한 줌 고국의 흙이었다
 조상의 땀이 깃든/ 한줌의 흙!
 구수한 흙냄새 맡으며
 고국 땅을 선사한 러시아 친구를/ 오래오래 끌어안았다.

— 박현, 「흙」 부분²⁸⁾

시적화자는 러시아 친구가 서울 여행 후 선물한 “한줌의 흙”에서 “고국”과 “조상의 땀”을 떠올린다. “흙 한 줌”은 “고국의 흙”에서 “고국 땅”으로 확대되어 화자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작가의 고향은 북한이다. 하지만 서울에 다녀온 러시아 친구의 선물에 감격하여 “오래오래 끌어안”으며 감사를 표하고 있다. 비록 흙의 원산지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은 아닐지라도 같은 민족의 땅이라는 것에서 고국이라는 단어를 거부감 없이 언급하는 것이다. 이념과 체제가 달라도 한민족으로 여기고 동질감을 느끼며 한반도 전체를 고향으로 확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여타 탈북 고려인 출신들과도 다른 지점이다. 이는 이후 등장하는 4세대의 확장된 고향의식과도 연관성을 보인다. 더 이상 고향이 물리적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7) 박현의 본명은 박영준, 고려인 사회에서는 박 예브게니라는 필명을 사용하였다. 작가는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부를 졸업한 후 북한에서 작가동맹원으로 활동하였다. 1964년 반동세력으로 몰려 숙청당하고, 가족과 함께 아오지 탄광에서 노역을 하다가 1965년 소련으로 망명한다. 이후 사할린에서 고려인과 결혼하고, 1974년 『레닌 기치』 문예부 기자로 취업하여 카자흐스탄에 정착한다. 1984년에는 카자흐스탄 조선어라디오방송국의 해설위원을 맡기도 하였다(『연합뉴스』, 1991.4.16.)

28) 박현, 「흙」, 『레닌기치』, 1989.12.26.

2) 4세대 마르따 김, 스타니슬라브 리

고려인에게 있어 ‘고향, 조국, 민족’에 대한 인식은 하나로 귀결될 수 없는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한인’이지만 스스로를 ‘고려인’이라고 부른다. 일제강점기에 연해주로 강제 이주한 그들의 뿌리는 조선이었으나 이를 계승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가져본 적은 없다. 실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가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 정체성은 독립국가연합에 속한 개별적 국가이지만 이곳에서 그들은 소수민족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려인들은 독특한 구조의 이중 정체성 속에서 살아왔다. 어디에서도 완전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같은 고려인이면서도 ‘회귀의 공간’으로서의 고향 인식이 세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1세대 고려인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고향은 일제의 탄압에 의해 강 건너 낯선 곳으로 이주해오기 전, 자신의 선조들이 살던 ‘조선’이다. 2세대 고려인들은 이후 소비에트 정부의 강압에 의해 강제이주를 겪으며 떠나 온 ‘연해주’ 땅을 고향으로 인식한다. 3세대 탈북 고려인들에게 고향이란 정치적 이유로 돌아갈 수 없는 ‘북한’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같은 고려인끼리도 공감대라는 것이 존재하기 어렵고 근간을 찾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해도 구체적인 실마리가 나오기 힘든 것이다.

그럼 모국어를 대부분 상실한 4세대에게 고향은 어느 곳일까? 4세대 고려인인 마르따 김은 고향인 “내 땅”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나를 사로잡는 것은
동해, 시골, 캄차카, 사할린..
밤의 꿈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
내 땅의 부름. — 마르따 김, 『특별함』²⁹⁾

29) 마르따 김, 『특별함』, Davr press, Tashkent, 2009(Марта Ким, Избранное, ДАВР

시적화자는 “동해, 시골, 캄차카, 사할린”에 사로잡힌다고 말한다. 언급된 배열은 순서에 따라 1세대(조선)와 2세대(캄차카, 사할린)가 인식하는 각자의 고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곳은 지난 세대들의 고향이다. 화자는 이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낀다. 이 모든 공간들이 “내 땅”, 즉 나의 근원이고, 그 속에서 느끼는 자유는 온전한 민족정체성의 확립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국적이 다르고,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이곳은 각 세대의 조상들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다. 결국 시적화자에게 있어 “내 땅”이란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나 민족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유토피아로서의 존재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마르파 김이 『아리랑 1937』³⁰⁾에 실은 작품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이곳에 우리의 어린 시절
손자들의 뿌리
아버지들의 유골이 있다.
아주 오랜 옛적부터 이곳에서
우리들의 실화와 심장의 추억이 살아왔다.

ПРЕСС, Ташкент, 2009.), 23쪽. 마르파 김의 작품에는 별도의 제목이 붙지 않는다. 같은 이름의 시집 안에 다수의 작품들이 존재한다.

- 30) 이 시집은 2008년 4월에 간행된 것으로, 1937년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정창 70주년을 기념하고자 자국의 고려인 작가들을 중심으로 만든 문예집이다. 고려인문화협회 작가모임과 『고려신문』이 주관하여 고려인의 민족정체성과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담고자 하였으며, 이런 취지를 공감하여 대한민국 통일부와 인천문화재단, 한국 민예총 중앙아시아 교류위원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발간되었다. 이 문예집에는 마르파 김을 비롯한 여러 시인의 시문, 블라디미르 김과 브루트 김 등의 소설, 그 외 젊은 작가들의 소개와 평론이 실려 있다. 1,2세대에 대한 회고와 고려인의 생활상이 드러난 수기들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이 문예집이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필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방식에서도 느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름을 앞으로 놓고 성을 뒤로 놓는 서구식 명기를 사용하지 않고, 성을 이름보다 앞에 표기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모두를 받아드린 땅이
 이역이 될 수는 없지만
 한밤중에 웬지 모르게
 버드나무처럼 마음이 울고 있다. — 마르따 김, 『아리랑 1937』1집³¹⁾

시적화자는 자신들의 “어린 시절”과 “손자들의 뿌리/ 아버지들의 유골”, 즉 근원적 고향을 “이곳”으로 설명한다. “우리”에게는 그들 모두를 받아들이는 현재의 모국이 존재한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국적이 존재하고, 이 땅을 “이역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현재 자신의 국가, 국적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자는 “아주 오랜 옛적부터 이곳”에 “우리들의 실화와 심장의 추억”이 살아왔다고 말한다. 역사의 공간이자 생명과 탄생, 즉 민족의 실존이 추억으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화자에게는 물리적 국가와 실존적 국가가 일원화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이중적 정체성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에 화자가 “한밤중에 웬지 모르게/ 버드나무처럼 마음이 울고 있다”고 하며 정서적인 동요를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원화된 정체성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는 스스로의 자아를 분명히 정의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글로서의 모국어를 상실했음에도 마르따 김은 꾸준히 자신의 근원적 고향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시작 활동을 이어나간다. 비록 언어의 정체성은 잃었지만, 그 속에 담긴 민족적 정체성은 세대를 뛰어넘어 연결되고 있다.

한편 스타니슬라브 리³²⁾는 모국어에 대한 시편을 통해 이러한 정체

31) 마르따 김, 브루트 김 역음, 『아리랑 1937』 제1집, 사니앓출판사, 2008. 27쪽.

32) 스타니슬라브 리는 1990년 이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문단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인이다. 1959년 카자흐스탄 북부 아크몰라주(아스타나)에서 태어나, 이후 고려인 마을 모쁘르에서 자랐다. 1980년대 말부터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의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였다. 러시아어로 쓴 『이랑』(1995), 『한줄의 빛』(2003)이 있고, 한국어로 출간한 시집 『채 속에서는 간혹 별들이 노란색을 띤다』(양원식 역, 도서출판 새터, 1997), 『모쁘르 마을에 대한 추억』(김병학 역, 인터북스, 2010) 등이 있다. 카자흐스탄 국정 문학교과서에 그의 시가 실리는 등 역량 있는 시인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단에 잘 알려져 있다.

성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주저 없이 우리는/ 학교에서
모국어를 배웠다
//13년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신상명세서를 채워나가다
‘모국어’란에서/ 망설였다 — 스타니슬라브 리, 『시2』³³⁾

앞서 고려인들의 고향에 대한 인식이 동일하지 않았듯, 모국어 또한 혼재 양상을 보인다. 중앙아시아 4세대에게 모국어라는 것은 무엇일까? 국적으로 따져야 하는가, 민족적 공간으로 따져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이는 상용어인 러시아어인가, 아니면 이후 정착하게 된 중앙아시아 각국의 현지어인가? 민족적 공간이라면 이는 조선어인가, 할아버지의 정착지였던 연해주의 언어인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표준어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북한의 문화어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도 모호해진다.

스타니슬라브 리의 위 시에서처럼 “주저 없이” “모국어를 배웠”지만 이제 그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야할 시점에 놓인다. 1992년 이전까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서로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았는데, 냉전이 끝나 한국과 카자흐스탄과의 수교가 이루어지자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이라는 잊고 있던 ‘모국’과의 만남은 중앙아시아 4세대들에게 자신의 불확실한 민족정체성 문제를 새롭게 성찰하고 재정립해야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작가의 시를 통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정체성 혼란으로 오는 당혹감의 단면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고려인 4세대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아래의 시에서도 찾을 수 있다.

33) 스타니슬라브 리, 양원식 역, 『시2』, 『재 속에서는 간혹 별들이 노란색을 띤다』, 도서출판 새터, 1997.

우리 조선 이름은 없어지고
 짙막한 성만 남았다.
 우리 음식은/ 여전히 맵디매운데
 지난날에 대한 물음에
 할아버지는 그저 침묵할 뿐
 (중략)
 또다시/ 할아버지를 추억하려니
 먼 그 바다 거치른 파도
 내 가슴을 에는 듯 하려라 — 스타니슬라브 리, 『시21』 부분³⁴⁾

시적화자는 시의 서두에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물과 같은 것이다. 작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고려인들의 이름은 점차 민족적 ‘성’과 국가적 ‘이름’이 혼용된 상태로 변모해갔다. 이는 그들의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 소속된 국가의 민족 음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맵디매운” 음식을 여전히 먹으며 민족 문화의 성격은 고수해가고 있지만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는 “그저 침묵할 뿐” 명백한 방향성을 알려주지 못한다. 이중 정체성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건 윗세대라 하여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삶의 치열함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할 여력이 없이 살아온 지난 세대들은 이러한 상황에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다. 민족 언어를 배척하고 교육을 당국과 통합하도록 하여 할아버지의 세대들도 민족에 대해 돌아보는 것이 사치였다. 소련 당국은 ‘인민의 소비에트화’ 정책에 적극적이었고 소수민족이 이에 저항하여 민족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민족을 의식적으로 잊고 그로 인해 언어를 잃은 세대들은 반성적 성찰과 함께 후속 세대들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를 아는 손자는 이러한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먼 그 바다”에서 이는 “거치른 파도”가 가슴을 치듯 “에는 듯” 한 아픔을 공감한다.

34) 스타니슬라브 리, 『시21』, 위의 책, 34쪽.

자신을 알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는 막막함은 이렇듯 자조적인 정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인식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뿌리와 정서적 고향에 대한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모국어를 상실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적응하여 살아가면서도 민족적 정체성이 혼용되어 있는 것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우리와 민족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우리가 4세대 이후의 고려인들 작품을 한글로 쓰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그들의 민족성은 유형을 달리 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며 이해하고 수용하여 발전시켜나갈 새로운 가능성인 것이다.

4. 결어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들이 고향을 떠나 현재의 지역에 정착한 지 15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들은 연해주, 러시아, 소련 시기를 거쳐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새로운 환경에 순응하고, 강압에 의해 이동하여 또다시 적응하며 살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려인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혼종된 정체성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어와 한글을 넘나드는 언어 혼용의 상황에서도 고려인 시문학이 주제 연속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세대 조명희, 2세대 강태수와 김준, 3세대 박현과 맹동욱, 4세대 마르따 김과 스타니스라브 리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공간을 초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향과 모국어에 대한 관심은 연속성 위에 놓여있었다. 물론 세대가 지날수록 그 양상과 방향성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인 공간을 고향으로 인식하고 그리워하며 특정한 언어를 모국어로 상징하고 이에 위로를 느끼던 지난 세대와는 달리 후 세대들은 실체가 모호한 고향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분명하지

않은 모국어로 인해 불안정한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리 문화권에서 공동으로 해결해나갈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특수한 삶과 그것의 표현인 그들의 문학은 우리 문학의 영역을 넓혀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문학이 소개된 지 이제 겨우 30여 년이 되었다.³⁵⁾ 게다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고려인문학이 형성되었기에 소련 해체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연구가 가능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연구 기간은 더더욱 짧아질 수밖에 없다. 자료의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자료의 질은 더더욱 나후될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자료 수집과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문화적 소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문학을 우리 문화권에서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필자 || 한밭대학교 강의전담교수

□ 참고문헌

<기본자료>

강태수, 『포석 조명희 선집』, 소련과학원 동방도서출판사, 1959.

김 브루트 엮음, 『아리랑 1937』 제1집, 사니얏 출판사, 2008.

김 준, 『그대와 말하노라』, 사수식출판사, 1977.

마르따 김, 『특별함』, Davr press, Tashkemnt, 2009

박일 편, 『조선시집』, 카자흐국영문예출판사, 1958.

스타니슬라브 리, 양원식 역, 『재 속에서는 간혹 별들이 노란색을 띤다』,

35) 재독 정치학자 김연수가 1983년에 한정적으로나마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인들의 시 작품을 소개한 것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김연수 엮음, 『감차카의 가을』, 정선문화연구원, 1983.) 이 책에는 한글 신문 『레닌기치』에 수록된 고려인들의 시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도서출판 새터, 1997.

맹동옥, 『모스크바의 민들레』, 예음, 1992.

박 현, 「흙」, 『레닌기치』, 1989.12.26.

조명희, 『포석 조명희 전집』, 동양일보 출판국, 1995.

<논저>

강진구, 「원동 이만강변 조선사람 김준」, 『오늘의 문예비평』 66호, 2007.

고송무, 『소련의 한인들』, 이론과 실천, 1990.

김영미/김정훈, 「탈북 고려인 시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39호, 2012.

김중희 편,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1937-1991)』,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4.

김혜진, 「고려인 청년층의 민족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슬라브학보』 제23권,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08.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150년』, 주류성, 2013.

정상진, 「조명희로부터 김 아나톨리까지-소련 조선인 문단을 회고하면서」, 『한길문학』12, 한길사, 1992.

정옥자 외,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08.

Polina Ostanova, 『중앙아시아 고려인문학의 고향의식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1.

「재소 고려인 정신문화의 쌍두마차 ‘고려일보’와 ‘고려극장」, 『고려일보』, 2016.10.28.(<http://koreilbo.com/index.php/novosti-obshchestvo-kor>)

〈Abstract〉

Continuity in the Subject of CIS-Korean Poetry

Cho, Hyeon-se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of Koreans living in Central Asia have lost their native language. So their poetry literature is gradually disappearing. However, there has been a steady publication of CIS-Korean newspapers in the area from 1923 to the present 100 years. The CIS-Korean newspaper is called “Seonbong” “Lenin Kichigos” and “Koryo Daily”. This is an effort not to lose the national identity. In addition, the Soviet Union was dismantled as an independent country, and each country’s national identity was strengthened. Paradoxically, this has awakened the sense of ethnicity of the modern generation of CIS-Korean.

For this reason, the study can presuppose that the CIS-Korean literature in Central Asia is our national literature. It is not to say that the CIS-Korean literature has lost its grip on the use of Han-gul in the CIS-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read their ethnicity from the themes of the work. In this article, we divided more than 100 years into four equal part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language’ and the ‘hometown’ of poets from different generations were examined based on th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eriod. The first generation is Cho Myung-hee, the second generation is Kang Tae-soo and Kim Joon, the third generation is Park Hyun and Maeng Dong-wook. The fourth generation is Martha Kim and Stanislav Lee. Although their interest in home and mother tongue has transcended generations and spaces, there is continuity.

Of course, as generations go by, their shape and direction change. The previous generation felt comforted by recognizing specific spaces as their home, missing certain languages as their native language. However, now generations feel insecure about their vague hometowns because of their confused and unclear native language. The current

generation's sense of problem is a problem that will be solved jointly in our culture. This is because their literature has the potential to broaden the scope of Korean literature.

key words: CIS-Korean poetry, hometown, mother tongue, dual identity, theme continuity, ethnicity

고려인 화가 박 미하일의 모성(母性) 연구

전 선 하

■ 차례

국문초록

1. 서언
2. 이방인적인 삶, 혼종의 정체성
3. 따뜻함, 또는 모성
 - 1) 러시아와 유럽의 공간
 - 2) 조국 ‘한국’과의 만남
 - 3) 고향 우즈베키스탄

4.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고려인 화가 박미하일의 회화에 나타난 모성에 대한 연구이다. 박 미하일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5세로서, 개인적인 이유로 소비에트의 여러 연방에서 삶을 영위해왔고, 현재는 한국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전업 작가이자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소비에트연방에서 사십여 년의 세월을, 붕괴 후에는 모스크바에서 십여 년의 세월을 살며 러시아식 생활과 문화양식을 받아 들였고, 이것은 그의 삶이자 회화의 한 축이 되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 해체 후 조국의 언어인 한글을 익히고 모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된 박 미하일은 후원자를 만나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일로 비로소 그는 조상의 땅인 한국의 진경을 회화로 담아낼 수 있었다. 더불어 『토지』 1, 2권 번역작업을 맡으면서 조상에 대한 생각과 한국 근현대사를 학습할 수 있었다.

박 미하일은 그가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회화부터

최근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복잡한 작품세계를 보여주는데, 이들 작품을 분류하는 정서는 사물에 대한 따뜻함이다. 그리고 이것의 연원은 모성(母性)에 닿아 있는데, 이 때문에 그는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에 노출될 수밖에 없던 환경 속에서도 모든 세상을 따뜻하게 그릴 수 있었다. 한편, 한국과의 접촉으로 발현된 작품이 박 미하일의 회화의 한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모국과 재소 동포(고려인)의 만남에 중요한 함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박 미하일, 고려인, 고려인 화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강제이주, 모성

1. 서언

본 논고는 고려인 화가 박 미하일(Пак Михаил, 1949~)의 회화에 나타난 다양한 소재의 시원과 그의 작품에 분류하는 화풍인 모성(母性)에 대한 연구이다. 작가이자 화가인 박 미하일은 우연한 기회로 한국과 인연이 닿아 국내에 거주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작가로 하여금 작품에 고국을 등장시키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박 미하일은 고려인 화가인 문 빅토르(Мун Виктор, 1951~)와 더불어 국내에서 개인적인 전시를 여러 차례 개최¹⁾하였고, 현재는 전업 작가이자 화가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이후에서야 고려인 화가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2017-미래기초과학핵심리더양성사업/글로벌박사양성사업)(2017H1A2A1042409)

1) 1993년 그림마당 민 갤러리(서울), 1995년 시우터 갤러리(서울), 2000년 한-러 수교 10주년 기념 재 러시아 고려인 화백 <미하일 박>개인전(서울 프레스센터), 2004년 세종문화회관(서울), 2008년 삼일로 창고극장(서울), 2009년 고려인 화백 미하일 박의 <동양과 서양>展(남해 해오름 예술촌), 2009년 <동양과 서양>展(익산 보석박물관), 2011년 숙명여자대학교 아트센터(서울), 2012년 AP GALLERY(서울), 2014년 <윤호철·박미하일 동서양화 초대>展(부산 KBS갤러리), 2014년 KOAS 30주년 기념 <미하일 박>展(서울), 2016년 AP GALLERY(서울), 2017년 31 Gallery 박미하일 개인전 <『토지』와 나의 세상>(서울), 2018년 31 Gallery 박미하일 개인전 <동쪽과 서쪽>(서울).

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개최된 전시회는 모두 유민사(流民史)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²⁾ 고려인 화가에 대한 학술적인 논문으로는 박 니콜라이(Пак Николай, 1922-2008), 신 니콜라이(Шин Николай, 1928-2006), 변월룡(Пен Варлен, 1916~1990)에 대한 석사학위논문이 각 1편씩 있다. 박 미하일은 타 고려인 화가들과는 다르게 국내에서 거주하며 개인적으로 전시 활동하였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공동 전시에서 소개된 적은 없었다. 무엇보다 국내 학술지에는 고려인 문학가로 더 알려져 있는 박 미하일을 화가로서 조명해보는 첫 연구적 시도이다.

고려인 5세인 박 미하일의 회화에는 다양한 국가(러시아, 유럽,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한국 등)의 모습이 등장하는 점이 특별하다. 박 미하일의 부모 세대가 강제이주를 겪고 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집안과 개인의 사정으로 여러 국가에 거주하며 오늘날에 이른 것이 화가의 그림세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그의 회화에 나타나는 표면만론 박 미하일이 고려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2002년도부터 얼마동안 한국에 거주하며 모국의 풍경을 담아낼 수 있게 된 화가는 이를 발판으로 삼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고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간헐적이긴 하지만 일정기간을 모국에 머물며 이에 대한 소재를 회화로 나타낸 고려인 화가가 소수 있는데³⁾, 박 미하일이 2014년부터 한국의 파주에 정착하여 미술과 문학

2) 1994년 <니콜라이 파(박성룡)作品招待展: 조국을 그리며 유랑 70년, 舊소련의 한인 미술박사>展(2004.4.19.-5.1), 1997년 <수난과 영광의 유민사>(1997.6.5-7.15), 2004년 <기증작가 특별전: 잊혀진 질곡의 유민사- 신순남의 진혼곡>(2004.4.2.-10.15), 2007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70주년 기념전-가래이스키>(2007.7.03.-7.19)展, 2009년 <아리랑 꽃씨-Korean Diaspora Artists in Asia>(2009.7.17.-9.27), 2016년 <변월룡(Пен Варлен)1916-1990>展, 2018년 <코리안 디아스포라>(2018.9.20.-11.25)展 등이 있다.

3) 1953년 변월룡은 소련 문화성의 지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미술대학 학장 및 고문을 역임하게 된 것이다(1953. 6-1954. 9). 안 블라지미르(안일)는 1970-80년 사이 무렵 북한에 일정기간 거주하며 우즈베키스탄 옷칠공예를 전수 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1990년 이후 한국을 왕래하며 여러 차례 개인전을 갖기도

및 번역 작업(한국의 소설들을 러시아 문화권에 소개)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러시아어로 쓰여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는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러시아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이방인을 묘사하고 있다.⁴⁾ 2009년 남해의 해오름 예술촌(2009. 4. 20)과 익산의 보석박물관에서 열린 박 미하일의 전시(2009. 9. 1-10.4) 제목이 <동양과 서양>展이었고, 올해 서울의 갤러리31(2018. 5.16-5.22)에서 열린 개인전에서도 역시 <동쪽과 서쪽>展이었다. 박 미하일이 전시의 부제로 ‘동과 서’를 언급한 점은 의미심장한데, 이는 이미 화가가 혼재된 문화 속에 놓여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박 미하일의 작품은 그동안 일관되게 소개되었던 고려인을 바라보는 유민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오늘날 고려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동시대 고려인 화가인 박 미하일을 연구하는 것은 근현대 미술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박 미하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림에 나타난 한국인 특유의 모성이 발현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주된 작업이다. 고려인 5세대에 속하는 박 미하일이 한국에 거주하며 조국의 땅을 회화 속에 담아내며 그의 문화적 정체성에 변화가 나타난다. 작가는 러시아에 사는 고려인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여러 국가를 왕래하며 다양한 소재로 회화작업을 하며, 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결코 잃지 않았다. 박 미하일의 회화에 나타난 소재의 범위가 워낙 다양하지만, 그의 다양한 소재의 궤적을 따라가기 위하여 작가가 머물렀던 국가 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하였다. 박 니콜라이(박성룡)는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한국에 일정 기간 머물며 작업을 하였고, 1994년 예술의 전당에서 개인 전시를 갖기도 하였다. 카자흐-한국의 국교 수립 이후, 문 빅토르 역시 광주의 고려인마을에 일정 기간 머물며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 4) 박 미하일의 소설에 등장하는 고려인들은 그들이 러시아인도 한국인도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상실’을 느낀다. 그들은 러시아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이상갑·정덕준, 「1990년대 이후 CIS지역 고려인 문학 연구- 박 미하일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9(2013.6), 140쪽.

2. 이방인적인 삶, 혼재된 정체성⁵⁾

박 미하일은 1949년 타슈켄트의 악꾸르간(Аккурган)에서 태어나 12살까지 그곳에 거주한다. 1937년 강제이주 후 악꾸르간에서 만난 아버지 박 디모페이(Пак Тимофей, 1912~1970)와 어머니 이 나제취다(Ли Надежда, 1924~2006)는 결혼하여 7형제(5남 2녀)를 낳았고, 박 미하일은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⁶⁾ 자동차(트럭) 및 기계기술자였던 아버지 박 디모페이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여유가 생길 때면 수채화를 취미삼아 그렸고, 어머니 이 나제취다 역시 평소 자수(刺繡)하는 것을 즐겼는데, 이것이 간접적으로나마 박 미하일이 화가라는 직업을 갖게 되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작가는 회고하였다. 박 미하일이 열두 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직무상 이동으로 그의 가족은 그동안 정들었던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타지키스탄으로 이사하게 된다. 소비에트연방시절 국가 간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으며, 직업상의 이동은 흔한 일이었다. 박 미하일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화가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고, 1970년도 타지키스탄의 두산베 미술대학(유화 전공)을 졸업하게 된다. 그해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자, 그의 외삼촌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이사를 갔다. 하지만 박 미하일은 두산베에서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인 1972년에서야 우크라이나로 넘어올 수 있었다.

당시 구소련의 모든 공장에서는 전속 화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일 이었는데, 박 미하일은 1972년~1975년 우크라이나의 한 기차공장에 소속되어 그림을 그렸다. 당시 화가라는 업이 직접적으로 공장의 업무분장 서류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림을 그리거

5) 박 미하일과의 인터뷰 및 그의 전시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함.

6) “부모님께서는 수시로 우리 선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 주변에 고려인들도 있었지만 그 외의 다른 민족들이 훨씬 많았다.” 「화가·박 미하일」, 『뉴스한국』, 2008. 12. 9.

나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이후 1975년~1977년 박 미하일은 키르기스스탄의 한 영화스튜디오에서 화가로 활동하였다. 영화스튜디오에서는 시나리오를 미리 읽고 스케치를 그려 감독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풍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는 것이 그의 주요 역할이었다. 이후 우크라이나로 돌아와 1978년~1981년 자유롭게 예술가와 작가로 활동하였다. 작가는 비록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글쓰기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인 문학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⁷⁾

1981년~1983년 박 미하일은 카자흐스탄의 침켄트(Chimkent)에 위치한 초콜릿·과자 공장에서 과자의 그림 모양을 도안하는 화가로 활동한다. 이후 2년간 우랄스크(Uralsk)에서 자유롭게 예술가와 작가 생활을 즐긴다. 1986년에는 알마아타로 이사하여 2년간 유소년 극장(театр юного зрителя)에서 무대화가로 활동하며 무대미술과 소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한편 글쓰기에 좀 더 전념하게 된 박 미하일은 1988년~1990년 고려극장에서 연극 2편에 대한 극본을 쓰고, 무대장식을 일부 돕기도 하였다.⁸⁾

1989년은 작가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해이다. 그해에 한국에서 온 신계철 교수와 변은정 교수가 알마아타에 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박 미하일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고, 또 난생 처음 선조의 땅의 부분인 남한을 밟을 수 있었다. 이후 1991년 고려신문사에서 기자로 잠시 활동을 한 박 미하일은 1992년부터 카자흐스탄 문인협회로 이직하였다. 1992년부터 1996년에는 카자흐스탄문인협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고려인 소설가협회를 창립하였고, 그후 2년간(1996-97)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며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다. 그의 노

7) 『헬렌의 시간』 출판기념 및 박미하일 개인전(2017.04.12-04.18)에 대한 리플릿에서 작가는 1976년부터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8) 박 미하일은 고려극장에서 일하는 동안 2편의 연극 「안개가 걷힐 때(Когда рассеется туман)」와 「너의 꿈에 잠자리가 날아가기(Пусть приснится тебе полет стрекозы)」를 완성하였다.

고 덕분에 구소련 13명의 고려인 작가 원고를 책으로 출판할 수 있었다. 박 미하일은 1998년 모스크바로 넘어가 2009년까지 9년간 『러시아의 고려사람(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이란 교포 신문의 부편집자로 활동하였다.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후 카자흐스탄이 자민족중심주의화 되면서 러시아어를 모어로 쓰는 작가는 모스크바로 이동하게 된다.⁹⁾ 즉 작가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어와 한글 작업에 구애를 덜 받기 위해 이주를 택한 것이다. 이후 적극적으로 고려인문학과 교포 신문 등 모국과 연계된 일을 해내면서 조국에 대한 애정을 쌓은 것으로 보여진다.

1993년 한국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된 박 미하일은 한국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¹⁰⁾ 화가가 한국의 소설을 러시아에 소개하는 번역 작업과 동시에 러시아어로 쓴 자신의 소설을 국내에 출판한 것은 특별한 경우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박 미하일의 삶은 한 곳에 거처를 두고 오래도록 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고려인의 삶과 달리,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다양한 장소를 경험한 것이 남다르다. 소비에트의 시대적 특수성으로 그가 태어난 타슈켄트의 악꾸르간 지역은 물론 여타 지역에서도 항상 다양한 민족이 함께 더불어 살았는데, 그가 옮겨 다닌 여러 지역에서 고려인은 항상 소수자였고 이방인으로서의 외모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즉 역사적인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은 박 미하일은 연해주에서 건너와 확고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그의 부모

9) “독립된 카자흐스탄은 자기네 말만 쓰기를 강요해 러시아어로 글을 쓰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모스크바로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조용호, 「인간을 알기 위해 쓰고 그렸지만, 늘 잡힐듯 하다가 날아가」, 『세계일보』 2018. 6. 11.

10) 1993년 소설가 윤후명의 도움을 받아 인사동에 있는 <그림마당 만>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었다. 1995년 강남의 <갤러리 시우터>에서는 첫 작품집 (「천사들의 기슭」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출판과 전시가 함께 이루어졌다. 2000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 번째 전시를 가졌다. 2004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월간 『미술세계』 기획으로 네 번째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었다. 이후 작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회 이상의 개인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박 미하일, 『박 미하일 MIKHAIL PARK』, 월간미술세계사, 참조.

세대와 달리 혼재된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다.

3. 따뜻함, 또는 모성

박 미하일은 우리와 같은 혈통을 지닌 한민족이지만 부모세대가 겪은 1937년 강제이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여러 나라를 전전하였는데, 지금은 한국에 거주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빈번히 타국가로 이주를 하였지만, 소비에트 시절에 모든 연방은 한국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소비에트 내 백여 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섞여 살았고, 그는 가지각색의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박 미하일이 소설에서 고려인이 겪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였다면, 회화에서는 세상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 작가의 내면을 표현하는데 집중하였다.¹¹⁾ 때로는 실경(實景)을 벗어나 심상과 상상이 결합한 작업을 하는 것도 문화적 혼종성¹²⁾에서 비롯된 그의 유연한 사고 덕분일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비추고 알려야 한다는 믿음으로 회화작업을 이어왔다고 말한다. 소비에트 시절 작가는 개인전을 열 수 없었고 그룹전을 통해서 사회주의의 현실을 표현하는 것만이 가능하였다. 현재 그는 자유로움이 보장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¹³⁾ 화가로서 작업에 대한 모토가 사회를 향하던 것에서 개인적인 심상으로 전회한 것은 한결 자유로워진 사회·역사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40여 년의 세월을 사회주의 체제에 살았고, 급격히 변화된 시류 속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11) “소설이나 그림을 망라해 내 작품에는 카레이스키로 살아야 하는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반면 이방인으로서 통과(渡)처럼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있다.” 「화가-박 미하일」, 『뉴스한국』, 2008. 12. 9.

12) 이에 대해서는 Peter Burke(강상우 역), 『문화 혼종성』, 이음, 2012. 27-56쪽 참조.

13) 「화가-박 미하일」, 『뉴스한국』, 2008. 12. 9.

끊임없이 고민한 박 미하일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나는 늘 ‘다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또한 항상 나 자신에게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남긴다.…우리는 커다란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 세계를 깨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¹⁴⁾

화가는 다양한 문화 공간에 노출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1) 러시아와 유럽 공간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기 전까지 박 미하일이 가로지르던 땅은 하나의 국가였고, 작가의 그림 속에서도 하나의 문화로 표현되고 있다. 작가는 모스크바를 거점으로 유럽과 크림반도를 때때로 여행하곤 하였는데, 이는 고스란히 그의 작품에 한 페이지를 차지한다. 그는 크림반도가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한때 거주하였었고, 프랑스 파리에서 두 차례(1995, 2006), 모스크바에서 세 차례(1998, 1999, 2001) 개인전을 열기도 하였다.¹⁵⁾ 러시아와 유럽의 문화권에서 자란 박 미하일은 각 도시만이 자아낼 수 있는 풍경과 계절감을 다양한 색감으로 연출하였다. 작가가 방문한 도시의 특징은 간결한 사물로 정돈되어 있지만, 반면 색채는 다양한 색감의 조합을 이루고 있다. 박 미하일은 색을 혼합하여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이 어우러진 작품을 그려내고 있다.¹⁶⁾ 대표적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белой ноч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1998), <파

14) 조용호, 「인간을 알기 위해 쓰고 그렸지만. 늘 잡힐듯 하다가 날아가」, 『세계일보』, 2018. 6. 11.

15) 『사과가 있는 풍경』 출판기념 및 박 미하일 개인전(<동쪽과 서쪽>, 2018. 5. 16-5. 22) 리플릿의 작가 약력에 개인전시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16) 백용현, 「KOREA ART SPECIAL FESTIVAL 월간 미술세계 창간 30주년 기념 미하일 박」, 월간미술세계사, 2014.

리의 거리(Улица в париже)>(2000), <몽마르트의 야경(Париж.Монмартр)>(2003), <벨기에의 시골(Бельгийская провинция)>(2003), <파리(Париж)>(2007), <벨기에(Брюгге, Бельгия)>(2008), <도시(Город)>(2014), <크림반도의 풍경(Крымский пейзаж)>(2018) 등이 있다.



〈그림 1〉〈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
(1998), 70×80cm, 캔버스에 유화.



〈그림 2〉〈여름〉
(1998), 70×90cm, 캔버스에 유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그림 1)는 제목 그대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를 나타낸 그림으로, 네바 강에 비쳐진 건물과 백야의 처연한 분위기를 한껏 살린 점이 돋보인다.¹⁷⁾ 얼핏 보면 단출해 보일 수 있는 블루 색감의 변주를 통해 시적인 서정성을 살렸다. 빼곡한 건물이 화면의 전면을 차지하지만, 특별히 난간에 기대어 있는 여인과 달을 작게나마 배치하여 그림의 밋밋함을 없앴다. 박 미하일의 작품 중 풍경이 8화를 차지하며, 나머지 2화에는 종종 사람이 등장하긴 하지만 인물의 표정에서 분명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때로는 상상 속의 풍경과 인물을 그려내기도 한다. 화가는 오롯이 색감에 의존하여 정감을 전달하며, 되도록 밝은 파스텔 톤의 색채를 사용하는데, 이는 박 미하일의 모든

17) 박 미하일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테마라고 밝히고 있다. “나는 그곳의 오래된 건물들과 강에 비친 그 건물들의 모습을 무수히 그려낼 수 있다. 그렇기는 해도 그 그림들은 매번 새로운 그림이 될 것이다.”(박 미하일, 『박 미하일 MIKHAIL PARK』, 월간미술세계사, 30쪽). 2018년도에도 역시 이에 대한 연작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밤(Ночь в С-Петербурге)>을 그리기도 하였다.

회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이다.

박 미하일은 러시아와 유럽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바라본 정경을 작가만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담아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화가는 그림그리기와 소설이 매체만 다를 뿐 자신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동일하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다.¹⁸⁾ 소설에서는 좀 더 실존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되었다면, 회화에서는 현실 속의 고뇌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운 풍경에 침잠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화가가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전까지 러시아와 유럽을 모티브로 한 회화가 대다수를 이루었으며, 지금도 정기적으로 러시아의 집과 유럽을 여행하며 이에 대한 주제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작가만의 양식으로 투영하여 그려낸 건물과 자연, 특히 러시아를 상징하는 자작나무에 대한 그림이 많다. 또한 변화하는 계절을 색감으로 나타내는 테마에 심혈을 기울인다. <여름(лето)>(1998)(그림 2)에서는 뜨겁게 작열하는 태양의 계절인 여름을 지나 가을로 들어서는 문턱의 시기를 샛노란 해바라기에 둘러싸인 여인으로 묘사하였다. 이 작품에서 박 미하일은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젊음의 아름다움’을 계절에 빗대어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¹⁹⁾ 러시아어를 모어로 하는 그가 문화와 정신적 뿌리를 러시아로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그렇기에 박 미하일의 마음속에 항상 내재되어 연상되는 이미지는 바로 러시아일 것이다.

2) 조국 ‘한국’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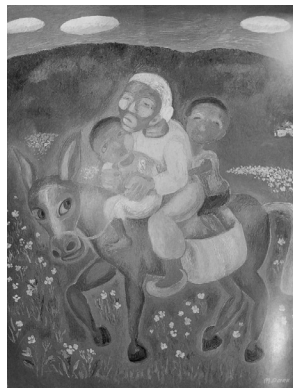
1989년 알마아타의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한국어를 익힌 것은 박 미하일이 한국과의 지속적인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그의 세 번째 전시에서 박 미하일은 우연히 사업가 이은수씨를 만나게 된다. 이은수는 고려인 화가인 박 미하일의 작품에

18) 박 미하일과 인터뷰 2018.11.2.

19) 박 미하일, 『박 미하일 MIKHAIL PARK』, 월간미술세계사, 44쪽.

호감을 갖고 그를 물심양면 도와주는데, 이에 힘입어 마침내 화가는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리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한국의 정취를 회화로 담아낸다.²⁰⁾ 2004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박 미하일의 네 번째 전시회에서 화가는 엄사리에서 작업한 그림을 처음 선보였는데, 회화의 주된 주제는 엄사리를 비롯한 한국의 자연환경과 모국에 관한 상념에서 발현된 것들이었다. 대표적으로 <국사봉 가는 길(Тропинка к роднику)>(2002), <계룡 쉼터(На Исходе Дня)>(2002), <집으로(Домой)>(2002), <결실(Сушка перца)>(2002), <화목한 가족(На прогулке)>(2002), <늑도(Остров Нык до)>(2002), <해운대 야경(Пусан. Пляж Хэундэ)>(2002), <모정(Мать и дитя)>(2002), <행복한 어부(Счастливый рыбак)>(2003), <이태원(Итхэво н)>(2004), <아름다운 남해(На острова Нам хэ)>(2004), <한국의 산에서(В горах Кореи)>(2010) 등을 꼽아볼 수 있다.

화가는 오래 전부터 한국에서 작업을 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그에게 한국의 시골과 자연의 경치를 즐길 수 있었던 엄사리는 안성맞춤의 장소였다. 박 미하일은 그곳의 정경에 몰입하여 당나귀를 타고 있는 할머니와 아이를 그린 <집으로>(그림 3)란 작품에서 다음과 같은 속내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림 3〉 〈집으로〉

(2002), 100×80cm, 캔버스에 유화

“엄사리의 공기가 나로 하여금 이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다. 내가 이런 곳에서 태어났더라면, 언덕들 사이에서 유년시절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아이들 중에 당나귀를 타고서 할머니와 함께 올라가는 아이에게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²¹⁾

20) 박 미하일은 자신의 역사적인 고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준 이은수씨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박 미하일, 위의 책.

21) 박 미하일, 위의 책, 14쪽.

박 미하일은 한국의 들판을 오르고 있는 아이에게 자신을 투사하여 자신의 처지이자 모든 고려인들이 모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아련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작가는 엄사리에서 머무는 동안 수많은 소재들이 떠올랐고, 이는 박 미하일



〈그림 4〉 〈행복한 어부〉

(2003), 80×100cm, 캔버스에 유화

개인의 조상 계보를 넘어선 민족의 뿌리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자신의 선조가 어부였다고 알고 있었던 그는 <화목한 가족>과 <행복한 어부>(그림 4)를 그리며 먼 조상의 업을 정답게 묘사하기도 하였다.²²⁾ 또 <모정>(그림 5)이란 작품에는 아이를 업고 쪽머리를 한 어머니를 노란색 들판의 정중앙에 배치하여 그려 놓았다. 아이와 어머니 모두 황색 피부를 가진 전형적인 한인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얼굴의 표정은 읽기 어렵다. 작가는 이 그림에 덧붙여 스탈린의 강제이주와 자신의 부모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이주를 오게 된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²³⁾

22) “나는 종종 바다라는 테마에 매료되고는 한다. 아마도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부름이기도 하리라. 알다시피 나의 먼 조상은 어부였으니까 말이다.” 박 미하일, 위의 책, 46쪽.

23) “1937년, 스탈린은 러시아 연해주 근처의 한인들을 모조리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내 부모님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다. 당시 어머니는 13세, 아버님은 25세였다. 훗날 두 분이 만났고, 5남 2녀 우리 남매들도 그곳에서 태어났다. 박 미하일, 위의 책, 41쪽.



〈그림 5〉 〈모정〉

(2002), 80×100cm, 캔버스에 유화

박 미하일은 고려말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나고 자란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는 다양한 민족이 한데 어우러져 거주하였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자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혼성된 문화 속에서 러시아 문화와 정신에 더 익숙하고 가까웠던 그에게 모국과의 접촉은 진정으로 고려인에 대한 생각 그리고 모국의 땅과 정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호기였다. 마흔을 넘긴 작가가 한글을 늦깎이로 익히고,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조국에 대한 회화로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작가는 박경리의 소설 『토지』를 러시아어로 번역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와 조상의 뿌리가 하나임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²⁴⁾ 삶에 대한 고민으로 완성된 그의 회화는 주제를 불문하고 노란색을 주로 사용하여 밝고 따뜻한 인상을 풍긴다.²⁵⁾ 작가는 평소 아름

24) 박 미하일은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2004), 윤후명의 『둔황의 사랑』(2011), 박경리의 『토지 1』(2006), 『토지 2』(2018) 등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였다. 또 『토지』에는 그가 그린 삽화 40여 컷도 수록되었다(조용호, 앞의 기사 참조). 작가는 『토지』의 삽화를 그리면서 한국의 정경과 전통적인 의복 및 문화를 익힐 수 있었는데, 이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재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다운 세상을 회화로 담아내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밝히곤 했는데, 자신의 조상과 모정에 대한 주제가 역사적으로 슬픈 상황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화한 분위기로 묘사를 한 것이 특징이다. 박 미하일은 자신이 변함없이 추구하는 화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어머니는 내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어머니의 모습처럼 내게도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고려인이 그렇듯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내게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무척 노력하셨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라고 믿는다.”²⁵⁾

박 미하일의 그림에서 특별히 고려인의 색채가 두드러진 작품은 드문 편이다. 하지만 화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박 미하일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은 어머니이고, “대부분의 고려인이 그렇듯”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자식에게만은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화가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물을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따스한 눈길로 그려내게 된다. 박 미하일 특유의 정서, 그가 일관되게 추구해오고 있는 화풍의 근저에는 모성애가 자리하고 있고, 그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어머니의 모습”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화가가 자라온 환경이 문화적으로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조상의 나라인 한국과의 접촉으로 모국의 풍경을 담아내면서 작가의 내면에 가려져 있던 고려인과 조국에 대한 숙고가 회화로 나타날 수 있었다.

25) 작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빈센트 반 고흐이며, 자신 스스로 고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 고흐가 노란색에 집착해서인지 나도 노란색과 오렌지색을 좋아한다고 인터뷰에 밝혔다. 「화가 박미하일」, 『뉴스한국』 2008. 12. 9.

26) 「화가_박 미하일」, 『뉴스한국』, 2008. 12. 9.

3) 고향 우즈베키스탄

박 미하일이 태어나 자란 우즈베키스탄 악꾸르간 지역에는 고려인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타타르, 아제르바이잔 등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었고, 이 때문에 화가는 여러 민족의 언어를 알아듣고 친하게 어울려 지낼 수 있었다. 화가의 아버지 나이 스물다섯, 어머니가 열세 살 되던 해에 연해주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터라, 그들은 한인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집에서는 한국식 온돌, 밥, 된장찌개, 김치를 먹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²⁷⁾ 집에서는 부모가 고려말을 사용하였으나 밖에서는 항상 다양한 언어의 혼재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림 6〉〈도예가〉

(1983), 사이즈 정보미상, 캔버스에 유화

오른 편에는 우즈베키스탄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제구(茶諸具)가 놓여 있다. 유년시절 품었던 꿈을 상징하는 빛과 도자기를 만든 연륜만큼이나 주름이 진 장인을 묘사한 것은 다름 아닌 고향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향수이다. 스무 해가 지나 그린

박 미하일의 모국은 우즈베키스탄이지만, 아버지의 직업상 이동으로 십이 년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애정은 박 미하일 회화의 곳곳에서 드러난다. 작품 <유년시절(Детство)> (1983) <도예가(Гончар)> (1983) 등은 작가가 30대 중반에 그린 것으로, 각각 동네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추억과 우즈베키스탄 전통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에 관한 것이다 (그림 6). 큰 자기에 둘러싸인 도예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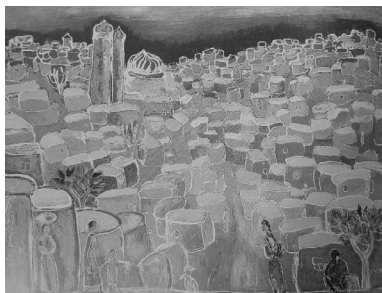
27) 박 미하일과 인터뷰 2018.11.2.

<시골 고향(Тихий поселок)>(2002)(그림 7)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의 묘사를 피하고, 어스름 녘 마을의 지붕을 열기설기 표현하였다. 작가는 유년시절 마을에 방문하던 이가 쓰고 있던 터키식 모자 페즈(fez, 터키 사람들이 애용하는 모자로 마치 양동이를 얹어놓은 듯한 챙 없는 원통형이 특징)를 떠올려 마을의 지붕 모양에 적용하여 그려냈다.²⁸⁾ 작가의 회미한 기억과 상상력에 푸른 색감이 더해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 우즈베키스탄 들길의 흔한 나무 중 하나인 미루나무가 오른쪽 한편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7〉 〈시골 고향〉

(2002), 50×60cm, 캔버스에 유화



〈그림 8〉 〈옛 도시〉

(2004), 80×100cm, 캔버스에 유화

작가는 2004년 중앙아시아에 대한 일련의 그림을 그리는데, 모두 우즈베키스탄에 관한 것이다. 물론 박 미하일은 성인이 되어 1981년부터 1998년까지 17년을 카자흐스탄에서 보내지만, 12년간의 유년시절을 보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애정이 더 각별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사마르칸트(Самарканд)>(2004) <옛 도시(Старый город)>(2004) <비단길을 향하여(Город Великий шёлковый пути)>(2004) <시장(Восточный

28) “여기는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다. 내 기억으로는, 이따금 우리 마을로 ‘올림’이라고 하는 키다리가 찾아오고는 했는데, 그는 터키식 모자를 쓰고 먼지 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키가 2미터 정도는 될 것 같은 진짜 거인이었는데, 착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그가 길을 때마다 그의 어깨와 머리가 지붕 위 높은 곳에서 흔들리고는 했다.” 박 미하일, 앞의 책, 18쪽.

базар)>(2004), <시인(поэт)>(2004) 등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로 통하던 고대도시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로 유명하다. 각 고대도시는 푸른 돔을 가지고 있는 모스크로 상징되는데, <사마르칸트> <옛 도시> (그림 8), <비단길을 향하여>에서 모두 화면 전면을 이슬람 사원과 그 주변의 건물들로 빼곡히 배치하였다. 웅기중기 모여 있는 침탑(부하라 칼란의 탑)과 건물들은 마치 한편의 기하학적 무늬로 보이기도 하는데, 건물들 틈 사이로 사람을 그려 넣어 그림 전면의 단조로움을 없앴다.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건물의 테두리를 하얀색으로 그려 입체감을 부각시킨 것이 특징이다. 박 미하일은 상상 속의 우즈베키스탄 고대도시를 그리며 그곳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운을 띄운다. 또 그 옛날 실크로드의 고대도시를 왕래하였을 중국 상인들과 페르시아의 무역상들, 다마스쿠스(Damascus) 칼을 지닌 시리아의 고관 대직과 모험을 찾아다니는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하며, ‘비단길이자 문화의 용광로’의 역할을 하였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치기도 하였다.²⁹⁾



〈그림 9〉 〈시장〉

(2004), 80×100cm, 캔버스에 유화



〈그림 10〉 〈시인〉

(2004), 110×140cm, 캔버스에 유화

한편 <시장>(그림 9)과 <시인> 작품에서는 작가가 몸소 경험한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시장에서 흔히 볼 수

29) 박 미하일, 위의 책, 62-63쪽.

있는 수박만한 크기의 참외인 드냐(дыня) 및 과일이 왼편에 쌓여 있고, 정중앙에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빵이자 그들의 주식인 리뽀쉬카(лепёшка)를 흥정하는 모습이 보인다. 오른편에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비단인 아드라스(adras)를 착용하고 미소 짓는 할아버지가 새장 안에 새를 들고 서있다. 화면의 후면에 이슬람 침탑과 돔을 위치시켜 이곳이 우즈베키스탄임을 알려준다. 전반적으로 복적이지만 정겨운 시장 광경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³⁰⁾ 시장은 그의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장소이다. <시인>(그림 10)에서는 한 인물이 더위를 피하여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³¹⁾ 반가부좌를 취한 그의 앞에는 다구(茶具)가 놓여 있고, 공작으로 보이는 새와 포도나무 덩굴이 그를 에워싸고 있다. 그림의 후면 곳곳에서 이슬람 양식의 푸른 돔이 보이기도 한다. <시인>은 우즈베키스탄 전통적인 차(茶)문화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러한 관습이 몸에 밴 박 미하일은 지금까지도 차를 좋아하고 즐겨 마신다. 또 우즈베키스탄은 고온 건조한 사막 기후를 자랑하는데, 그 작열하는 여름의 태양을 표현하기 위해 화면의 전반적인 색감은 노란색을 사용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화가의 고향이자 유년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으로 박 미하일이 태어나 처음 접한 세상이다. 자연 풍경으로 표현한 러시아나 한국의 모습과는 달리, 우즈베키스탄에 관한 그림에서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생활한 문화와 풍습을 그려냈고, 비교적 인물의 표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다. 자신이 고려인임을 항시 의식한 박 미하일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소수자로 사는 것이 녹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시선을 놓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한다.³²⁾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회화

30) “동양의 시장은 그 어떤 구경거리보다 근사하다. 온갖 부류의 인파, 왈자지껄하는 소리, 빵, 식류, 참외…… 싱싱한 참외를 곁들여 빵을 먹고 나서, 매추리들의 싸움을 볼 수도 있다.” 박 미하일, 위의 책, 64쪽. 소비에트시절 중앙아시아는 동양으로 불리었다.

31) “폭염이 내리쬐는 날에는 포도밭 그늘에서 시를 읽고 향기 좋은 녹차를 마시면서 갈증을 푸는 것이 제일이다.” 박 미하일, 위의 책, 65쪽.

에서도 목가적인 모습을 주로 표현하였으나, 그것의 내부에는 고려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회비애환이 담겨 있는 것이다.

4. 결어

지금까지 박 미하일의 회화에 나타난 소재와 그것이 표상하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박 미하일은 개인적인 이유로 소비에트 연방의 여러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 그러나 고려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주류사회에 편입하기 어려운 소수자의 처지였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따스한 눈길을 잃지 않고 세상을 회화에 담아낸다. 어머니의 헌신이 그로 하여금 모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박 미하일 회화의 소재는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작가가 머물렀던 지역적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러시아어를 모어로 가진 박 미하일에게 러시아와 유럽은 가장 친밀한 문화이다. 러시아식 교육을 받고 유화를 전공한 것에서부터 생활과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그의 근간을 이루는 한 축이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연방 하에 사십여 년의 세월을 보냈고, 중앙아시아 지역 연방 국가들이 독립할 무렵 모스크바로 이주하여 십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회화의 주제 면에서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1989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된 박 미하일은 조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의 후원자의 도움으로 한국의 시골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문학작품 번역작업을 맡게 되면서 한국에

32) “카레이스키는 주변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했다..... 한 번도 내가 한민족의 피를 가진 고려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싫든 좋든 그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화가_박미하일」, 『뉴스한국』, 2008. 12. 9.

머물게 된 것은 그로 하여금 고려인과 고국에 대한 모티브로 전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작가가 항상 자신의 뿌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조국과의 접촉이 없었더라면 실체에 대한 회화작업이 어려웠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박 미하일의 고향이다. 비록 1937년 강제이주 후 다민족과 뒤섞여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의 부모는 자식들이 고려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었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작가에게 특별한 장소로 각인된다. 박 미하일은 기본적으로 소비에트(러시아) 사회와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생활문화 또한 공유하고 익힐 수 있었다. 화가는 항상 혼재된 문화 속에 연속되어 노출되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에게는 한국 사회 또한 새로운 문화이기 때문이다. 결국 박 미하일이 여러 나라에 일정 정도 시간을 보내며 그 사회의 생활과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그의 회화적 자취에서 다양한 소재를 드러내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 필자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박사수로

□ 참고문헌

- 박 미하일, 『박 미하일 MIKHAIL PARK』, 월간미술세계사, 2004.
- _____, 「나의 문학,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동북아지역 한인 작가 초청 포럼 자료집 <나의 문학, 나의 세계관>, 공주대학교 재외한인문화연구소, 2013. 4. 26.
- 백용현, 「KOREA ART SPECIAL FESTIVAL 월간 미술세계 창간 30주년기념 미하일 박」, 월간미술세계사, 2014.
- 이상갑·정덕준, 「1990년대 이후 CIS지역 고려인 문학 연구- 박 미하일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6.

- 이승하, 「재 러시아 고려인 작가 박 미하일 소설 연구」, 『배달말』 48권, 2011.10.
- 이정숙, 「박 미하일 작품에 나타난 고려인문학의 특성」, 『국제한인문학연구』 13집, 국제한인문학회, 2014.2.
- 장마야, 「박 미하일 소설에 나타난 ‘고려인-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2014.2.
- 정덕준 외, 『CIS 고려인문학사와 론』, 한국문화사, 2016.
- 조용호, 「인간을 알기 위해 쓰고 그렸지만. 늘 잡힐 듯 하다가 날아가」, 『세계일보』 2018. 6. 11.
- 「화가 박 미하일」, 『뉴스한국』, 2008. 12. 9.
- Peter Burke(강상우 역), 『문화 혼종성』, 이음, 2012.
- Mirkurbanov N.M., The Artistic world of small prose by Michail Park, 국제학술세미나 논문집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언어 · 문화 비교연구>, 타시켄트,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1.10.27-28.
- Temirbolat Alua, Poetics of M. Park's "Seoul Vacation" stories,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중앙아시아와 한국>, 알마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10.24-25.

〈Abstract〉

A Study on Motherhood of CIS-Korean Painter
Park Mikhail

Jeon, Sophy-Seonha

This paper is a study on motherhood expressed in a painting by Park Mikhail. He was born in Uzbekistan as the fifth generation of CIS-Korean and lived in various Soviet Union's federations for personal reasons. He now lives in Korea and is a full-time writer and painter. After forty years in the Soviet Union, he lived in Moscow for a decade, accepting Russian life and culture, and this became a part of his life and art. At the time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Park Mikhail learned the language of the mother tongue, Hangul, and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his mother country. By this, he was able to draw the image of Korea, the real value of his ancestors. Besides, he was able to study the thoughts and history of Korea by undertaking the transl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volumes of Korean literature "Land."

Park Mikhail shows diverse and complex works ranging from his paintings of Uzbekistan, his birth and childhood, to his recent works, and the emotion that reflects these works is the warmth of things. Moreover, the source of this is motherhood, which makes it possible to warm all the world even in an environment that was exposed to various cultures and lifestyles. Notably, it considered that there is a necessary implication for the encounter between the mother country and the CIS-Korean in that Korea is a significant portion of Park Mikhail's painting.

Key words: Park Mikhail, CIS-Korean, CIS-Korean painter, Russia, Uzbekistan, Deportation, Motherhood

재아 한인 시문학 연구

- 『로스 안데스 문학』 18호를 중심으로

송 주 영

■ 차례

- 1. 서언
- 2. 『로스 안데스 문학』 발간 현황
- 3. 재아 시문학에 나타난 정체성 탐구
 - 1) 객체적 존재로서의 자아 확인
 - 2) 관계 단절로 인한 자아 위로
 - 3) 사물과 자아의 동질감
- 4.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 국문초록

아르헨티나는 오랫동안 정치가 혼란하였던 탓에 주기적으로 경제가 불안하였다. 이 여파로 이민 사회도 안정되지 못하여 재외동포들이 재이민이나 역이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아 한인들은 자신들이 도착한 곳이 이상적인 정착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방황했을 것이다. 유럽인이 대다수인 그곳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남기 위해 재아 한인들은 공동체를 형성하며 여러 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문인들이 결성한 ‘재아문인협회’에서 민족의 얼이 담긴 한글 문예지를 발간한 것은 재아 한인 사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적인 작가가 아닌 평범한 생활인이 쓴 글은 한인사회에 위로를 주고, 민족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 논문은 중남미 아르헨티나에서 2018년 11월에 발간된 『로스 안데스 문학』 제18호를 중심으로 재아 한인 시문학의 특성을 탐구하였다. 문예지 초기의 글들은 사회적 소재로 이민사회의 어려움이나 이방인의 외로움을 주로 다루었지만, 최근의

글들은 개인의 모습을 주로 그리고 있다. 필자는 이번 18호에 나타난 시문학의 특징을 자아의 정체성 탐구라고 파악하였다. 그 세부 내용은 객체화된 자아 확인, 관계 단절로 인한 자아 위로, 사물과 자아의 동질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확인되듯이 최근 작품에는 이방인만이 지닌 독자적인 정서를 찾아볼 수 없다. 인터넷매체가 발달하면서 공간적인 한계가 무너진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주제어: 아르헨티나 한인, 『로스 안데스 문학』, 재아문인협회, 재아 시문학, 자아 정체성, 객체화된 자아, 동질감

1. 서언

외교부에서 집계한 2017년 재외동포 현황에 의하면 중남미에 있는 동포 수는 전체 재외동포의 1.44%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이 제일 많고 아르헨티나가 그 다음이다.¹⁾ 1965년부터 시작된 아르헨티나 이민은 1997년에 32,069명이었으나 장기간 계속된 경제 불황으로 2003년 15,500명으로 줄었다. 2003년 12월에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실시되고, 치안 안정과 경제회복으로 인근 다른 국가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다시 아르헨티나로 되돌아가 현재 그 수다 23,194명에 이른다.²⁾ 재아동포들은 중산층 이상의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민역사 50년이 넘는 과정에서 높은 교육열로 1.5세대, 2세대들이 현지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인으로 현지 주류 사회에 진출한다.³⁾ 아르헨티나 한인

1) 외교부에서 발행한 2011년 『재외동포현황』에 의하면 중남미 전체 지역에서 브라질 동포는 44.94% (50773명)로 제일 많았고, 아르헨티나가 두 번째로 19.79% (22354명)이었다.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중남미 지역에서 아르헨티나 동포는 21.72% (23194명)로 증가하였다. 194개국에 있는 전체 재외동포 중에서 아르헨티나 한인 수는 16위 정도이다.

2) 서성철,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인 이민-아르헨티나 한인사회와 현지 적응」, 『라틴아메리카연구』18집3호,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0, 162-165쪽. 이 글에는 경제적 불황으로 아르헨티나를 떠나 멕시코에 재(再)이주했다가 그곳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2004년에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박희섭과의 인터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들이 한국어로 문학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재아문인회’가 조직되면 서부터이다. ‘재아문인회’는 1994년 1월에 창립되어 여러 번의 발표회와 강연회를 거쳐 1996년 9월 『로스 안데스 문학』 창간호를 발행한다.⁴⁾ 이후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발간, 2018년 11월 18호가 발행되었다.

재아 한인문학에 대한 논의는 극히 드문 편이다. 먼저 양왕용은 남미 한인 시의 특성을 라틴문화의 다양한 수용이라고 보고, 고향(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지역문화, 기독교적 세계관을 내보인다고 지적한다.⁵⁾ 김정훈은 재아한인 시문학은 현지인과 ‘하나되기’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부를 드러내는데, 이는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피해의식과 절망감의 표현이라고 밝힌다. 재아 한인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한국문학의 일부라고 간주하고 현지인과 자신들 사이에 매직 글라스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⁶⁾ 김환기는 아르헨티나 한인 문학작품을 장르별로 정리하고, 재아 시문학에는 고향(조국)에 대한 그리움, 남미의 대자연 찬양, 종교적 휴머니즘, 재아 한인사회의 일상이 그려져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아 한인들의 개별 작품만으로는 이민문학 또는 디아스포라 문학 특유의 다층적 월경주의를 읽어내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⁷⁾ 이명재는 한국 문단과는 차별화된 디아스포라 또는 이민문학의 특성을 지닌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 이들 작품이 담고 있는 이민자의 타자 의식, 민족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의식을 해명해 보인다.⁸⁾ 최종환은 중

-
- 3) 외교부, 『아르헨티나 개황』, 2017, 160-161쪽.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농업 이민이 주를 이루고, 1970년대는 남북 분단의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자영업자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목사나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다. 1985년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협정 체결 후 투자 이민이 급증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중남미 한인의 역사』(재외동포사총서 06), 2007, 264쪽.
 - 4) 김윤규, 「재아르헨티나 한인 소설의 몇 가지 성향」, 『문화와 융합』 27집, 한국문화융합학회, 2005, 160쪽.
 - 5) 양왕용, 「남미 한인의 시문학과 정체성」, 『한국시문학』 14집, 한국시문학회, 2004.
 - 6) 김정훈, 「재아 한인 시문학의 특성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32집, 한민족문화학회, 2010.
 - 7) 김환기 엮음, 『아르헨티나 코리안 문학선집(시/수필)』, 보고서, 2013.
 - 8) 이명재, 「아르헨티나 한인들의 한글문단 고찰」, 『우리문학연구』 46집, 2015.

남미 한인문학을 존재론적 혼종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는 맹 하린과 윤춘식, 임동각의 글쓰기 이력과 다문화적 신비로 가득한 남미 적 무의식이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 주목, 기독교 신앙과 남미 무의식의 혼종적 상상력을 중남미 한인 문학의 특징이라고 규정한다.⁹⁾

위에서 본 대로, 재아 한인문학에 대한 연구는 손꼽을 정도로 드물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근에 간행된 『로스 안데스 문학』 18호를 중심으로 재아 한인 시문학의 흐름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로스 안데스 문학』 발간 현황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한인(1963년)들보다 이주가 늦고 인구도 그 절반이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1970년대 말부터 문학 동인 모임이 만들어진다. 이후 코리아타운이 자리를 잡고 한인들의 삶이 나아지면서¹⁰⁾ 이들은 고단하고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도 모국어로 글을 쓰는 창작 활동을 병행한다. 1994년 1월 ‘재아문인협회’가 창립되고, 1996년 9월 『로스 안데스 문학』이 창간되는데, 재아 한인 작가들은 이 한글 문예지를 중심으로 문학 활동을 전개한다.

‘재아문인협회’(회장 박영)는 『로스 안데스 문학』 창간 이후 매년 또는 격년으로 이 문예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2018년 11월 발행한 18호에는 청각 장애우들을 위한 공모전 행사의 수상작품을 게재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공모전 행사는 문학을 통한 양국 간 소통의 거리를 좁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¹¹⁾

9) 최중환, 「혼종성 의제로 읽는 아르헨티나 한인 시」, 『비평문학』 69집, 한국비평문학회, 2018.

10) 서성철, 앞의 글, 162-165쪽. 1995년 8월 아르헨티나 한인사회는 한국인 집거지 ‘백구촌’을 코리아타운으로 삼아 ‘백구자치회’를 설립하는데, ‘109타운 한인자치회’로 개명한 이 지역은 규모는 작지만 LA한인타운을 방불케 한다고 한다.

11) 박영, 「제18호를 발간하면서」, 『로스 안데스 문학』, 재아문인협회, 2018, 11쪽.

『로스 안데스 문학』에 실린 재아 한인 작가들의 작품은 『아르헨티나 코리안문학선집』¹²⁾을 통해 소개되었는데, 김환기는 이 문학선집이 디아스포라 문학의 혼종성과 글로컬리즘(glocalism)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¹³⁾ 하지만 『로스 안데스 문학』 작가 대부분이 ‘재아문인협회’ 회원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탈경계적 ‘혼종성’에 걸맞은 문학적 상상력의 부재, 폐쇄적인 사회구조의 표상으로 읽힐 수도 있다.¹⁴⁾

재아 한인문학은 초기에는 주제와 제재면에서 사회 적응과 정체성 찾기, 모국어와 디아스포라적 향수, 기독교적 상상력과 아마추어리즘, 또 다른 새 터전 찾기 등을 내보인다는 점에서 모국의 문학과는 대조를 보인다.¹⁵⁾ 하지만 소셜네트워크가 일상화됨에 따라 평범한 생활인들의 다양한 소재와 장르들이 공유되고 공간적인 한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민 문학만의 특징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로스 안데스 문학』은 이민역사가 짧은 중남미에서 민족의 얼이 담긴 모국어를 통해 한인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공모전을 통해 차세대 재외 한인 문학인을 발굴 육성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예술의 본질은, 하이데거의 지적대로,¹⁶⁾ 진리의 작품 속으로의 자기 정립이며, 시를 쓰는 행위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언어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고, 시를 쓰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대지를 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개의 언어는 역사적 민족에게 그들의 세계를 발현시키고 보존시키는 역할을 한다. 『로스 안데스

12) 김환기 엮음, 『아르헨티나 코리안문학선집』, 보고사, 2013. 편자는 이 선집에 『로스 안데스 문학』 창간호부터 13호(2013)까지 실린 작품들을 ‘시/수필’과 ‘소설’ 두 권으로 나눠 실었다.

13) 김환기, 「아르헨티나의 이민 사회와 시문학의 향연」, 『아르헨티나 코리안문학선집』, 보고사, 2013, 205쪽.

14) 김환기, 「재아르헨티나 코리안 이민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중남미연구』 31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2, 14쪽.

15) 이명재, 앞의 글, 293쪽.

16) M.하이데거, 오병남·민형원 공역, 『예술작품의 근원』, 예전사, 1996, 93쪽.

문학』 또한 그러하다. 이 문예지에 실린 작품들은 재아 한인사회의 이민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재아 시문학에 나타난 정체성 탐구

재아 한인들은 한인회 활동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¹⁷⁾ 주로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 아르헨티나 이민 세대는 가족 안에서 생활을 했고, 단일 민족답게 하나로 뭉쳐 한인사회를 이뤄 나갔다.¹⁸⁾ 이 때문에 그들은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한 반면, 아르헨티나 현지인과의 교류가 적어 현지 문화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재아 시문학은 초기에는 고향에 대한 향수, 이민자의 고달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신비 등을 다룬 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이산(離散) 문학으로서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사회적 상황이 제시되기보다는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 대부분이다. 『로스 안데스 문학』 18호에 게재된 시들도 이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은 소수이다. 8명의 시인 중 7명이 여류시인인데, 그들은 사물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존재를 확인하는 시를 보여주고 있다.

1) 객체적 존재로서의 자아 확인

①마음의 무게/ 길을 걸을 때마다
힘에 겨워/ 비틀거리다

17) 서성철, 앞의 글, 173쪽. 이에 따르면, 거주국 아르헨티나에 대한 낮은 소속감과 한국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지닌 재아 한인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이나 제3국으로 재이주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들의 교육문제라고 한다. 서성철은 현지 문화에 동화되어가는 자녀와 마찰을 겪은 부모들은 그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들을 한국에서 교육받게 하려 한다고 말한다.

18) 박세순, 「한민족 네트워크와 재 아르헨티나 동포」, 『재외한인연구』 16집, 재외한인학회, 2004, 181쪽.

마음 한 구석 꿈틀대는/ 흔적을 만들어
 걸어보지도 않았던 낯선 길에
 또 하나의 길을 놓는다
 ...중략...
 오늘도 난/ 쉬지 않고
 무림의 숲 사이로 날아간
 새 한 마리를 찾아/ 걷고 또 걷는다 — 박영, 『길에 대하여』 부분¹⁹⁾

②중력에 굴복한 몸/ 그렇게 바닥과 한 몸이 되어
 되뇌인다/ 참아야만 해
 기다려야 해/ 손을 내밀어야 해

과장된 웃음은 가면이다
 꼬리를 물고 제자리를 뱅뱅 도는
 유머러스한 슬픔 — 서상희, 『검은 개』 부분(93-94쪽)

①의 시에는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는 자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길을 가는 것은 인생의 여정이며 길을 내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화자는 과거에 무거운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힘에 겨워’하고 ‘비틀거리’며 살아왔다. 힘들수록 현실을 떠나 이상향을 꿈꾸게 된다. 화자는 감당하기 힘든 삶에서 ‘마음 한구석 꿈틀대’던 ‘흔적’을 따라 이민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민을 온 화자의 모습은 현재 ‘낯선 길’에 ‘또 하나의 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화자가 선택한 ‘낯선 길’이 설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쉬지 못하고, ‘걸고 또’ 걸어야만 하는 여정이다. 화자는 ‘무림의 숲’으로 ‘날아간’ ‘새 한 마리’를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하며 자아를 찾기 위해 숲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

②의 시에는 ‘검은 개’의 행동을 통해 ‘유머러스한 슬픔’에 사는 자아

19) 박영, 『길에 대하여』, 『로스 안데스 문학』 18호, 재아문인협회, 2018, 38쪽. 이하 인용 작품 말미에 『로스 안데스 문학』 18호 쪽수만 밝힘.

를 묘사하고 있다. 타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민자의 아픔을 ‘중력에 굴복’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아가는 개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낯선 땅에서 낯선 이를 경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감추고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색한 표정과 ‘과장된 웃음’으로 표현될 것이다. 화자는 나아질 것 없는 삶의 모습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제자리를 뱅뱅 도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개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개의 모습은 곧 자아의 모습이며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조적 웃음과 더불어 슬픔을 자아내고 있다.

2) 관계의 단절로 인한 자아 위로

① 우리의 생 풀꽃보다 길 리 없고
 우리는 행복 이슬만큼 반짝일 리 없다
 네가 서둘러 떠난 세상은
 너 그대로 보내놓고
 너 가버린 날수만큼 때로는 잊고
 때때로 기억하며
 상처가 된다 — 임한나, 『웃보다 먼저 간 너』 부분(88쪽)

② 반짝반짝 윤기 나는 황금빛 낫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흰 쌀밥
 파릇파릇 싱그런 상추와 향기 가득한 깻잎
 상큼한 오렌지빛 당근과 아삭아삭 노오란 파르리카
 세시한 보랏빛 양배추와 야들야들한 선홍빛 연어를 얹어
 시뻘건 고추장과 고소한 참기름을 살짝 둘러
 쓰윽쓰윽 비벼 입안에 넣는 순간
 음! 사르르 부드러움이 입안에서 춤을 춘다.
 — 이정은, 『회덮밥』 부분(77쪽)

③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순 밥 한 공기
 김치 한 가닥 처억 걸쳐/ 호호 불어
 우물우물 씹어대니
 ...중략...
 잘 익은/ 김치 안 가닥 올려
 목구멍 한 가득 밀어대니/ 열정과 환희로 부대끼며
 뜨겁게 애무하는 너의 희열/ 꼭꼭 씹어대니
 저절로 달아오르는 감칠 맛//
 또 한 술 떠서/ 김치 한 조각 없어보니
 그리움 속에/ 빨강게 물든
 어머니 사랑/ 꽃밥 되어 가슴을 적신다 — 박영, 『꽃밥』 부분(42-43쪽)

①은 이별의 아픔을 담담하게 써 내려가면서 자아를 위로하고 치유한다. 인생은 누구나 유한적이다. 길가에 핀 하찮은 ‘풀꽃보다’ 짧은 생이고, 행복도 ‘이슬만큼’ 티 없이 ‘반짝일’ 수 없다. 청자가 ‘서둘러 떠’나버린 세상은 그만큼 덧없고 짧은 생이다. 청자를 보내고 이승에 남은 화자는 여생 동안 청자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며 마음에 상처를 입겠지만,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것이다. 화자는 관계의 단절을 겪지만, 객관적 시각으로 그 아픔을 치유하고 있다.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숙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따라서 이 시는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시를 쓰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

②와 ③의 시는 다양한 색채어와 감각어를 통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으며, 풍성한 식탁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회고 ‘따순’ 밥은 한국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음식이다. 두 시의 화자들은 고국의 음식을 대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있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야 갈 수 있는 고국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머니가 해주던 밥을 먹으면서 모국의 정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음식을 먹으며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과 ‘열정과 환희로 부대끼’는 느낌을 한국에 살고 있는 독자들이 쉽게 느낄 수는 없을 것이

다. 이국에서 고국의 음식 맛은 어머니의 품을 생각나게 한다. ‘상추’와 ‘깻잎’이 ‘고추장’과 ‘참기름’과 버무려지면 씹히는 맛이 날 텐데, 그것을 ‘부드러움’으로 느낀다는 것은 음식 맛의 표현이 아니라 감성으로 다가오는 맛을 표현하는 것이다.

③의 시에서 밥과 김치는 한데 어우러져 ‘꽃밥’으로 피어난다. 화자는 밥에 ‘빨강게 물든’ 김칫국물을 보며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 비록 고국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음식에서 모성을 느끼며 위로 받고 있다. 김치는 어머니를 연상하게 하고 자신의 근원을 생각하게 한다. 시적 표현들이 쉬운 일상어들이지만, 진실된 어조를 읽을 수 있으며 쉽고 친절하게 공감하도록 이끌어주는 묘미가 있다.

3) 사물과 자아의 동질감

①환하고 눈부신 붉은 불처럼
 첫 만남은 설레었지만
 시간은 자비롭지 못하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순간들은
 어느새 빛이 바래어
 탁한 분홍으로 무덤덤해진다
 ...중략...
 찢어지고 구멍 난 가슴썸이야
 어차피 정해진 순리 아닌가
 그 옛날 나에게도 붉디 붉었던
 지금은 떠나간 아름다운 얼굴이
 있었던 것처럼 — 서상희, 「고무장갑」 부분(95쪽)

②칼바람 불던 겨울 지나고
 봄 비 맞으며 잡초 사이로 뻗쭙뻗쭙
 타는 듯 한 여름의 갈증 뚫고
 일 년을 지나 어둠 속에서도

찬란히 빛나던 너를 보노라니
굴곡 많은 살아온 내 인생이다

황홀의 모습 뒤로 묵은 생채기가
아물 틈 없이 안간힘을 다해
가지 끝에 대롱 매달려 흔들리는
너의 신음소리가 측은지심이다

— 이정은, 『PALO BORRACHO』²⁰⁾ 부분(78쪽)

작가는 예술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형상화한다. 주변 사물에 자신의 내면을 투영하기도 하지만, 사물에서 자신의 근원을 확인하기도 한다. 때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 내면의 숨겨진 자아를 발견하기도 한다. 위에 제시된 작품들에는 한국인의 근원적 정서를 일상적 사물에서 느끼는 재아 한인 작가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①의 시에서는 화자가 닮아가는 고무장갑의 모습에서 인간관계의 변질과 나이듦에 대해 생각한다. 고무장갑이 처음에는 때 타지 않은 순수한 빛깔이었으나 오랜 사용으로 빛이 바래가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신선한 ‘설렘’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한 관계로 변질된다. 화자는 오래 사용하여 ‘찢어지고 구멍 난’ 고무장갑이 고된 삶 속에서 상처입고 늙어가는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화자는 자신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들을 위해 이국땅에서 갇은 시련을 참고 견디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손을 보호하기 위해 거친 환경을 견디는 고무장갑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②의 시 화자는 꽃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객체적 존재인 꽃을 보며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고 연민을 느끼고 있다. ‘칼바람 불던 겨울’과 ‘타는 듯한 여름’의 고단한 ‘어둠 속’을 지내고 ‘찬란히 빛나’는 꽃을 보며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온 자신과 같다고 생각한다. 무수한 ‘생채기’를 안고 있지만, 겉은 ‘황홀’한 모습으로 ‘대롱’ 매달려 있는 꽃송이

20) 술 막대기란 뜻을 지닌 아르헨티나의 꽃 이름.

가 살기 위해 매일 신음하는 화자의 모습 같다고 본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살아가는 화자를 그려보기에 충분하다.

위의 시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로스안데스 문학』18호에 실린 시들은 시적 화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품이다. 객체화된 자아를 통해 자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

4. 결어

『로스 안데스 문학』18호에 실린 시 분석을 통해 재아 한인 시문학의 특성을 규정할 수는 없다. 연구도 부족하고 자료도 미비해서 선부른 판단이라고 본다. 하지만 가장 근래에 나온 작품에 대한 분석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문예지에 실린 시문학의 주제를 시적 화자의 정체성 탐구로 보았다. 기존 논의에 따르면, 『로스 안데스 문학』에 발표된 재아 한인 시문학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나 이민 생활의 어려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등이 그리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이민 반세기가 흐른 현재 이 문예지 18호에 실린 작품들은 익숙한 주변 사물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위로하는 등 화자의 내면세계에 집중하는 시들이 대부분이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객체화된 자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한다. 시의 화자들은 힘겨운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이민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민 생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쉴 수 없는 고단한 삶의 연속이란 점을 깨닫게 된다. 때론 낯선 이를 경계하며 가면을 쓰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어리석고 바보스럽다며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둘째, 사별이나 이민 등 단절된 관계로 아픔을 겪지만,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며 내면의 상처를 감싸 안는 성숙한 자세를 보인다. 고국과 어

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음식으로 치유하기도 한다. 한국인에게 김치와 밥은 공기와 같은 존재이다. 고국에서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국에서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셋째, 시적 화자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고무장갑이나 꽃을 바라보며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거친 환경 속에서 버티고 살아 온 화자가 자신에게 보내는 연민의 시선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로스 안데스 문학』 18호에는 겉으로 보기에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할 만한 별다른 특징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려는 자세에서 이민족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 제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화자들의 주체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민자의 삶을 직접 드러내는 표현은 없지만, 화자의 고단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 필자 || 전주대학교 강사

□ 참고문헌

<기본자료>

김환기, 『아르헨티나 코리안문학선집(시/수필)』, 보고사, 2013.

——, 『아르헨티나 코리안문학선집(소설)』, 보고사, 2013.

라틴크스찬타임스,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박영 외, 『로스 안데스 문학』, 재아문인협회, 한국인쇄소, 2018.

<논저>

국사편찬위원회, 『중남미 한인의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2007.

김윤규, 「재아르헨티나 한인 소설의 몇 가지 성향」, 『문학과 언어』 27집, 문화와 융합학회, 2005.

김정훈, 「재아한인 시문학의 특성연구」, 『한민족 문화연구』 32집, 한민족문

- 화학회, 2010.
- 김환기, 「재아르헨티나 코리언 이민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중남미연구』 31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2.
- 박채순, 「아르헨티나 한인 동포의 재이주에 관한 연구」, 『이베로아메리카』 11집,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2009.
- , 「한민족 네트워크와 재 아르헨티나 동포」, 『재외한인연구』 16집, 재외한인학회, 2004.
- 서경석, 「스페인, 중남미 관련 국내 단행본 출간 추이 분석」, 『라틴아메리카연구』 18집,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5.
- 서성철,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인 이민-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와 현지적응」, 『라틴아메리카연구』 18집3호,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5.
- 송명희 외, 『미주지역 한인문학의 어제와 오늘』, 한국문화사, 2010.
- 양왕용, 「남미 한인의 시문학과 정체성」, 『한국시문학』 14집, 한국시문학회, 2004.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37집4호, 한국사회학회, 2003.
- 외교부, 『아르헨티나 개황』, 2017.
-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7.
- 이교범 감수, 『아르헨티나 한국이민 40년사- 1965~2005』,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문화연구원, 2005.
- 이명재, 「아르헨티나 한인들의 한글문단 고찰」, 『우리문학연구』 46집, 우리문학회, 2015.
- 이영미, 「미주지역 한인문학의 동향 - 캐나다, 아르헨티나의 소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국제어문학회, 2008.
- 전경수, 「아르헨티나의 한국이민- 형성과정과 분포 경향」, 『이베로아메리카연구』 1집,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1990.
- 정덕준, 「재외 한인문학과 한국문학: 연구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 최종환, 「혼종성 의제로 읽는 아르헨티나 한인 시」, 『비평문학』 69집, 한국비평문학회, 2018.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Argentine Poetic Literature

- Focus on Issue No. 18 of “Los Andes Literature” -

Song, Ju-young

The long-term political turmoil in Argentina has periodically caused economic instability. The Korean immigrant community in Argentina has also become insecure as a consequence of such instability, causing the Korean immigrants to re-emigrate to another country or return to Korea. Most of Koreans living in Argentina had initially left their homeland for a better life. However, as time passed, they would have felt lost about the fact that the place they chose would not be an ideal place to settle in.

In Argentina, where the vast majority of people were Europeans, Korean-Argentine people formed a community and created several organizations to survive as an ethnic minority. And the Korean-Argentine Writers' Association, organized by writers, started publishing a literary magazine written in Hangeul (the Korean alphabet), embodying the spirit of the Korean people. This is surely an honor to the Korean-Argentine community. Writings by ordinary people, not by professional writers, brought comfort to the community and strengthened its bonds.

This paper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Argentine poetic literature focusing on Issue No. 18 of “Los Andes Literature” published in November 2018 in Argentina. Writings in the early times of the literary magazine primarily covered difficulties of the immigrant community or the Korean immigrants' loneliness as outlanders, whereas the recent writings mainly introduce daily lives of individuals. This paper defined the characteristics of poetic literature shown in Issue No. 18 as the quest for self identity. The detail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sections: objectified self affirmation, self consolation due to relationship dissolution, and kinship of the object and self. As it can be recognized from this paper, recent writings in “Los Andes Literature” no longer show sentiments unique to outlanders. This may be attributed to the disappearance of the spatial

limitations, where such disappearance is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media.

Key words: Korean-Argentine, “Los Andes Literature”, Korean-Argentine Writers Association, Korean-Argentine Poetic Literature, Self Identity, Objectified Self, Kinship

논문 투고 규정

■ 투고 규정

- 1) 투고 자격은 인문학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대학교수, 강사, 연구원 및 기타 공주대학교 재외한인문화연구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 2) 투고자는 투고 논문을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JAMS)으로 투고해야 하며, 투고 단계에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3) 저작권 활용 동의
 - ① 본 학술지에 투고되어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 ② 필자(들)는 투고 과정에서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 이양을 승인하고 해당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 4) 원고 작성 및 원고 분량
 - ① 논문은 본 규정의 3), 4), 5), 6), 7), 8), 9) 항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25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원고는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한글 요약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5) 저자 및 사사 표시
 - ① 공동 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이를 명기하지 않은 논문은 단독 연구로 간주한다.
 - ②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지원을 받은 논문은 제1페이지의 각주에 다음을 명기한다. 영문 역시 이에 준하여 표기한다.

국문 : 본 논문은 20XX년도 공주대학교의 지원에 의해 수행됨.

영문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20XX.

6) 체제

- ① 모든 논문은 다음의 체제에 맞춰 작성되어야 한다.
 - 제목(부제 포함)/ 필자명/ 국문초록 및 주제어/ 목차/ 본문/ 필자 소개(소속, 직위, 연락처, 전자메일)/ 참고문헌/ 영문초록 및 주제어
- ② 모든 논문은 다음의 기호체제에 맞춰 작성되어야 한다.
 - 직접 인용이나 대화는 “ ”로 표시하고, 필자의 의도에 따른 강조 부분이나 특수용어는 ‘ ’ 부호로 표시한다.
 - 국내 논저 표시는 논문(학위논문 포함) 및 작품(시, 단편소설 등)은 「 」, 단행본과 학술지 및 신문잡지·장편소설 등은 『 』 부호를 사용한다.
 - 외국 논저 표시는 논문은 “ ”, 단행본 및 학술지는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7) 주석

- ①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주석의 단행본 표기는 “저자, 서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하며, 기호체계는 아래의 예시를 따른다.
 - 이순신, 『한산대첩』, 병조출판, 1592, 127쪽.
 - Frank Kermode, *The Sense of an Ending: Studies in the Theory of Fi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123-128.
- ③ 주석의 번역서나 편저 표기는 “저자, 역자(편자),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하며, 기호체계는 아래 예시를 따른다.
 -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50쪽.
 - 김공주 편, 『공산성 연구』, 백마출판사, 2018, 25-28쪽.
- ④ 주석의 학술논문 표기는 “필자, 논문명, 게재지명(또는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하며, 기호체계는 아래의 예시를 따른다.
 - 홍길동, 「친자확인 연구」, 『노비연구』 제4호, 신분학회, 2003, 219쪽.
 - 홍길동, 「신분과 욕망」, 김수박 편, 『조선 노비 재인식』, 길동출판사, 1800, 136-162쪽.

- ⑤ 주석의 학위논문 표기는 “필자, 논문명, 학위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하며, 기호체계는 아래의 예시를 따른다.

- 홍길동, 「노비 해방 담론 연구」,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77쪽.

8) 참고문헌

- ① 참고문헌은 해당 논문에 인용하거나 논문 작성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② 참고문헌은 기본자료, 단행본, 논문의 순서로 작성하며, 한국, 중국, 일본, 비(非)한자 문화권의 순서로 정렬한다.
- ③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는 저자명 가나다 순, 비(非)한자 문화권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정렬한다.
- ④ 한 저자의 저작이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출판 연도순으로 배열한다. 출판 연도가 같은 경우, 제목의 문자 가나다(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이때 저자명을 반복해서 적지 않고 일정한 길이의 밑줄(____)로 표기한다.

9) 초록

- ① 초록은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하며, 분량은 각각 2쪽 이내로 한다.
- ②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각각 작성한다.
- ③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 말미에는 주제어(키워드)를 5개 이상 제시해야 한다.

10)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01.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편집 및 심사,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공주대학교 재외한인문화연구소 『재외한인문화연구』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위원의 선정

- ① 『재외한인문화연구』의 심사과 편집 등 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공주대학교 재외한인문화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주관의 권한을 갖는다.
- ⑤ 편집위원은 인문학 전공자로 한정하며, 전국 규모의 학회에서 학술활동이 왕성한 학자로서 역사·철학·문학·어학 등 인문학 일반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⑥ 편집위원은 대학 및 대학의 부설 연구소 또는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로 선정한다.
- ⑦ 편집위원은 최근 3년간 인문학 관련 학술논문 또는 학술서 2편 이상을 생산한 자로 한다.

제3조: 임기

-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재임 중 신변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의에 의해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의 결원에 의해 보충된 편집위원은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의결과 개최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 수의 1/2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진다.
- ② 편집위원회는 출석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재외한인문화연구』의 발간 50일 전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심의 의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 등 『재외한인문화연구』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관해 심의 의결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게재 신청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에 관해 최종 판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인된 논문 표절 방지 시스템의 검증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재외한인문화연구』의 발간 횟수, 논문 심사의 기준과 절차 및 투고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재외한인문화연구』 외 공주대학교 재외한인문화연구소의 모든 발행물(비정기 간행물, 사이버 출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 01.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편집 및 심사 규정

1. 본 논문집 명칭은 ‘재외한인문화연구’(영문: The Journal of the Culture of Overseas Korean)으로 한다.
2. 본 논문집의 투고 분야는 재외한인문화에 관련된 연구논문으로,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창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3. 원고 마감은 매년 4월 5일, 10월 5일로 하며, 논문집 발행은 매년 5월 31일, 11월 30일로 연 2회 발간한다.
4.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여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판 등 파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복사인쇄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 (1) 원고는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20매를 초과할 경우 초과 게재료를 부과한다.
 - (2) 한자와 영문은 괄호 안에 병기하며, 외국 인명일 경우에도 한글로 원음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 (3) 원고의 체제는 ‘투고 규정’을 따른다.
5. 심사료 및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 (1) 투고 논문은 육만(6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심사료를 납부한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 십만(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각종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게재료 삼십만(3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4) 심사료는 논문을 투고할 때, 게재료는 게재 확정 통보 후 연구소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6. 투고한 논문의 심사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 (1)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3인이 심사하여 게재 및 수정 여부를 정한다.
- (2)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독창성, 논리적 타당성, 학문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 그 결과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가운데 하나로 판정하여 심사의견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낸다.
- (3) 편집위원회는 등급 판정의 이유를 소정 양식의 공문으로 해당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논문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공주대학교 재외한인문화연구소 『재외한인 문화연구』 연구윤리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조 (위원회의 소집)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외한인문화연구』의 심사 및 발행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소장의 청원에 의해 소집한다.

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선출) 위원장은 『재외한인문화연구』의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위원: 5인 이내
3. 간사: 1인

4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투고자의 학술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 심사
- 2)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한 징계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사항 의결

5조 (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 ①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②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③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④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2) 연구자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①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②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③ 연구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6조 (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소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3)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4)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5)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반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반복 여부를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6)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심사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7조 (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사의 위촉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심사 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8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소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판정될 경우 부정 제소는 제소자 본인, 부정행위는 부정행위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2) 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를 의결하고 소장에게 보고한다.
- 3) 소장의 승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징계 처분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항목을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① 부정 제소자

- 『재외한인문화연구』 영구 투고금지
- 다음 학술지를 통한 조치 사항 공지
- 학계 및 피소자에 대한 공개 사과

② 부정행위자

- 『재외한인문화연구』 영구 투고금지
-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다음 학술지를 통한 조치 사항 공지
- 학술지 목차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하고 그 이유를 적시
- 학계 및 제소자에 대한 공개 사과

9조 (행정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간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

고한다.

- 3) 공주대학교 재외한인문화연구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칙

01.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주대학교 재외한인문화연구소 규정

제정 2015.2.19.

개정 2018.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대학교 재외한인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연구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 조사 및 연구
2. 학술 강연 및 연구발표회 개최
3. 학술지 『재외한인문화연구』 발간
4. 연구자료 수집, 논문집 및 작품 전시, 기타 간행물 발간
5.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3조(소장)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기능) 연구소에는 연구기획부, 학술연구부, 재정관리부, 국제교류부, 출판부를 둔다.

1. 연구기획부는 연구과제의 기획과 연구비 수주, 연구 관련 전시 및 학술대회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한다.
2. 학술연구부는 재외한인문화 관련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재정 관리부는 연구소의 재정과 운영, 연구 성과 관리 등을 담당한다.
4. 국제교류부는 재외한인문화와 관련된 대학, 단체 등과의 학술 및 인적 교류, 홍보 등을 담당한다.
5. 출판부는 학술지 『재외한인문화연구』 발간 및 재외한인문화 관련 서적 간행의 기획과 출판에 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전임대우연구교수, 연구원 임용 등) 연구소에는 책임연구원, 전임대

우연구교수, 박사후연수연구원(Post-Doc), 객원연구원, 산학 협동연구원, 명예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책임연구원을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2. 전임대우연구교수, 박사후연수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객원연구원, 산학 협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수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 중에서 운영회의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4.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소장을 당연직으로 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편집위원회) ① 연구 간행물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제8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용역연구비와 국가 또는 보조단체의 연구보

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회계년도)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 유종렬(공주대)

위 원: 김남석(부경대)

박지훈(공주대)

이상갑(한림대)

정끝별(이화여대)

최정순(배재대)

홍혜원(충남대)

김재국(중국 항주사범대학)

김 게르만(카자흐스탄국립대학)

최인나(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Mirkurbanov N.M.(우즈베키스탄 니자미사범대학)

Peter Lee(University of Queensland, 호주)

재외한인문화연구 제2권

발 행 일: 2018년 11월 30일

발 행 인: 김 영 미

편 집 인: 재외한인문화연구소 편집위원회

발 행 처: 공주대학교 재외한인문화연구소

연 락 처: Tel) 041-850-8170

Fax) 041-855-2353

제 작 처 : 한국문화사
